

라니의 여행앨범3 (이집트, 스페인)

㉠anee(라니)



소개글

2012년 겨울 이집트 여행기

2007년 겨울 스페인 여행기

목차

1	울직한 마음으로 이집트 여행길에 오르다.	8
2	[이집트 룩소르] 이집트 최대의 신전, 카르나크(카르낙) 신전을 만나다.	21
3	[이집트 룩소르] 마차 타고 마을 구경	98
4	[이집트 룩소르] 밤하늘 아래 빛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룩소르 신전	113
5	[이집트 룩소르] 나일강 서안의 왕가의 계곡으로...	160
6	[이집트 룩소르] 하트셉수트 장제전	187
7	[이집트 룩소르] 멤피스의 거상이라 불리우고 있는 아멘호테프 3세의 석상	230
8	[이집트 룩소르] 나일강에서 배타기	243
9	[이집트] 룩소르에서 아스완까지 이어지는 시골 풍경	274
10	[이집트] 아부심벨 신전에서 눈물을 흘리다.	301
11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스완 하이댐	347
12	[이집트] 미완성 오베리스크가 있는 아스완 채석장	367
13	[이집트 아스완] 나일강에서 펠루카를 타다.	375
14	[이집트] 바하리야 사막 (샌드마운틴, 흑사막)	391
15	[이집트] 바하리야 사막 (크리스탈 사막 등)	410
16	[이집트] 바하리야 사막의 하일라이트 백사막	428
17	[이집트] 카이로	471
18	이집트 여행의 하이라이트 기자의 세 피라미드와 스피נק스	488
19	[이집트 카이로] 나일강 디너 크루즈를 타고 공연도 즐기고 야경도 즐기고...	512
20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케이트베이 요새	533
21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사진만 있어요.)	544
22	스페인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 세비야에 도착하다.	554
23	세비야에서 맞는 2007년 새해 아침	559
24	(세비야) 뜻 밖의 행운 마에스트란사 투우장	563
25	(세비야) 강변 도시 세비야를 지킨 망루 '황금의 탑'	566

26	(세비야) 왕족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 루이사 공원	572
27	(세비야) 김태희가 춤추던 바로 그 곳, 스페인 광장	579
28	(세비야) 스페인 광장의 모자이크 타일 벤치	586
29	(세비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무대였다는...	592
30	(세비야) 무리요(Murillo) 공원과 롯시니 집	597
31	(세비야) 미로처럼 골목이 이어져 있는 '산타 크루즈 거리'	602
32	(세비야) 세계문화유산인 '세비야 대성당'	610
33	(세비야) 세비야 거리를 걷다.	616
34	타리파로 이동중 (안달루시아의 들판)	622
35	스페인의 휴게소 풍경	626
36	타리파로 이동 중.	631
37	타리파로 이동 중에 보았던 이름 모를 도시의 풍경	635
38	타리파 도착, 모로코 탕헤르를 향하여 출발	638
39	햇살이 아름다운 말라가의 아침	648
40	코르도바로 이동중..	656
41	코르도바의 명동이랄까...그 거리를 걷다.	662
42	(코르도바) 텐디야스 광장	667
43	(코르도바) 텐디야스광장 주변의 길거리 둘러보기	672
44	(코르도바) 소설 카르멘 속에 등장하는 '코레데라 광장'	678
45	(코르도바) 유대인 마을을 지나며...	682
46	(코르도바) 모스크와 성당의 묘한 어울림 '메스키타'	686
47	(코르도바) 알카사르를 향해 골목을 걷다.	697
48	(코르도바) 알카사르	701
49	(그라나다) 이렇게 큰 도시였다구??!!	711
50	(그라나다) 음악과 함께하는 멋진 식사	714

51	(그라나다) 플라멩코에 취하다.	717
52	(그라나다) 무사히 살아서 알함브라로... *^^*.	723
53	(그라나다) 알함브라 궁전	729
54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카를로스 5세 궁전	732
55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나사리 왕궁 (메수아르의 방)	736
56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나사리 왕궁 (대사의 방)	741
57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나사리 왕궁 (아라야네스 중정)	745
58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나사리 왕궁 (사자의 중정)	750
59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나사리 왕궁 (아벤세라헤스의 방)	753
60	(그라나다) 알함브라 나사리 왕궁 (다락사의 정원?)	756
61	(그라나다) 알함브라를 구한 워싱턴 어빙	759
62	(그라나다) 그림으로 보는 알함브라의 나사리 왕궁 구조	764
63	(그라나다) 알함브라 나사리 왕궁을 나와 ...	767
64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알카사바(성채)	772
65	(그라나다) 알함브라 - 헤네랄리페 가는 길	780
66	(그라나다) 알함브라의 헤네랄리페	784
67	(그라나다) 알함브라 헤네랄리페의 아세키아 중정	787
68	(스페인) 거대한 황소는 왜 저기 서있을까?	793
69	아이스크림 자판기	796
70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에서 라만차의 마드리드로...	799
71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803
72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가다	807
73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스페인 광장까지...	813
74	(마드리드) 스페인 광장이 이렇게 한적하다니...	817
75	마드리드 왕궁에서 본 행사 (땡 잡은 거야)	822

76	(마드리드) 왕궁 주변 I	831
77	(마드리드) 산 프란시스코 엘 그란데 성당과 톨레도 문	836
78	마드리드는 공사중	839
79	톨레도 가는 길	842
80	(톨레도) 타호강의 알칸타라 다리에서...	846
81	(톨레도) 하늘에 반하다.(톨레도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며)	852
82	(톨레도) 구시가의 골목을 누비다.	861
83	(톨레도) 산토 토메 성당에서 엘 그레코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867
84	톨레도 대성당(카테드랄)	873
85	(톨레도) 스페인 내란의 격전지였던 알카사르	887
86	톨레도 특산물 구경하기	890
87	마드리드의 야경	895
88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898
89	(바르셀로나) 스페인 광장 주변(몬주익 언덕으로 올라가던	906
90	(바르셀로나) 마법을 볼 수 없는 마법의 분수	911
91	카탈루냐 미술관 앞에서 바라보는 바르셀로나	914
92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의 올림픽 주 경기장과 주변	919
93	바르셀로나 해안을 따라...	926
94	바르셀로나의 상징 콜럼버스 탑	930
95	바르셀로나 고딕지구에서...	936
96	바르셀로나 유일의 투우장 '모누멘탈'	943
97	(바르셀로나) 가우디 건축의 白眉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947
98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탄생의 문	953
99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수난의 문	966
100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내부	977

01

울적한마음으로 이집트 여행길에 오르다.

2011년 12월 29일 (목)

이집트 룩소르로....



이젠 그만 할 때도 되었다며 언제부턴가 조금씩 망설여지는 마음도 생겼지만 때가 되면 습관처럼 나는 또 여행길에 오른다.

이번 여행지는 이집트...

이집트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탓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걱정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허나 그것은 내게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

그런 이유가 분명 아닌데도 내 마음은 편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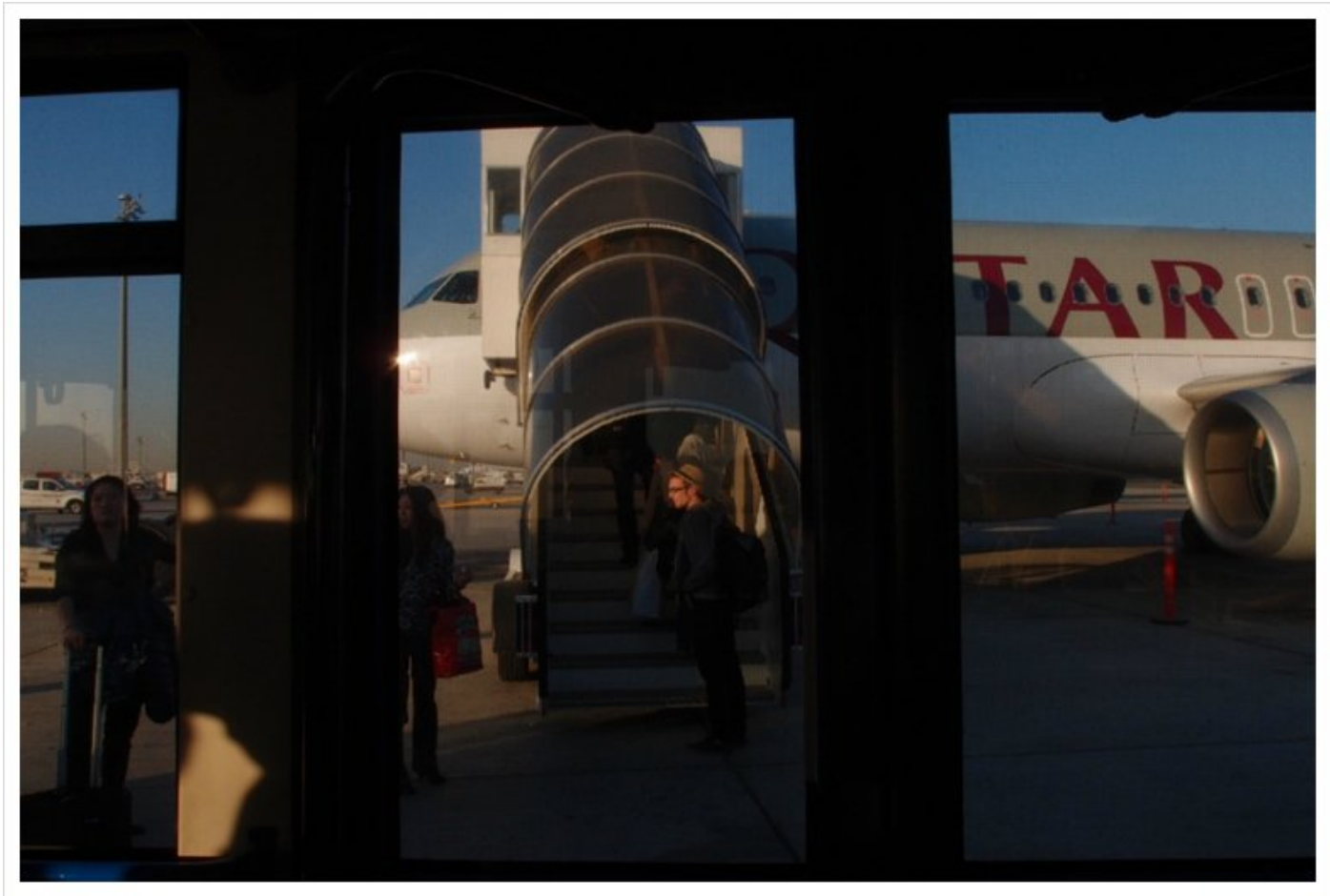
설레임 한가득이어야 할 가슴 속에서 설레임을 찾아볼 수 없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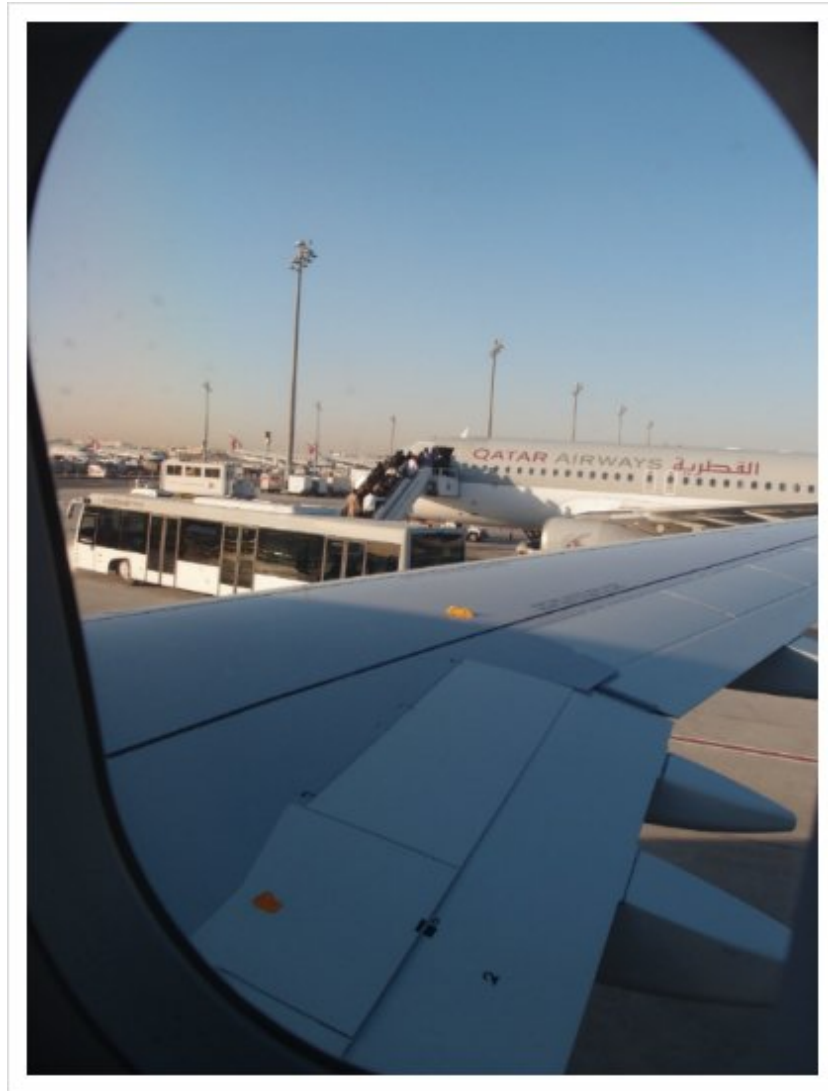
카타르 항공의 0시 35분 출발 비행기를 타고 경유지인 도하로 향한다.
동행이 없어 가는 내내 혼자만의 시간이다.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나는 결국 책과 씨름할 판...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하에 도착.
아찔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아찔한 순간을 넘기고 ...



약 두 시간 후 이집트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텐데 지난 밤을 거의 샀음에도 눈에 졸음이 없다.
지금부터 다시 3시간이 넘는 비행...



안내 방송이 없어도 이집트가 가까워졌음을 저 땅만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열 두번의 여행을 다니면서 하늘에서 이런 저런 모습의 땅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땅의 모습.
 정말 풀 한 포기 자랄 것 같지 않은데 저런 곳 어딘가에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겠지.



드디어 룩소르 공항 도착.



한국을 떠날 때까지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설레임의 물결이 조금씩 느껴지는 듯도 하다.



초췌한 모습으로 어찌 관광을 시작하나 했는데 일단은 호텔에 들려 잠간의 휴식을 취하고 점심을 먹은 후 관광을 시작한단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이어지는 차창 밖 풍경들...

생각했던만큼 덥지는 않았지만 한국과는 다른 햇살이 느껴지고, 이집트스러운 발굴현장들이 보이고, 그 유명한 나일강도 보인다.



그리고 호텔...

정형화된 호텔의 모습이 아니어서 좋고, 12월이라고 꾸며놓은 호텔 외벽의 산타와 루돌프 사슴이 이집트가 주는 이미지와 부조화인 듯 하면서도 재미있어 좋다.



▲ 이집트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실내의 모습



호텔 외벽의 산타는 이집트스럽지 않은 듯 했지만 실내로 들어오니 그야말로 이집트에 와있음을 실감케 하는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나의 손가락이 정신없이 분주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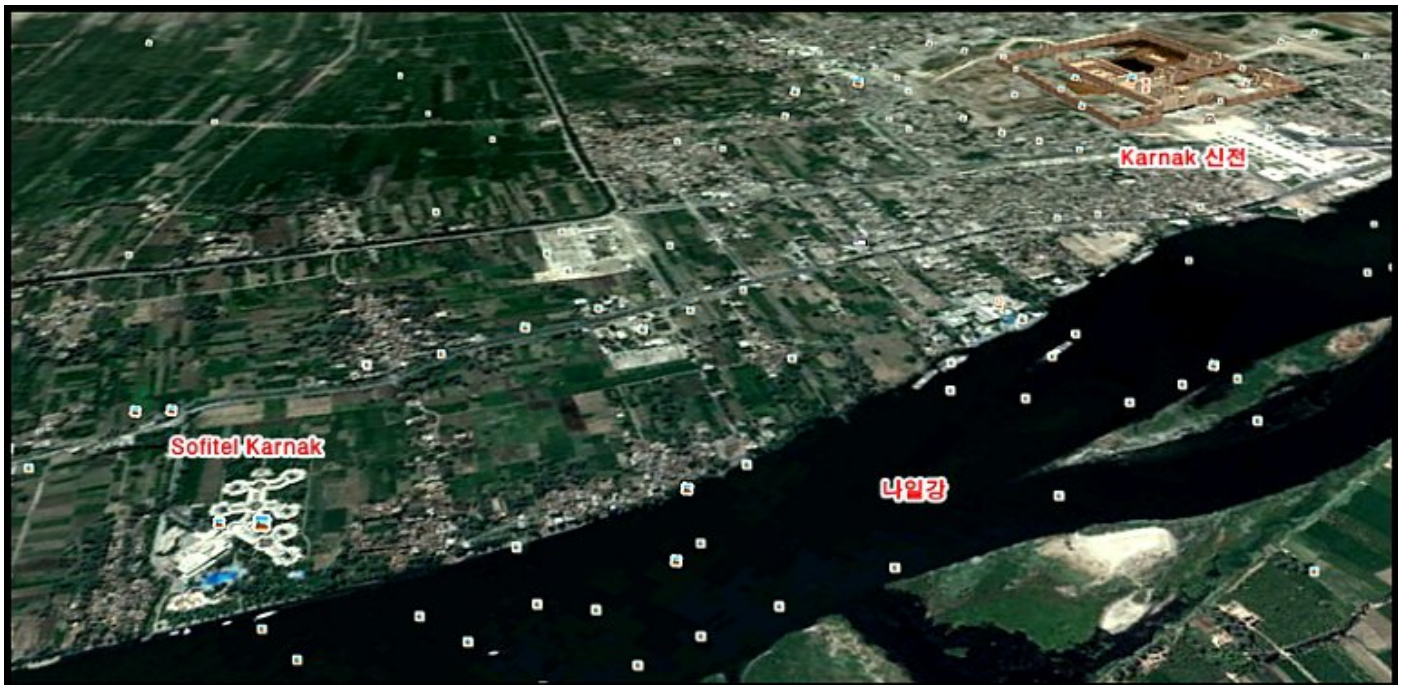
게다가 호텔의 뒤뜰엔 수영장과 실외 식당까지...

겉에서 볼 땐 아주 작은 호텔 같았는데 안으로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큰 규모와 알차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 호텔의 모습에서 울적했던 그 기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날아가고 기분이 마구 좋아진다.



이집트 관광객이 줄어들어 호텔방이 남아도는지 추가비용 없이 방도 혼자 쓰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선 한번도 없던 일....

한국에선 비록 울적한 기분으로 떠나왔지만 이집트에서의 시작이 이렇게 좋으니 이번 여행도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다. ^^



다음편엔 이집트 최대의 신전인 **카르나크 신전**에 대해 써 볼게요.

02

[이집트 룩소르] 이집트 최대의 신전, 카르나크(카르낙) 신전을 만나다.

2011년 12월 29일 (목)

Ranee in Luxor

-카르나크 신전-

룩소르는 고대 이집트 신왕국시대의 수도, 테베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고대의 시인 호머가 룩소르를 가리켜 '100개의 문이 있는 테베'라고 표현했을만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며 지금도 다양한 고대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 다양한 유적 중 우리가 첫번째로 보고자 하는 유적은 이집트에 남아 있는 신전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다는 카르나크 신전이다.



카르나크 신전은 약 4천년 전인 이집트 **중왕국**의 **제12왕조** 때 처음으로 축조되어 그 이후 약 2천년에 걸쳐 많은 역대 파라오들의 왕권 강화와 국가 번영을 위해 개축과 증축을 반복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며 **카르나크 대 신전**의 부(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이 카르나크 신전 주변에 65개의 마을에 10만명의 인구가 살았었다고 한다.



카르나크 대신전은 보존 상태가 좋은 중앙의 **아몬(아멘, 아문)** 신의 신역과 그 남쪽에 **무트** 여신의 신역, 북쪽에 테베 지방의 원래의 토착신 이었던 **몬투(멘투)** 신의 영역, 이렇게 세 신전 영역으로 된 복합체를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보려는 신전은 카르나크 대신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몬 대신전**이다.



▲ 아몬 대신전의 구조 ▲

기원전 27년경에 일어난 지진으로 신전의 일부가 무너졌고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를 믿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등에 의해 성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때론 신전의 돌이 다른 용도로 재사용되기 위해 빼내지기도 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다고 해도 제 모습을 알기 어려운 곳이 많다.

나폴레옹 군이 이집트에 진주할 때만 해도 신전은 모래더미에 묻혀 있는 상태였으며 발굴이 진행되던 1899년에도 11개의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이 때 무너진 기둥들은 다시 복원 되었다고 한다. 1860년 프랑스 고고학자 오귀스트 마리에트의 발굴 작업에 이어 20세기에 들어서도 많은 발굴이 이루어져 현재 전체의 약 1/4 정도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라고.



▲ 신전 앞 검색대 ▲



스핑크스의 길 (Avenue of Sphinx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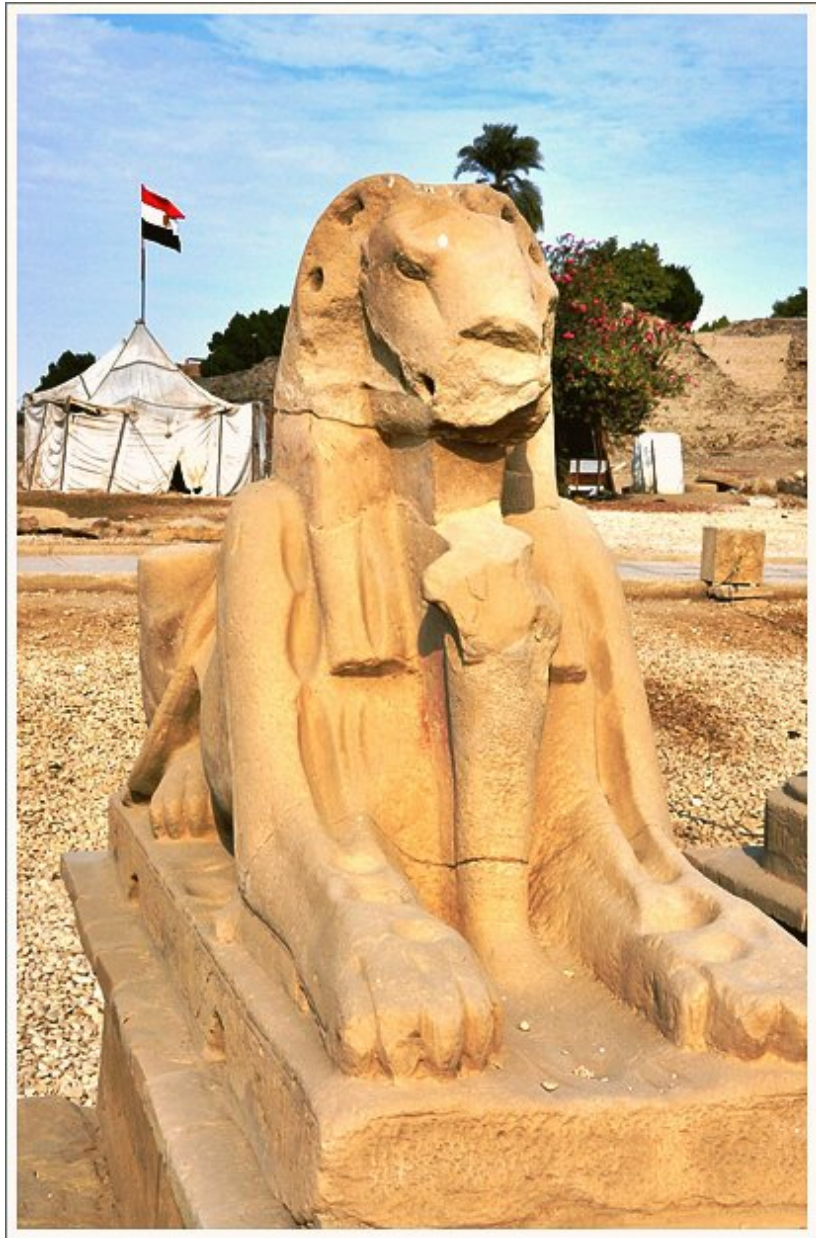
신전 앞의 검색대를 거치고 나면 **스핑크스**들이 양쪽으로 즐비하게 앉아 있는 **참배길**이 나타난다. 그 옛날 **파라오**와 **신상**을 실은 배가 나일 강을 거슬러 올라와 신전으로 향하기 위해 지났던 곳.



▲ 참배길의 �핑크스들 ▲



아툼이라 불리우는 이 �핑크스들은 람세스 2세가 만든 것으로 아몬 신을 상징하는 산양의 머리에 사자의 몸을 하고 있으며 두 발 사이에는 람세스 2세의 작은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다.



지금은 끊겼지만 이 참배길은 원래 이곳에서 2Km떨어진 곳에 있는 **룩소르 신전**과 연결되어 있었다고하는데 현재 룩소르 신전 앞에도 이러한 참배길이 남아 있다.



제1탑문 (First Pylon)



참배길의 끝에 **아몬 대신전**의 입구인 **첫째 탑문**이 우뚝 서 있다. 높이 43m에 폭 113m의 이 탑문은 **제30왕조**의 초대 파라오 **넣타네보 1세**가 세운 것으로 거대한 성문처럼 생겼으며 이집트에서 가장 큰 탑문이라고 한다.

벽에는 19세기의 방문자들이 남긴 낙서 외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으며 탑문에 뚫려 있는 네모난 구멍들은 외부의 침입자를 경계하기 위해 뚫어 놓은 것이라고.



▲ 제1탑문 ▲

거대한 2개의 성벽을 마주보게 쌓아놓은 탑문은 카르나크에서 처음 선보인 양식으로 마주보고 있는 두 성벽은 2개의 산을 의미하며 그 사이의 입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의 길을 뜻한다. 탑문 위에는 깃대가 꽂혀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깃발은 신의 입김으로 생각했다고.



▲ 제1탑문을 들어서며 남긴 인증샷 ▲



대내원 (Forecourt)



첫째 탐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신왕국 제22왕조** 때 증축한 **첫째 안마당(대내원)**이 나온다.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큰 안마당으로 **람세스 2세** 때 신상이 행진을 하던 곳이다.



제1탑문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왼쪽의 사원은 세티 2세가 만든 성주사당(聖舟祠堂)이다. 테베의 세 신인 아몬(아멘), 무트, 콘수(콘스)가 오페트 축제때 사용할 성스러운 배를 보관하던 곳이라 하며 세티 2세 신전 쪽 벽에는 파피루스 형상의 기둥 머리 장식을 한 18개의 기둥이 열주회랑을 형성하고 있다.



▲ 세티2세 신전 & 열주 회랑 & 타하르카(타하르코) 기둥들 ▲



제1탑문을 지나 오른쪽 중간에 보이는 신전은 람세스 3세 신전이며 그 옆쪽으로 부바스티스 기둥으로 불리는 기둥들이 회랑을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이 기둥의 이름이 부바스티스가 된 이유는 이 기둥들 끝에 제22왕조 수도인 하이집트의 삼각주에 있던 부바스티스의 이름을 딴 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회랑 앞에도 참배길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아몬 신을 상징하는 �핑크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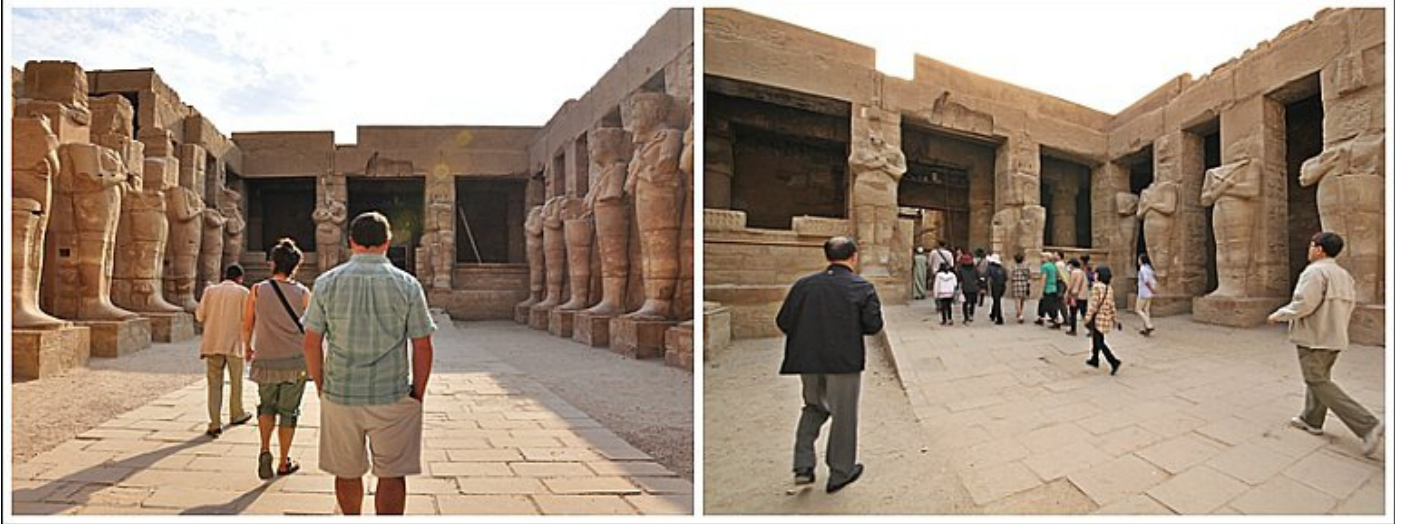


이제 **람세스 3세 신전** 안으로 들어갈 볼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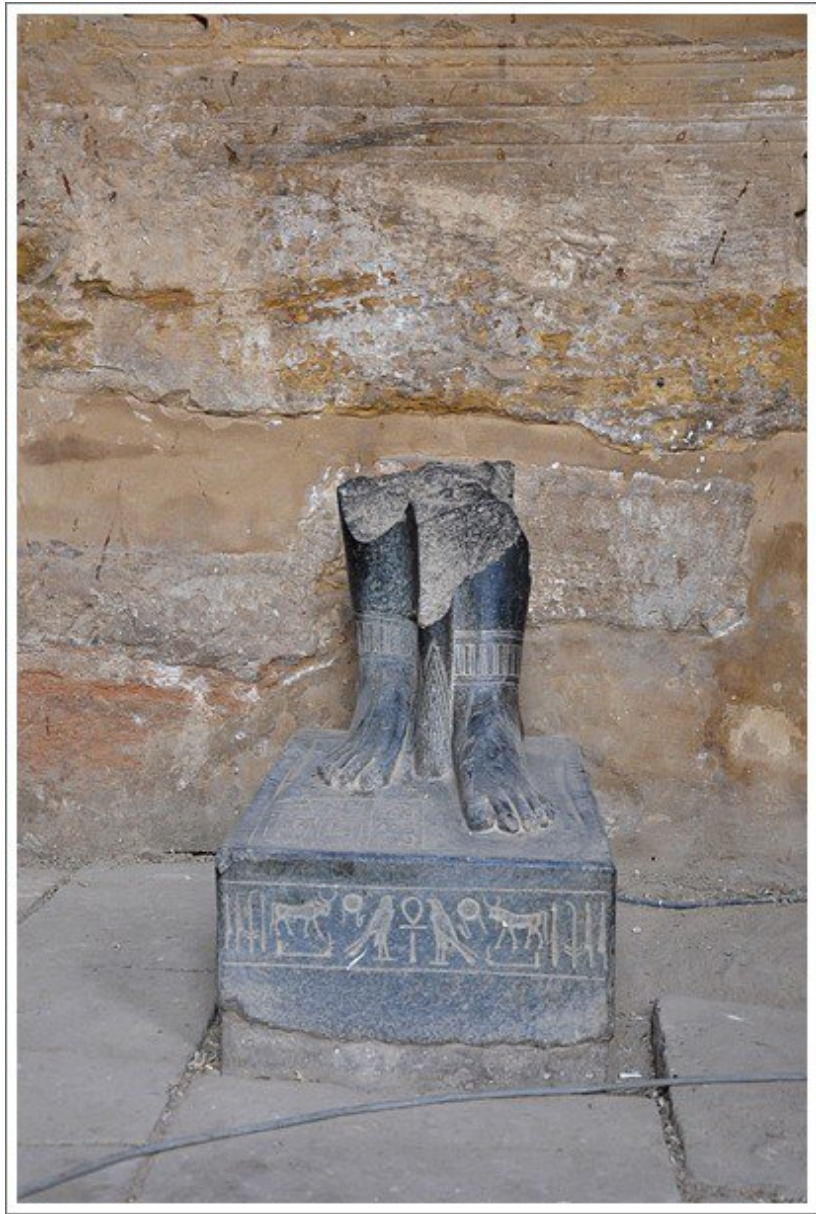
람세스 3세 신전의 입구에는 좌우로 **람세스 3세**의 석상이 세워져 있으며 벽에는 깃털 장식을 하고 있는 **아몬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인다.



▲ 람세스 3세 신전 입구의 람세스 3세 상 ▲



람세스 3세 신전은 신왕국 시대의 신전을 작게 축소시켜 놓은 곳으로 신전의 작은 안마당에 양쪽으로 오시리스 신 모양을 한 파라오의 기둥이 들어서 있고 맨 안쪽에 작은 기둥 홀과 성소가 있다.



이 발의 주인은 누구인지...
두 발만이라도 남아 버티고 서서
세월을 견디어 내고 있음이
짚~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 신전 내부의 벽화 ▲



▲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 석상들 ▲



▲ 석상들과 신전 입구 ▲



▲ 신전 입구 안쪽에 새겨진 그림들 ▲

양쪽 벽에 대칭으로 새겨진 그림들도 아몬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모습인 듯...



▲ 람세스 3세 신전 ▲



람세스 3세 신전을 나와 대내원 중앙의 타하르카 (타하르코) 주랑으로...



첫째 안마당의 중앙, 제2탑문 앞에는 거대한 기둥 하나만이 온전히 남아 있고 나머지는 뚝뚝 잘려져 나간 기둥들이 서있는 폐허가 있다. 말기 왕조시대 제25왕조의 누비아 출신 파라오 **타하르카** (B.C.690~664)가 만든 것으로 원래는 10개의 거대한 **파피루스 기둥**을 가진 **기둥 복도**였다는데 지금은 기둥 하나만 남아 있고 남아 있는 기둥도 피사의 사탑처럼 한쪽으로 기울어 1928년 해체를 한 후 다시 복원해 놓은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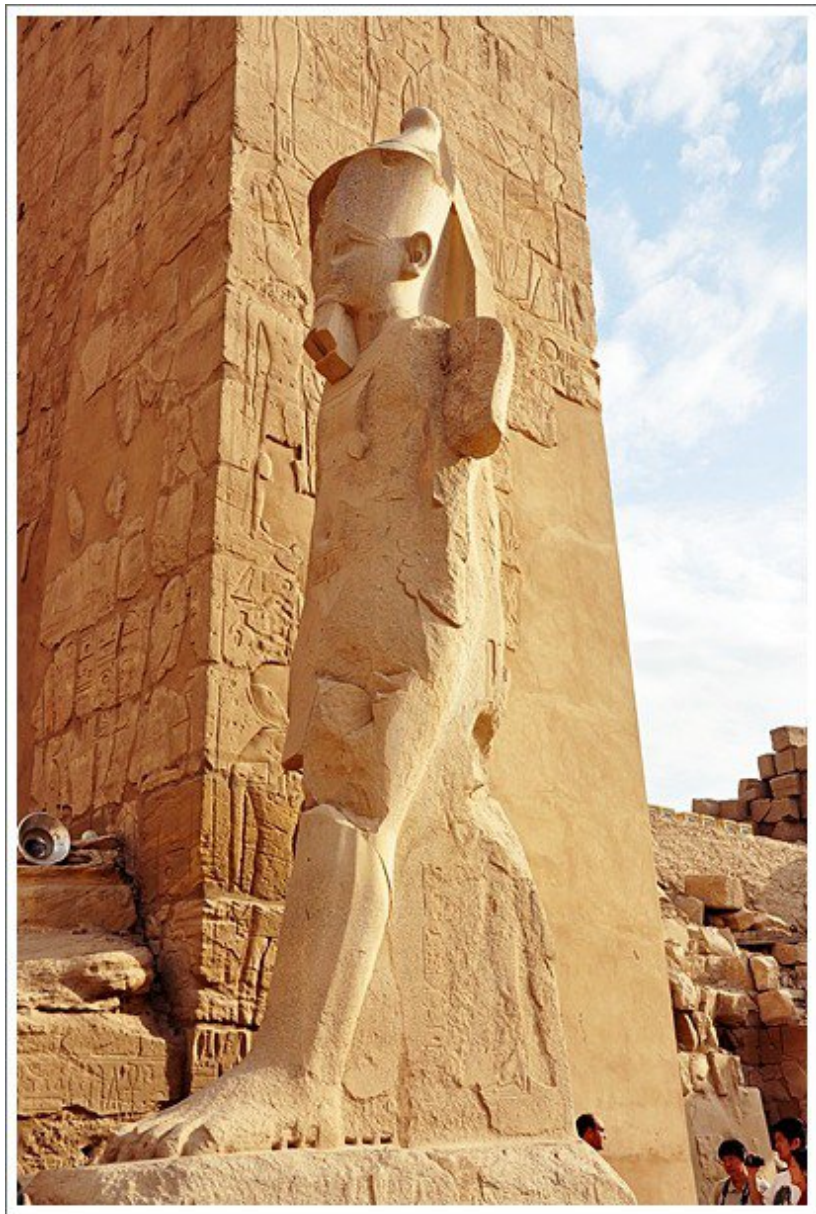
▲ 기둥은 연꽃 줄기를, 위에 둥글게 퍼진 부분은 파피루스 꽃을 형상화 했다는 타하르카 기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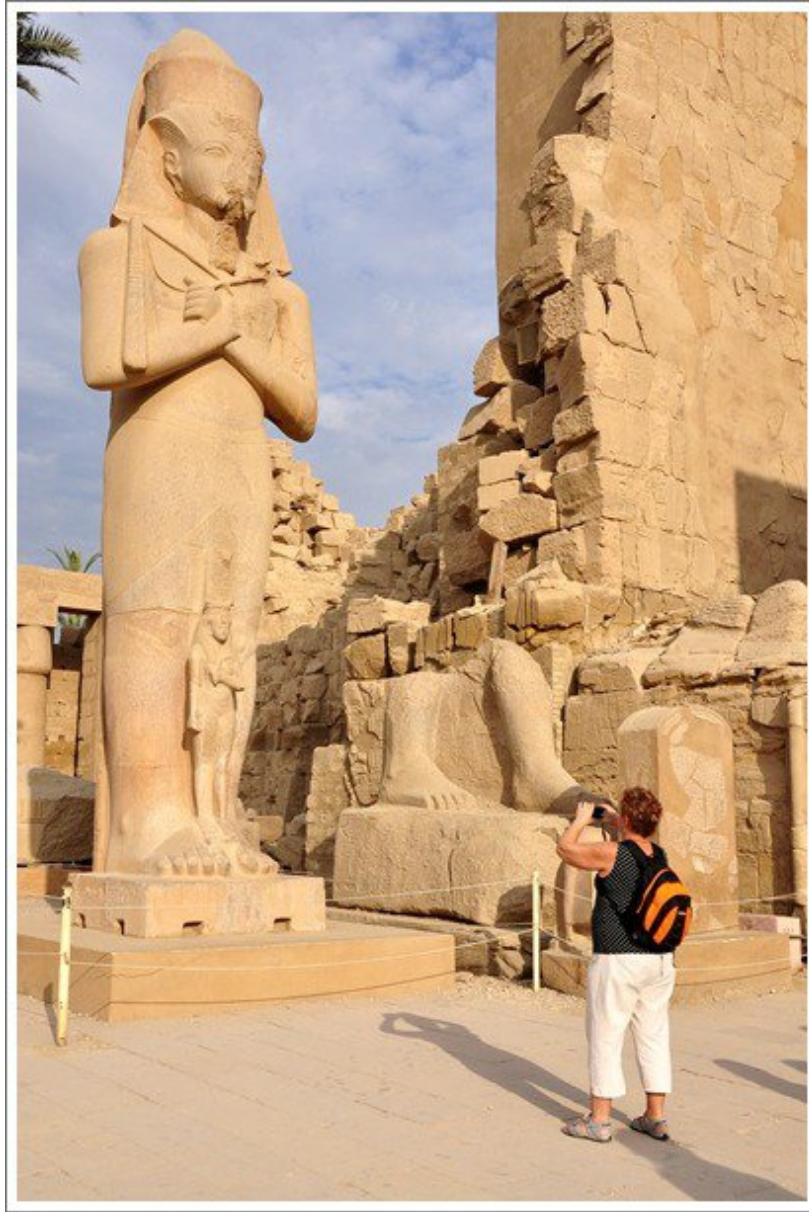
제2탑문 (Second Pylon)



타하르카 기둥 뒤로 제2탑문이 보인다. 신왕국 제18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인 호렘heb 때 착공하여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 때 완공한 탑문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복원되면서 당시의 부조들로 장식을 했다고 한다. 탑문 앞에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람세스 2세의 거상이 서 있다. 원래는 하나가 더 있었으나 다른 하나는 파괴되어 현재 다리만 남아 있는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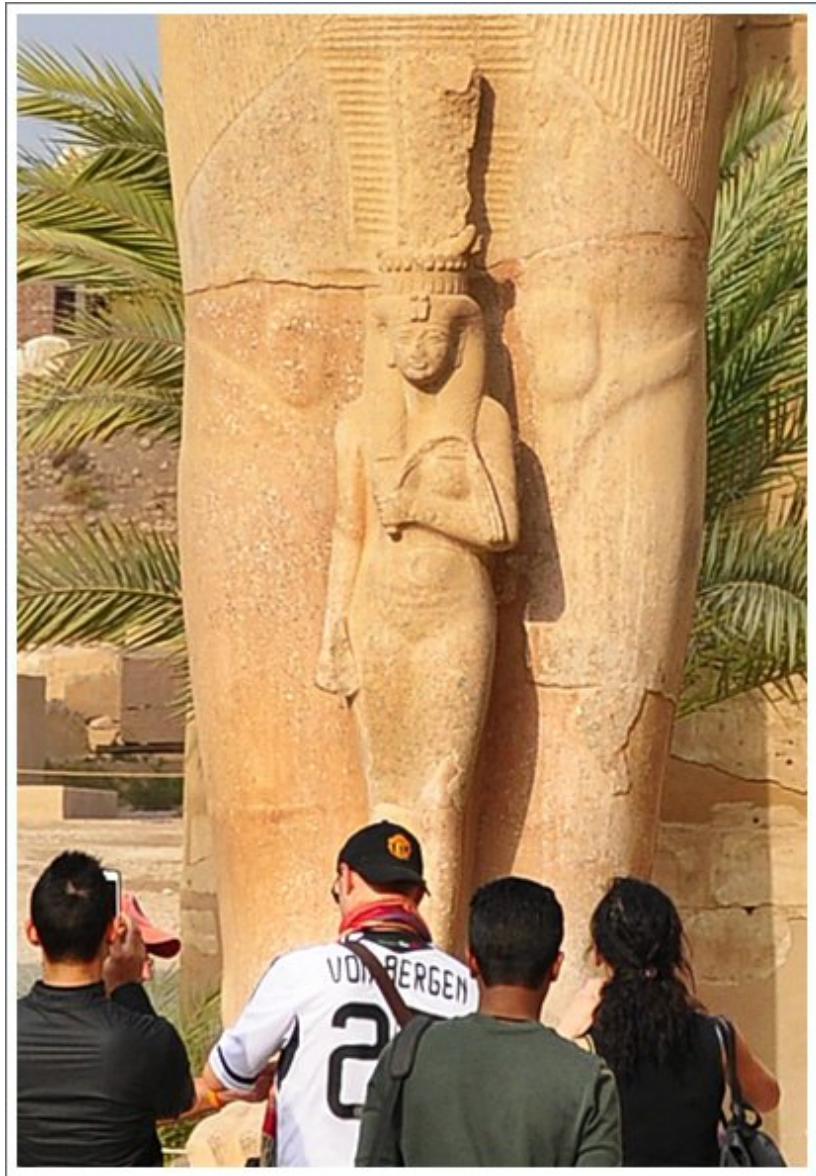


▲ 람세스 2세의 거상 ▲



▲ 피네젬의 석상 ▲

피네젬(Pinedjem)의 석상이라 불리는 붉은 화강암으로 만든 이 거대한 석상은 실제로는 **람세스 2세의 석상**이다. 람세스 2세의 석상이 피네젬의 석상이라 불리는 이유는 제21왕조시대 아몬 신의 신관이었던 **피네젬**이 자기 이름을 석상에 새겨 놓아 그렇게 불리우기 되었다고. 석상의 다리 앞에는 람세스 2세의 왕녀의 작은 석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인 **벤탐타**라는 딸이라 한다.



▲ 람세스 2세의 왕녀 ▲



▲ 제2탑문의 부조 장식 ▲



대다주실(Great Hypostyle Hall)



둘째 탐문을 지나면 카르나크 신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대다주실(大多柱室 큰 기둥 홀)**이 나온다. 이 기둥 홀은 고대 이집트의 기념건축물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134개에 이르는 거대한 기둥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듯 하다.

신왕국 제18왕조의 아멘호테프(아메노피스) 3세〈 B.C.1388~1351〉 때 착공하여 **람세스 2세** 때 완공되었다고.



큰 기둥 홀의 중앙에는 **아멘호테프(아메노피스) 3세**가 세운 **파피루스 기둥**이 2열로 6개씩 **12개**가 서 있다. 높이 21m, 직경 3.6m의 큰 기둥으로 활짝 핀 파피루스 꽃 모양의 기둥머리는 그 둘레가 15m나 된다고.



아멘호테프 기둥의 양쪽에는 람세스 2세가 세운 122개의 기둥이 서 있다. 그 높이가 13m에 직경이 2m의 큰 기둥으로 기둥머리는 꽃 봉오리 모양의 파피루스로 장식되어 있다.



이 홀은 원래 지붕이 덮여 있었고 중앙의 기둥들 위로 나 있던 채광창을 통하여 햇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 고대에는 중앙의 기둥들만 햇빛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지붕은 없어지고 그 흔적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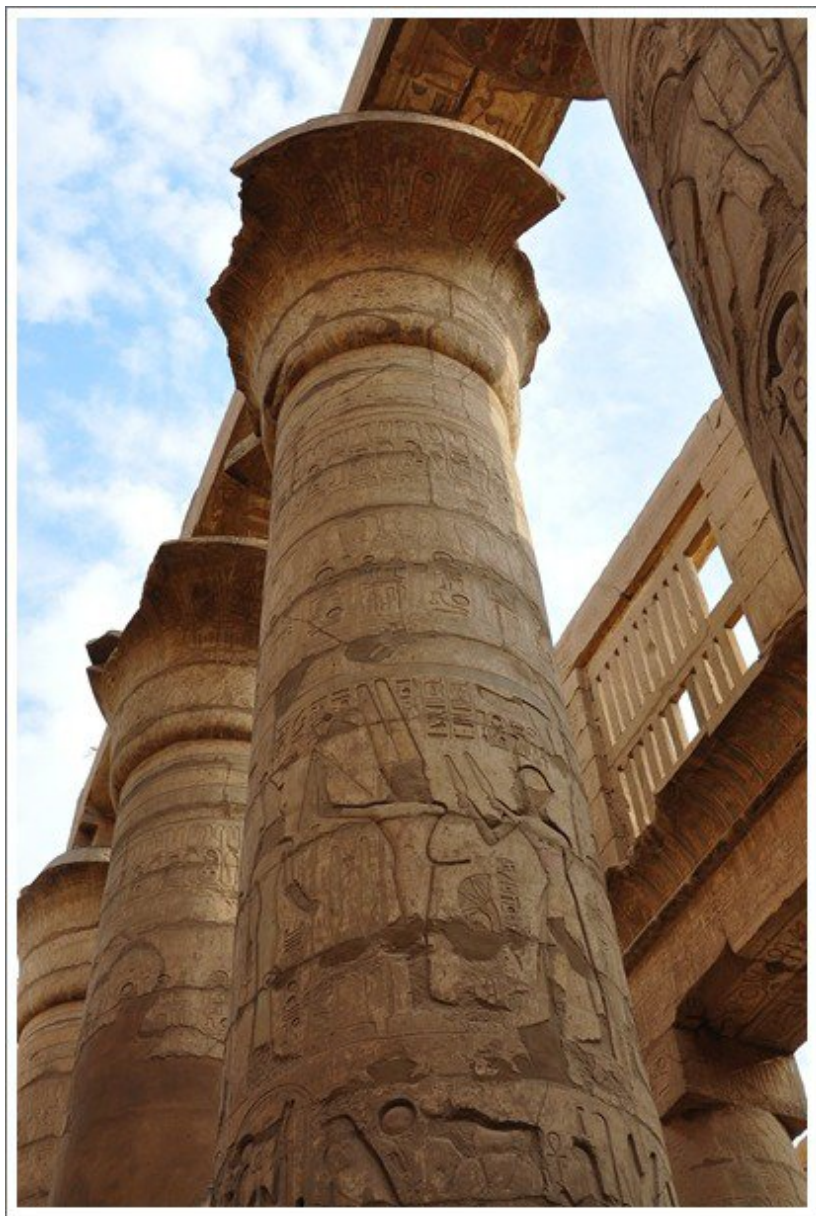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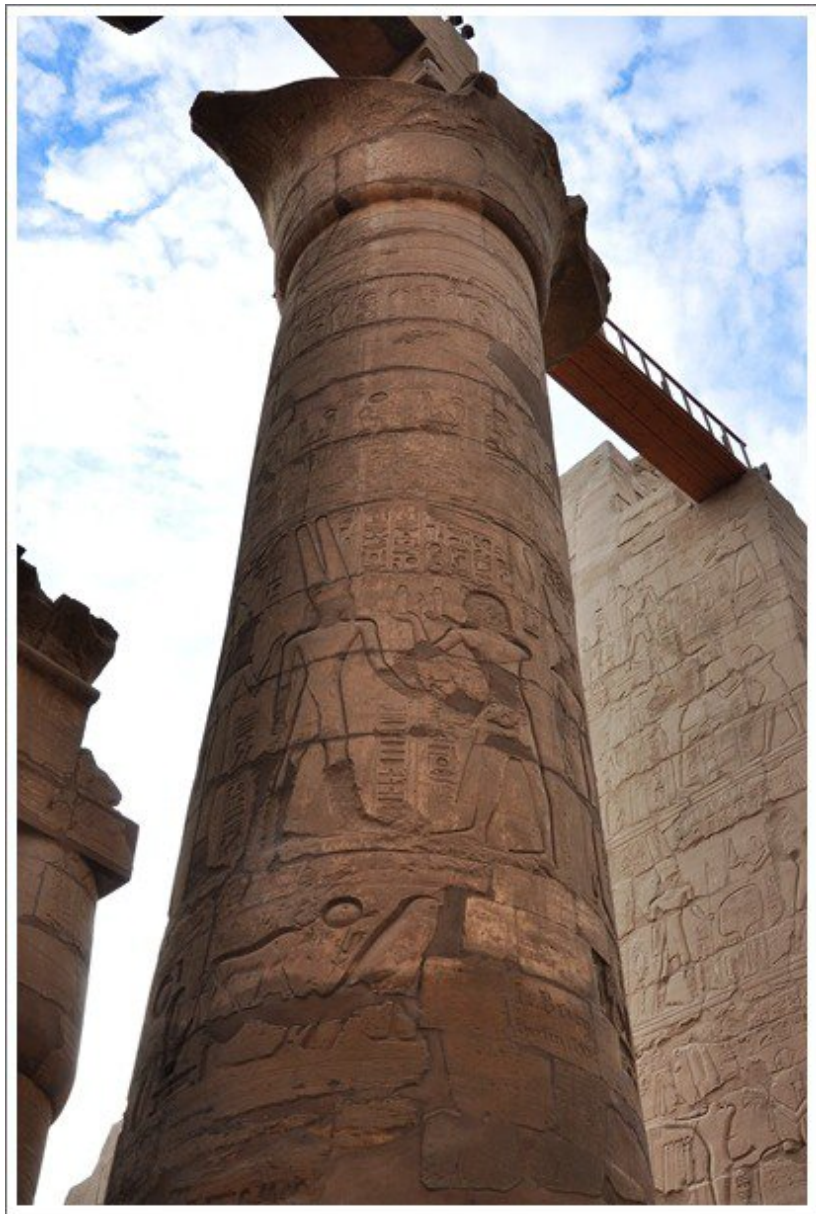
파피루스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원초의 바다>에 태양빛이 비쳐 천지가 창조되는 창조신화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대다주실



돌기둥에는 **투트모세(투트모시스, 투트메스, 투트모스) 3세**의 연대기, 왕명표 등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와 파라오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 성스러운 배의 행렬, 신전에서 생활모습 등의 돌새김들이 새겨져 있다.







▲ 파라오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 ▲



기둥들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숫자와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행을 하다보면 관광지마다 몇 년에 누구 누구 다녀감 이란 낙서들을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다만 다른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연도 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것... 1817년이면 거의 200년 전이 아니던가...휴~



넋을 놓고 바라보다 보니 저쪽으로 **오벨리스크**들이 보인다.



투트모세 1 세 오벨리스크와 하트셉수트 오벨리스크다.



제3탑문 (Third Pylon)



▲ 부서진 제3탑문(?) ▲



제3탑문은 지금은 사라진 아멘호테프 3세 신전으로 들어가는 탑문이었다.



제3탑문과 제4탑문 사이에는 기원전 13세기 무렵, 투트모세 1세가 세운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 원래는 투트모세 1세가 세운 오벨리스크 2개와 투트모세 3세가 세운 오벨리스크 2개, 총 4개의 오벨리스크가 있었으나 현재는 투트모세 1세가 세운 오벨리스크 하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투트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로마의 라테라노의 산 조반니 광장에 서 있고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투트모세 3세의 오벨리스크 중 하나는 이스탄불 히포드룸에 서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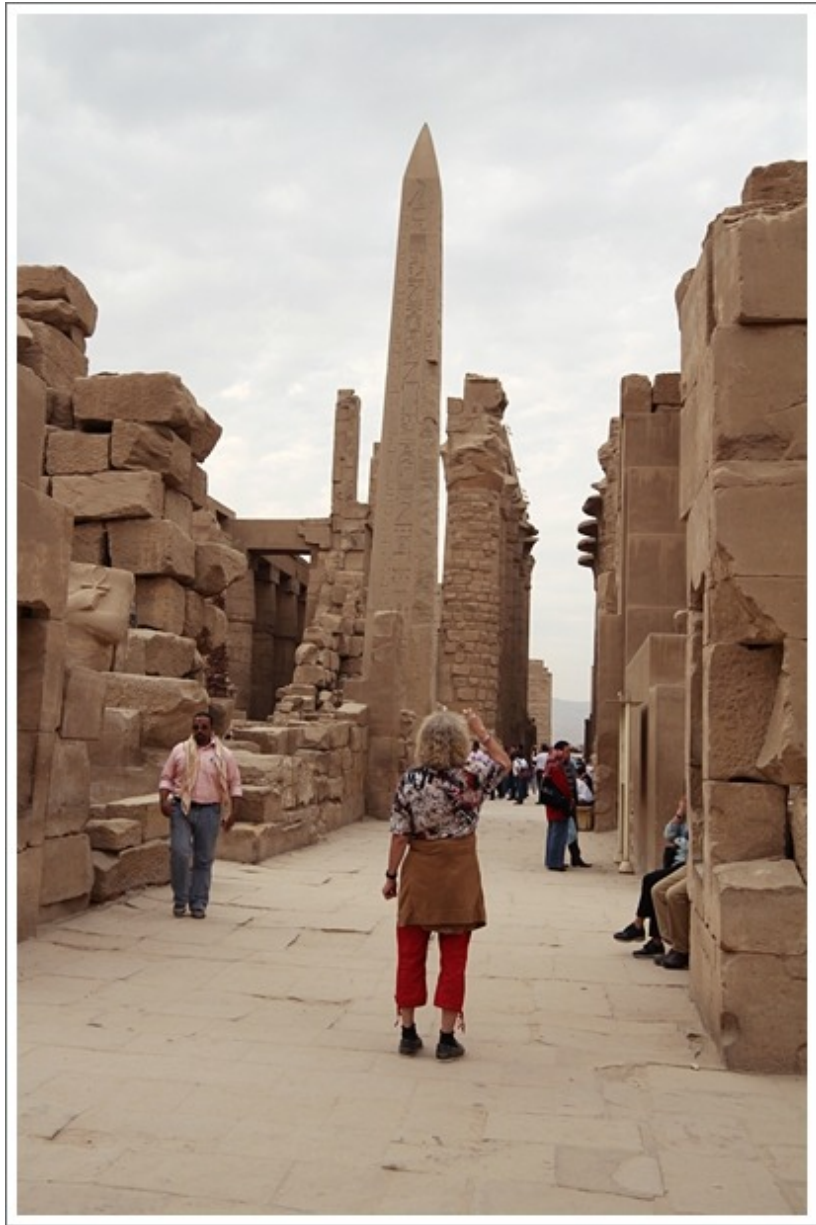
관련글 (터키 이스탄불 히포드룸의 오벨리스크): <http://blog.daum.net/mirolove/6962903>



▲ 높이 23m, 무게 143t의 투트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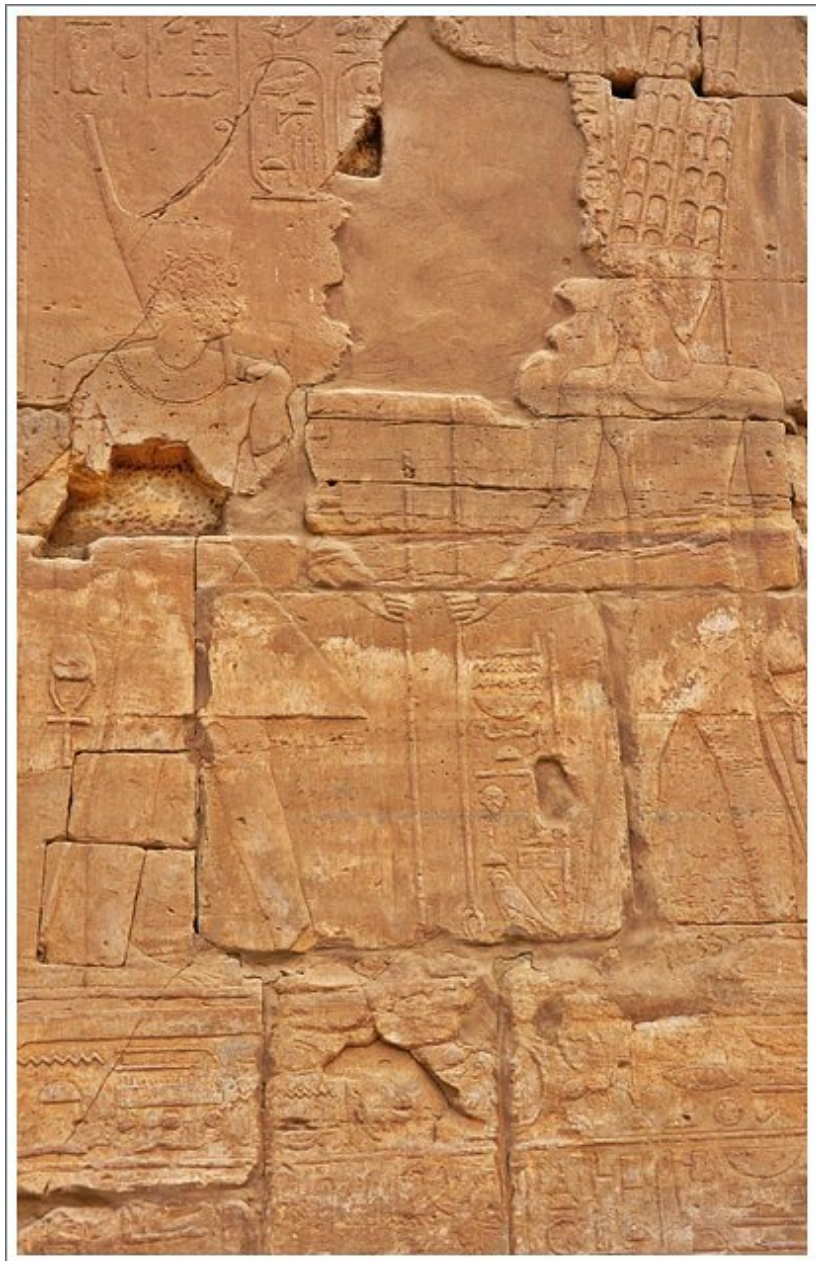
오벨리스크는 원래 쌍으로 세우는데 현재 이집트에 남아 있는 오벨리스크 중 쌍으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한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오벨리스크처럼 후계자에 의해 파괴 되기도 하고 방관하는 정부의 무심함으로 인해 외국으로 반출된 것도 많기 때문이다.



제4탑문 (Fourth Pylon)



중왕국 제12왕조 (B.C.1994~1781) 때 건설된 옛 신전을 신왕국 들어 확장하면서 만든 탑문이다.



▲ 탐문 벽에 새겨 놓은 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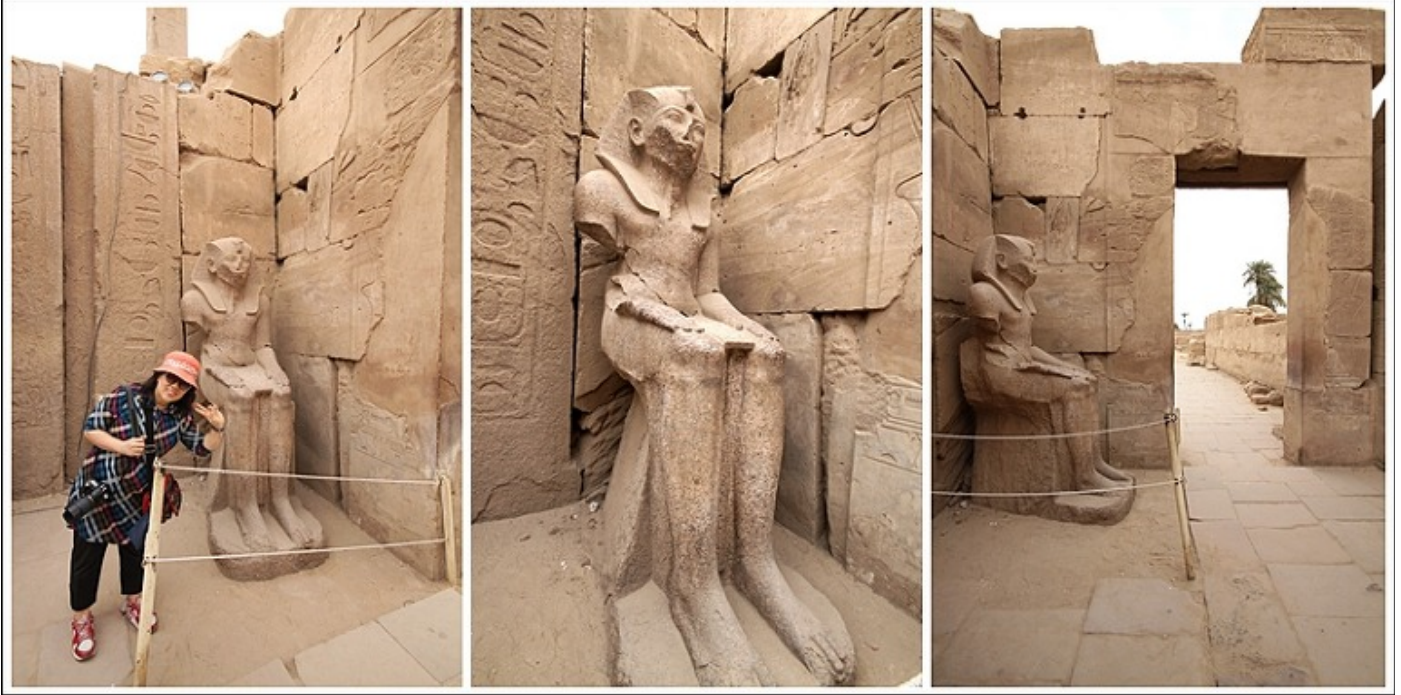
제4탑문과 제5탑문 사이에는 **하트셉수트** 여왕이 세운 높이 30m, 무게 323t의 **아스완**산의 붉은 화강암으로 만든 오벨리스크가 서 있다.



하트셉수트 여왕이 세운 2개의 **오벨리스크**는 자신의 섭정 30주년을 기념해 베풀어진 축제 때 세운 것으로 하나만 제대로 서있고 나머지 하나는 **신성한 연못** 가까이 넘어진 채 땅 위에 누워 있다.



제4탑문 주변~ 투트모세 3세의 향연실 (Festival Hall of Thutmose III)



제4탑문 주변엔 부서진 신전들이 여러 채 보이고 ...



온전치 않은 석상들도 보인다.



제5탑문은 현재 사라져 버리고 없으며 제6탑문은 투트모세 3세가 세운 탑문인데 많이 훼손되어 반만 남아있으며 투트모세 3세가 정복한 주위 민족, 도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진 속의 탑문이 제6탑문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음.)



투트모세 3세 향연실 (축제전)로...



투트모세 3세의 향연실 (축제전)이다. 42개의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이 향연실은 파라오의 왕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원하는 의식과 향연이 베풀어지던 곳이다. 멀리서만 봐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멘 신전의 식물원>이라고 불리는 이 향연실의 벽은 각종 식물의 돌새김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호테프 (아메노피스) 3세의 신성갑충 기둥 (Scarab of Amenhotep III)



이젠 아몬 대신전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곳을 볼 차례...
하트셉수트 오벨리스크가 있던 곳에서 오른쪽으로 나가 본다.



▲ 늘어서 있는 파라오의 석상들 중 하나 ▲



이곳도 부서진 신전 중에 하나인 건지 ???
뭔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것 같기도 하고...



성스런 연못이 있는 곳에 도착하니 넓은 터의 한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게 보인다. **아멘호테프 3세의 신성감충 기둥** 때문이다. 화강암으로 만든 이 풍뎡이는 행운을 의미해서 소원을 빌며 주위를 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란다. 모든 동물이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고대 이집트의 신들 중에는 동물 모양을 한 신이 많은데 풍뎡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곤충까지도 **케프리 신**이라는 **재생부활**의 신이었다고.



1번 돌면 행운이 찾아오고 3번 돌면 결혼하게 되며 7번 돌면 첫아이를 낳는다고 하는데 나도 1번 정도는 돌아줄 걸 그랬나 보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고 있는데도 사진 찍는데 정신이 팔려 돌아볼 생각을 못하다니....쩍!!



▲ 성스러운 연못 ▲

사제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어 마음을 정화했다고 하는 연못



▲ 투트모세 1세의 오벨리스크 (左),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 (中), 누워 있는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 (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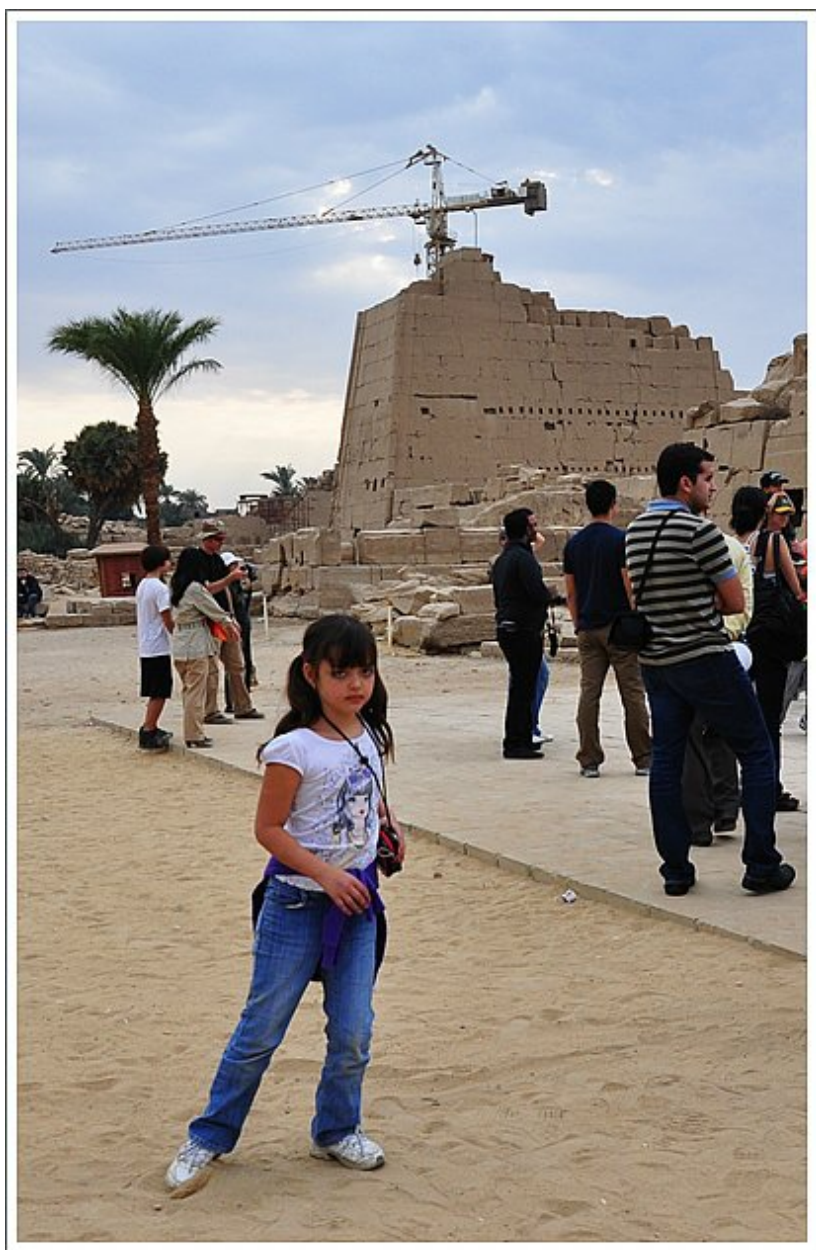


▲ 넘어져 있는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 일부 ▲

이 오벨리스크에 여왕의 아버지 투트모시스 1세를 기념하여 만들었다는 것과 여왕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히에로글리프(이집트의 상형문자)로 새겨져 있다.



투트모세 3세 (하트셉수트 여왕의 아들: 첩의 아들)에 의해 파괴되어 넘어져 있는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 뒤 쪽으로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세 1세 (하트셉수트의 아버지)의 오벨리스크가 나란히 보인다.



▲ 마네킹처럼 생긴 꼬마 아가씨 ▲



이제 아몬 대신전의 관람을 끝내고 되돌아 가는길.

투트모시스 3세의 축제전이 살짝 보이고...



제2탑문과 타하르카 기둥이 보이고...



그리고 첫째 안마당(대내원)...

<http://blog.daum.net/n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이렇게 오가는 사람이 많은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낮잠을 즐기는 건공들.
어쩌면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죽었나 걱정될 정도로 꼼짝도 하지 않는 걸 보면 말이다.



다시 제1탑문을 지나고...



스핑크스가 늘어선 참배길을 지나고 ...



이제 카르나크 신전과는 이별을 해야겠다.
속속들이 보지 못함이 정말 아쉽지만 말이다.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이 멋지고 웅장한 곳..
지금은 안녕이지만 이 감동과 놀라움 오래도록 간직할게.
안녕~

* 인명이나 지명 등을 비롯해서 역사적 사실들이 참고자료마다 달라 어느 것을 선택해서 써야 할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용 중 오류가 있더라도 신랄히 꼬집지 마시고 친절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03

[이집트 룩소르] 마차타고 마을 구경

2011년 12월 29일 (목)

Ranee in Luxor

- 시장구경 -



[룩소르 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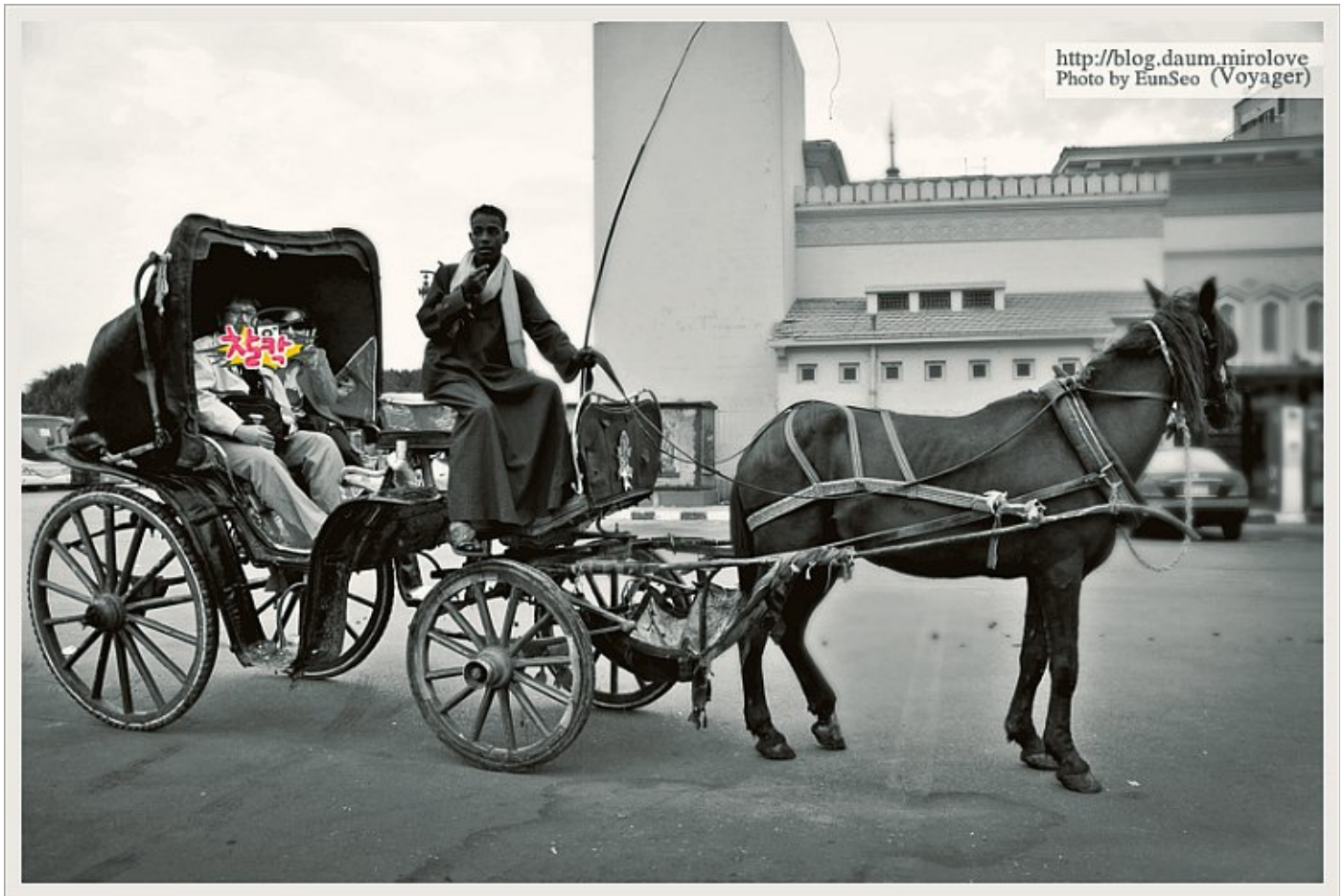
카르낙 신전 다음으로 룩소르 신전을 볼 차례지만 이왕이면 다른 분위기의 신전을 보고 싶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해진 후에도 관람이 가능하다는 룩소르 신전은 어두워진 후 조명이 켜진 모습을 보기로 하고 남은 시간은 마차를 타고 마을을 둘러 보기로 했다.



[룩소르 신전 앞 광장]

우리가 마차를 타고 출발할 곳은 룩소르 신전 앞 광장...

여행 때마다 다양한 탈거리를 체험해 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라 기분이 마구 좋다. 동행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마차에 올라타 출발하기 직전, 공항에서의 사건을 함께 겪은 인연으로 가장 먼저 가까워진 리쌤의 기념 촬영을 내가 해 드렸다.
덕분에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것도 한 장 생기고...
(이 정도면 초상권 침해 안한 거죠? ^^)



이건 내 인증샷..
마차 탄거 같긴 하나??? ㅎㅎ



마차가 경쾌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곳은 그래도 중심지라 그런지 비교적 도시스럽고 깔끔한 편.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천지가 다 시골스런 모습인데...



한동안 나일강변을 달리다 시장으로 들어 섰다.

이집트 현지인들의 주식인 에이쉬(이집트 빵) 파는 곳이 눈에 많이 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사서 먹는 모양이다.

그런데 허걱~

뒤에 걸린 빨간 것의 정체는???

인도 여행 때 많이 본 모습이라 그때만큼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응 안되는 모습이다.

기온이 높아도 항상 건조한 날씨라 가능한 것이라.



과일들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나 과일을 담아 놓은 나뭇 가지로 만든 상자가 눈에 들어 온다.
이집트 여행내내 볼 수 있었던...



마차가 줄줄이 시장 골목으로 진입한다.
누군가에겐 삶의 현장인데 그 좁은 길을 관광 마차를 타고 지나려니 미안한 마음이...



사진을 찍고 싶는데 요렇게 앞이 막혀서 도무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엠타 모르겠다. 그냥 찰칵 !! ㅋㅋ~



과일 가게와 또 다시 정육점(?)
냉장고 있는 가게는 정녕 없는 건지...



실내복인지, 잠옷인지, 속옷인지...
이슬람 여인들이 속옷을 화려하게 입는다더니 틀던대로인 듯 하다.
속에 입는 옷인데 장식으로 번쩍거리고 색도 울긋불긋하고.

<http://blog.daum.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시장을 돌고 다시 나일 강변을 달린다.

작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시장을 꽤 돌긴 한 것 같은데 앞이 막혀 있어서 사진을 거의 못 찍는데다 찍은 사진마저 전부 흔들려서 블로그에 올릴 사진이 없다.

아~ 좀 망송망송한데 어쩌나...ㅜㅜ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룩소르 신전 앞 광장에 도착했다.
날도 어두워졌고 이제 룩소르 신전을 관람할 차례...
조명을 받은 신전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해도 되겠지? ^^'



나일강변을 따라 룩소르 동안을 달리고 있어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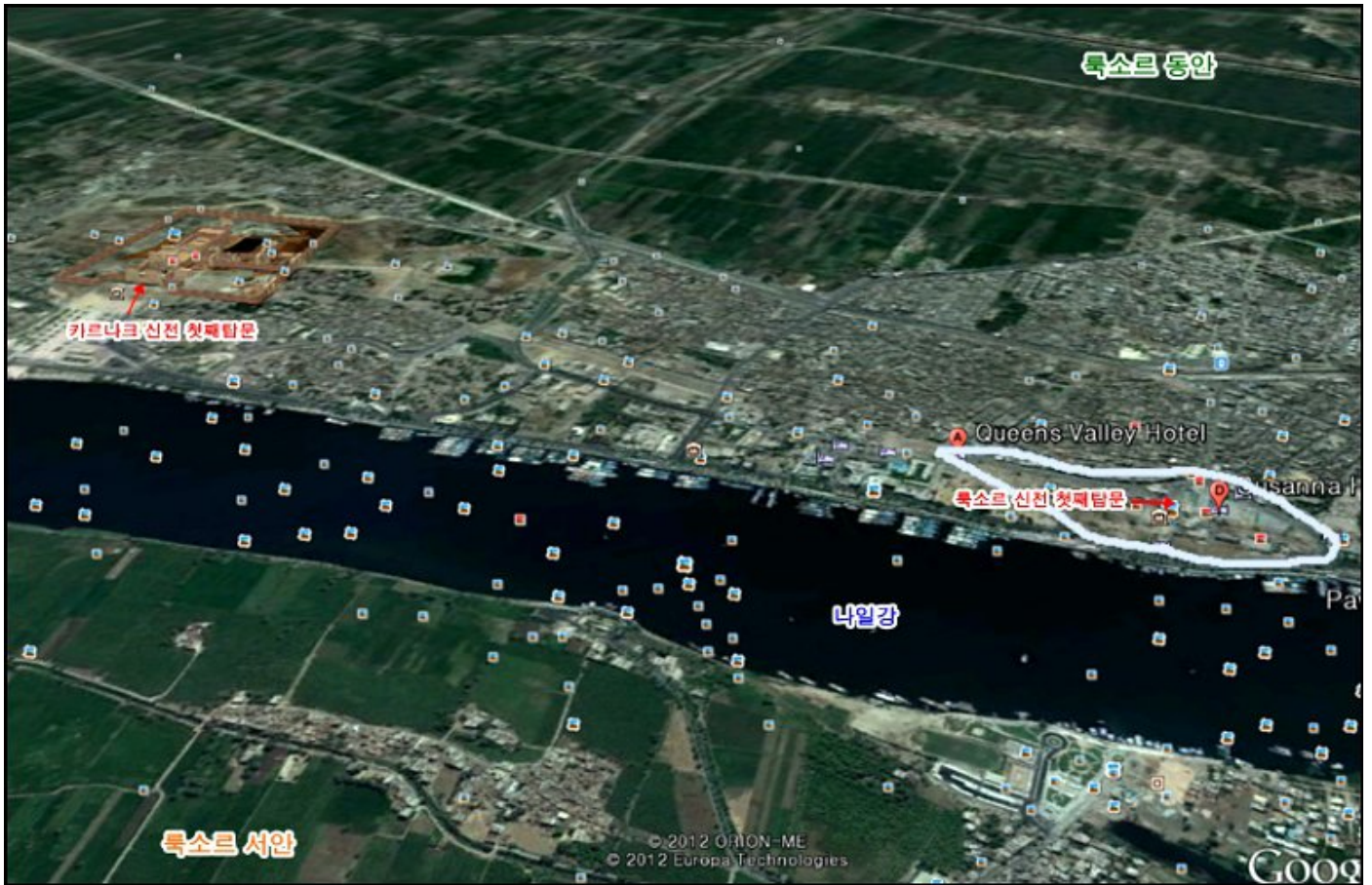
[이집트 룩소르] 밤하늘 아래 빛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룩소르 신전

2011년 12월 29일 (목)

Ranee in Luxor

- 룩소르 신전-

나일 강변에 위치해 있어 오가며 언뜻언뜻 보게 되었던 **룩소르 신전**을 이제부터 제대로 둘러보려 한다. 제1탑문만 보면 **카르나크 대신전**보다 훨씬 작은 신전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오가며 보았던 룩소르 신전의 옆모습은 카르나크 대신전에 비해 분명 작은 신전이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룩소르 신전에 대한 내 맘속 기대감이 신전의 크기에 비례하여 축소되어 있지는 않은 듯 하다. 조명이 더해진 룩소르 신전의 모습은 크기는 작아도 훨씬 신비해 보였으므로...



카르나크 대신전에서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룩소르 신전은 카르나크 대신전의 부속 신전으로 <아몬의 남쪽 궁전>이라 불렸던 곳이다.

제18왕조의 파라오들인 아멘호테프 3세 때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멘호테프 4세가 수도를 옮겨 아톤 신을 섬기는 새로운 신전을 짓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이후 어린 나이에 요절한 투탕카멘 당시 공사가 재개되었고 이어 람세스 2세가 거대한 탐문을 짓는 등 나머지 부분을 완성시켰으며 알렉산드로 대왕이 약간의 수정을 가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한다.

카르나크 신전과는 스팅크스 참배의 길로 이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끊기고 그 일부만이 남아 있는 상태.

카르나크 아몬 대신전보다 규모가 작은 것은 매년 나일 강이 불어나는 시기에 한번씩 열리는 '오페트 축제' 때만 사용하는 신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전 벽면 부조에는 당시의 축제 모습을 새긴 것이 많다.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는 **룩소르 신전**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들어 온다. 아름다움에 취해 입장권으로 찍는 인증샷도 깜빡하고 같은 모습만 수없이 찍어대고 있는 나... ㅎㅎ

너비 65m, 높이 25m의 첫째 탑문은 **람세스 2세**가 세운 것으로 북쪽을 향해 서 있다. 고대 **로마**의 **개선문**도 프랑스 혁명 직후 나폴레옹이 **파리**에 세운 **에투알 개선문**도 모두 이 탑문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크기는 카르나크 신전의 1/2보다 조금 큰 듯 하고 언뜻 보면 **카르나크 신전**과 비슷한 모습인 듯도 보이지만 **카르나크 신전**의 첫째 탑문 앞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오벨리스크**와 **파라오의 석상**들이 있는 게 다른 것 같다. 원래는 2개의 **오벨리스크**가 입구에 서있고 거대한 4개의

파라오 입상과 2개의 좌상이 도열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1개의 **오벨리스크**와 3개의 **입상**이 사라져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사라진 **오벨리스크**와 파라오의 입상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여행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사라진 오벨리스크 1개는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서 볼 수 있고 사라진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입상 3개 중 2개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나처럼 이집트보다는 파리 여행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때 이집트 여행을 먼저 한 사람들에 비해 감동이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2개의 오벨리스크 중 1개는 초석만이...

'태양이 뜨고 지는 지평선'이라 불린 이 오벨리스크는 람세스 2세가 만든 것으로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든 것이다. (높이는 25m)

오벨리스크 1개가 이곳에서 사라져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서 있는 이유는 1831년 이집트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프랑스의 전설적인 시민왕, 루이 필립에게 선물로 보냈기 때문으로 이 오벨리스크를 가져가 세우는데에만 약 5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어떻게 그 귀한 문화재를 다른 나라에 선물로 보낼 수 있는 건지...'

그만큼 자신의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이며, 문맹율이 50%이상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 역시 자신의 나라의 문화재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자긍심 같은 것을 느낄 여유도 없다고 한다.



파리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 <http://blog.daum.net/mirolove/3191716>





오벨리스크와 람세스 2세 좌상

루이 필립왕은 이 오벨리스크 선물에 대한 답례로 시계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시계는 카이로의 **알리 모스크**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오래전에 고장이 난 상태라고.



태양이 떠오르자 환호하는 원숭이들이 새겨져 있는 오벨리스크 초석



람세스 2세 좌상과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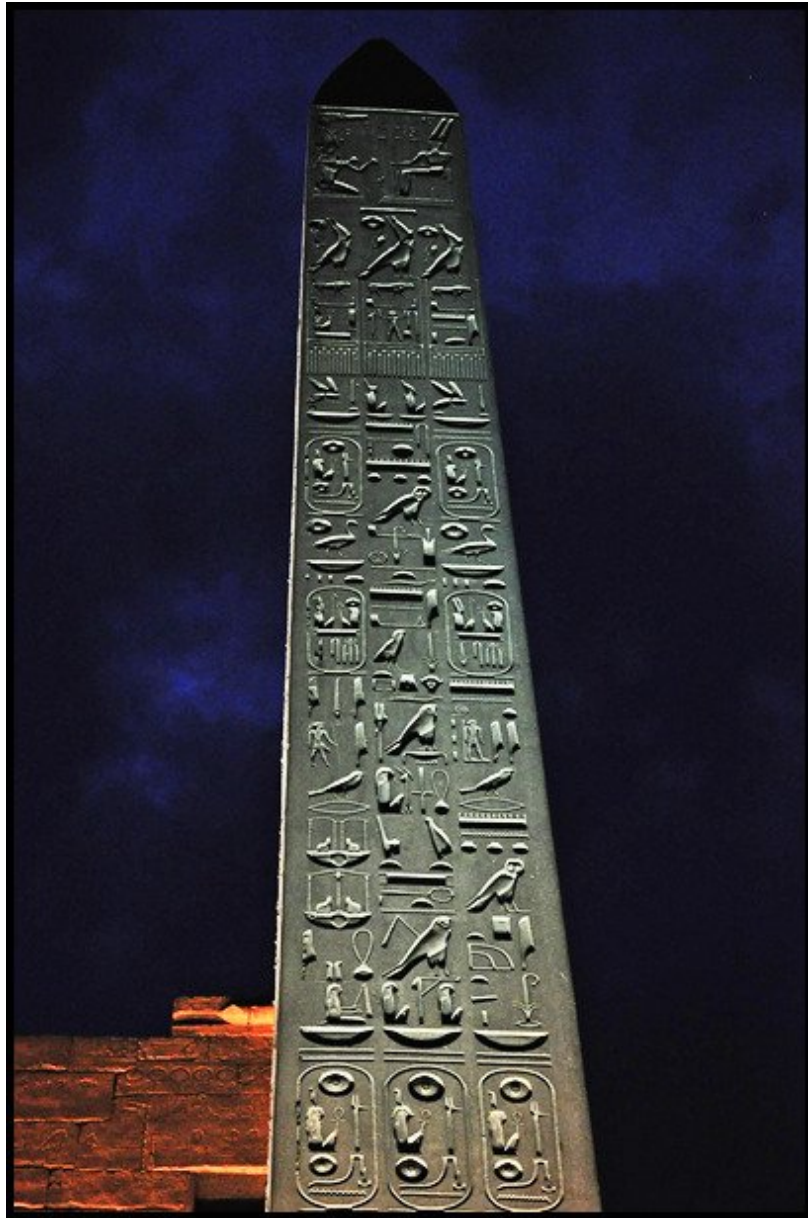


람세스 2세의 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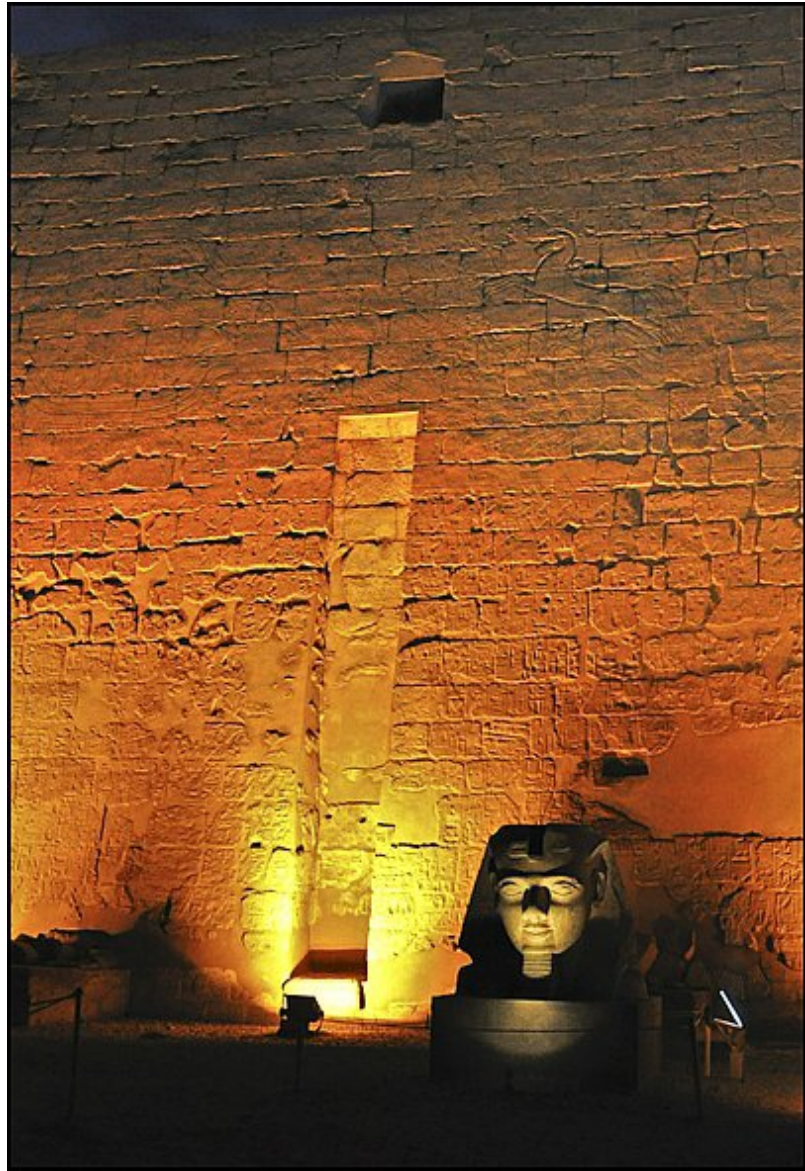
4개였던 람세스 2세 입상 중 2개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고
1개만이 이곳에 남아 신전을 지키고 있다. 나머지 1개는...



탐문 앞에 부서진 채 누워 있는 이 석상이 어찌면 바로 그 나머지 1개의 입상인지도...??



오벨리스크의 뾰족한 끝부분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모두 벗겨지고 흔적이 없다.
파리 콩코르드 광장의 오벨리스크는 새로 덧씌웠는지는 몰라도 금빛으로 번쩍있던데 말이다.



첫째 탑문의 바깥벽은 람세스 2세의 카데시 전투 모습을 새긴 돌새김과 그의 업적을 새긴 그림문자로 장식되어 있다.



전차에 올라 적을 물리치는 유명한 장면



람세스 2세의 업적을 그림문자로 새긴 제1탑문 바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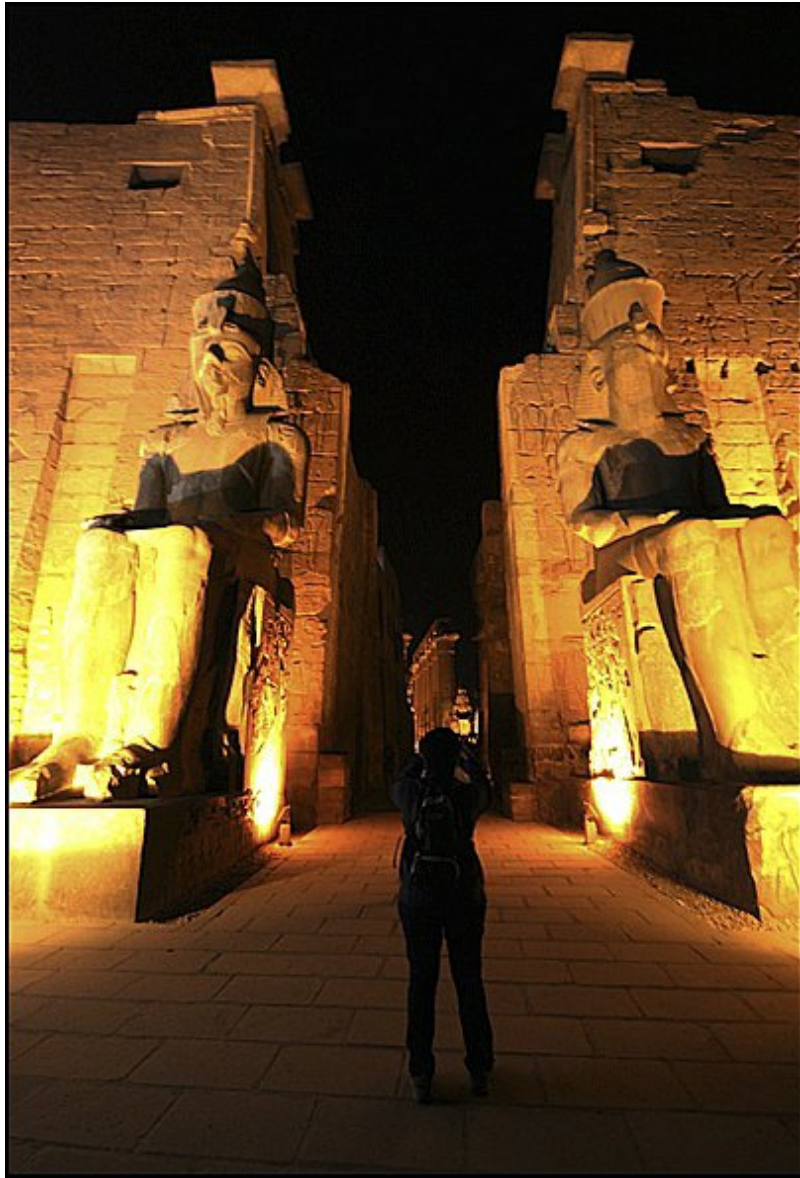
첫째 탑문에서 바라본 **스핑크스 길**이다. �핑크스 길은 **넵타네보 1세**가 만든 것으로 이 �핑크스들은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카르나크 신전까지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끊어져 이렇게 일부만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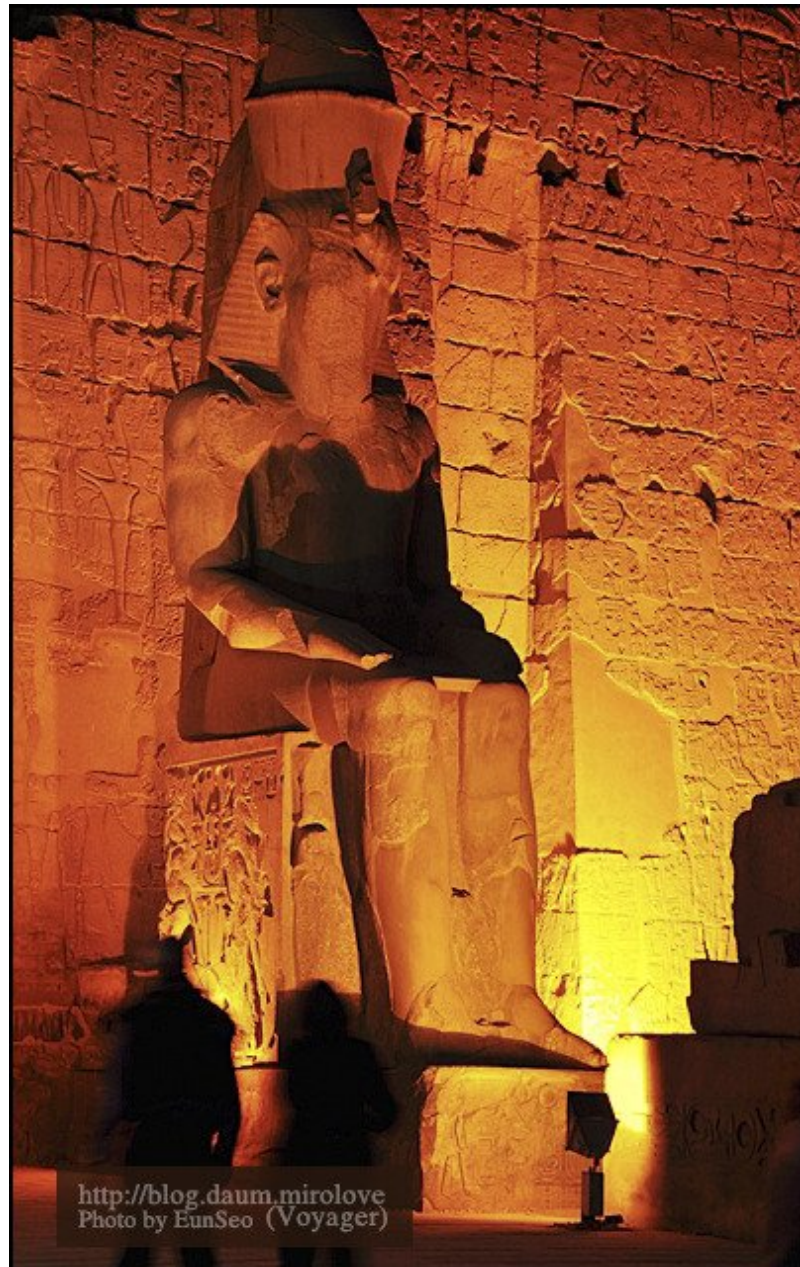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핑크스의 모습



제1탑문의 바깥 벽과 오벨리스크 초석의 원숭이들







제1탑문의 람세스 2세 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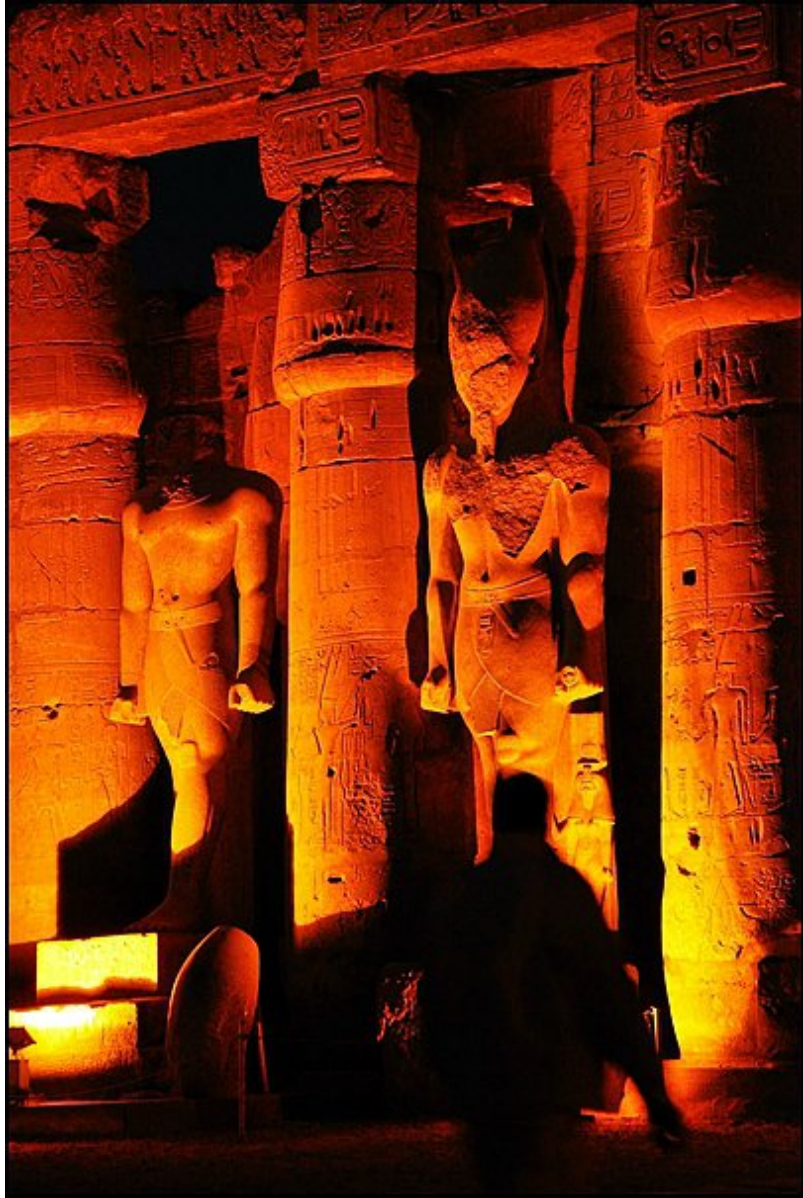
이제 탑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본다.



첫째 탑문을 지나면 72개의 파피루스 기둥이 에워싸고 있는 람세스 2세의 안마당 (람세스 2세 광장)이 나온다. 기둥 사이에는 람세스 2세의 입상들이 서 있다.



안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74개의 기둥들과 기둥들 사이의 람세스 2세 석상



기둥들 사이의 람세스 2세 석상



석상들은 주먹을 쥐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서 있는 모습이며 대부분의 석상들 머리는 떨어져 나가 발치에 내려 앉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한다.



안마당의 왼쪽엔 13세기 무렵 지은 **모스크**가 있는데 이슬람의 성자 **아부 알 핫가그**를 위해 지은 모스크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모스크라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회교사원이 되기도 하고 회교 사원이었다가 성당이 되기도 하여 서로 다른 종교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건물들을 스페인에서도 본 적이 있고 터키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나름 다 독특하고 멋지단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집트 신전 안의 모스크는 어쩐지 부조화스럽고 멋지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있는 것은 **성주 사당**으로 **테베**의 세 神(아문신, 무트 여신, 콘수신)이 타고 다닌 성스러운 배를 안치해 뒀던 곳이라 하는데 어떤 자료에는 람세스 2세가 세웠다고 하고 다른 자료에는 하트셉수트 여왕이 세웠다고 하며, 또 다른 자료에는 투트모세 3세가 세웠다고도 하여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 오래 전의 일이니 어떻게 정확한지 아는게 어려면 더 신기한 것일지도.... ㅎㅎ



성주 사당과 모스크 (뒤로 보이는 것은 제1탑문)



성주 사당 오른쪽 열주들 뒷쪽 벽의 벽화들 중 일부

벽화에는 탑문과 오벨리스크 기공식,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는데 사진도 선명하지 않고 그림을 봤다는 것만 기억될 뿐 그림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설명을 잘 못쓰겠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보시게 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제2탐문 양쪽의 람세스 2세 좌상들

이제 람세스 2세의 안마당에 이어 람세스 2세의 석상이 서 있는 둘째 탐문을 지나 룩소르 신전의 중심인 큰 기둥 복도를 지난다.



기둥홀의 측면 모습

기둥복도(기둥홀, 열주회랑)는 아멘호테프 3세가 세운 것으로 52m 길이에 19m높이의 파피루스 기둥이 2줄로 14개가 나란히 서 있다. (람세스 2세 때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투탕카멘 때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함.)

고대 이집트의 신전에 기둥이 많이 서있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받치고 있으면 이를 통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람세스 2세 좌상의 정면

코브라가 달려 있는 네메스 장식에 이중관을 쓰고 가짜 수염을 달고 있으며 상체에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고 무릎까지 오는 킷트를 입고 있는 람세스 2세의 모습



람세스 2세 좌상의 측면 모습

람세스 2세가 앉아 있는 의자에 해당하는 부분엔
풍요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연꽃과 파피루스를 묶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둘째 탑문 옆 어린 투탕카멘과 어린 왕비 안케센아멘의 좌상



아멘호텝 3세의 부부상



기둥 복도의 벽에는 투탕카멘 때 새긴 오페트 축제의 모습을 담은 돌새김이 있다.



아멘호테프 3세 광장

큰 기둥 복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신왕국시대 절정기에 **아멘호테프 3세**가 만들었다는 **둘째 안마당(아멘호테프 3세 광장)**이 나온다. 64개의 꽃 핀 파피루스 기둥이 안마당의 삼면을 이중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태양의 광장**'이라 불리기도 했던 곳이다.



아멘호테프 3세 광장

기둥머리 부근에는 **아멘호테프 4세**가 타원형 속에 자신의 이름을 아몬 신을 빌려 새겨 넣었는데 원래는 그의 아버지 **아멘호테프 3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것을 지우고 자신의 것을 집어 넣은 것이라 한다.





위 사진은 32개의 기둥이 서 있는 작은 기둥홀(다주식 방)이다. 아멘호테프 3세 광장에서 이 기둥홀을 지나오면 안쪽으로 두 개의 전실이 있는데 기원전 4세기 무렵 콥트 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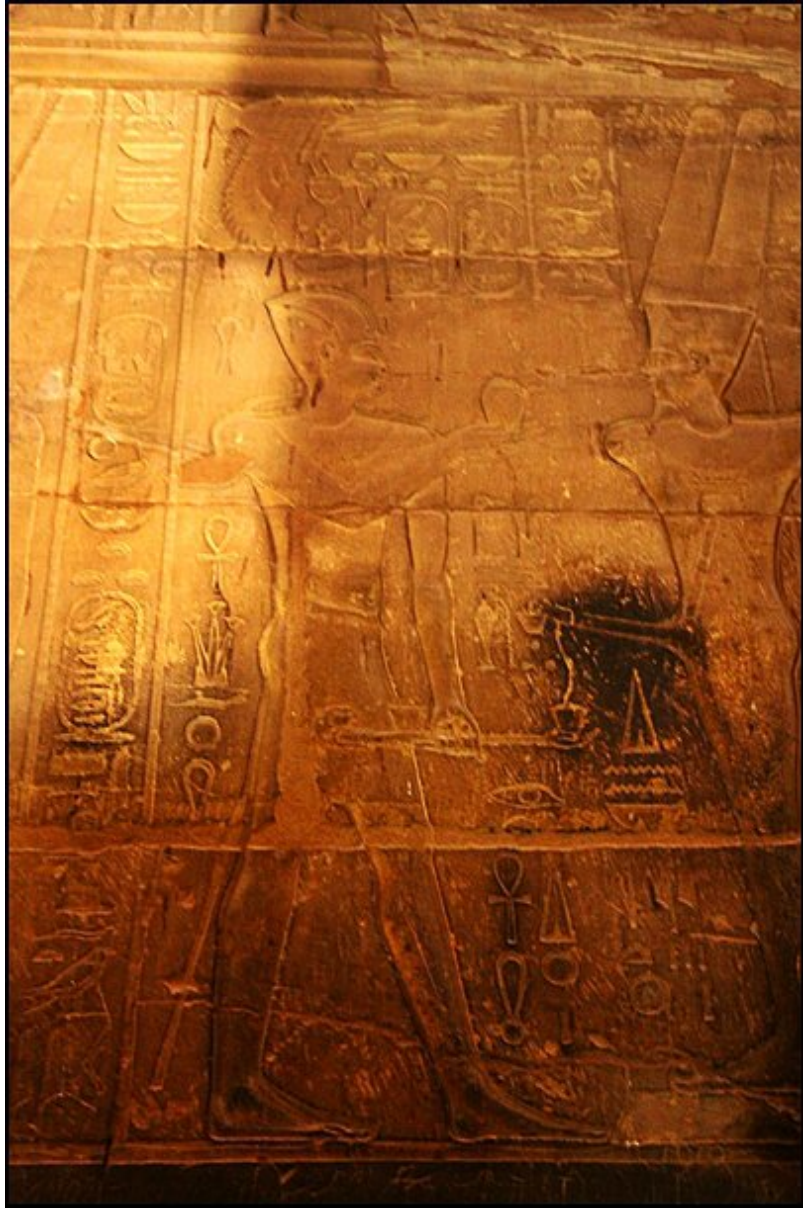
열주를 지나면 신당이 나오고 그 뒤로 아몬 라를 위한 예배소가 나온다. 특이한 것은 **아몬신**을 위한 지성소 옆에 **알렉산더 대왕의 방**이 있다는 사실... (위 사진이 곱트교회로 사용했던 곳인지...신당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인지...사진 찍느라 설명을 못들었음.ㅜㅜ)





이곳부터는 어떤 방이 어떤 방인지 사진으로는 명확히 구분을 못하겠어서 사진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없으므로 사당과 성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성주사당이 있고 사당의 동쪽에 '맘미시'라 불리는 탄생의 집이 있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설명을 생략해야겠다.





벽화들

신전에 대해 포스팅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설명을 쓰려고 하면 힘도 많이 들고 어느새 지쳐 버리게 된다. 사진과 대조해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참고 자료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지식이 짧은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내용을 선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세부적인 설명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 싶으면서도 분석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포스팅 할 때마다 이런 것으로 시간을 잡아먹게 된다. 어쨌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찝찝함 때문에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 놓으며 룩소르 신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쳐야겠다.



다시 되돌아 나오는 길... 아멘호테프 3세 광장에서 바라본 열주회랑과 탑문의 모습이다.
이곳에서 몇장의 인증샷을 찍었는데 밤이라 전부 흔들려 버리고...



제2탑문 앞에서 재도전하여 겨우 건진 한 장의 인증샷을 남기며 룩소르 신전에게도 작별의 인사를 건넨다.

'조명 아래 신비롭게 빛나는 너의 모습.. 아름답고 좋았어.'

안녕~

05

[이집트 룩소르]나일강 서안의 왕가의 계곡으로...

2011년 12월 30일 (금)

나일강 서안의 왕가의 계곡으로...



왕가의 계곡, 하트셉세스트 장제전, 멤논의 거상...바로 오늘의 볼거리들입니다. 모두 룩소르 나일강 서안에 있는 것들이라 나일강 동안에 있는 우리들은 서안으로 이동해야만 해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카르나크 신전이나 룩소르 신전 앞에 동안과 서안을 연결하는 다리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을 텐데, 서안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있어 이동 거리가 꽤 됩니다.

다음은 호텔 (1번)을 출발하여 다리(2번)를 건너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한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의 집(3번)이 있는 곳을 지나 왕가의 계곡(4번)에 도착할 때까지 카메라에 담은 사진들 중 몇 컷입니다. 대부분 달리는 버스에서 찍은 사진들이라 사진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요. ㅎㅎ



호텔을 출발한 후 첫번째로 찍은 사진입니다. 농지들도 보이고 시골스러운 풍경이죠.

사진 속에 보면 왼쪽으로 짓다만 집이 보입니다. 지붕 위로 기둥들이 서있고 철근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집트에는 이렇게 짓다만 집들이 어찌나 많은지 처음에 한 두개 볼 때는 무심코 지나친다 해도 곧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수많은 집들이 짓다가 말았을까...

알아보니 집이 완성되기 전까진 세금을 미룰 수 있다던가 ?? 덜 낸다던가?? 하여튼 세금 때문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누군가는 많은 집들이 불법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일단 집을 짓기 시작한 후 돈이 생길 때마다 증축을 한다고도 얘기하는군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집트에서는 법이란 것이 그다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는 듯 하네요.



이집트의 전통 빵이며 서민들의 주식인 **아이쉬** (Aysh 에이쉬)를 파는 사람이 지나가는군요.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아이쉬를 집에서 굽지 않고 거리의 상점에서 사다가 먹기 때문에 길거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이 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널어 놓고 팔기 때문에 '**걸레빵**' 이라 불리기도 한답니다.

아이쉬의 뜻이 아랍어로 **Life**란 뜻을 지닌다고 하니 이 빵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참 자주 보게 되는 **나일강**이네요. 마을들이 나일강변에 자리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만요. 나일 강변을 따라 버스가 계속 달립니다.



때론 강변로를 벗어나서 달리기도 하지만 건물들에 가려 살짝 보이지만 앓을 뿐, 나일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무바라크 퇴임 이후 최초로 하원(People's Assembly)과 슈라 회의-상원(Shura Council)-의 의원 선거가 시작되었다죠. 이전에도 양원의 선거는 있었지만 이는 무바라크 이후 처음 치뤄지는 공정한 선거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11월 28일, 12월 14일, 1월 3일 세 차례에 걸쳐 하원 선거가 진행되고 1월 29일, 2월 14일, 3월 14일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슈라 의회 선거가 있으며 슈라의회 선거와 함께 27개 이집트 주의 주지사 선거도 진행된다고 해요.

이상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 정치도 잘 모르는 제가 굳이 검색해서 찾아낸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이집트 여행내내 흥미롭게 보았던 **선거벽보** 때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촛불, 사다리, 우산...** 같은, 선거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뜬금없는 그림과 사진들이 벽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보이지요? 이 그림들은 숫자(글자)를 대신 하는 것으로 글자를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네요. 이집트 국민의 **문맹율**이 **50%**가 넘는다는게 이 선거 벽보를 보니 확~ 와닿습니다. **카이로**에서 본 선거 벽보는 기억나지 않지만 **룩소르**에서 보았던 선거 벽보 그림과 **알렉산드리아**에서 보았던 선거 벽보의 그림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후보들은 주지사 후보들이려나요?? 아무튼 선거 벽보가 보일 때마다 벽보 속의 그림들을 찾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계속 비슷한 풍경들이 이어지다 이제 드디어 다리(2번)를 건넙니다.
다리 이름은 모르겠지만 참 이집트스러운 조형물이 장식되어 있네요.
이중관을 쓴 **호루스** 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박해 있는 페리들도 보이네요.



나일강변 주변에 펼쳐진 초록빛 농지입니다.



나일강 주변은 이렇게 초록빛인 곳이 많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나일강 서안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누런 산들과 누런 벌판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을 사이를 흐르고 있는 작은 하천인 듯 합니다. 이곳에서도 물고기가 잡히는 걸까요? 저 배를 타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천의 가장 자리엔 갈대들이 무성하고 갈대들 뒤로 짓다만 집이 또 함께 찍혀 있군요. 집들 중 20~30%는 짓다만 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런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흙빛 그대로지만 가끔은 이렇게 페인트로 색을 칠해 놓은 집이 있어 눈에 띕니다.



언덕 위로 하워즈 카터의 집이 보이네요. 하워즈 카터는 영국의 고고학자로 그 유명한 투탕카멘(투탕카문)의 무덤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 생각되는데 이집트로부터도 영국으로부터도 그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왕가의 계곡 주차장에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왕가의 계곡은 촬영 금지 구역이라 카메라를 가져가면 모두 보관소에 맡겨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카메라를 모두 차에 두고 내렸는데 분신처럼 메고 다니던 카메라를 모두 두고 내렸더니 너무 허전해서, 말길데 말기더라도 작은 디카 하나는 다시 들고 내렸습니다. 덕분에 주차장에서 사진 몇 장 남기고...



주차장에서 남긴 인증샷 ㅋㅋ



첫번째 검색대를 통과한 후 꼬마 열차를 타는 곳에서 또 한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검색대에서 뭐라 안하길래 무덤 내부에서만 촬영을 안하면 되나보다 했는데 꼬마 열차에서 내리니 다시 작은 통과대가 있고 카메라도 맡기고 들어가게 되어 있더군요.

결국 왕가의 계곡 사진은 여기서 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부 사진이 없으니 설명을 쓸 맛은 안나지만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이라도 올려 놓고 간략하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룩소르 나일강 서안에 있는 **알-쿠른 산**은 높이 450m의 산으로 그 꼭대기가 **천연 피라미드**처럼 생긴 산입니다. **신왕국** 시대에 이 메마른 바위산 깊숙한 계곡에 바위를 뚫고 **파라오와 왕비**, 그리고 **귀족들**의 암굴 무덤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곳에 무덤을 만든 이유는 계속 되는 **도굴**을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고왕국**과 **중왕국** 시대의 파라오 무덤인 **피라미드**는 눈에 띄기 쉽고 튼튼하게 만들어 도굴을 방지하려고 했으나 무덤들은 예외없이 도굴되었고 미이라까지도 없어지는 바람에 피라미드는 죽은 파라오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신왕국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무덤을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만든 암굴 무덤 역시 **투탕카멘**의 무덤을 제외하고는 모두 도굴되었다고 합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도굴꾼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건 **람세스 6세**의 무덤이 그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구요.

현재 이 일대 바위산 계곡의 곳곳에 삼천년 이상된 신왕국 시대의 암굴 무덤이 800기나 모여 있다고 하나 (왕비의 계곡, 귀족들의 계곡에 있는 무덤까지 모두 합쳐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은 파라오의 무덤 중 일부인 **10 개** 정도랍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3개**의 무덤을 볼 수 있으나 **투탕카멘**의 무덤만은 입장권을 따로 구입해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3개의 무덤을 봤는데 누구의 무덤들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람세스 2세와 3세, 4세의 무덤을 본 것 같은데...)

암굴 무덤의 기본 구조는 **입구-계단-통로-부속방-널방**으로 되어 있고 암굴 무덤의 크기와 모양은 제 각각인데 파라오의 통치 기간이 길수록 무덤의 규모가 크고 내부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굴무덤 내의 벽은 **〈사자의 책〉**을 비롯하여 각종 **장제문서**에서 발췌한 주문들을 극채색의 그림이나 상형문자로 장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은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내세에서 죽은 자가 재생, 부활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적지 어디에나 있는 기념품점



왕가의 계곡을 둘러 보고 이제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것들도 모두 무덤들인 것 같은 발굴 중에 있는 것들인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무덤들이라 저리 놔둔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무덤들 위로 마을이 있었는데 발굴을 위해 대부분 이주시키고 철거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몇 채의 건물들과..



상점들인 것 같습니다.



건물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매우 이채롭고 그 색채 때문인지 가보진 않았지만 언뜻 멕시코란 나라가 떠오르기도 하네요.
 멕시코도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
 다음편엔 하트셉수트 장제전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식이 많지 않은 여행자의 눈으로 보고 쓴 글들이니 잘못된 내용은 부드럽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06

[이집트 룩소르]하트셉수트 장제전

2011년 12월 30일 (금)

Ranee in Luxor

-하트셉수트 장제전-



왕가의 계곡에서 무덤 3개를 관람한 후 서둘러 계곡을 빠져 나왔다. 무장한 사복 경찰들이 왔다 갔다하고 뭔가 술렁대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이다. 관광 시즌이라 예년 같으면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다녀야 하는게 보통인게 이집트의 불안한 정세 때문에 관광객이 확연히 줄어든 요즘이라 어디를 가도 인파에 휩쓸리는 일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광객을 대상으로 1달러를 외치며 조잡한 물건들을 팔아 겨우 생계를 꾸려오던, 상인이라 부르기도 뭐한 수많은 영세 상인들이 더욱 가난에 허덕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배고픔은 그들을 악에 받치게 하고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 폭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듯 하다.



하트셉수트 장제전 주차장에 버스가 멈추어 섰다. **왕가의 계곡** 입구에서 5~10분 정도를 버스로 달렸기 때문에 왕가의 계곡과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의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왕가의 계곡에서 산 하나만 넘으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왕의 계곡과 귀족의 계곡 사이에 자리함.**)



매표소를 빠져 나와 **하트셉수트 장제전**을 배경으로 한 입장권 인증샷부터 남긴다. (잊지 않고 인증샷을 남긴 것까진 잘했는데 이번엔 아웃포커싱이 너무 잘돼서 장제전의 모습이 다 날아가 버려 인증샷의 의미가 퇴색되었음. ㄱ~)

입장권을 자세히 살펴 본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하트셉수트**라는 글자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하트셉수트 장제전의 입장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 하트셉수트 장제전의 입장권이 맞다. 입장권에 쓰여 있는 것처럼 이 장제전은 아랍어로 **데이르 알-바하리**라 불린다고. 원래의 이름은 '숭고한 것들 중의 숭고한 것'이라는 의미의 **네페르 네페루**였으나 서기 7세기경 현재의 신전에 기독교인들이 세운 '**북쪽의 수도원**'에서 현재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기원전 1500년 경의 건축물이라 믿어지지 않을만큼 현대적인 건물이 저멀리 서 있고 뒤로는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붉은 절벽이 건축물을 둘러싸고 서 있다. **하트셉수트 장제전**이다.





걸자면 못걸을 것도 없을만큼의 거리로 보이긴 하나 입구에서 장제전까진 보기보다 꽤 되는 거리다. 여름엔 더워서, 우리 같은 여행객들은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로 미니 열차를 타고 이동한다.



미니 열차를 타고 하트셉수트 장제전으로 향한다. 운 좋게 앞자리에 앉으니 시야가 탁 트여서 좋다.



미니 열차에서 내려 바라본 하트셉수트 장제전

미니 열차에서 내렸다. 하트셉수트 장제전이 훨씬 가까이에 보인다.

그 옛날, 나일 강과 연결된 운하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제1테라스(첫번째 뜰)까지는 길 양 옆으로 스�핑크스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스�핑크스 뒤로는 향기를 발산하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정원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현재 이 운하와 정원은 사라졌지만...

위 사진 속에서 ★가 있는 곳은 하트셉수트의 폰트 원정 때 폰트로 부터 가져온 나무가 심어져 있던 자리.

폰트 원정 모습은 장제전 2층 테라스 복도에 새겨져 있다.



푼트 원정에서 가져온 나무가 심어져 있던 자리



하트셉수트는 투트메스 1세의 장녀로 이복 오빠인 투트메스 2세와 결혼하여 투트메스 2세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고 투트메스 2세가 죽자 아직 나이가 어린 후궁의 아들 투트메스 3세를 대신해 섭정을 하다가 결국 파라오가 되어 투트메스 3세와 공동 통치를 한 인물이다. (자료에 따라 투트메스3세가 하트셉수트 여왕의 조카라고도 함.) 여자는 파라오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트셉수트 여왕은 파라오의 모습으로 남장을 하고 턱수염까지 달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는 모두 4명의 여성 파라오가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클레오파트라지만 최초이면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던 여성 파라오는 바로 하트셉수트 여왕이라 함.)

오직 내정(內政)에 전념하였던 그녀는 시나이 광산의 채굴과 교역을 위하여 폰트 원정을 감행하였다.



여왕은 파라오가 된 것을 정당화 하고 과시하기 위해 수많은 기념 건축물을 세웠으나 이 건축물들은 훗날 여왕이 죽은 뒤 **투트메스 3세 (투트모세 3세)**에 의해 대부분이 파괴되고 여왕의 이름이 삭제되었다. (새로 보게된 자료에 의하면 이는 하트셉수트에 대한 증오 때문이라기 보단 자신의 아들, 즉 아멘호테프 2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함. 하트셉수트의 유산을 없애 왕위를 부계 혈통으로 바꾸어 순조롭게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말해 이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15년만에 완성된 **하트셉수트 장제전**은 그녀의 총애를 받은 신하이며 건축가인 **센무트**(**혹자는 하트셉수트와 연인이었을 가능성에대해서도 이야기 하나 아직까지 발견된 증거가 없다고 함.**)가 설계한 것으로 **3층**으로 되어 있으며 거대한 **테라스**를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 1층 테라스 복도는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22개의 기둥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들어서 있고 복도 벽은 **오벨리스크의 건립 모습, 여왕의 탄생 모습, 그리고 여왕의 업적**을 담은 돌새김으로 장식이 되어 있으며 테라스 끝에는 **오시리스 신의 형상을 한 여왕의 거대한 조각상**이 서 있다.



비탈길을 올라 2층 테라스로...



와우!!! 2층 테라스(두번째 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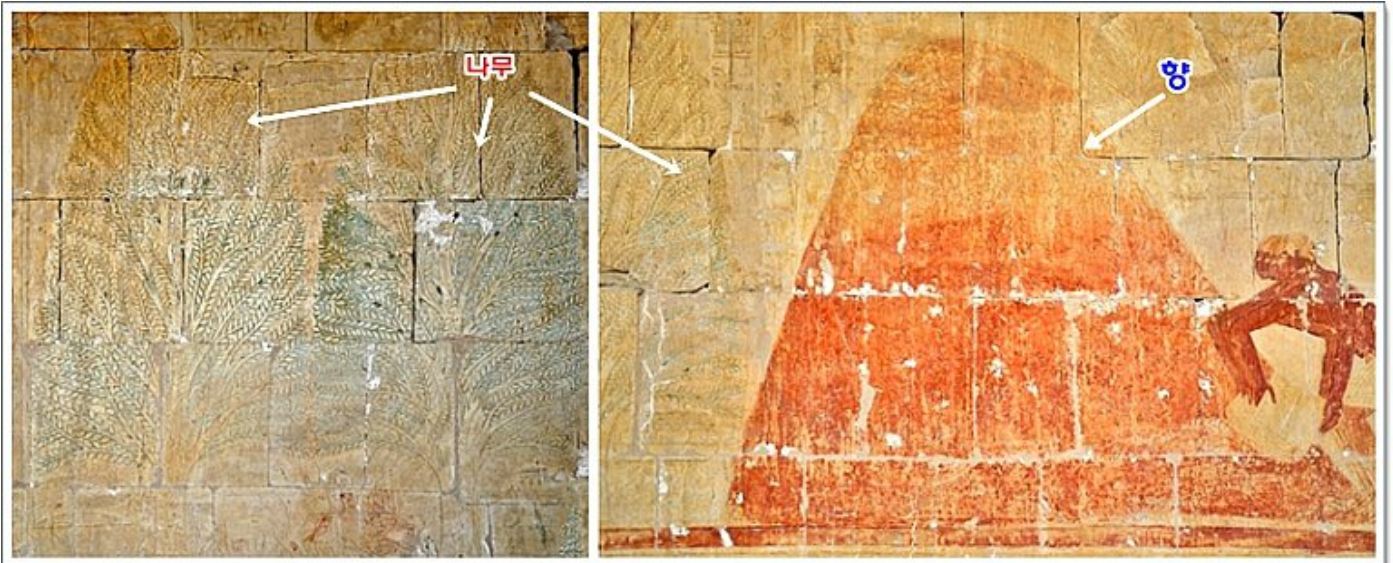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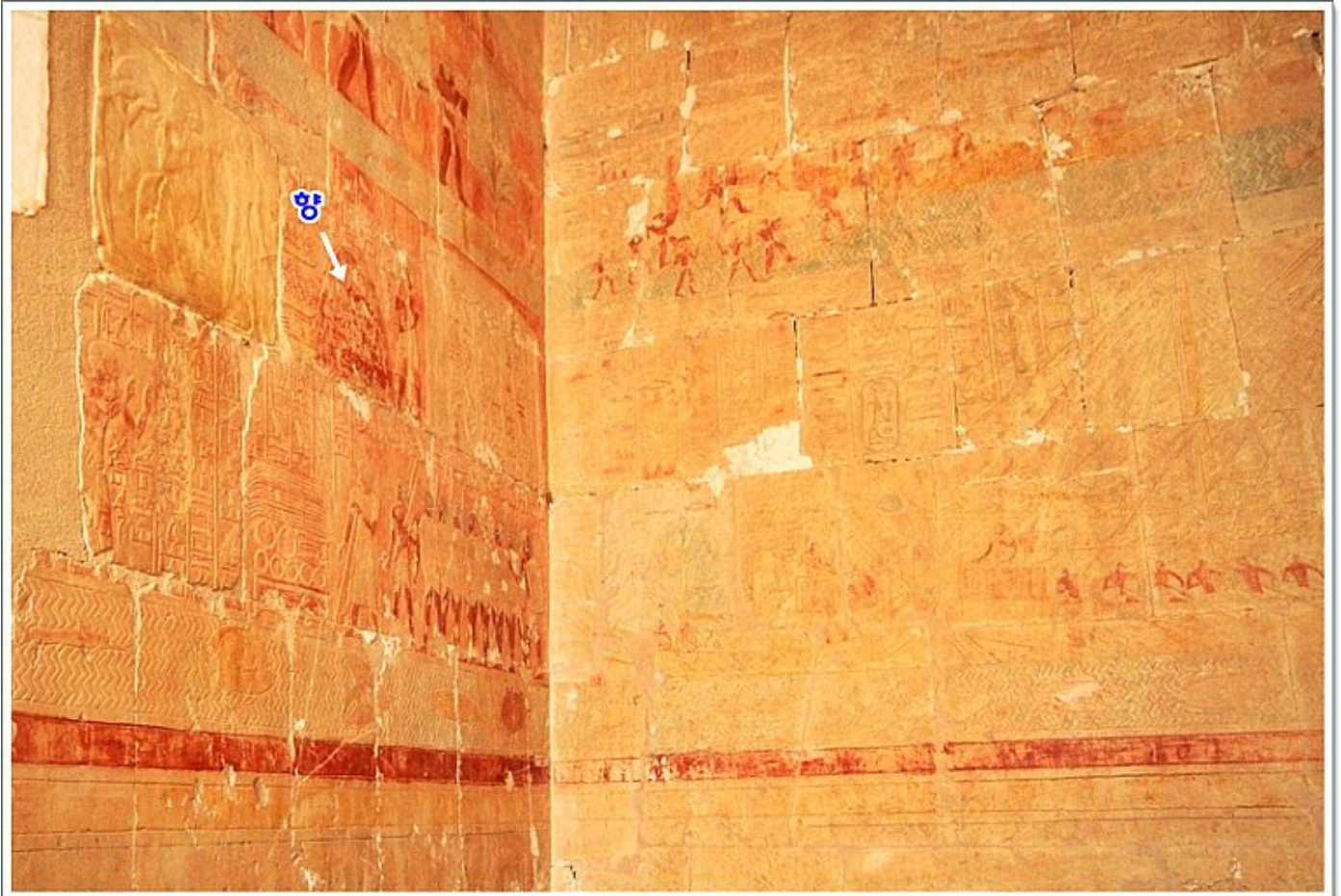
'멀리서 볼 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을 줄 짐작도 못했는데 놀라운걸.'



2층 테라스 복도에는 15개의 둥근 기둥과 44개의 네모 기둥으로 된 복도가 있는데 가운데 비탈길을 기준으로 왼쪽 복도 벽에는 전설의 나라 **폰트 원정**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여왕의 생애와 여왕의 왕위 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 아몬의 딸로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탄생의 모습**이 돋새김되어 있다.



폰트 원정 모습이 돌새김 된 왼쪽 주랑으로...



2층 왼쪽 주랑 벽에 돋새김 된 폰트 원정 모습 중 일부

고대의 엘도라도인 머나먼 전설의 땅 폰트 원정모습이 새겨진 벽화를 살펴보면 하트셉수트 여왕이 이 폰트 원정에서 이국의 동물과 금,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한 상품인 향(香)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입냄새를 없애고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향을 씹었고 신전에 좋은 냄새가 나게 하기 위해서도 향을 사용했으며 미라를 만들 때도 향을 사용했다고 하니 향(香)이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2층 왼쪽 주랑 벽에 돋새김 된 폰트 원정 모습 중 일부

벽화를 다시 살펴보면 이 그림들이 얼마나 사실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 물고기까지도 세세히 그려넣었는데 이는 나일강이 아닌 홍해에서 잡은 물고기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하트셉수트 여왕 자신이 긴 여행을 거쳐 그곳에 갔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벽화는 자신의 권력과 나라의 번영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광고판인 셈.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내 업적을 봤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람세스 2세가 카데시 전투의 모습을 건축물에 새겼 듯 하트셉수트는 폰트 원정이 자신의 가장 큰 치적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2층 오른쪽 주랑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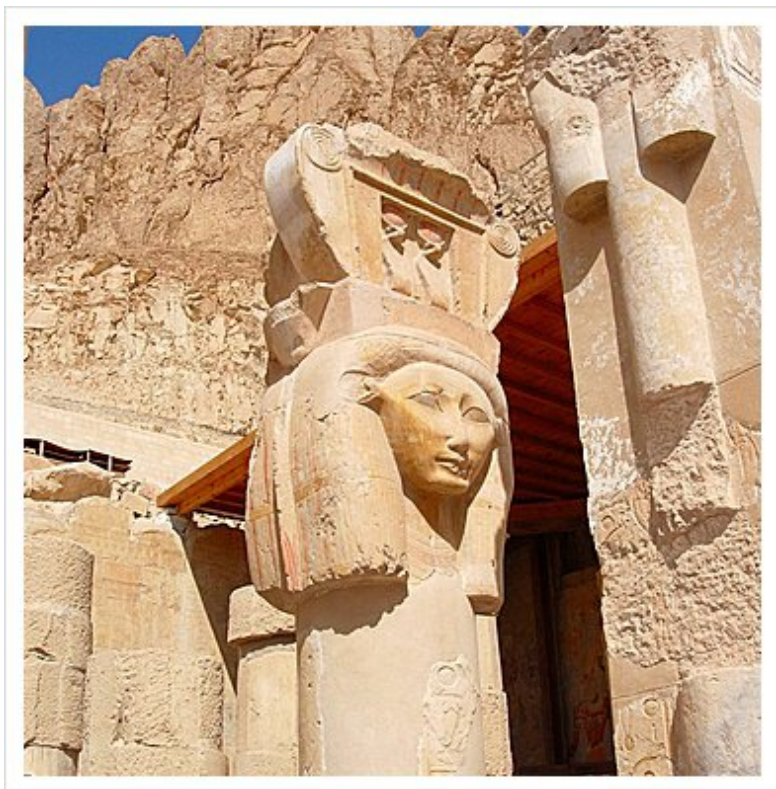
2층 오른쪽 주랑 벽



2층 오른쪽 주랑 벽에 돋새김 된 하트셉수트의 탄생 모습 중 일부



2층 테라스 남쪽(왼쪽) 끝의 하토르 여신의 작은 신전과 북쪽 (오른쪽) 끝의 아누비스 신의 작은 신전



하토르 신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토르 기둥



토드 신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자리엔 한 때 신전의 벽면을 이루었을 돌들이, 기둥들이 이제는 저렇게 잔해로만 처참하게 남아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게 한다.



다시 비탈길을 올라 3층 테라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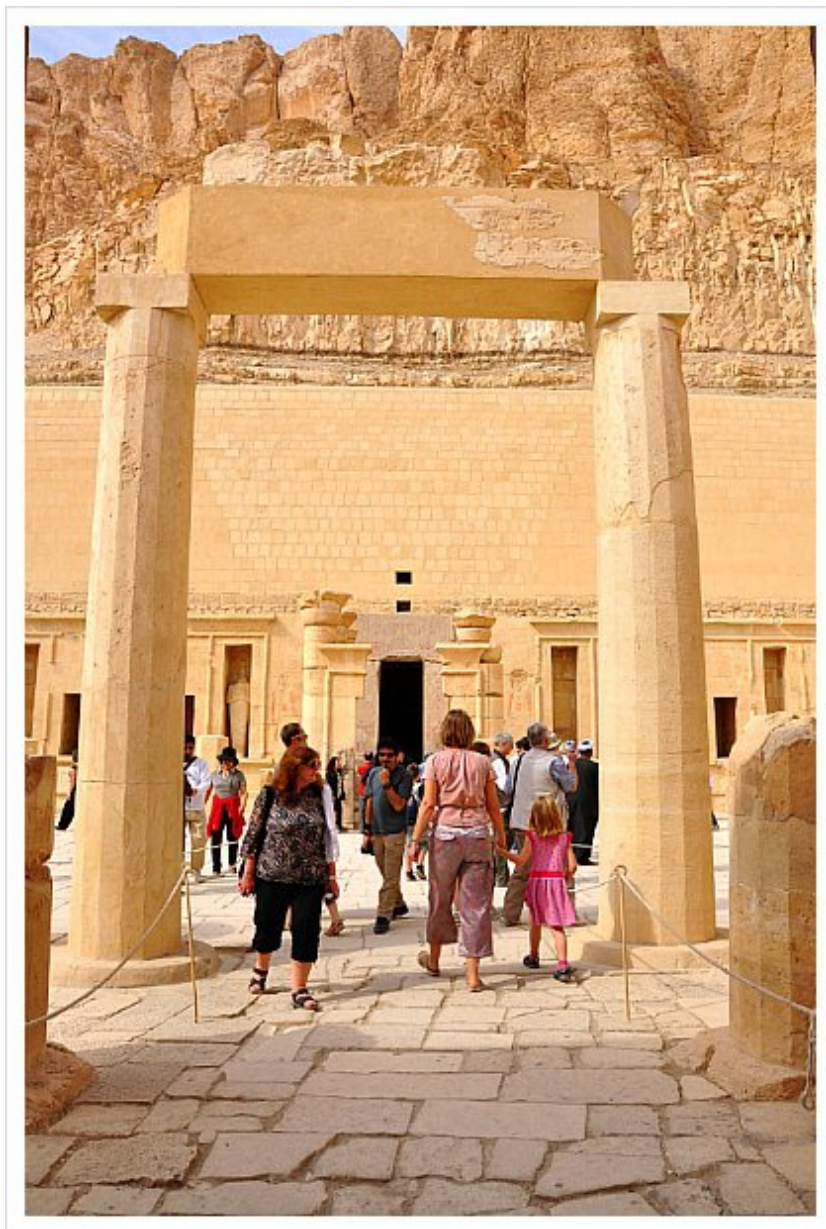


3층 테라스 (상층주랑)

3층 테라스 복도에는 22개의 네모 기둥이 서 있고 앞줄 기둥 앞에는 석상들이 세워져 있다. 8개 정도의 석상만이 형체가 남아 있고 대부분의 석상들은 훼손되어 사라지거나 발 정도만 남아 있거나 한 모습이다. 이 석상들을 어떤 자료에선 오시리스라 하고 어떤 자료에선 하트셉수트라해서 무엇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혹시 오시리스의 모습을 한 하트셉수트는 아닐런지....??



22개의 기둥을 지나 3층 테라스 복도 안 쪽으로 들어가면 너른 안마당이 나오는데 이 안마당은 여러 개의 방들과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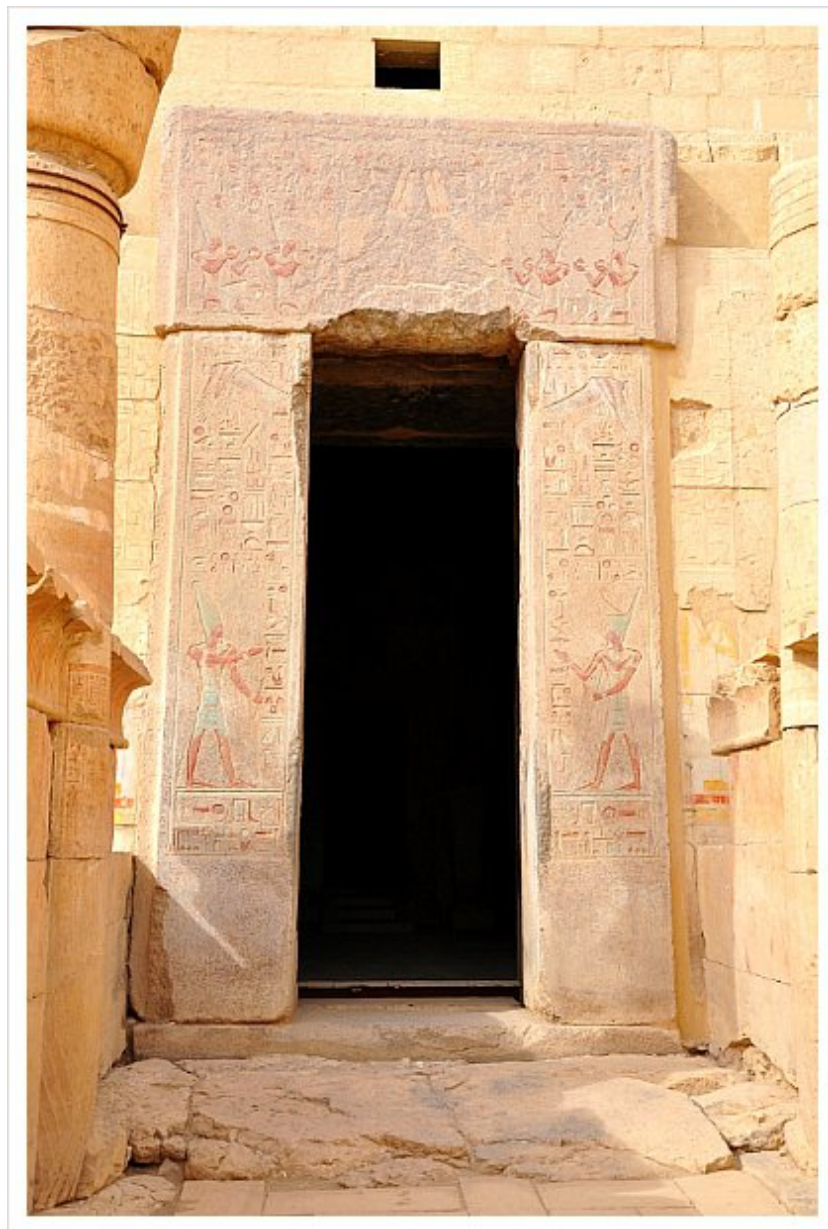


안마당



지성소

안마당의 북쪽에는 태양신 라 호르아크티의 성소, 남쪽에는 투트메스 1세의 성소, 하트셉수트 여왕의 성소, 태양신 아몬-라의 암굴 성소가 있다는데 하나 하나 눈여겨 보지는 못했다.



지성소



미이라 석상들이 있던 곳



3층 테라스 (상층주랑)에서 2층 테라스로...

투트메스 3세에 의해 파괴되고 120년이 흐른 뒤엔 파라오 아크나톤에 의해 훼손 당했으며 ([이집트 최초로 유일신 숭배사상을 도입한 아크나톤은 아몬 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 버렸다고 함](#))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수도원으로 사용되면서 이단적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많은 부분이 파괴 되는 수난을 겪었음에도 하트셉수트 장제전은 남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한 감동을 주는 듯하다. 물론 그 옛날의 그 섬세하고도 웅장했었을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잊지 않고 올려 보는 인증샷 한 컷



이젠 되돌아 가기 위해 미니열차를 탈 시간...



미니 열차를 타고 달리다 오른쪽을 돌아본다. 올 때는 반대쪽만 보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
오른쪽에 귀족의 계곡이 있으니 저것들은 귀족들의 분묘겠지?



이름 모를 탑문을 지나고...







기념품점들을 지나...



다시 주차장.

3500년전으로의 여행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말로 3500년 전이 맞는 건지... 지금도 여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그 옛날의 이집트는 놀라움의 연속이다.



몇권의 책으로 습득한 지식이라 내용 중 오류 사항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부드럽게 정정해 주세요.

다음편에선 **멤논의 거상** 을 볼 수 있어요.

07

[이집트 룩소르] 멤피스의 거상이라 불리우고 있는 아멘호테프 3세의 석상

2011년 12월 30일 (금)

Ranee in Luxor

-멤피스의 거상-



하트셉수트여왕의 장제전을 뒤로 하고 멤논의 거상을 보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당도하고 보니 허허 벌판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큰 돌조각 두 체만이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의 전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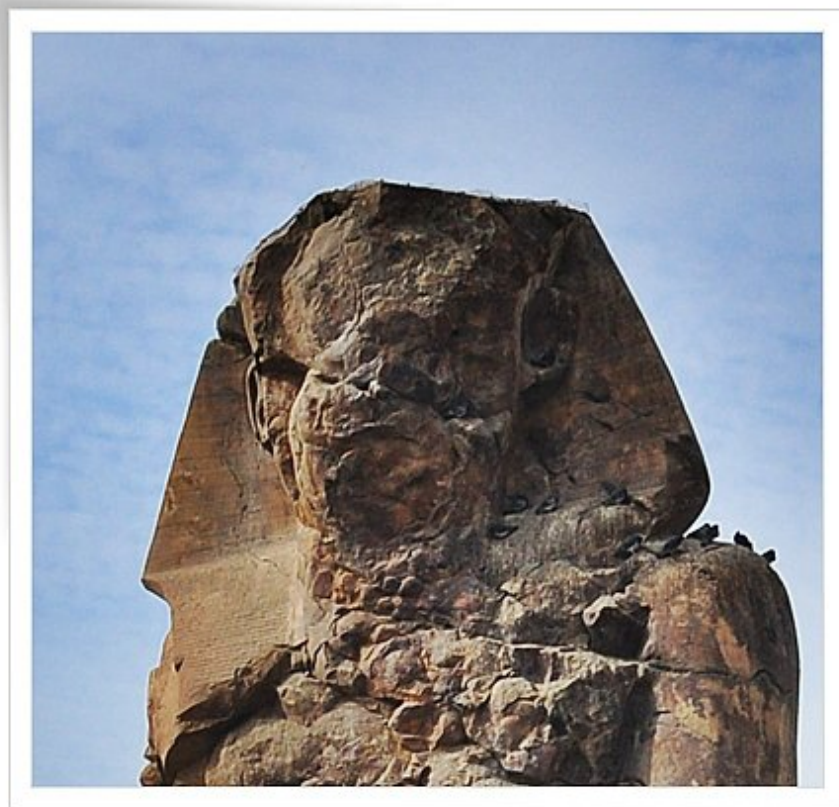
17m나 되는 이 큰 돌조각은 3400년 전인 신왕국 제18왕조의 **아멘호테프 3세 장제전** 입구에 세워졌던 석상으로 지금은 비록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마치 만화 속에 등장하는 외계인처럼 보이는 듯도 하지만 원래는 **아멘호테프 3세**의 모습을 묘사한 석상이라 한다. (**아멘호테프 3세**는 아시리아와 팔레스티나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고대 이집트의 기틀을 확고하게 만든 위대한 파라오로 람세스 2세 못지 않은 많은 기념 건축물을 세운 인물임.)



그렇다면 **아멘호테프 3세 장제전** 입구에 세워져 있던 석상들은 남아 있는데 장제전은 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들에 실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아멘호테프 3세 장제전**은 아마도 하루 아침에 파괴되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훼손되고 파괴되어 사라진 것 같은데 처음엔 **아멘호테프 3세** 이후로 등극한 **파라오**들에 의해서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했던 것 같다. 파라오가 되었으니 당연히 자신들의 신전을 지었을 것이고 신전을 짓다 돌이 부족하면 이전에 지어진 다른 신전에서 돌을 빼내어 가져다 쓰곤 했는데 이 아멘호테프 장제전도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듯 하다. 게다가 이 장제전은 **나일강**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지어진 신전이었기 때문에 매년 홍수로 **나일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많은 부분이 파괴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던 듯. 그리고 기원전 27년 큰 지진이 일어났고 이 지진으로 인해 아멘호테프 3세 장제전은 아마도 완벽하게 파괴되어 흔적없이 사라져 버린 것 같다. 그렇게 장제전이 완벽하게 사라져 갈 동안 온전하진 않아도 이 두 거상은 이렇게 남아 있으니 이것이 오히려 더 미스터리 한 일은 아닌지...



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거상들이 석재 벽돌이 아닌 진흙으로 빚은 벽돌을 이용해 만든 석상들 이라고 하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한 개의 석상은 거대한 한 개의 바위를 조각해서 만든 것이고 다른 한 개의 석상은 여러 개의 바위를 쌓아가며 조각한 것이라고하고 있는데 내 생 각에는 후자 쪽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이유는 당연히 돌로 만든 장제전도 다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판국에 진흙으로 빚은 벽돌로 만든 석상이 여태까지 남아 있 을 수 있다는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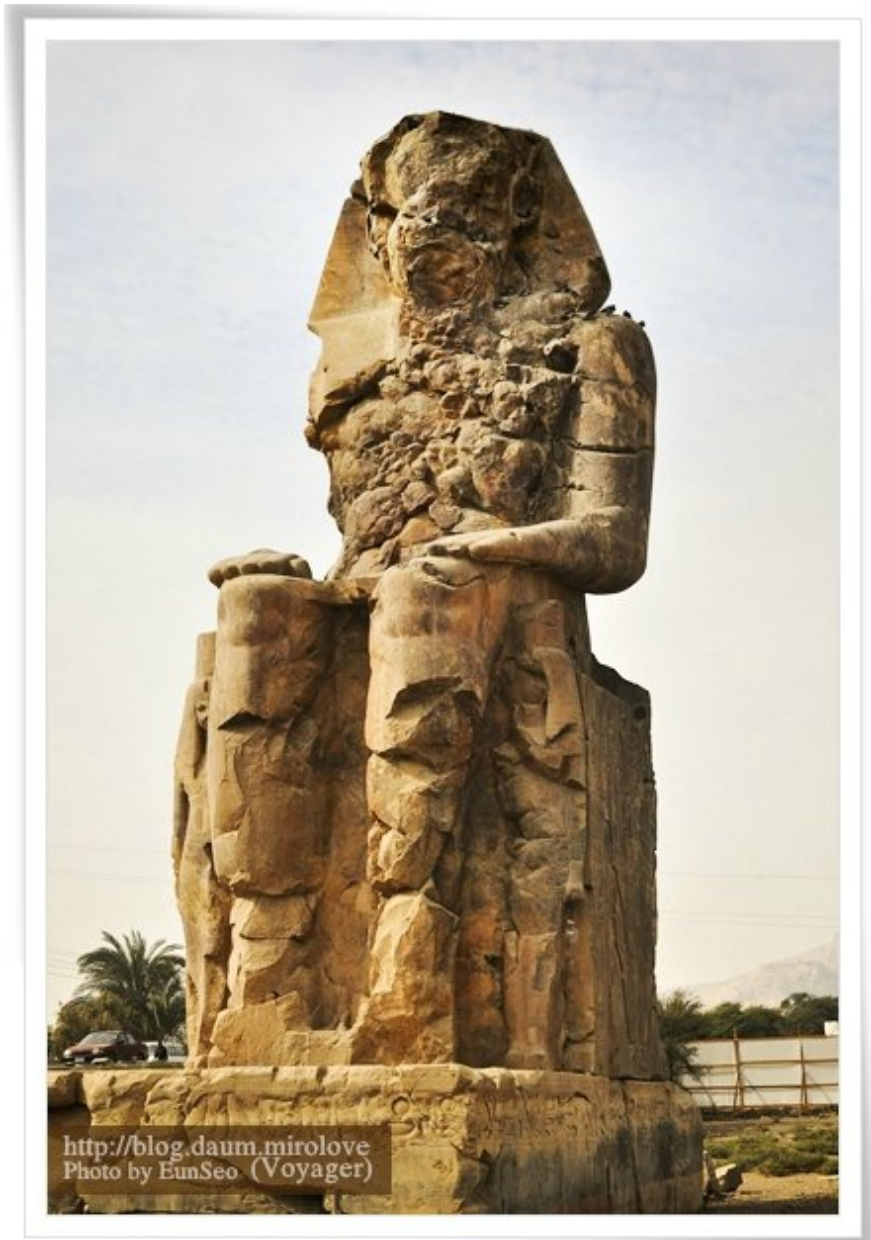


네메스라고 하는 파라오의 두건을 착용한 아멘호테프 3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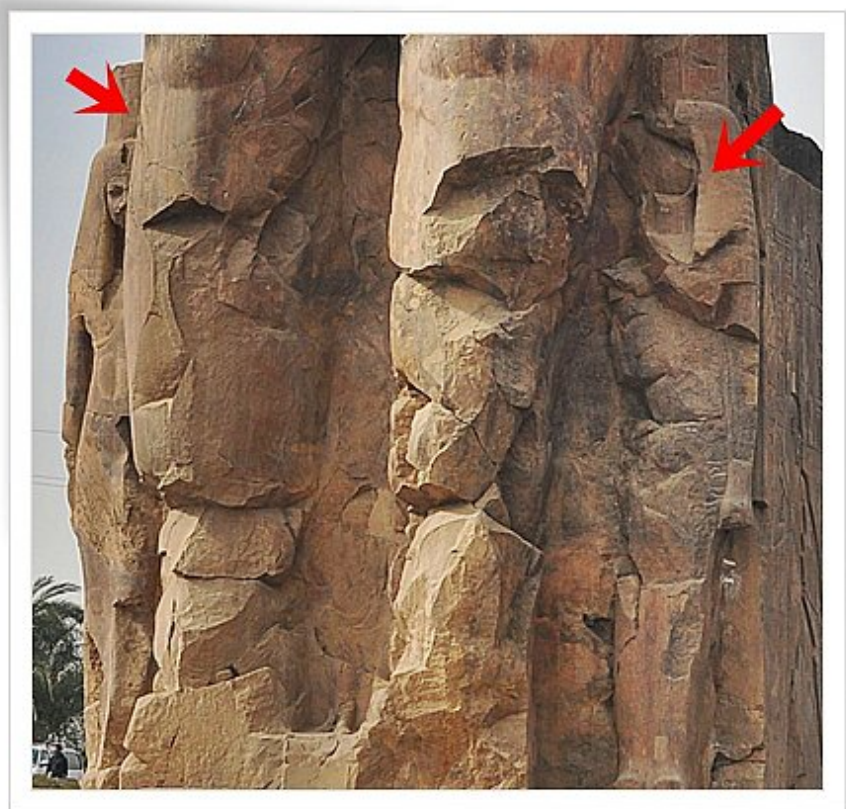
북쪽 석상

북쪽 석상에는 아멘호테프 3세와 그의 어머니 무템비아(Mutemwia)가 조각되어 있고...



남쪽 석상

남쪽 석상에는 아멘호텝 3세와 그의 부인 티위(Tiy), 그리고 그의 딸 중 한명이 조각되어 있다.



남쪽 석상



로마시대에도 장제전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이 거상 두 개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날 새벽 부터 해가 뜰 때가 되면 이 두 개의 석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리스인들은 그 소리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멤논**의 노래소리와 비슷하다 하여 <멤논의 거상>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 옛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들은 물론이고 로마인들까지 거상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이곳을 다녀 갔으며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까지도 이곳을 다녀 갔으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가 조각상을 보수한 뒤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원래 이 소리의 정체가 석상의 균열 사이를 햇빛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진 바람이 통과하면서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보

수를 한 후엔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멤논**은 **에티오피아**의 왕으로 새벽의 여신 **에오스**와 **티토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다가 **아킬레우스**에게 죽게 되고 어머니 에오스는 그의 시체를 에티오피아로 옮겨오게 된다. **제우스**의 배려로 불사의 존재가 된 멤논은 어머니의 부름에 슬픈 노래로 답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석상 뒤의 아멘호테프 3세 장제전도 여전히 그자리에 있고
멤논의 울음소리도 여전히 들을 수 있다면...

ㅎㅎㅎㅎ

부질없는 상상을 거두고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싣는다.

08

[이집트 룩소르] 나일강에서 배타기

2011년 12월 30일 (금)

Ranee in Luxor

-나일강에서 배타기-



멤논의 거상을 끝으로 룩소르 나일강 서안의 투어를 마치고 예약된 점심을 먹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려 합니다. 문제는 투어시간이 계획보다 지체되어, 2번의 다리를 건너 먼거리를 돌아가야만 하는 버스로는 점심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버스 대신 배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일강 서안의 빨간별 (★)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배를 탈 곳이에요.

"을 때보다 이동 거리가 훨씬 짧아졌지요? ^^"

버스로 가는 거리랑 비교해 보면 1/7 정도 밖에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려는 곳 건너편엔 **룩소르 신전**이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 부근에서 **룩소르 동안**과 **룩소르 서안**을 연결하는 페리가 출발하는데 서안의 강둑까지 빠르게 연결되고 요금도 저렴하지만 서안 여행의 대부분이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인지 외국인 여행객들이 그리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위의 사진은 멤논의 거상에서 배를 타는 곳까지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위 지도에서 A 부분의 구간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저 그런 시골 풍경입니다. 사진이 몇 장 더 있는데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 많이 흔들려 버렸네요.



배를 타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나일강 건너편 왼쪽으로 룩소르 신전 근처에서 보았던 **모스크**의 **미나렛**이 솟아 있는게 보입니다.



우리가 타려는 배와 같은 종류의 배도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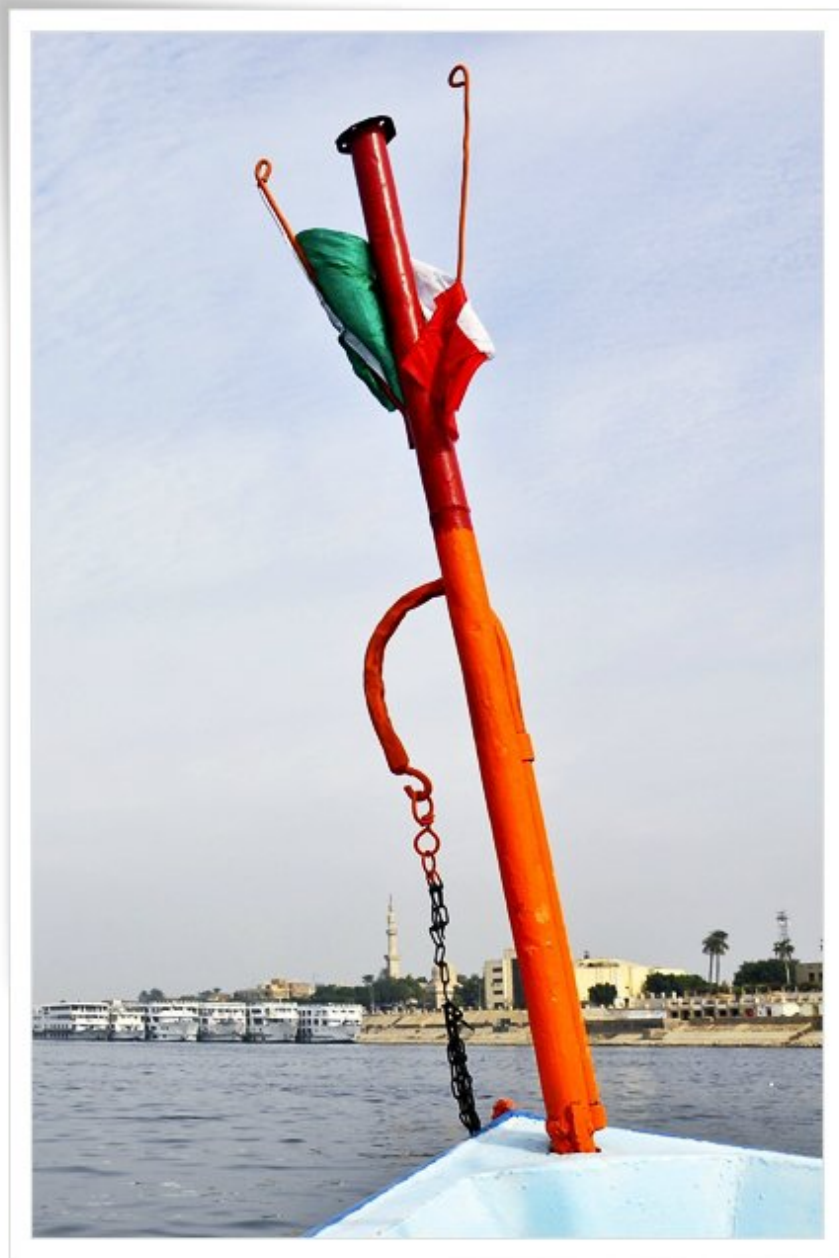
이집트 전통 돛단배인 **펠루카**도 보입니다.
우리도 **펠루카**를 타 볼 계획이에요. 내일 **아스완**에서...



인증샷을 한 컷 남겨 봅니다.
근접 촬영 금지인데 카메라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바람에
이런 사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곧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위 지도의 B구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 드릴게요.



배에 올라 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출발 지점이라 뒷 배경엔 여전히 모스크의 미나렛이 보이네요.
사진이 제 맛이 나려면 이집트 국기가 바람에 펄럭여줘야 하는 건데
바람이 도와주질 않아서 폼 안나게 뭉쳐져 있습니다.



출발한 배는 나일강변에서 강의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 사진 속 배경은 **나일강 서안**이고 강변 가까이에 유람선 한 척이 머물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서안 투어**를 하러 승객들이 내린 상태인가 봅니다.



이번엔 나룻배 한 채가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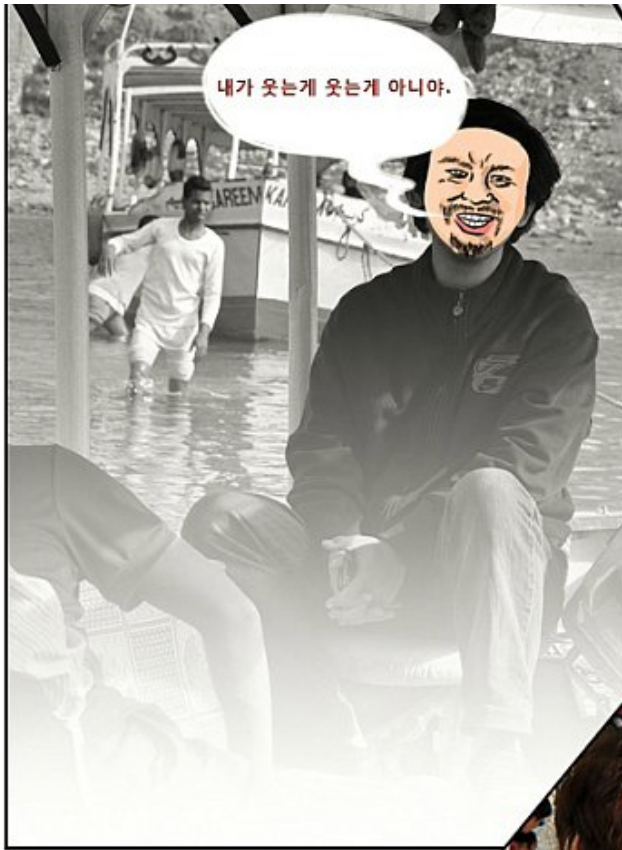


니룻배 뒤 배경으로 **미나렛**이 또 보이는군요. 이 미나렛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룩소르 신전**을 지나 북쪽에 있는 호텔에 조금 더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배의 일부도 카메라 프레임 안에 넣어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잘 가던 배가 갑자기 멈추어 섭니다.

배 아랫 부분이 강바닥 모래에 박혀 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군요.

'나일강 바닥이 이렇게 얇다고...???'



선장(?)의 말에 의하면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이 멀쩡히 다니던 코스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강바닥 모래가 쓸려와 이곳에 쌓여 버린 모양이에요. 이리 저리 해봐도 배가 꼼짝하지 않자 선장은 겹옷을 벗어 던지고 내복 바람에 물 속으로 뛰어들어 배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정말 애쓰는 모습입니다. 나일강이 아니었다면 몇몇 남자분들은 아마 벌써 강물에 뛰어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곳에선 그리하면 안된다니 안타까워도 쳐다만 보고 있을 수 밖에요. 나일강에 함부로 뛰어들어선 안되는 이유는 나이 강물에 위험한 병균인지 벌레인지가 있어서 현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 동안 도둑의 손길들이 당도했고 한참을 신경이 한 끝에 드디어 배가 모래 바닥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꽤나 지체되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집트에서는 **인샬라** (신이 원하신다면)라고 해야 하는 거죠.



배를 빼내는 동안 찍은 사진 몇 장 올릴게요. 첫번째 사진은 나일강 서안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뒤로 희미하게 돌산이 보이지요? 왕들의 무덤이 있고 하트셉수트의 장제전 (장례신전) 이 있는 곳입니다. 앞쪽으로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이쪽은 나일강 동안의 모습이에요. 모스크의 미나렛이 이제는 아주 작게 보입니다. (오른쪽 뒤)



모터 보트가 재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담아 봤는데 가까이 날고 있는 흰새가 아주 멋지네요.



나룻배의 사공도 어느새 다가와 아는 척을 합니다.



모래 바닥에서 벗어난 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마도 힐튼 호텔이겠지요. 대부분 유럽 쪽에서 온 관광객들인 것 같은데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하고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구나 싶습니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관광객에 이어 이번엔 현지인의 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방인들에겐 위험할 수도 있는 나일 강물이지만 현지인들에겐 그저 고맙기만 한 강물일테죠. 아무렇지도 않게 강물에 발을 담그고 강물에 그릇도 씻고 하는 모습입니다.



언덕에서 내려온 꼬마 녀석 둘이 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두 녀석에겐 이곳이 놀이터이기도 할텐데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 강변의 쓰레기를 보고 있자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호텔 후문 쪽에 도착을 했네요. 중간에 사고만 없었다면 20여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는데 50분이 걸려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온거랑 걸린 시간은 별 차이 없어졌지만 버스를 타고 온 것보다 훨씬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듯 합니다.





이제 곧 배가 멈추어 서면 사진 속에 서있는 배를 통과해 땅과 연결해 놓은 나무판을 건너 내리게 됩니다.



배에서 내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
선장이 완전 지쳐 있는 듯 보이네요.



호텔의 후문쪽입니다. 호텔이 이렇게 나일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면 아침 산책 때 여기까지 와 보는건데...



후문 쪽에서 바라본 호텔 수영장이구요...



이곳 야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아스완까지 이동을 할텐데, 예정에 없던 사고가 아스완에는 비록
예정보다 늦게 도착하게 만들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행의 또다른 추억 만들어주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 아스완으로 이동하며 찍은 사진들을 올려 볼게요.

09

[이집트] 룩소르에서 아스완까지 이어지는 시골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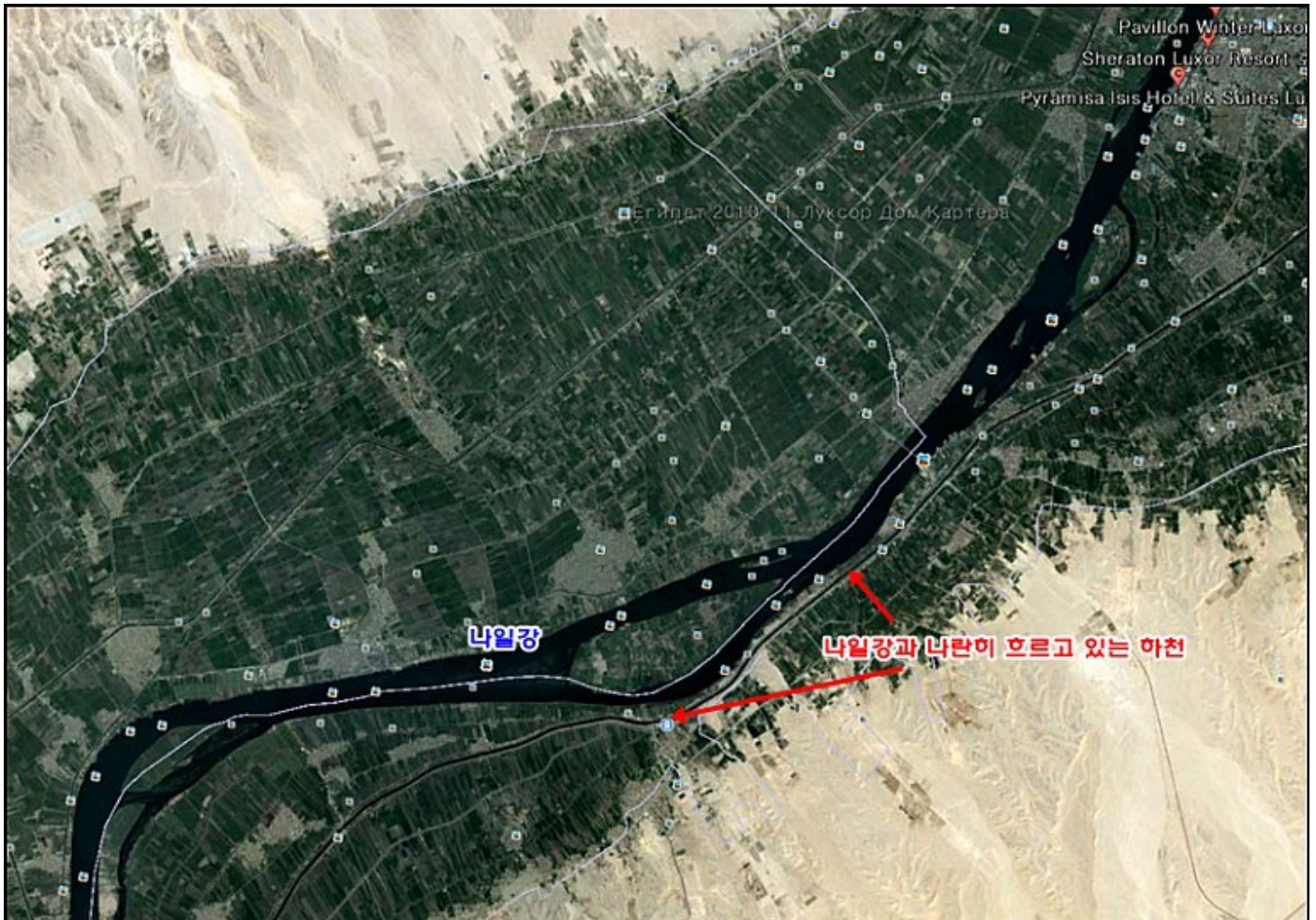
2011년 12월 30일 (금)

룩소르에서 아스완으로...



겨우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머물렀을 뿐인데 어느새 익숙한 느낌마저 드는 룩소르를 떠나 아스완으로 향합니다. 현지 가이드에 의하면 룩소

르 사람들은 조상들이 도굴꾼들이었기 때문인지 순박하지 않고 별로인 사람들이 많지만 아스완 사람들은 굉장히 순박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하네요. 겨우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다갈 우리 같은 관광객들에겐 그게 뭐 그리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아스완에 대한 기대가 은근히 생기는 듯도 합니다.



나일강과 나란히 흐르고 있는 작은 하천(?)을 따라 버스가 계속 달립니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하천 주변엔 농지가 있고....



마을이 있고...



나무들도 보이지만...



하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마을 뒤쪽으로 저렇게 황량한 산들이 병풍처럼 가로막고 서있는게 보입니다.



이런 황량한 땅에 작은 초록빛 농지들이 있다는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말이 주요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집트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말대신 나귀를 운송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나귀는 자기 몸의 10배나 되는 짐을 질 수 있고 언덕도 잘 올라 가기 때문에 물건도 저 날라야 하고 사람도 실어 날라야 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귀같은 놈'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욕을 하는 거라고 해요. 고생도 심하게 하고 자기 주인도 몰라보는 바보 같은 동물이 나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잠시 휴게소에서 쉬어 갑니다. 이집트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항상 돈을 내야 하는데 화장실 앞에서 돈을 받고 약간의 휴지를 떼어 줍니다.

가운데 휴지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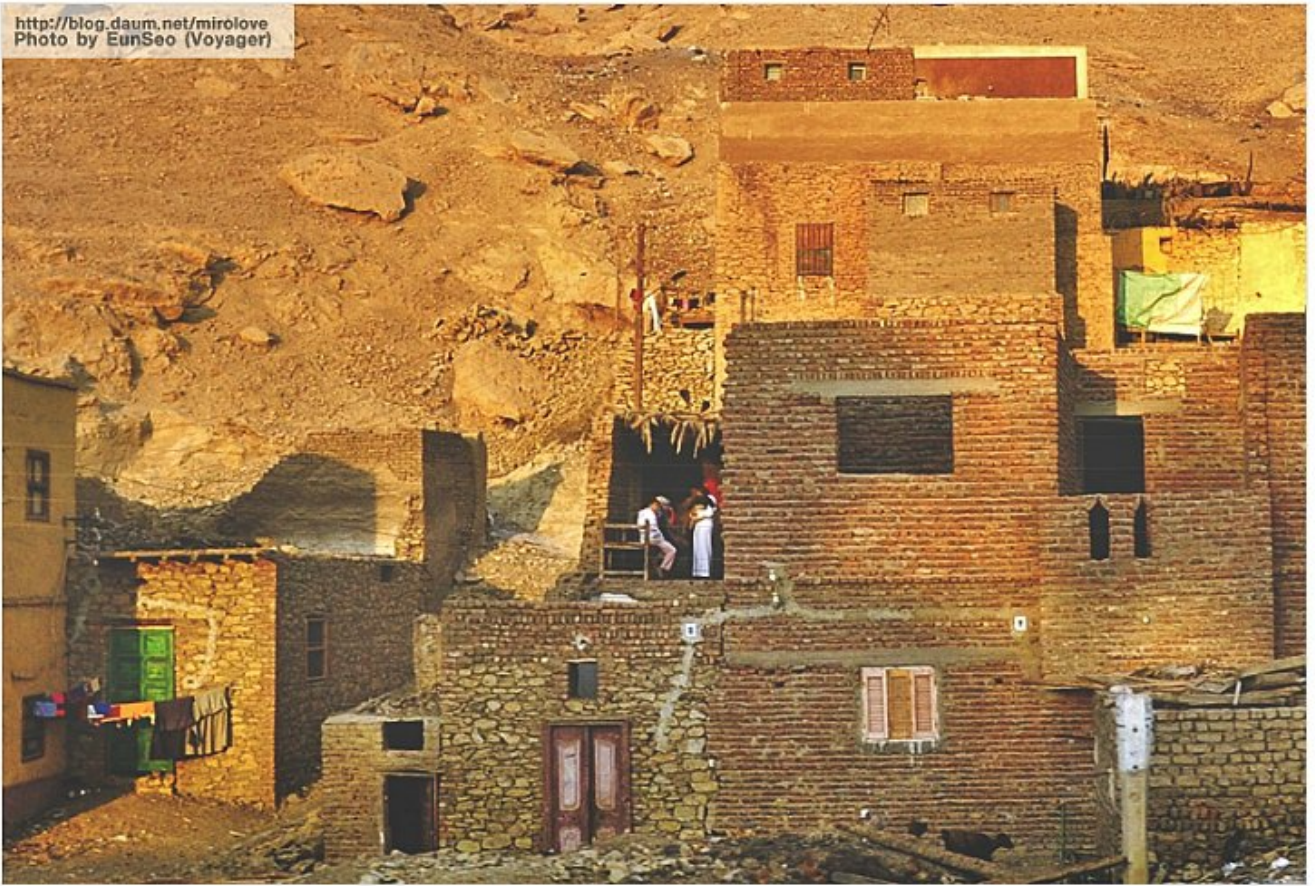
그 옆으로 스카프를 들고 있는 상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 상인이 들고 있는 노란 스카프를 겨우겨우 깎아서 5달러를 주고 샀는데 아스완에 갔더니 더 싸게 팔더군요. 여기서 안사면 똑 같은게 없을 줄 알고 샀더니만 사방 천지에 깔려 있는 똑 같은 스카프들입니다. 기념품점의 상품들이 다양하지가 않고 어디나 비슷비슷하니 조바심 내지 말고 가격이 맘에 안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스러운 느낌이 나는 걸로 산다고 샀는데 한국에 오니 너무 저렴한 티도 나고 그림도 눈에 띄어서 하고 다닐 수가 없네요. 그냥 재미로 하나 사든지 아니면 조금 값이 있는 걸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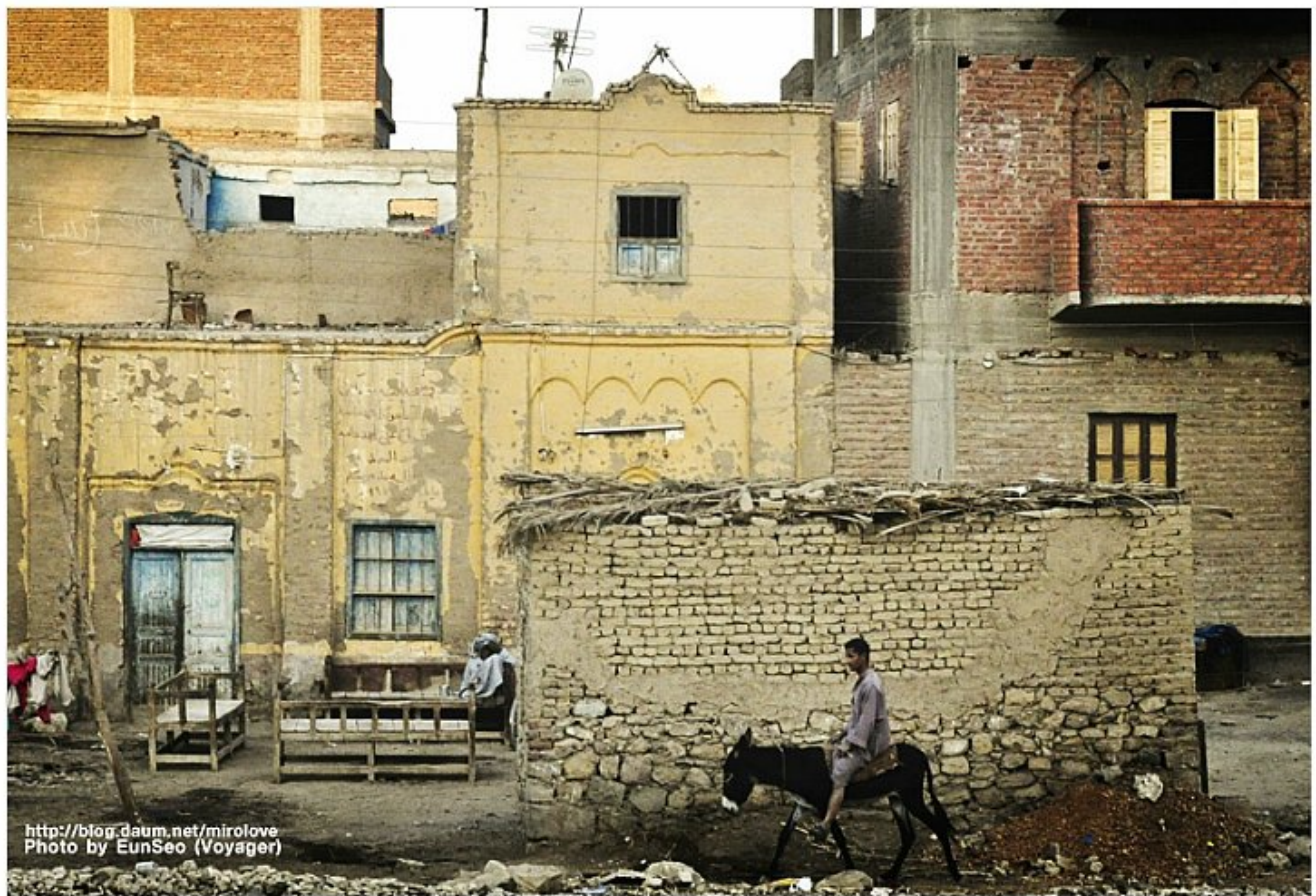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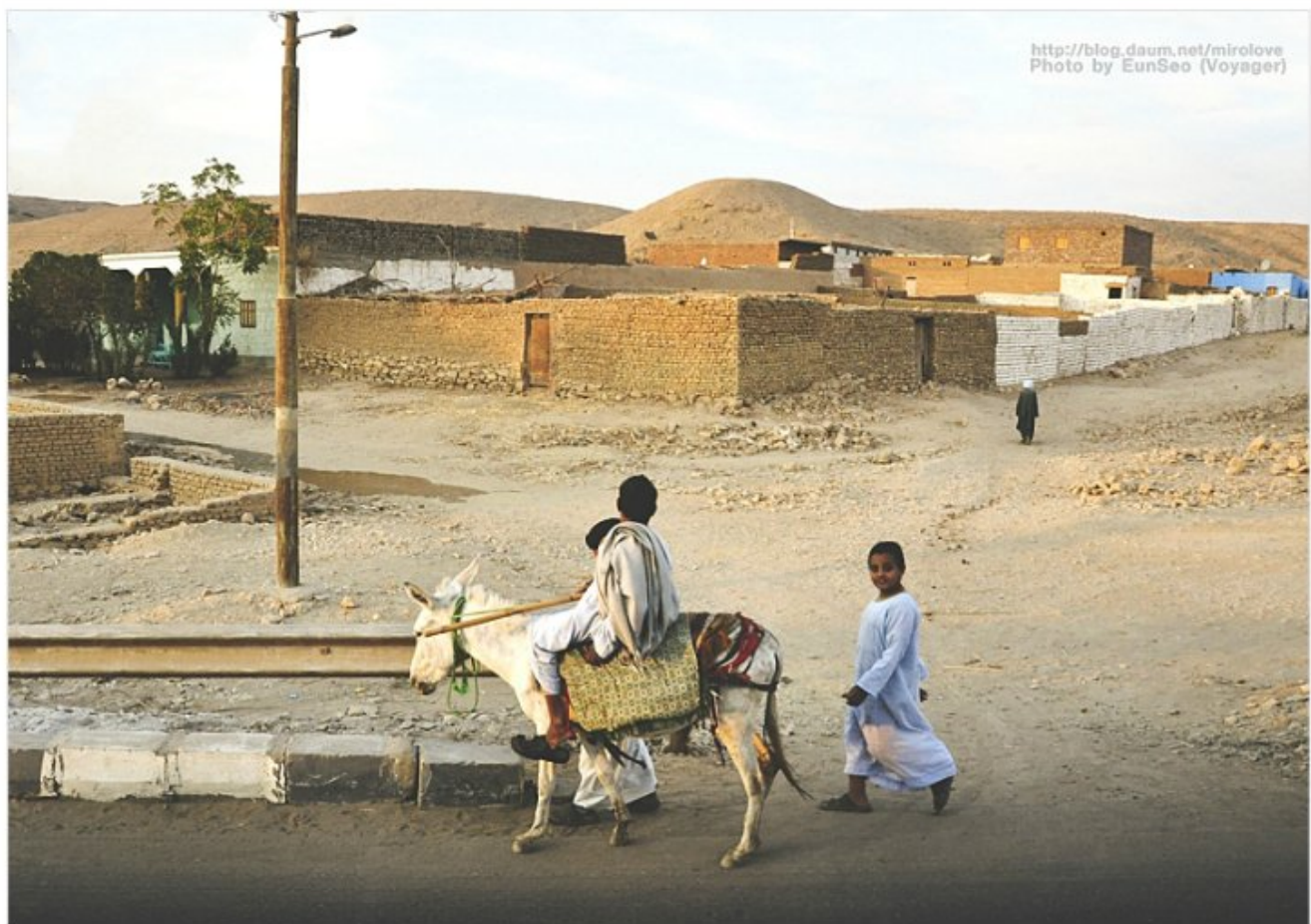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각이라 빛이 좋네요. 해가 짹짹할 때보다 확실히 분위기 있는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빛이 가장 좋을 때가 지나고 이제 사진이 어둡게 찍히기 시작합니다.
철길까지 침범한 이 녀석들은 염소인가요?



이 사진 속에도 나귀가 등장하고...



이 사진 속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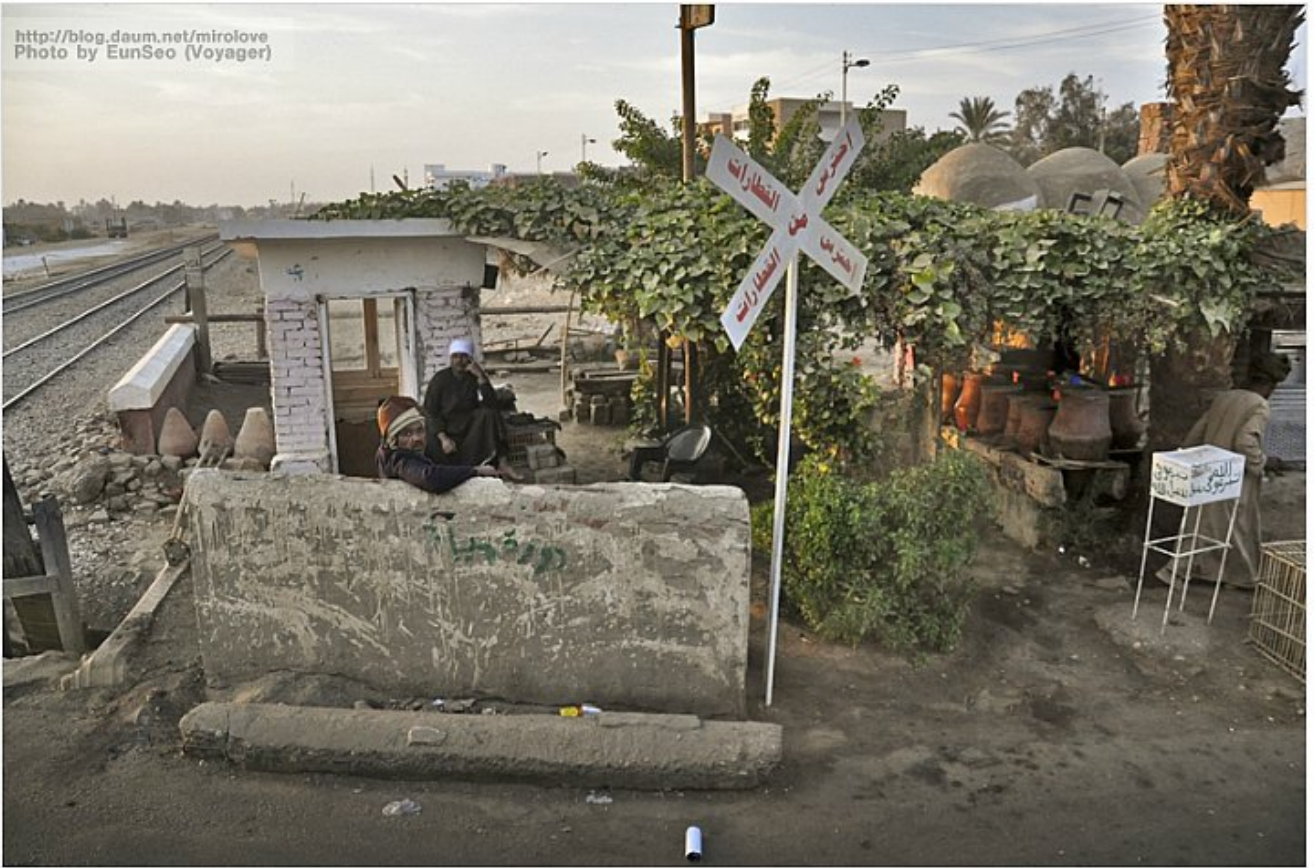
이 사진 속에도 나귀가 등장합니다.
이 녀석은 정말 힘들겠네요. 사람 셋에 짐까지...
바퀴 달린 수레라서 오히려 편찮으려나요?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선 여자들이 집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거의 남자들 투성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나라에선 남정네들의 수다가 한층 더 요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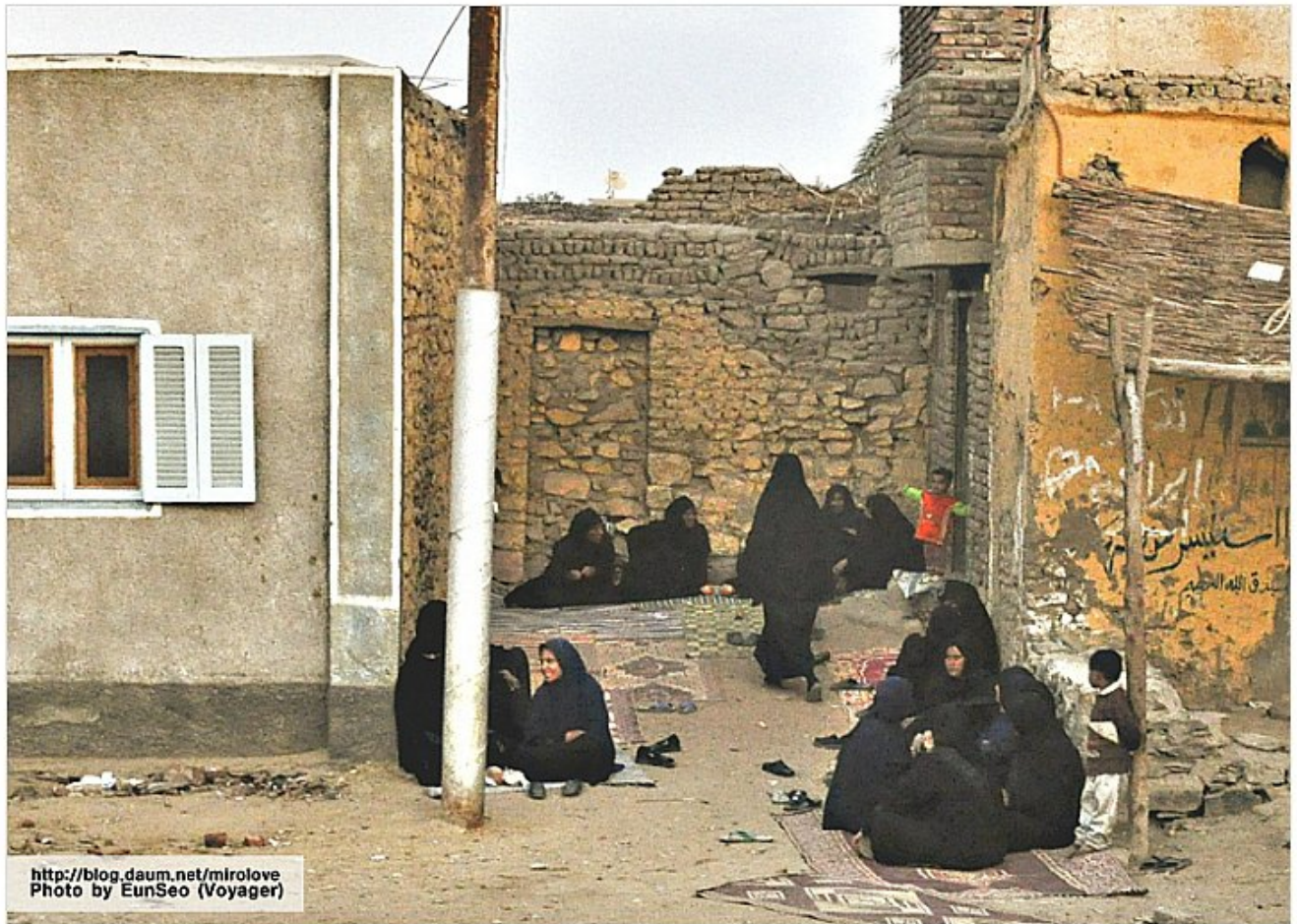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철길의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진을 찍다 시선이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표정이 험악해 보여서 순간 움찔 했대요. ㅎㅎ



골목길에선 아이들의 놀이가 신나게 펼쳐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저렇게 놀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골엔 아이들이 희귀해서 그럴 수 밖에 없을테고 도시의 아이들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내느라 놀 시간이 없어서 그럴테구요.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오랜만에 보는 여자들이네요.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



아스완에 한참 가까워진 것 같긴한데 끝까지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군요.
날이 어두워져서 사진을 찍는 것이 곤란해졌거든요.



아스완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8시가 되었군요.



정원의 분수가
미니 오벨리스크
모양입니다.



로비의 탁자 문양이
눈에 들어 오네요.



아스완의 호텔에 당도하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짐도 풀지 않고 카메라부터 집어 듭니다.

호텔 방에서 바라본 아스완 시내의 불빛이에요.

아스완에서도 하루쯤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스완은 아부심벨을 가기 위해 들린 도시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저 불빛들이 나오는 상관없는 불빛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꾸물대지 말고 빨리 자야겠어요.

내일 콘보이 호위를 받으며 아부심벨로 가려면 4시까지 모여야 하기 때문에 3시에 모닝콜을 한다고 해요.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

[이집트]아부심벨 신전에서 눈물을 흘리다.

2011년 12월 31일 (토)

아부심벨 신전에서 눈물을 흘린다.



오늘은 기자의 세 피라미드에 버금 가는, 이집트 여행의 하이라이트, **아부심벨 신전**을 보는 날....

잠은 자는둥 마는둥 하고 꼭두새벽부터 서둘러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스완에서 아부심벨까지
3시간 정도밖에 안걸리는데
왜 새벽부터 서두르나요?

아스완에서 아부심벨까지 차로 이동할 때는 아무 때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로 하루 두 번 정해진 시각 (새벽4시와 오전11시)에 **관광경찰(콘보이)**의 호송을 받으며 이동해야 하는데 오전11시보다는 새벽4시에 출발하는 차량이 더 많다고 한다. 여름에는 당연히 무더위를 피하고자함이 가장 큰 이유일테고 다른 이유로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닐지....

아무튼 우리는 새벽4시 출발 시각에 맞춰 집결장소에 도착했고 제대로 도착했으니 곧 출발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호송차가 떠날 생각을 않더니 결국 30여분이 지나서야 출발한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나!!! 이집트에선 시간 약속 같은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한 때 우리도 **코리안 타임**이란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고 살아야 했던 적이 있지만 **이집션 타임**은 **코리안 타임**보다 한 술 더 떴으면 더 떴지 결코 덜 하진 않은 듯 하다.



버스가 출발하자 대부분의 일행들은 다시 잠 속으로 빠져 들기 시작했지만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차창 밖 풍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아스완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시작된 사막 풍경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나마 어두워서 그다지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사막을 뚫고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를 한시간 이상 달렸을 무렵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해가 지평선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잠에 빠져 들었던 일행들도 하나 둘 일어나 이곳이 일출을 감상하거나 나처럼 열심히 카메라에 담거나 하며 자기의 방식으로 일출을 즐기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막은 아침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루더니...



조금더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해는 형태를 감추고 주변을 순식간에 빛으로 도배하기 시작했다.



붉은 기운이 모두 사라진 아침...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돌과 모래, 고만고만한 높이의 나즈막한 모래구릉들.



아스완을 떠난지 3시간여 만에 정확히 아부심벨 도착.

표를 구매하고 입구를 지나 작은 언덕을 돌아서니 나세르 호수가에 있는 **아부심벨 신전**이 째~하고 나타난다.



▲ 입장권으로 남기는 인증샷 한 컷!!!



이게 바로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했다가 **유네스코**의 구조작전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이곳으로 통채로 옮겨져 재탄생된 아부 심벨 신전이란 말이지!!!

사진을 통해 많이 보았던 모습이지만 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 온다.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다.

이런 위대한 유산이 물 속에 잠길 뻔 했다니...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되지 않았음이 너무나 고맙다.



아부심벨 대신전 정면에서 우리들을 지긋이 마주 바라보고 있는 람세스 2세의 석상들.

카르낙 신전에서도 룩소르 신전에서도 수없이 마주했던 바로 그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2세가 이 신전을 만든 이다.

람세스 2세가 신왕국 당시의 수도였던 테베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신전을 지은 것은 정치와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필요로 하는 많은 물자들은 아프리카 내륙에서 생산되는 것들이어서 현재의 수단과 국경을 이루는 지역이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금은 누비아 사막에서 생산되었고 석영과 석록암 등은 현재의 아부심벨 신전 인근에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역과 더불어 번성을 구가하였던 이곳에 신전을 세움으로써 람세스 2세는 국경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아부심벨 대신전을 살펴볼까!!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부심벨 대신전**은 하나의 돌산을 깎아 입구를 만들고 그 속을 파서 만든 거대한 **암굴 신전**이다. **안마당 - 첫째 탑문 - 큰 기둥 홀 - 작은 기둥 홀 - 성소**가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대신전 바닥은 안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 좁아지게 설계하여 더욱 성스럽고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 했다.



아부심벨 신전의 정면엔 높이가 22m에 달하는 람세스 2세의 좌상이 양쪽으로 2개씩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며 그 위로는 정오의 태양신인 **라-호르아크티**가 매의 머리를 한 **호루스**의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라-호르아크티** 양 옆으로는 람세스 2세가 신전의 주인인 태양신 **라-호르아크티**에게 봉헌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으며 그 위의 돌림 장식에는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비비 원숭이**들이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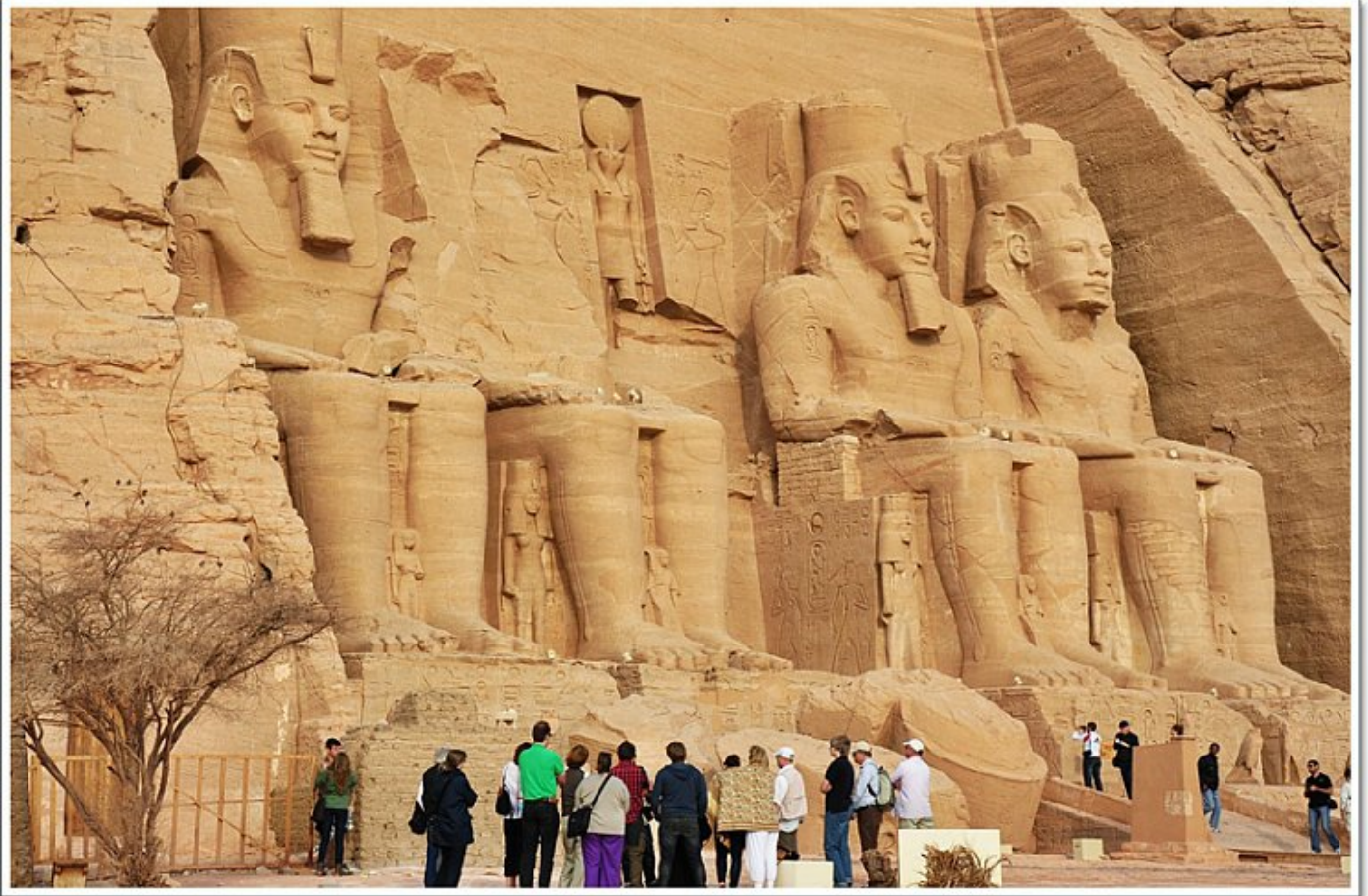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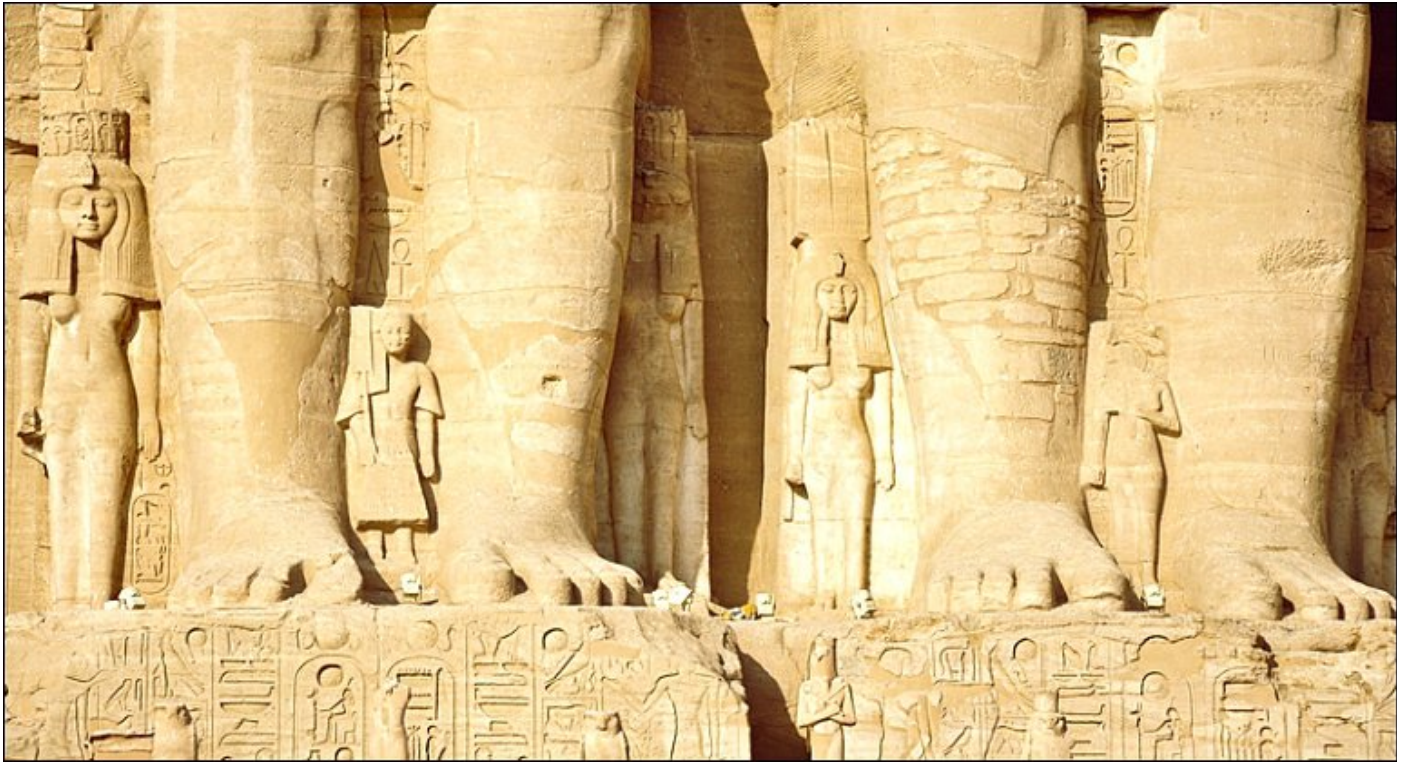
4개의 석상 중 왼쪽에서 두 번째 석상은 상체 부분이 손상되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데 기원전 2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거라 하며 이 때 바닥으로 떨어진 머리는 복원시키지 않고 석상 앞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 4개의 람세스 2세 석상 중 오른쪽 2개의 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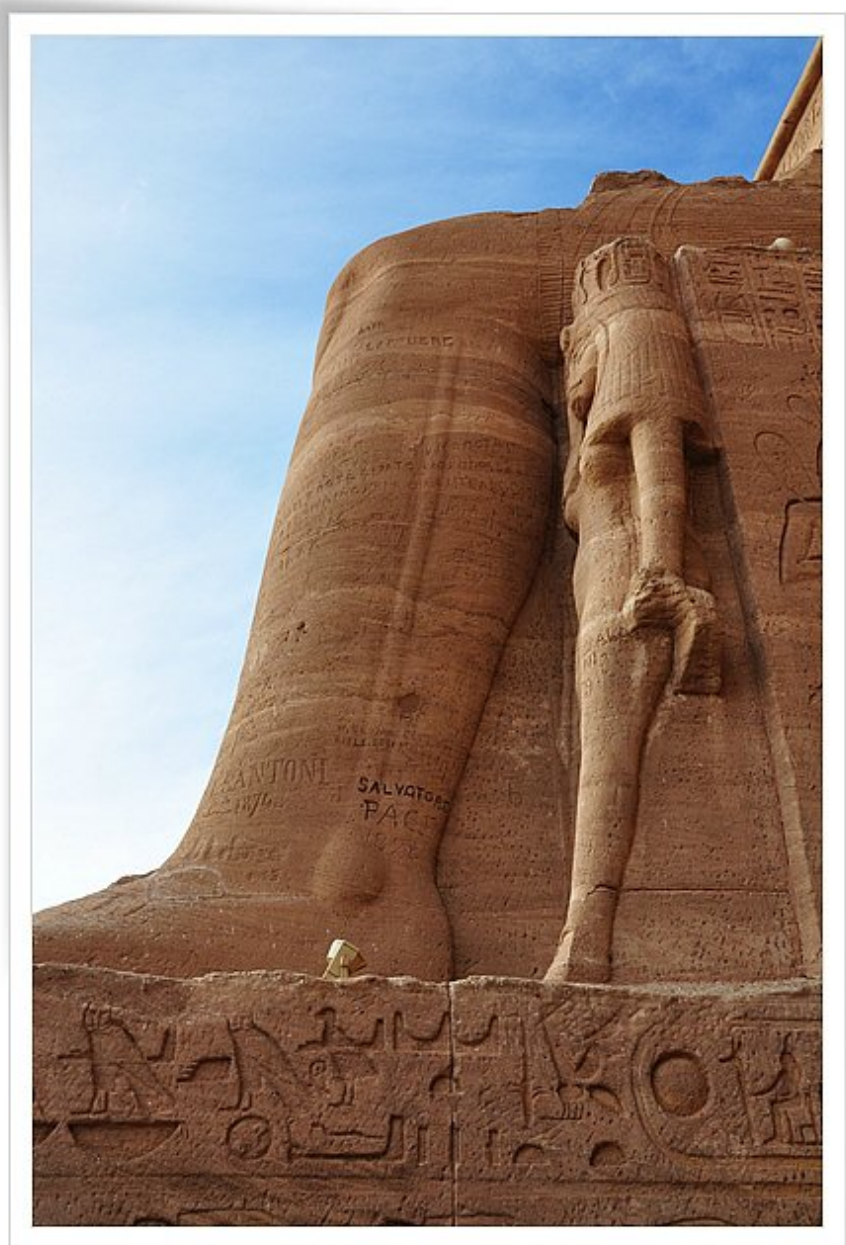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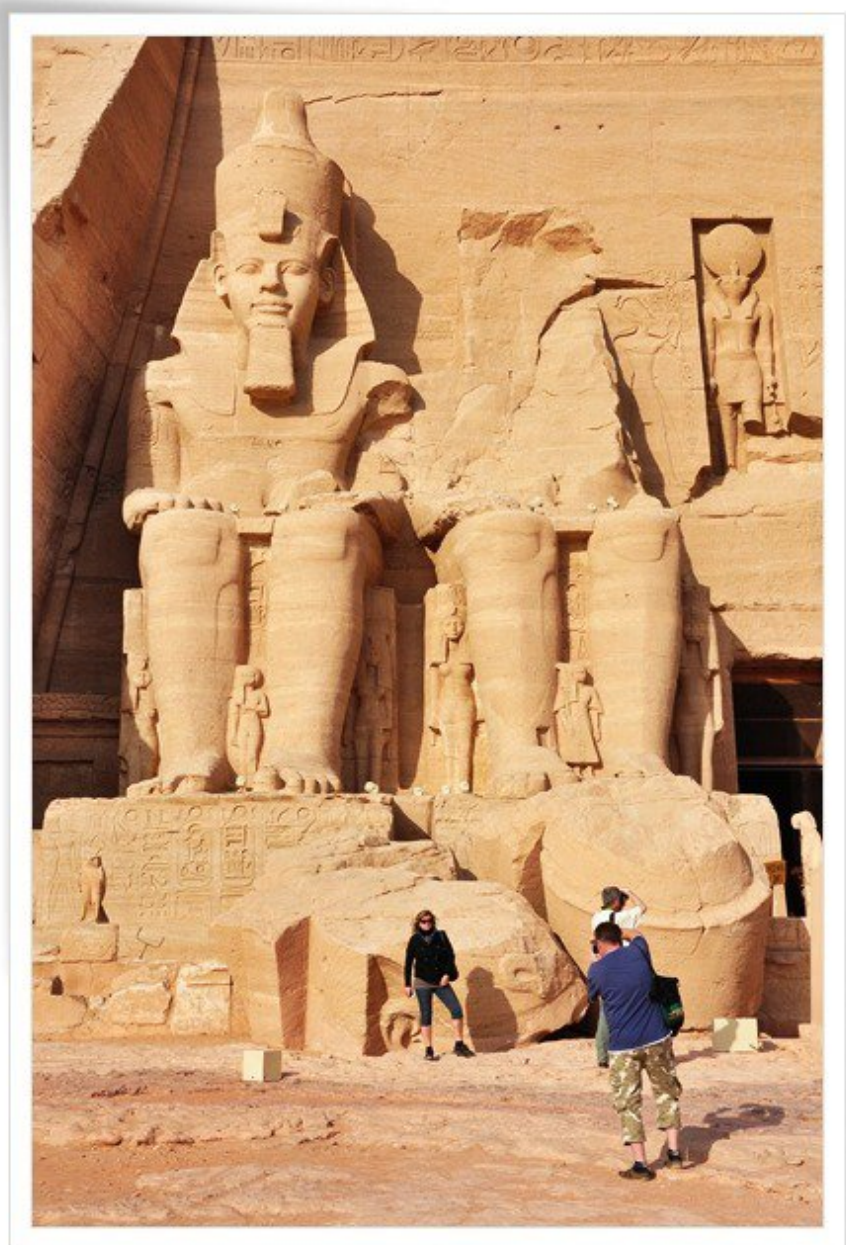
거상의 두 다리 밑에는 왕비인 **네페르타리**와 왕의 어머니, 왕자와 왕녀들의 석상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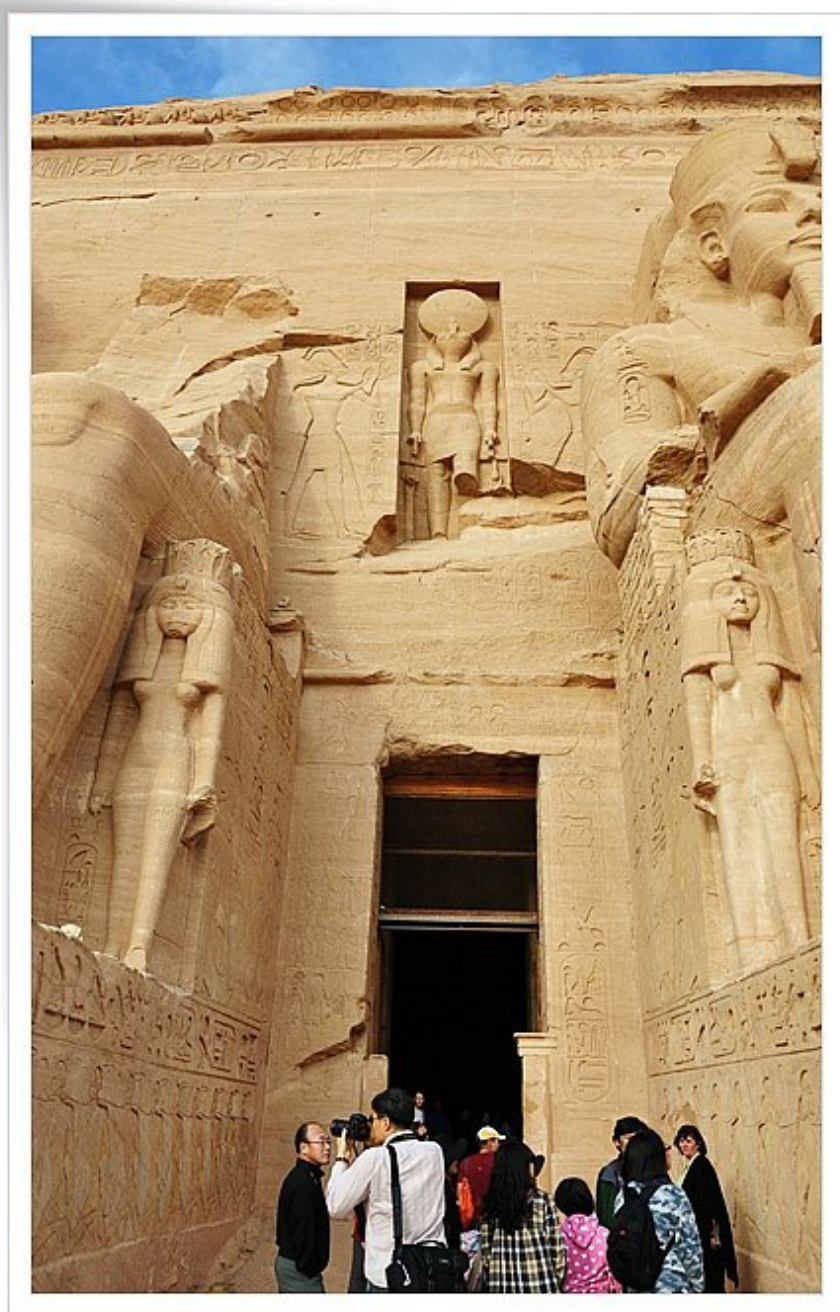




관례에 따라 주체인 람세스 2세에 비해 그 밖의 인물들은 아주 작게 표현되어 있다.







▲ 첫째 탑문



람세스 2세의 거상 아래 기초 부분에는 손이 묶인 **흑인**과 **소아시아** 민족의 **포로**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 국경을 위협했던 **베드인**, **누비아**, **리비아** 등 이집트 주변의 아홉 이민족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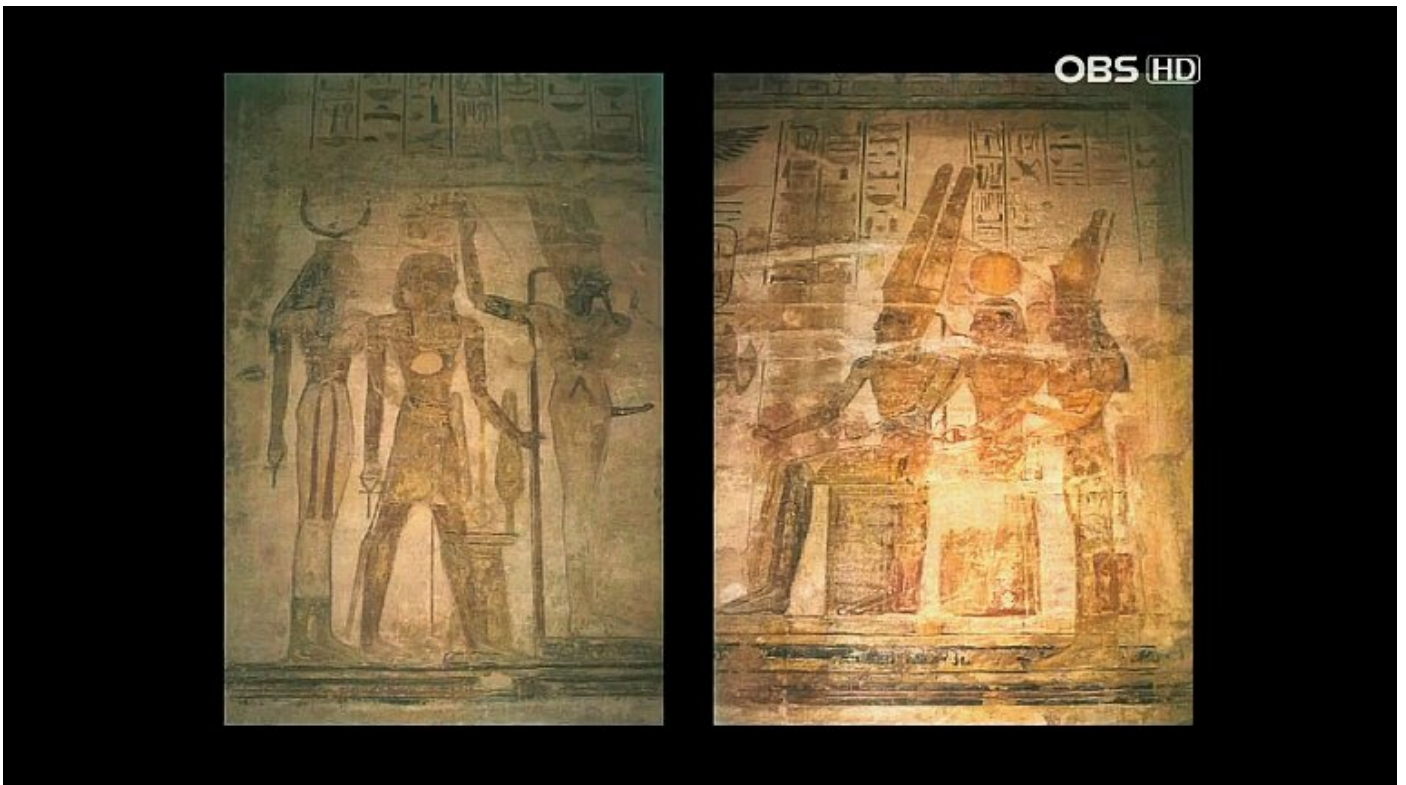
(사진 출처: 사진 한 장 속의 세계 1회 이집트-태양을 닮고 싶었던 미라)

(신전 안은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라 몇 장의 캡처 사진으로 대신하며 설명을 간략히 끝내야겠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면 입구부터 안쪽까지 **오시리스 기둥** (오시리스 몸통에 람세스 2세의 얼굴을 모양을 하고 있음) 여덟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기둥 홀**이 나오고 기둥 홀의 벽엔 람세스 2세의 정복 전쟁 모습이 돌새김으로 새겨져 있는데 북쪽 벽엔 **카데시 전투**에서 람세스 2세가 전차를 타고 혼자서 활을 쏘며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남쪽 벽엔 이민족들과 싸우고 있는 람세스 2세의 모습이 각각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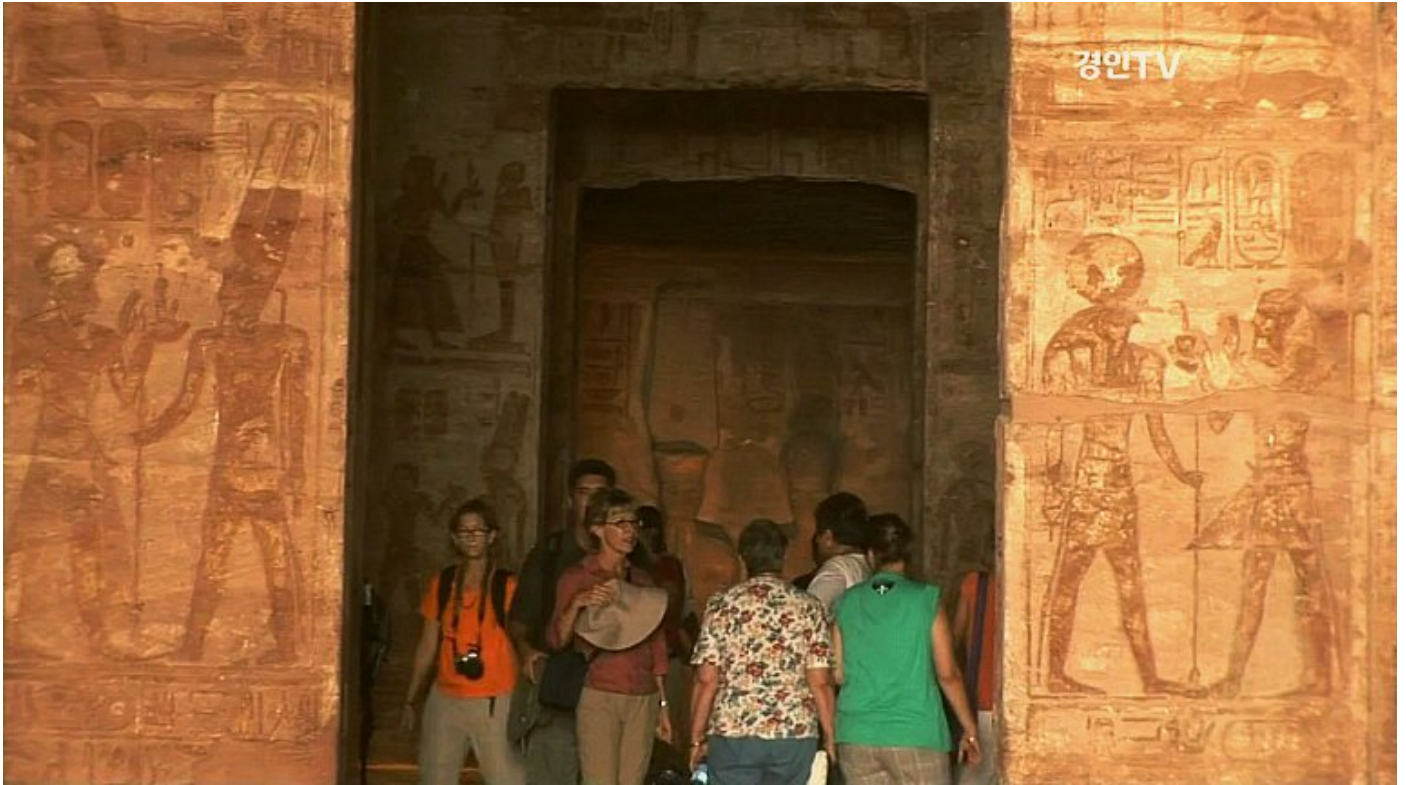


(사진 출처: 사진 한 장 속의 세계 1회 이집트-태양을 닮고 싶었던 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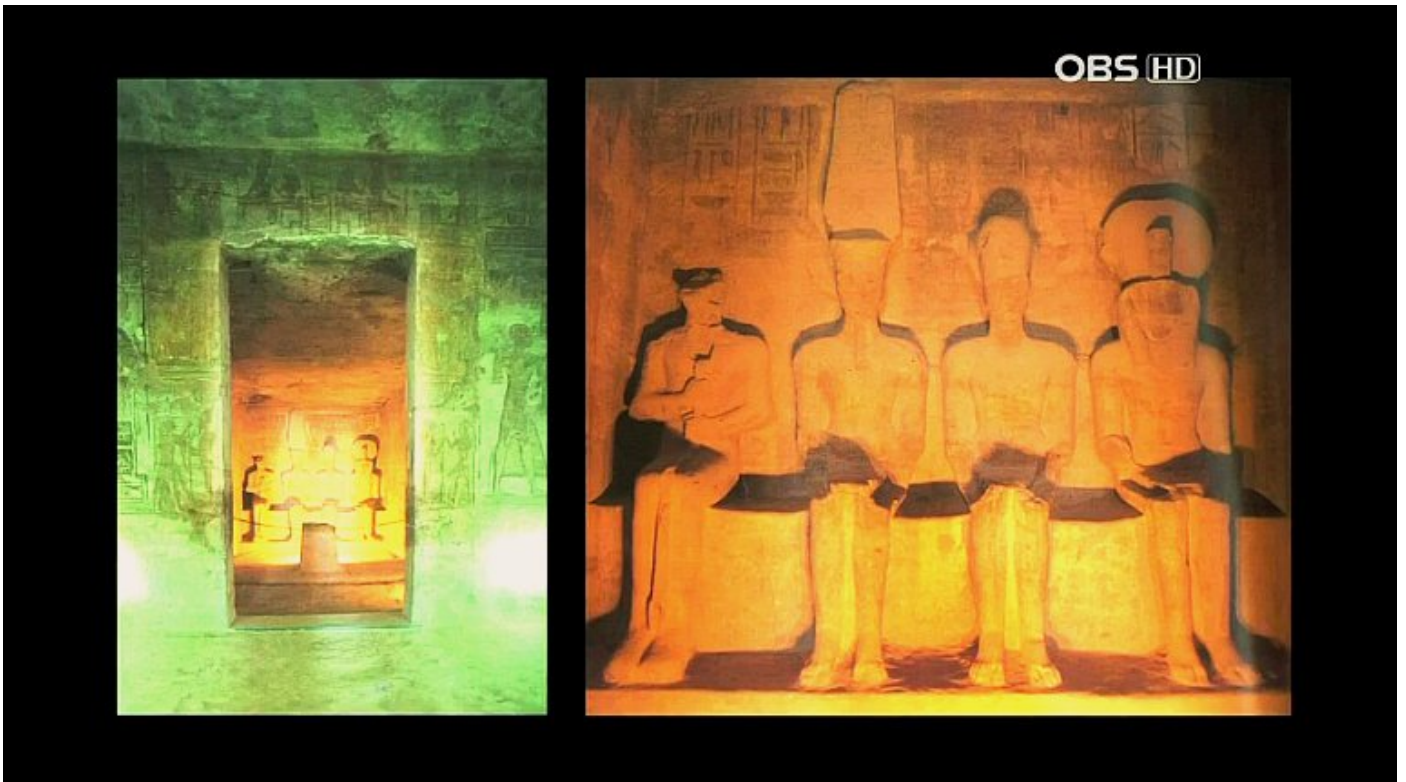
(사진 출처: 사진 한 장 속의 세계 1회 이집트-태양을 닮고 싶었던 미라)

큰 기둥 홀 다음에 있는 작은 기둥 홀에는 여러 신을 만나고 있는 파라오의 모습이 장식된 4개의 네모 기둥이 서 있으며...



(사진 출처: 사진 한 장 속의 세계 1회 이집트-태양을 닮고 싶었던 미라)

신전의 안쪽 끝에는 대신전의 중심인 **성소**가 있다.



(사진 출처: 사진 한 장 속의 세계 1회 이집트-태양을 닮고 싶었던 미라)

성소에는 신격화된 **람세스 2세**상과 신왕국 시대의 세 국가 신인 테베의 태양신 **아문**(아멘-라), 헬리오폴리스 태양신 **하라크티**(라-호르야크티), 멤피스의 어둠의 신 **프타**의 석상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곳은 해마다 두 번, **람세스 2세의 탄생일인 2월 22일과 그가 즉위한 날인 10월**

22일 새벽 5시 58분에 **태양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의 기적**이란 새벽에 입구로 들어온 태양 빛이 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람세스 2세와 그 옆의 두 태양신의 신상까지는 차례로 20분씩 비치지만 **어둠의 신인 프타**에게는 이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대신전을 옮기는 과정에서 설계 착오가 있어 지금은 하루 늦게 태양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신기함을 넘어 신비롭기까지한 설계를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할수록 대단하기만 할 뿐이다 .





많은 곳을 여행했기에 당연히 놀랍고 감동스러웠던 순간들도 많이 만났지만 아무리 감동스러워도 눈물까지 흘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곳 아부심벨 대신전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신비로움에 나도 모르게 흑~ 빨려 들어갔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눈물까지 흘리리라곤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이 참 당혹스럽다.

그렇게까지 감동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였기 때문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라도 이집트에서 딱 한군데를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주저없이 아부심벨 대신전을 선택하게 될 듯 싶다.

대신전을 나와 이제 소신전을 볼 차례....



▲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인 나세르 호수



▲ 나세르 호수와 아부심벨 대신전 (사진 출처: 사진 한 장 속의 세계 1회 이집트-태양을 닮고 싶었던 미라)



▲ 나세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아부심벨 대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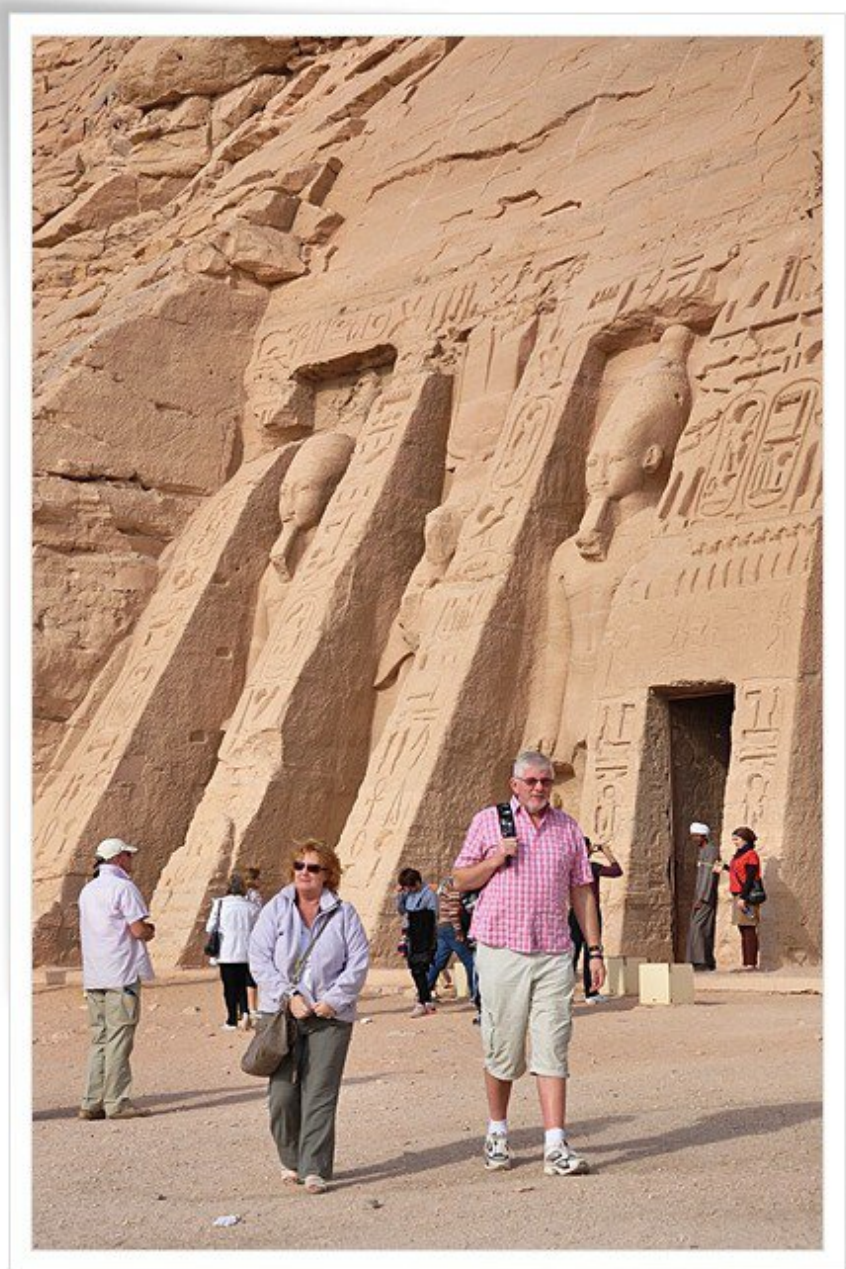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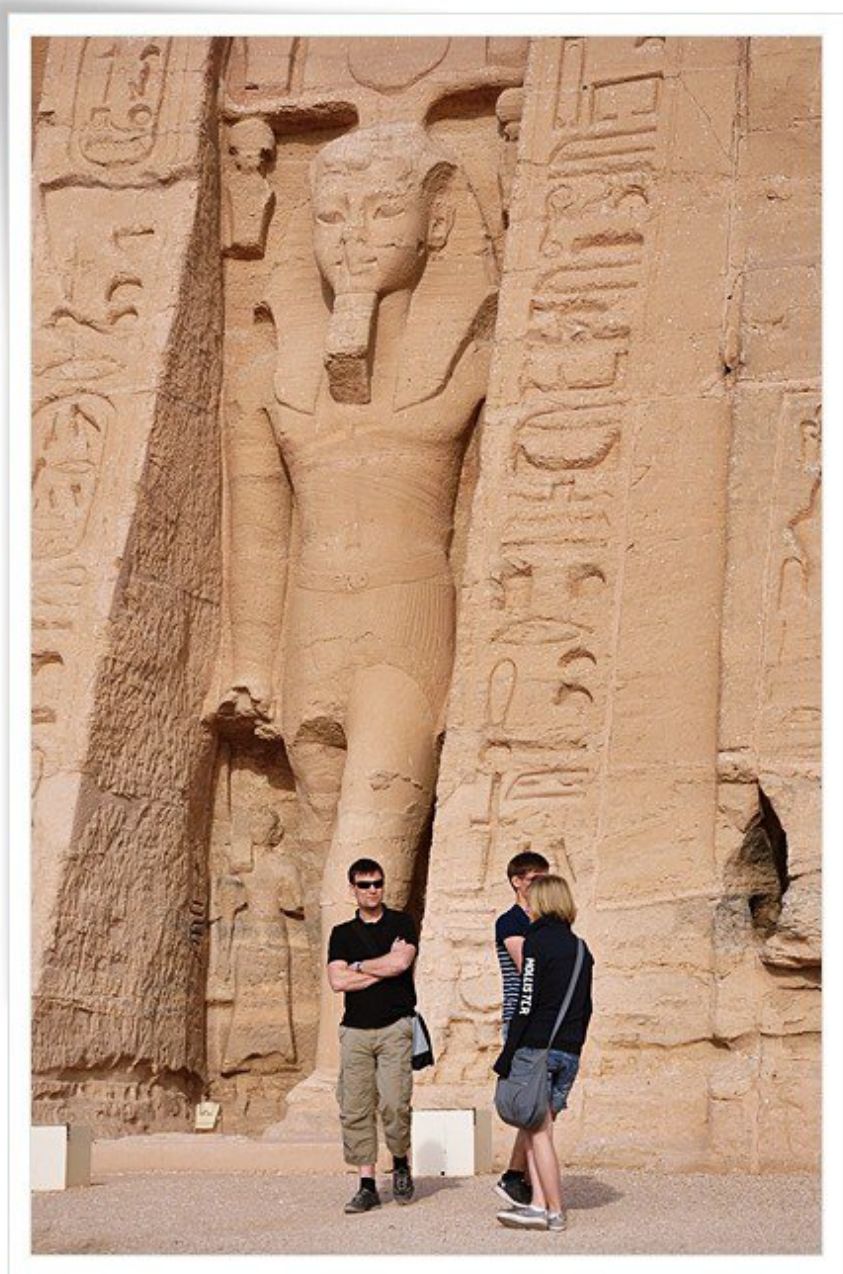
▲ 아부심벨 소신전 (네페르타리 암굴 소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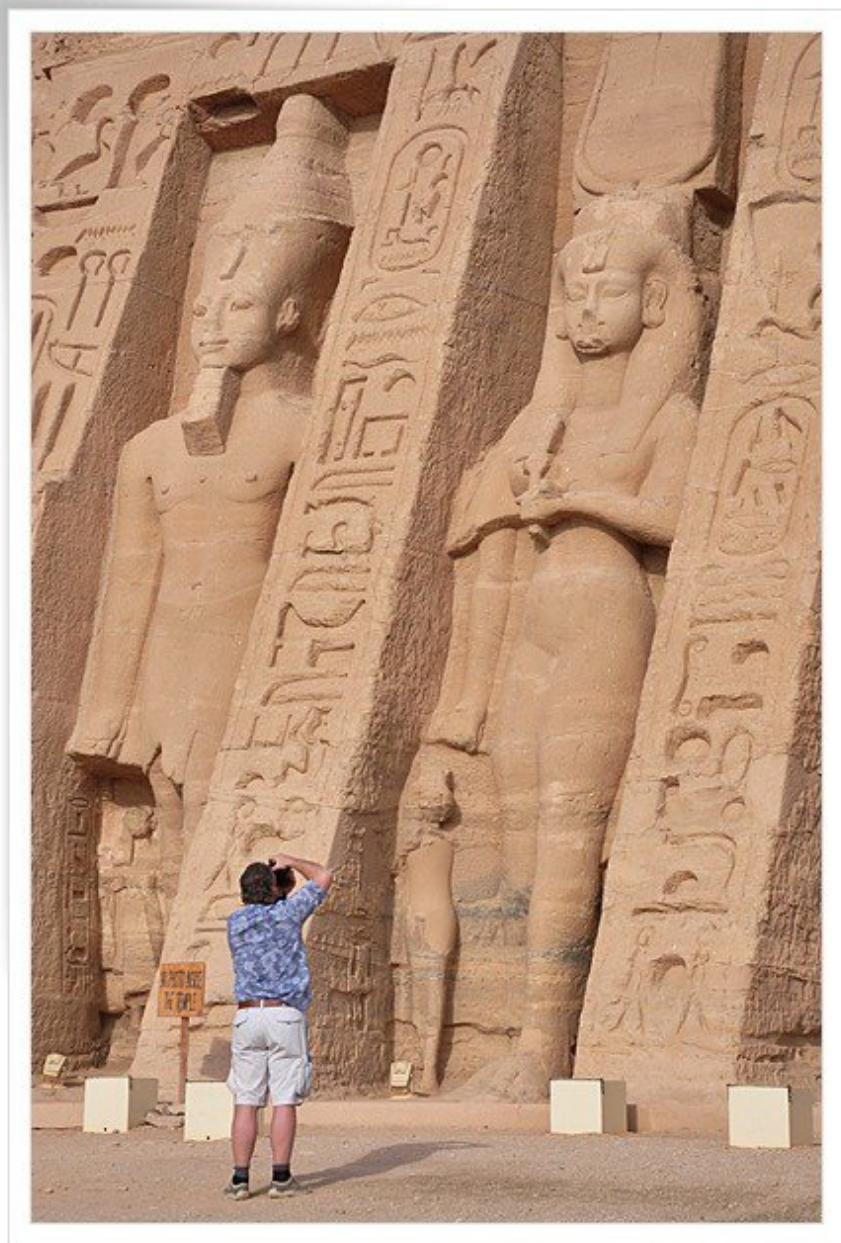


▲ 아부심벨 소신전 (네페르타리 암굴 소신전)

아부심벨 대신전에서 약 100m쯤 떨어진 곳에는 람세스 2세가 **하토르 여신**과 가장 사랑했던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해 만든 아부심벨 소신전이 있다. 규모면에서는 람세스 2세의 대신전보다 당연히 작지만 아름다움은 그에 못지 않은 아름다운 신전이다. 작고 아담한 신전의 정면 바위 언덕에는 약 9.5m높이의 람세스 2세 입상 4체와 네페르타리 입상 2체가 조각되어 있으며 무릎 높이에는 그들의 자식들이 조각되어 있다.







▲ 람세스 2세와 네페르타리, 그리고 그의 자식들 조각상



높이가 9.5m에 달하는 거상은 왼발을 앞으로 내민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물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네페르타리**는 머리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반과 두 개의 긴 깃과 뿔이 달린 관을 쓴 **하토르** 여신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람세스 2세** 석상과 거의 맞먹는 크기로 조각된 **네페르타리**의 이 거대한 조각상은 **람세스 2세**가 왕비는 왕의 무릎 아래의 높이로 표현해야 한다는 고대 이집트의 관례를 깨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인지 **람세스 2세**가 고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였다면 **네페르타리** 왕비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왕비였다고 전해진다.



▲ 아부심벨 대신전과 네페르타리 소신전

소신전도 대신전과 마찬가지로 신전 내부 촬영 금지라 사진이 없어 자세한 설명은 좀 힘들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신전 내부가 전체적으로 매우 단순하게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과 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기둥홀의 **하토르** 기둥들이 매우 인상적이라는 것이다. 이 여섯 개의 기둥들은 정사각형 기둥에 하토르 여신의 얼굴을 조각한 기둥들로 **하토르 여신**의 얼굴이 팬시 용품이나 그려져 있을 법한 만화스러운 느낌에 현대적이고 개성만점의 캐릭터 모습이라 처음엔 놀라웠고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었다. 신전 안의 입구 벽면에는 **람세스 2세**가 적을 죽이는 모습을 **네페르타리**가 지켜보는 모습을 새긴 부조가 있고 측면 벽에는 **네페르타리**가 **람세스 2세**와 동등한 위치에서 **하토르**보다 먼저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집트 역사상 왕비에게 신전을 지어 바치고 그 신전의 정면을 파라오와 같은 크기의 왕비상으로 장식한 것은 람세스 2세 뿐이었다니 그렇게 존중 받고 사랑 받은 네페르타리는 얼마나 행복한 여인이었을까 시공간을 초월해 같은 여자로서 네페르타리가 마냥 부럽지 않을 수 없다.



▲ 네페르타리 소신전에서 바라본 나세르 호수



▲ 신전의 뒷편



▲ 아부심벨 신전 입구의 주차장

새벽부터 달려온 **아스완**에서 **아부심벨**까지의 길을 이제는 아부심벨에서 아스완까지 다시 한 번 더 달려야 한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콘보이의 호위를 받아야 해서 또다시 주차장에서 떠나길 기다리는 중....



▲ 아부심벨 신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

출발이다. 룩소르에선 대부분의 집들이 흙빛 그대로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곳은 더운 날씨 탓인지 흰색의 집들이 많은 듯...



비행기가 낮게 날고 있는걸 보니...여기가 아부심벨 공항???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막...
지루할 법도 하건만 사막의 모습이 다채로워서인지 지루함도 잊고 사막 풍경에서 시선을 땔 줄 모른다.



그 유명한 '짜장면 시키신 분~'이란 CF가 떠오르는 장면 포착.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가는 저것의 정체는 뭘까??? ㅋㅋ



말로만 듣던 **신기루**를 보았다.



처음엔 나세르 호수인가 했었는데 정말 신기루다. 세상에...
하루 이틀만 물을 못먹었어도 뛰어내려 달려갔을 것 같은 사실적인 모습.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가 따로 없다.

다음 이야기는 아스완에서 이어집니다.

11

[이집트]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스완 하이댐

2011년 12월 31일 (토)

Ranee in Aswan

-아스완 하이댐-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로 생겨난 나세르 호수와 아스완 하이댐의 건설로 수몰될 뻔했던 아부심벨 신전을 먼저 본 우리는 드디어 그 아스완 하이댐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아스완 하이댐을 보기 전에 먼저 보게된 것은 아스완 하이댐 준공 기념탑...



고대 이집트의 연꽃을 형상화 했다는 기념탑





계단을 올라 기념탑 안쪽으로 들어서니 바깥쪽에서 본 것보다 기념탑이 훨씬 커 보인다. 기념탑의 안쪽엔 손이랑 햇살 등 무언가를 상징하는 듯한 부조들이 새겨져 있고....



손 아래 쪽엔 이집트와 아스완 하이댐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구소련을 상징하는 마크 같은 것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아스완 하이댐으로 이동...



티켓까지 구입해서 볼 정도의 볼거리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어쨌거나 매표소에서 티켓 구입.



아스완 하이댐을 배경으로 인증샷 한 컷





댐에서 바라본 기념탑



아스완 하이 댐은 구 소련의 협력으로 1960년에 착공하여 1970년에 완공된 댐이다. 이 댐의 완공으로 거대한 인공호수 나세르 호가 사막 속에 탄생한 반면 누비아 지역의 20여개 신전과 많은 옛 무덤들은 수몰되어 사라졌다. 아스완 댐에서 북쪽으로 7km 지점에는 1902년에 완공된 아스완 댐이 있다.





위 지도의 A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습



발전소 시설





위 지도의 B에 해당하는 부분의 모습







영국이 지었다는 아스완 댐을 지나 아스완으로 향한다.



감흥이 별로 없었던 곳이라 그런지 포스팅도 대충대충.
휴~ 어쩔 수 없다.



12

[이집트]미완성 오베리스크가 있는 아스완채석장

2011년 12월 31일 (토)

Ranee in Aswan

-미완성 오벨리스크-



아스완 하이댐을 둘러본 후 아스완에서 두번째로 찾은 곳은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있는 채석장이다.



이집트에서 화강암이 있는 지역은 아스완 밖에 없기 때문에 아스완은 고대부터 화강암 채석장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부근에 흩어져 있는 채석장에서 잘라낸 화강암은 멀리 기자까지 운반되어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사용되거나 룩소르 등지의 신전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고 한다.



입장권으로 남기는 인증샷 한 컷



우리가 찾은 이 채석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가 되었을지도 모를 미완성의 오벨리스크가 있어 관광지가 된 곳이다.



길이 41m에 무게 1100t에 달하는 이 오벨리스크는 카르낙 신전에 세워질 오벨리스크였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미완성인 채로 방치된 이유는 안타깝게도 작업 도중 균열이 생겨서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계가 모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현대에야 이런 오벨리스크 하나 세우는 것쯤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해내야 했던 고대엔 오벨리스크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을지 이 오벨리스크만 하나만 보아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듯 하다. 첫번째 과정인 오벨리스크의 모양을 완성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일진데 오벨리스크를 부러뜨리지 않고 수백 km를 옮기는 일이며 옮겨진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일들은 얼마나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까....



오벨리스크 하나에도 그런 수고로움과 고통들이 숨어 있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것들을 보며 감동이 전해받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13

[이집트 아스완] 나일강에서 펠루카를 타다.

2011년 12월 31일 (토)

Ranee in Aswan

-펠루카 타기-



오전 일정을 마치고 나니 2시를 훌쩍 넘긴 시각.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예약된 음식점으로 향한다.



뺨을 스치는 강바람이 좋아서 배고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마냥 달리고 싶단 생각뿐인데 배를 탄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예약된 음식점 앞에 배가 멈추어 선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점심을 먹고 펠루카를 탈 예정이기에 약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음식점 계단을 오른다.

계단을 올라 음식점 건물 앞.

누비안 레스토랑이라 쓰여 있는 음식점 간판이 눈에 들어 온다.

'맞아!! 아스완은 누비아족의 땅이었지.'



점심 메뉴로 우리나라의 갈비찜이랑 볶음밥과 흡사한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음식점을 나서니 여러대의 펠루카 중 한대가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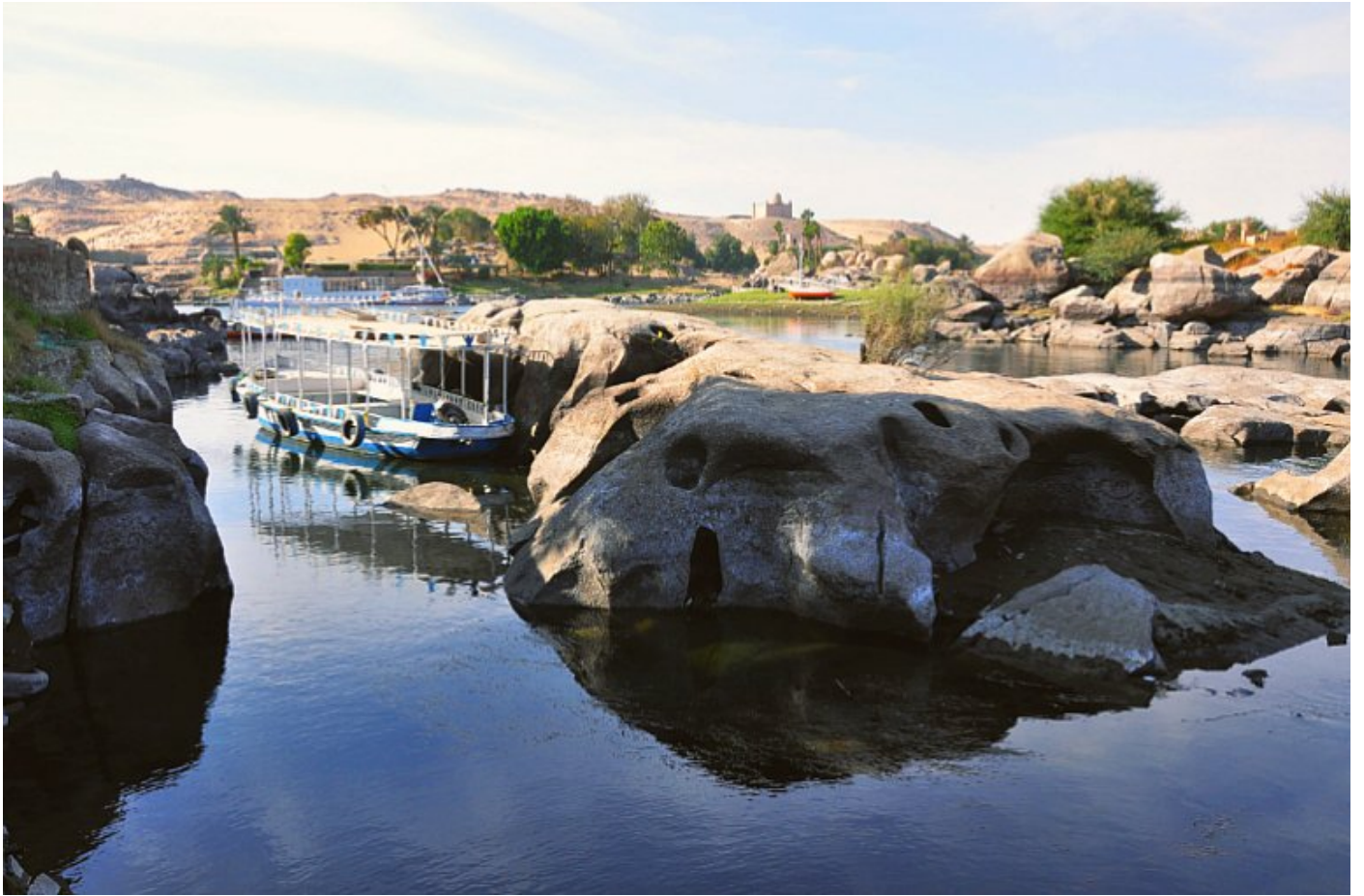
'저 펠루카를 타려나 보군.'



우리들이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도 계속되는 가이드와 사공들 간의 대화.
'가격 흥정 중인건가?'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가이드의 사인에 따라 펠루카에 올라 탄 우리들.
이내 출발하려는지 사공이 돛을 정리한다.





그리고 출발~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바람이 센 것 같지도 않은데 순전히 바람으로 배가 움직인다니...



나일강가 선착장엔 손님을 아직 맞지 못한 수많은 펠루카들이 돛을 펴지 못한채 대기중이고...



나일강엔 흰 돛에 바람을 한가득 안은 펠루카들이 유유히 떠다니고...

영국 BBC방송에서 발표한 <죽기 전에 해야할 것 50가지> 중에 나일강에서 펠루카 타고 일몰 보기가 있다더니 일몰의 풍경이 아님에도 참으로 평화로운 풍경이란 생각이 든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무렵 갑자기 나타난 소년 하나.

겨우 판대기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있을 뿐인데 손을 노 삼아 나일강을 제 놀이터라도 되는 양 어찌나 자유자재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지...



하지만 그 소년에게 나일강은 놀이터가 아니었다. 목적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었으므로...
소년은 우리가 타고 있는 배로 다가와 제 목적을 달성하자 이내 또 다른 배를 향해 사라져 간다.
수영도 물론 잘하겠지만 어쨌거나 위험할 수 있는 일인데...
사라져 가는 소년의 뒷모습이 씁쓸하다.



무하마드였던가?? 이름은 어느새 잊었지만 3일간 함께 했던 현지 가이드와의 기념 촬영.

모터 달린 배와는 달리 심하게 기우뚱거리는 펠루카를 타고 힘겨워 하던 차에 든든한 팔을 내주어 펠루카를 타는내내 팔짱 끼고 있어야 했던 추억(?)이... ㅎㅎ

팔짱 끼고 버티느라 사진은 거의 찍지 못하는 속상함이 있었지만 말이다.ㅠㅠ



정박해 있는 유람선들



어느새 내려야 할 시간.

기우뚱 거리는 펠루카를 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고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버티내는 것에 급급하여 주변 풍경을 세세히 감상하지도 못했지만 새로운 경험에 마음이 설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이 배에서 내리면 카이로로 가는 야간 열차를 타러 아스완 기차역으로 향해야 한다.

이미 열차가 떠날 시각이 임박했는데 열차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을지...

가이드가 탈 수 있다고 장담하는데도 불안하다.

잠시 이집션 타임을 잊고 있었으므로.

14

[이집트]바하리야사막(샌드마운틴, 흑사막)

2012년 1월 1일 (토)

바하리야 사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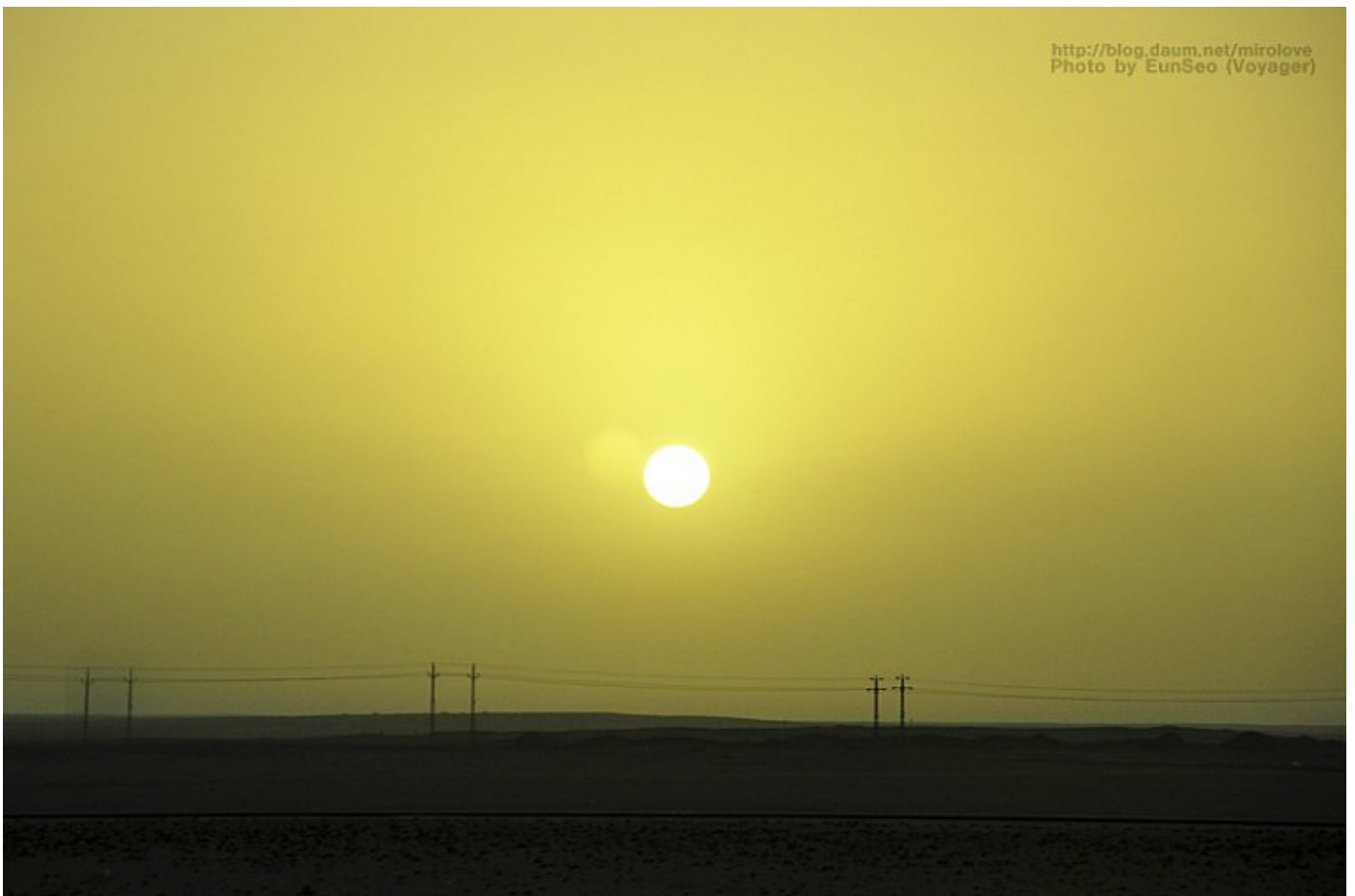
카이로행 야간침대열차 안에서 2012년 새해를 맞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타국에서 맞는 세번째 새해다.

새해 맞이 파티를 한다고 식당칸에 모여 샴페인 터트리고 2차로 가이드의 침대칸에 모여 수다를 떨다보니 눈 한번 못 붙이고 어느새 카이로에 도착했다. 아스완에서 열차를 탄지 15시간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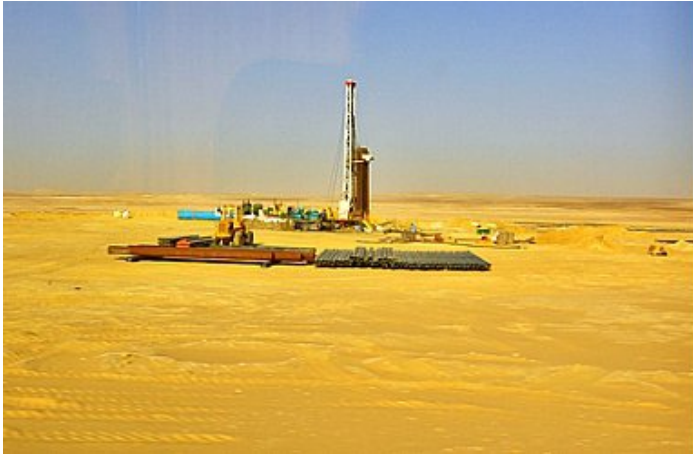


다시 버스를 타고 바하리아 사막을 향해 달린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도 한기가 들어 어찌나 춥던지... 아스완과 카이로의 기온차가 생각보다 더 한 듯 하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막에서의 일출 보기.



사막의 이런 저런 모습들...
이집트 여행이 아니었다면 사막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단 걸 알 수 있었을까?



카이로 역을 출발하여 약4시간쯤 후에 도착한 베두인 마을.
이곳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은 후 본격적인 사막투어를 위해 베두인들이 모는 4륜 구동의 지프로 갈아 탔다.



출발~



휘훅 스쳐 지나가는 사막 풍경들...
버스를 타고 달릴 때와는 또 다른 느낌.
들뜨고 신난다.



차가 처음으로 멈추어 선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로 그 모래 사막,
샌드 마운틴이라 부르는 곳이다.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사진 몇 컷 찍고.

모래 사막의 모습을 카메라에 더 담을 수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바람이 어찌나 불어대던지 바람에 날리는 미세한 모래가 카메라 렌즈 사이에 끼어 카메라작동 불가 사태 발생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생길까 우려되어 디카만 들고 내려왔 것인데 결국 우려하던 일이....휴~



잠깐이지만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발이다.



달리고 달리고...



다시 또 차가 멈추어 선 곳은 흑사막이라 불리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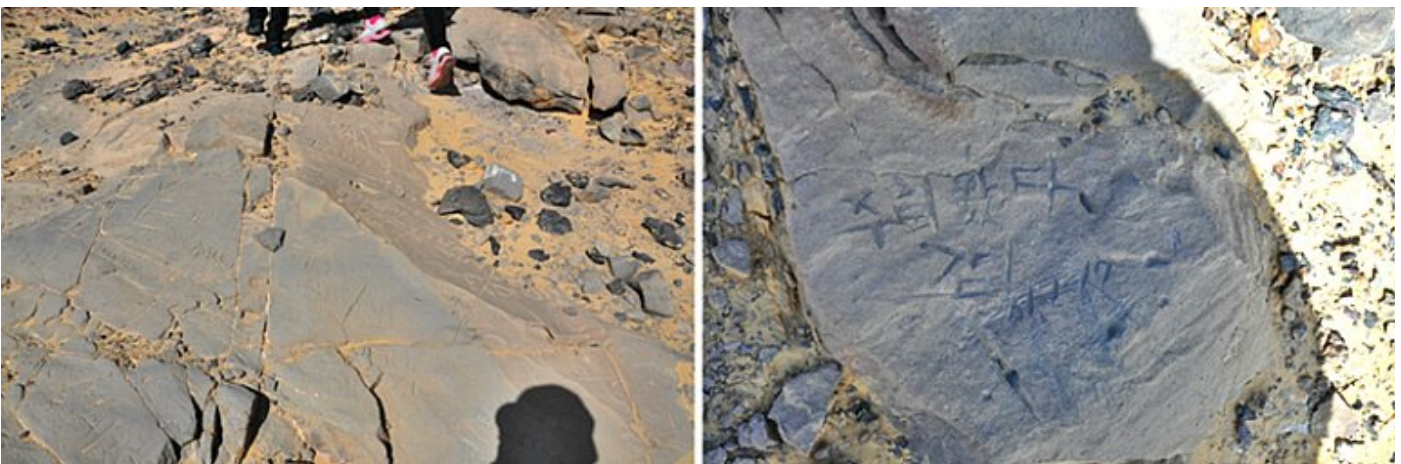




흑사막은 화산재가 굳어져 형성된 지형으로 철광석 성분이 많이 함유된 모래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여 흑사막이라 불리운다.



흑사막 군데 군데 솟아 있는 언덕들 중 한 곳을 오르는 일행들.



검은 돌들이 그리 단단하지는 않은지 곳곳에 여행자들이 남긴 흔적이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한국 여행자가 남긴 흔적이 제일 눈에 띄어~ 들어온다.



일행들이 정상을 밟고 올 동안 나는 무거운 DSLR 카메라를 핑계로 중간까지만 올라 시방을 카메라에 담아 본다.



사방 어디나 외계의 어느 별에 서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풍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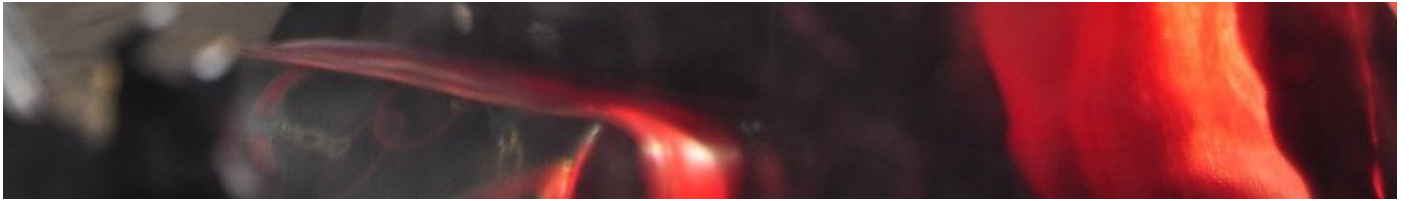
이색적인 풍경에 빠져 넋 놓고 있는 사이 정상까지 올라갔던 일행들이 하나 둘 내려오고 ...



다시 출발이다.
'다음에 들릴 사막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려나.'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15

[이집트]바하리야사막(크리스탈 사막 등)

2012년 1월 1일 (토)

바하리야 사막

-크리스탈 사막 外-



흑사막을 지나 백사막으로 향한다.



백사막으로 향하는 도중 잠시 들린 이곳은 크리스탈 사막.





멀리서 볼 땐 그냥 바위 언덕 같이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바닥에도 크리스탈이 흩어져 있고...



언덕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돌들이 아니고 크리스탈 바위들이다.



와우!!!!
"정말로 크리스탈이 맞군."



언덕에서 내려다 본 사막의 모습.
이 언덕의 돌들이 크리스탈이라는 것만 빼면 그다지 특별나 보이지는 않는 사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사막을 달려 도착한 이 곳...

외계의 어느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이곳은 먼 옛날 바다였던 곳이란단.

그렇다면 저 허영게 보이는 흔적들은 소금기??

맛 좀 볼 걸 그랬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이곳을 찾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어느새 먼저 다녀간 인간의 흔적을 바람이 지워버린건가... 발자국 하나 없는 모래판을 밟는 느낌이 참 좋다.





볼수록 진귀한 풍경





이렇게 멋진 곳에서 기념 사진 몇 장 안남길 수 없지. ㅎㅎ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니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모래 언덕.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그곳에 남겨두고 우리는 다시 그곳을 떠난다.



지금은 비록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지만 내일이면 새살이 돌아 있을테니 괜찮아~



지프를 타고 모래언덕을 질주하는 우리들.
저절로 터져 나오는 함성 소리가 이어진다.



16

[이집트]바하리야사막의 하일라이트 백사막

2012년 1월 1일 (토)

바하리야 사막

—백사막—



백사막의 버섯바위

바하리아 사막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백사막에 다다랐다.

수만년 전 바다속의 석회암 지층이었던 이곳.

흑사막도 그렇고, 백사막에 오는동안 중간 중간 들렸던 사막들도 그렇고, 모두 마음을 사로 잡을 아름다움과 매력들을 지니고 있었지만 백사막에 다다르고 보니 역시나 제일은 이 백사막이란 생각이 든다.



바람과 세월이 만들어 낸 자연의 조각들.





이 바위는 자연의 조각들 중 하나로 그 형상이 닭을 닮았다고 하여 치킨 바위란 닉네임이 붙어 있는 바위다.



바위 주변으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보니 이 바위가 이 자연의 전시장에서 꽤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인 듯....



자연의 조각품들을 감상하고 있는 사이, 몇 대의 지프가 시야에 나타났다가 사막을 가로질러 사라져 간다.



오늘밤 이곳 백사막에서 야영할 여행객이 우리들만은 아닌 모양이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우리처럼 사막투어 중인 두 남자.



그들도 이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enzi 분주히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대고 있다.
덕분에 나는 이들을 모델 삼아 내 사진을 더욱 풍성히 만들고....ㅎㅎ



다시 차를 달려 우리의 야영 장소에 도착했다.

전날도 이곳에서 야영한 팀이 있었던 건지 텐트는 이미 설치되어 있었고 베두인들은 부지런히 짐을 내려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그들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모닥불 주변에 둘러 앉아 노닥노닥 수다 한마당을 벌이고...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매일 매일 멜로(?) 드라마를 찍고 있는 저 부부는 어느새 또 드라마 한 장면을 만들어내려는지 일행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멋진 장면을 만들어 준 그들에게 감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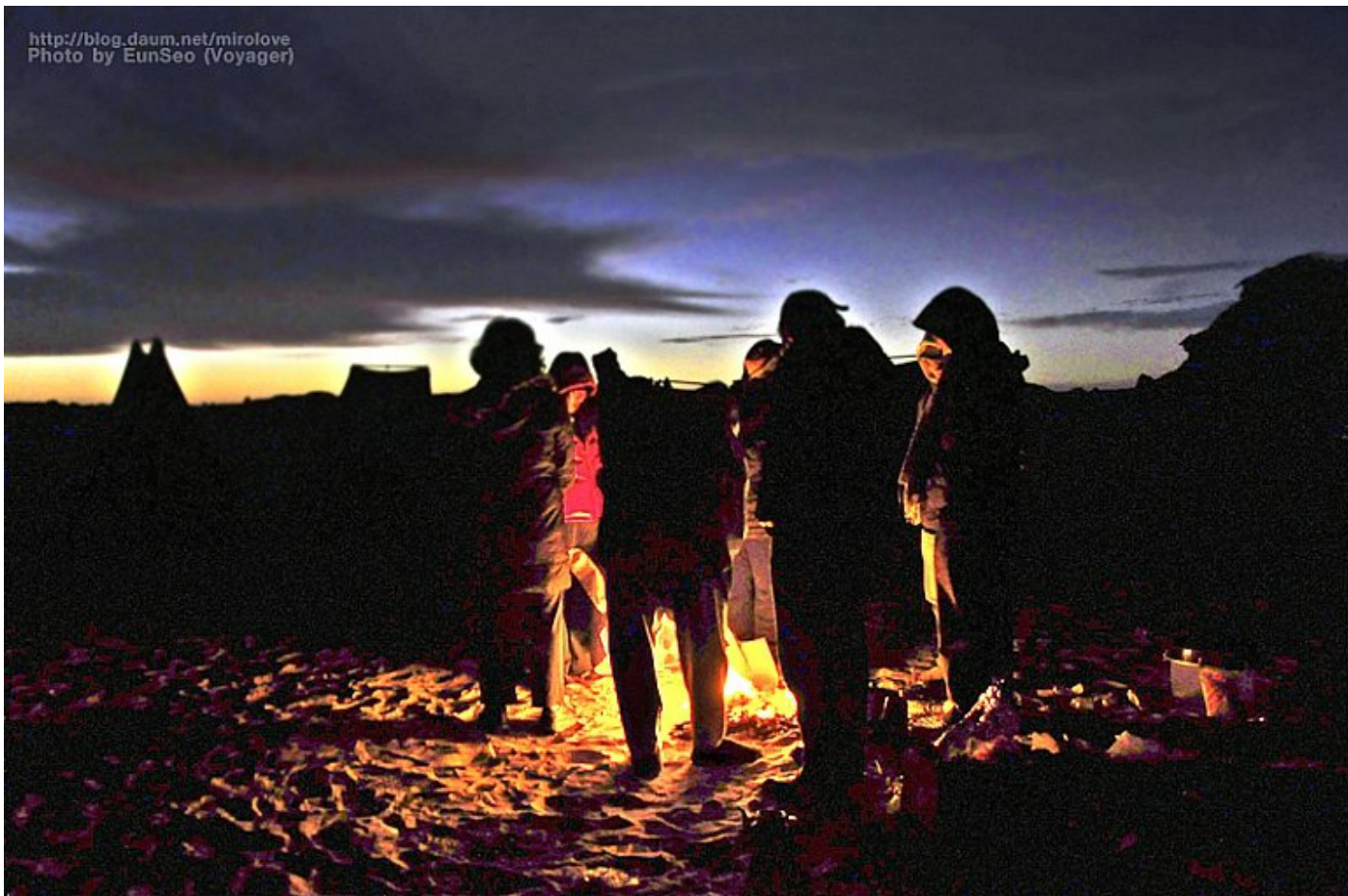
순식간에 어둠이 내리고 모닥불에선 해피한 저녁 식사를 위해 양념 두른 닭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고 있다.
뜨거울텐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맨손으로 뜨거운 닭을 잘도 뒤집는 이 청년...



빨리 익어라. 빨리 익어라.
군침을 흘리며 닭고기에 시선 집중.



베두인이 차려 준 저녁 식사를 맛나게 끝내고 둘러 앉은 우리는
까만 하늘에 무수히 박힌 별들을 감상하며 한동안 여흥의 시간을 보낸 후
사막여우가 나타나길 기다리다 점점 파고 드는 한기를 피해 하나 둘 텐트로 안으로 사라진다.



겨울 침낭을 준비한 덕에 걱정했던 것처럼 추위로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기척에 잠을 깨 밖으로 나와보니 추위로 잠을 이루지 못한 다른 일행들이 모닥불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 보인다. 아직은 이른 새벽인데 언제 동이 트려는지...



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경이로운 모습이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일출을 보려함인지 잠에서 빠져나와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한 일행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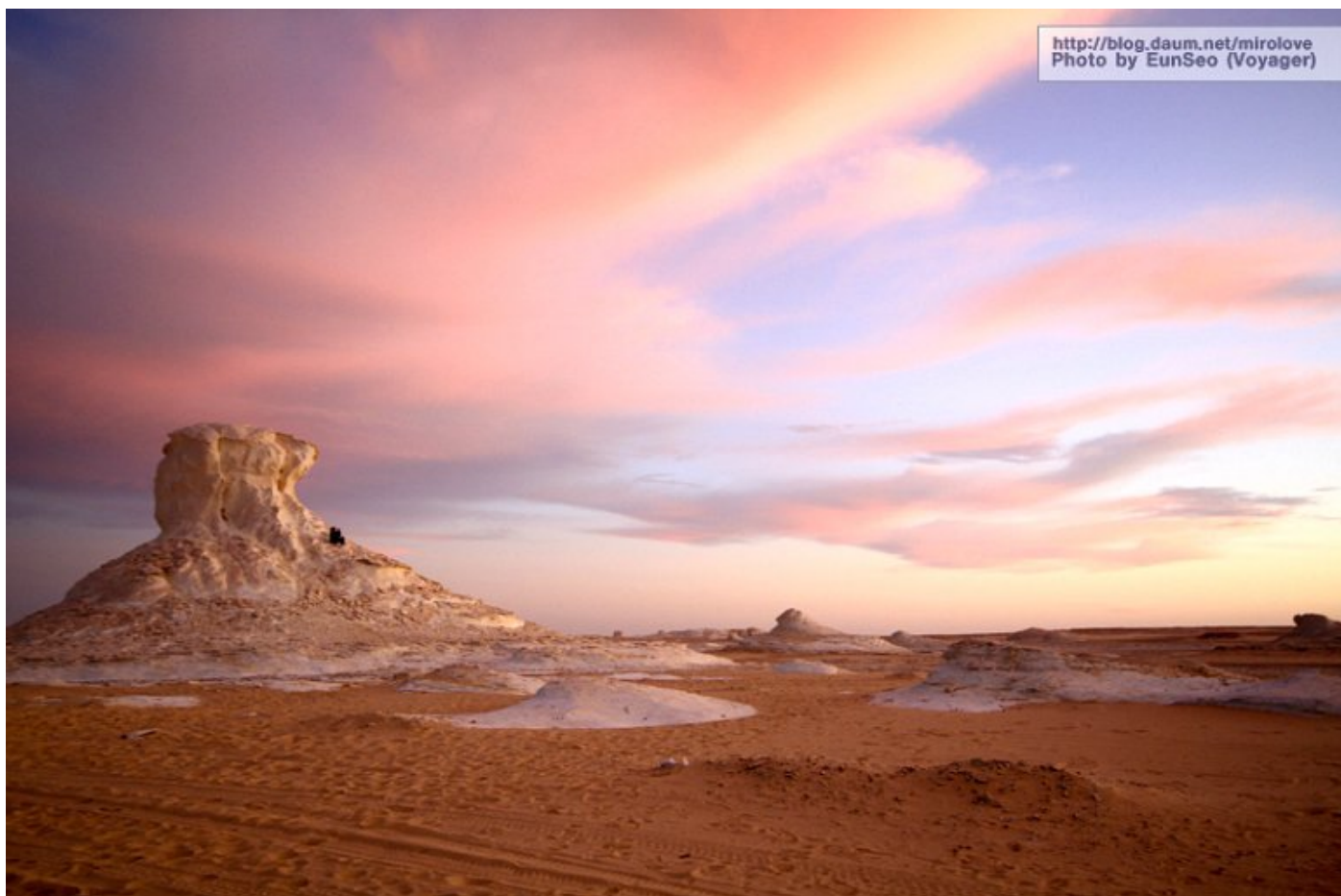
여기 저기 눈을 찔러 놓은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던 새하얀 바위들은 떠오르는 태양 빛에 별경게 달아오른 모습이 되어 있고...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은 흥분으로 얼굴과 마음이 별걸게 달아 오르는 듯 하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일출을 가장 멋지게 감상하고 계시는 듯 한 일행 한 분....



그리고 그 멋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나.



어느새 다른 일행들이 동참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던 나 또한 동참하여 사진을 찍으며 서있던 자리를 다시 카메라에 담고.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분명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일텐데도 하나 하나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조각품처럼 보이니 내 눈이 이상한 걸
까???



이 바위는 두 남녀의 흉상처럼 보이고..



이 바위는 과거 언제쯤에 본 적이 있는 듯한 만화 속 캐릭터 얼굴의 옆모습처럼 보이고.



어!!!!?? 그런데 이건 뭐??
사막 여우 발자국이잖아!



이번 사막투어에서 꼭 사막여우를 볼 수 있길 바랐건만 지난 밤 늦은 시각까지도 나타나지 않더니 내가 잠들어 있던 사이에 다녀 가다니..
 약올리 듯 배설물만 흔적처럼 남겨놓고 말이다. 알미운 녀석.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산책.



사막 위에 남긴 내 그림자도 카메라에 담아 보고...



나처럼 홀로 산책 중인 다른 일행도 풍경 속에 넣어 카메라에 담아 보고...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아직까지 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던 다른 바위들도 찾아 카메라에 정성스레 담아 본다.



이제 마무리 해야할 시간.



베두인들은 설치했던 캠핑도구들을 거둬 지프에 싣느라 분주하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떠날 준비 완료.

오랜시간이 흐른 후 이집트를 떠올리게 될 때, 나는 아마 피라미드보다도 그 어떤 신전보다도 이 백사막에서의 하룻밤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17

[이집트]카이로

2012년 1월 3일 (월)

카 이 로

여행을 다녀온지 몇 달이 지나고 보니 기억도 흐려지고 감동도 조금은 퇴색하여 물이 빠진 것 같고...

요즘은 이집트를 벗어나 다시 다른 나라를 꿈꾸기 시작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다간 또 여행기 마무리 못하겠는걸.'

자자...그러지 말고 힘내서 다시 여행기 시작해 보자구~



CATARACT
PYRAMIDS RES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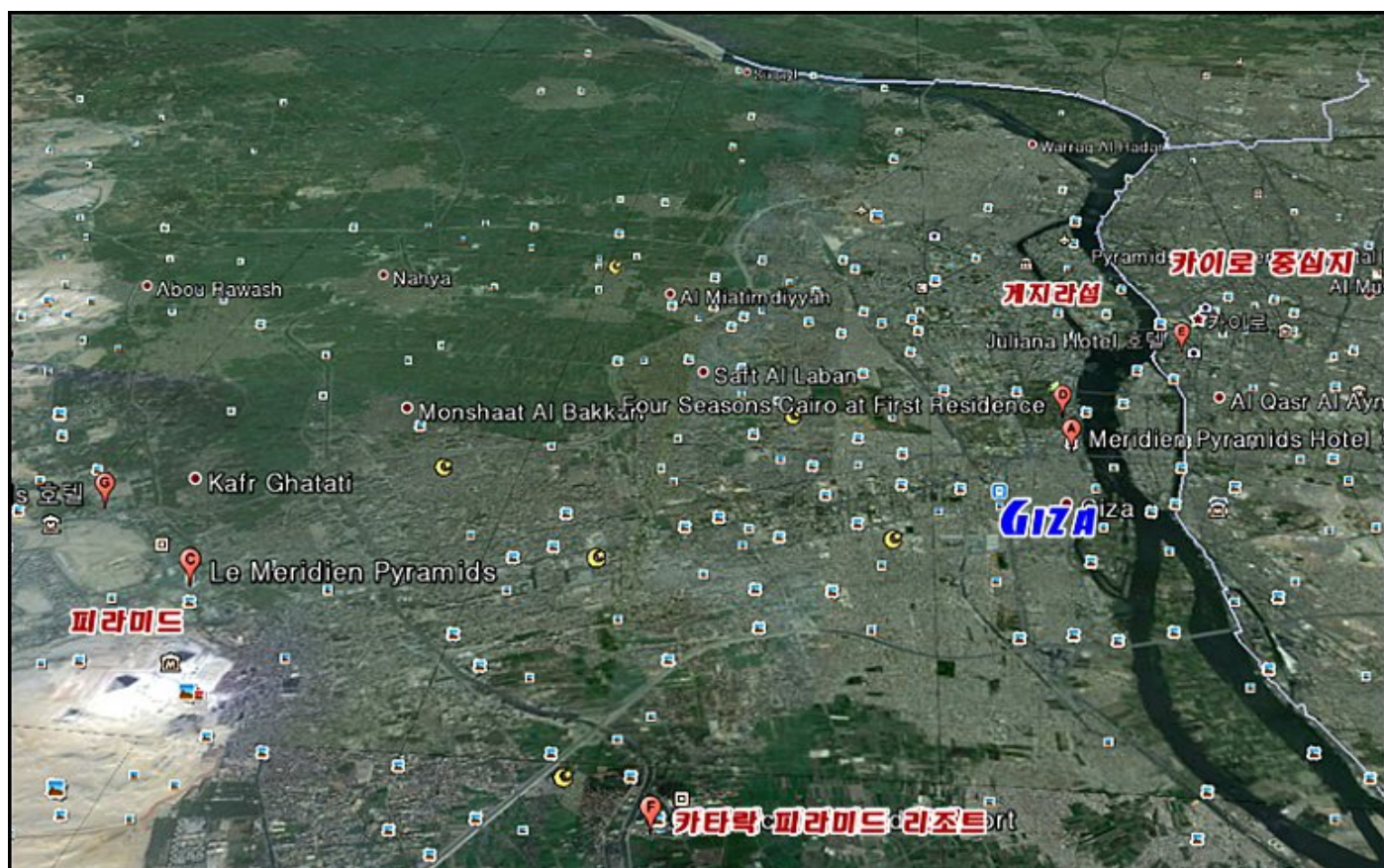




카타락 피라미드 리조트

이른 아침, 산책 삼아 호텔 밖으로 나와 본다.

우리가 이틀동안 여장을 푼 이 호텔은 카이로 인근, 피라미드의 도시 기자에 있는 호텔로 카타락 피라미드 호텔이라 하는데 5성 호텔로 역사가 깊은 호텔이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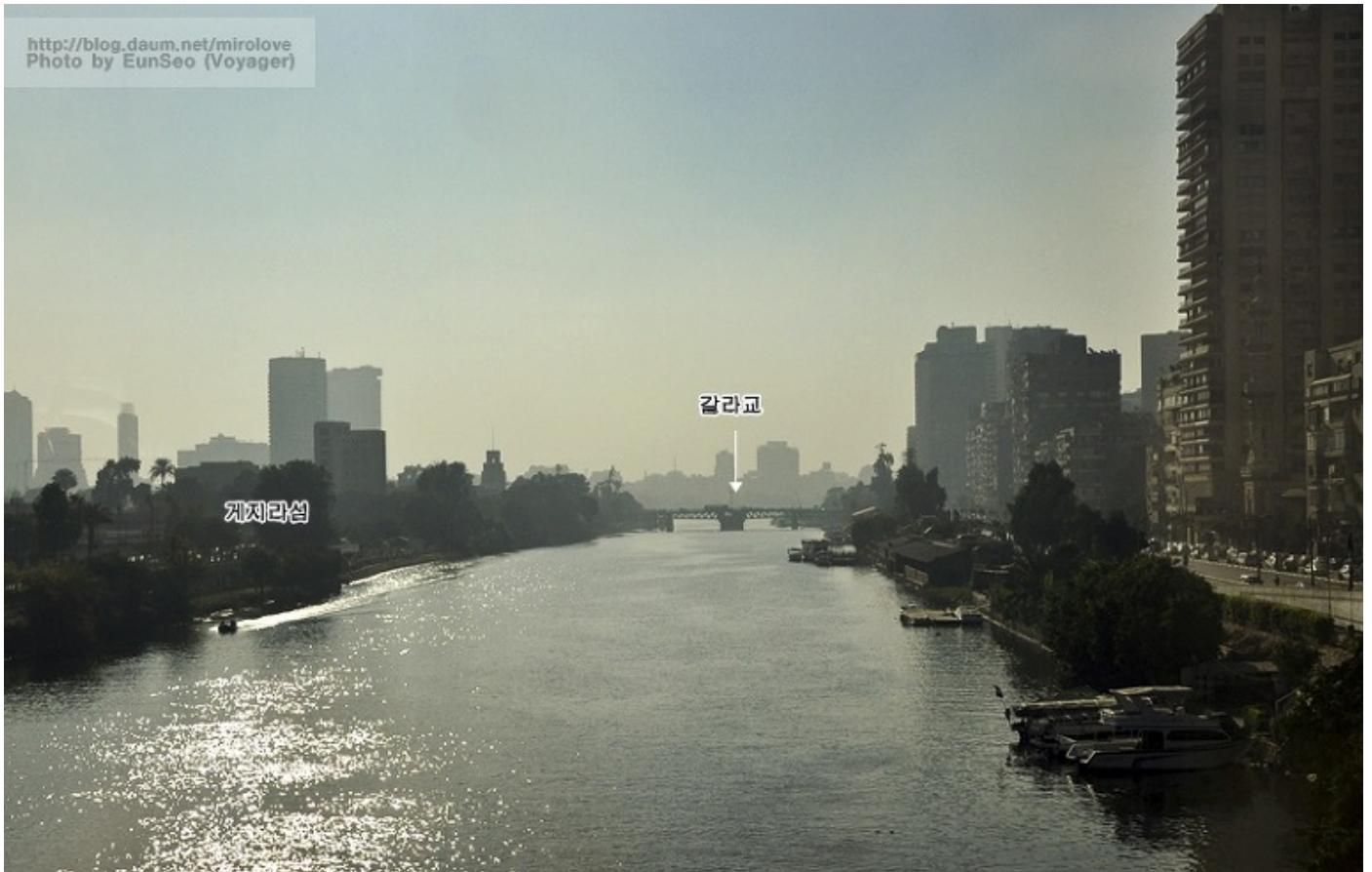
그 유명한 카이로의
교통 체증



마차도 종종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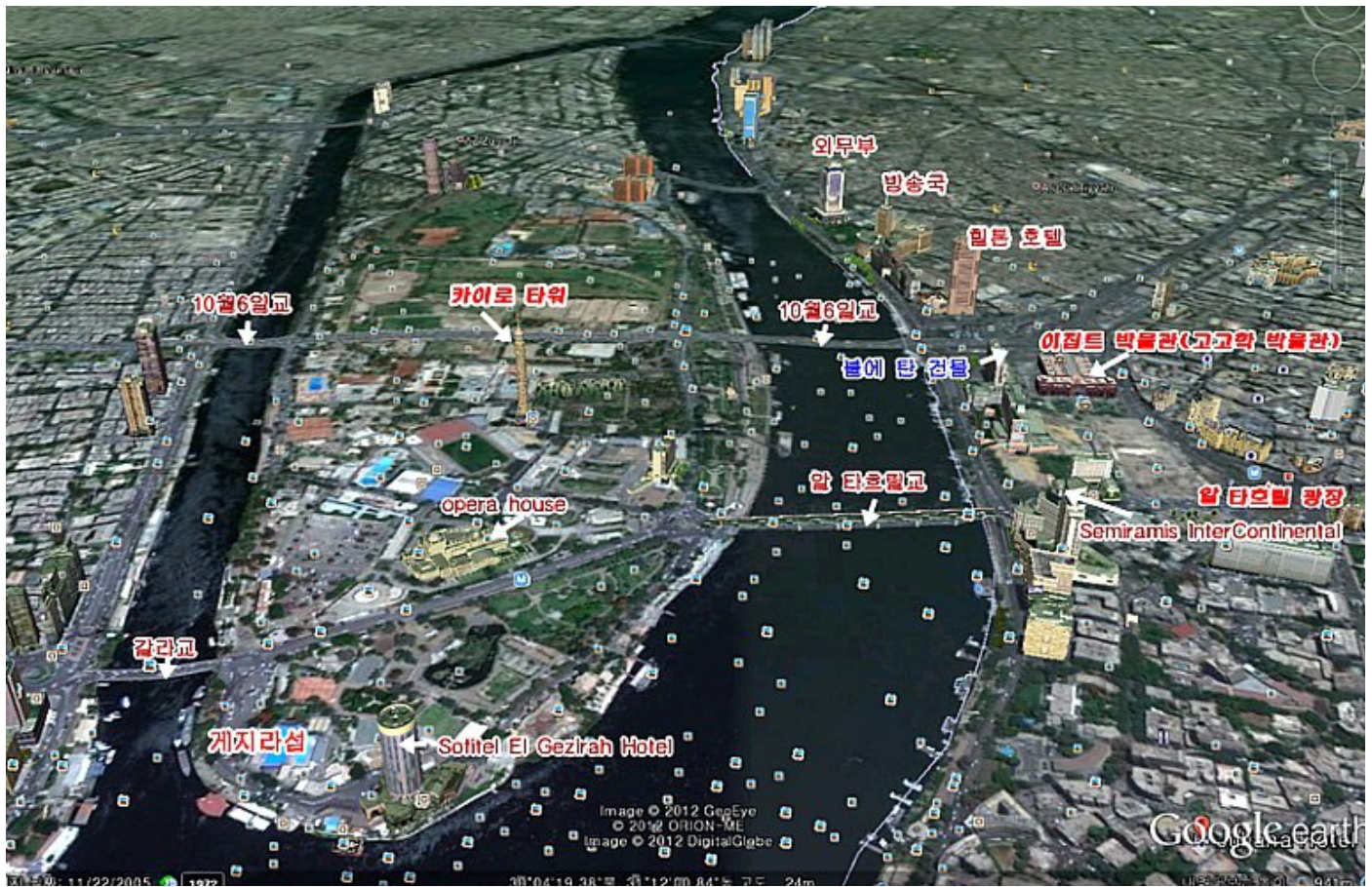
오늘은 하루종일 카이로 투어가 있는 날, 첫번째 코스인 고고학 박물관으로 향하고 있다.

도심에 근접할수록 꽤 현대적인 도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새 보면 도시의 구석구석에서 몇십년 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풍경들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



10월6일교를 건너며...

룩소르에 도착했을 때부터 줄곧 보아왔음에도 또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카이로의 나일강



게지라 섬 주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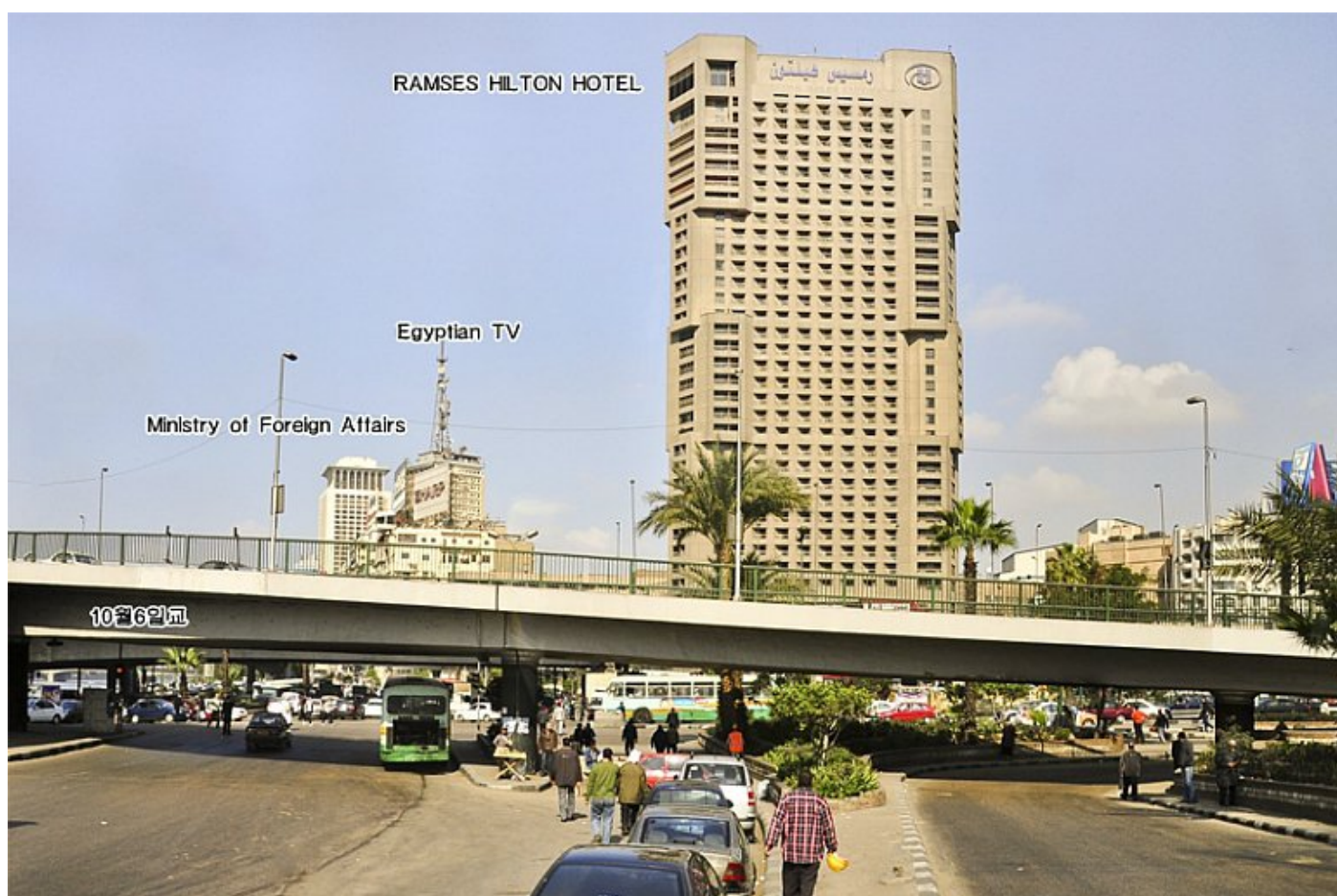


10월6일교를 건너며...

1957년에서 1962년 사이에 건설된 187m의 카이로 타워.
상이집트의 상징인 연꽃 모양을 하고 있으며 종려나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10월6일교를 건너며...





이집트 박물관

오늘 일정의 첫번째 코스인 이집트 박물관에 도착했다. 전부 보려면 9달이나 걸린다는 말이 있을만큼 방대한 양의 유물들이 이 고풍스런 건물에 전시되어 있으나 내부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아쉽게도 유물 사진은 한 장도 남길 수 없었다.

보는데 9달이상 걸린다는 그 방대한 양의 유물들을 단 몇 시간으로 끝내버렸으니 도대체 내가 본게 전체의 몇 %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유물들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얼마나 대단하던지 짧은 시간동안 스쳐 지나가듯 보았음에도 나의 뇌리 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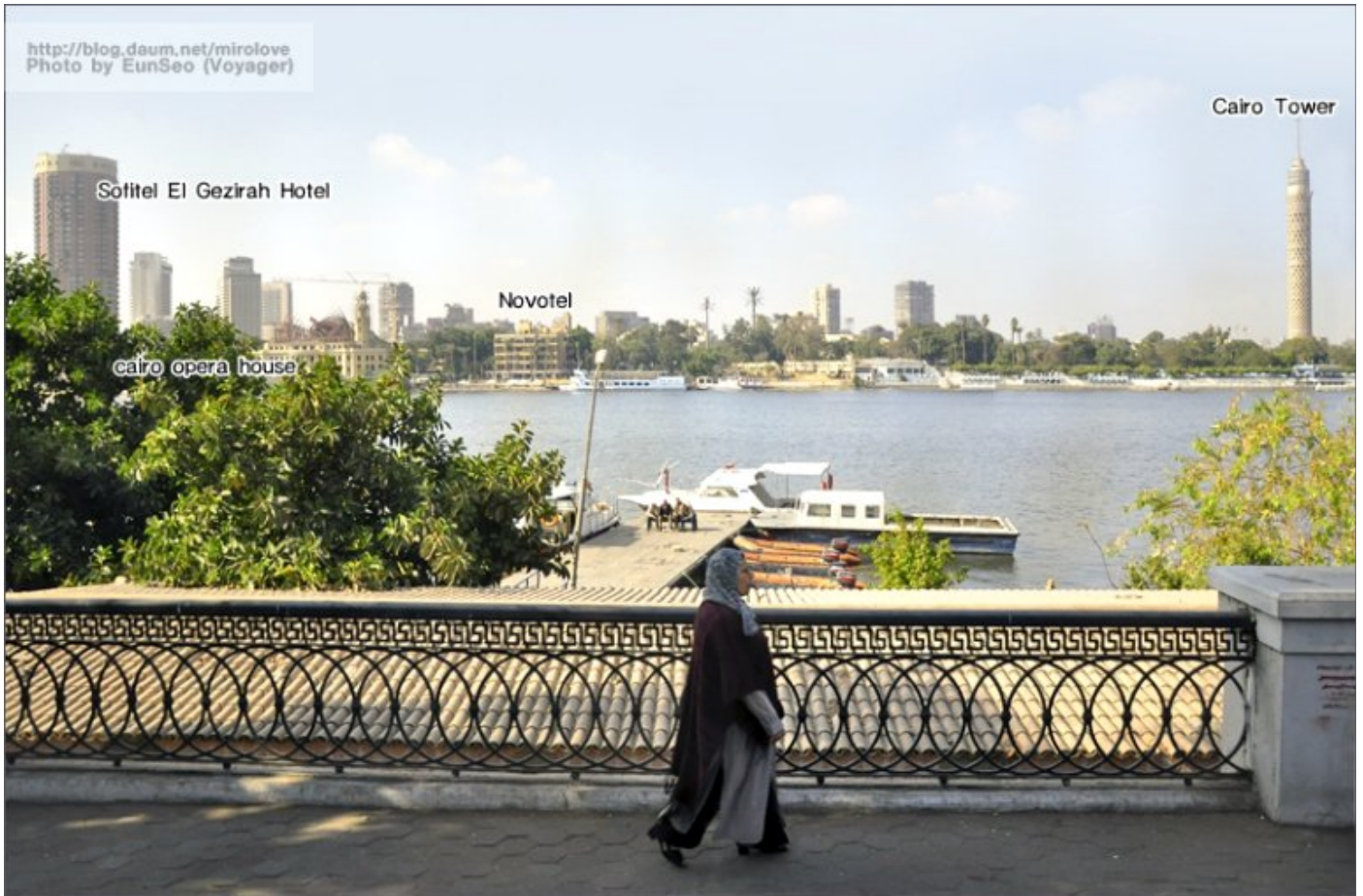


두 시간만에 박물관 관람을 끝내고 나오는데 박물관 옆 건물이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모습을 하고 있는게 보인다. 이집트 정세가 불안하지 않다면 그냥 화재가 났었나 보다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현 이집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에 그리 단순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왜 하필 이집트냐고 나의 여행을 걱정했던 사람들의 말을 여행내내 떠올릴 일이 없었는데 그 걱정의 말들을 이 순간만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알 타흐릴 광장

이집트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올드 카이로로 향하기 위해 버스가 달린다. 이집트 박물관을 떠나 바로 나타난 이곳은 카이로의 중심이 되는 알 타흐릴 광장이란 곳. 자유(해방)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장으로 나세르가 <1952년 혁명>을 기념하여 만든 광장이라 한다. 2011년 1월의 혁명으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도 뽑은 상태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불만들이 많은지 이곳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시위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듯 하다.



나일강의 게지라 섬







게지라 섬



올드 카이로

18

이집트 여행의 하이라이트 기자의 세 피라미드와 �핑크스

2012년 1월 3일 (월)

Ranee in Giza

-피라미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진과 그림 속에서 만나왔으나 그야말로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나 만남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그 피라미드가 거짓말처럼 눈 앞에 나타났다.

저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버티고 서 있는 건축물이 4500여년이란 긴 세월을 지나온 건축물이라니...

아무리 봐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하긴 그런 놀라움을 준 것이 어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뿐이었던가만은....



쿠푸왕 대피라미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석조물

매표소를 지나 약간의 경사진 길을 올라 만나게 되는 이 피라미드는 기자의 세 피라미드 중 **쿠푸의 대피라미드**다. 쿠푸는 고왕국 제4왕조의 초대 파라오로 스네프루 1세의 장남이라고 하는데 쿠푸에 대해서는 대피라미드를 세운 파라오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대피라미드의 원래 모습은 시멘트로 지은 건물에 타일을 입힌 듯이 백색의 화강암으로 곱게 덮여 있었으나 이슬람 시대에 이 돌을 뜯어다가 카이로의 모스크를 짓는데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은 속돌이 드러나 겉면이 돌로 쌓은 계단처럼 되어 있다. 즉 이 화강암은 시간에 의한 파괴는 견디어 낼 수 있었지만 인간에 의한 파괴는 막아내지 못한 것. 피라미드 꼭대기의 모습 또한 변화가 있는데 금을 입힌 **파라미디온**이 있어 뽕족했던 모습이 지금은 떨어져 나가 평평한 모습이 되어 있다.



쿠푸왕 대피라미드의 입구

쿠푸의 피라미드에는 2개의 입구가 있다. 본래의 입구는 큰 돌로 막아놓아 드나들 수가 없고, 본래의 입구 오른쪽 아래에 현재 사용 중인 입구가 있는데 현재의 입구는 9세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마문이 대피라미드 도굴하기 위해 뚫은 문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내부를 보고 싶다면 각 피라미드마다 별도의 입장료를 내고 보면 되나 쿠푸왕의 피라미드는 입장 인원이 하루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침부터 서둘러야만 가능하다고 . 단체여행 중인 나는 내부관람의 기회가 없을 것임을 애초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피라미드 입구에서 주변을 둘러 보며 아쉬움을 달래는 중.



피라미드에서 바라본 기자의 모습.

여행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기 이전 오랜 기간동안, 피라미드 하면 막연히 사막 한가운데에 외로이 서있는 모습만을 상상해 왔던 때문인지 피라미드가 도시와 맞닿아 있는 모습이 조금은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듯도 하다.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는 낙타들



피라미드 주변엔 낙타로 돈을 버는 이들이 엄청 많다. 이 남자도 낙타 타는 비용을 흥정 중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가지도 엄청나게 많이 씌우고 자칫하면 험한 꼴 당하기 십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유 여행이었다면 아마 타 볼 엄두도 못냈을 텐데 우리 일정엔 낙타 타기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럴 땐 단체 여행을 하고 있는게 다행이다 싶기도.... ㅎㅎ



버스를 타고 세 개의 피라미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피라미드 뒷쪽 전망대 (파노라마 포인트)로 자리를 옮겼다.



자리를 옮기기 전엔 쿠푸왕의 피라미드 밖에 안보였었는데 여기서 보니 정말 세 피라미드가 모두 한 눈에 들어 온다. 세 피라미드 중 가장 왼쪽 (북쪽)의 것이 방금 보고 온 **쿠푸왕의 피라미드**이고 꼭대기에 화장석이 남아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운데의 피라미드는 쿠푸왕의 손자인 **카프라왕의 피라미드**이며 가장 오른쪽(남서쪽)의 가장 작은 피라미드는 카프라의 아들인 **멘카우라왕의 피라미드**다.



쿠푸왕의 피라미드 앞에선 피라미드와 낙타를 한 프레임에 넣어 사진 찍기가 어려웠는데 이 전망대에선 멋진 구도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어찌나 좋던지... 때마침 지나가던 낙타꾼(?)이 멋진 포즈까지 취해주니 더더욱 고맙고...물론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말이다.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도 심중팔구는 돈 내놓으라고 손을 벌렸을 테니까.)



인증샷 한 컷~





낙타를 타려고 기다리는 중에 찍은 사진들... 찍다 보니 정말 낙타 사진 투성이다.



곧 내 차례.

둘이 타도 마찬가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혼자 타고 보니 몸이 전혀 고정이 되질 않아 낙타가 걸을 때마다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찌나 안간힘을 썼던지 두 번은 못타겠다는 생각이 들만큼 힘들었다.



낙타 체험을 마치고 스피нк스 쪽으로 향하는 중에 카메라에 담아 본 **멘카우라 피라미드**.

쿠푸 피라미드와 카프라 피라미드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지만 (62m) 피라미드 측면 하단에 화강암으로 만든 덮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다

른 피라미드와 구별되는 점이다.



피라미드를 지키는 수호신 �핑크스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핑크스를 보기 위해 서둘러 내려 왔지만 방금 전에 관람 시간이 끝났다고 절대 들어 보내주질 않는 통에 몇 사람이 나서서 실갱이를 해보았지만 모두 허사가 되고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다 돌아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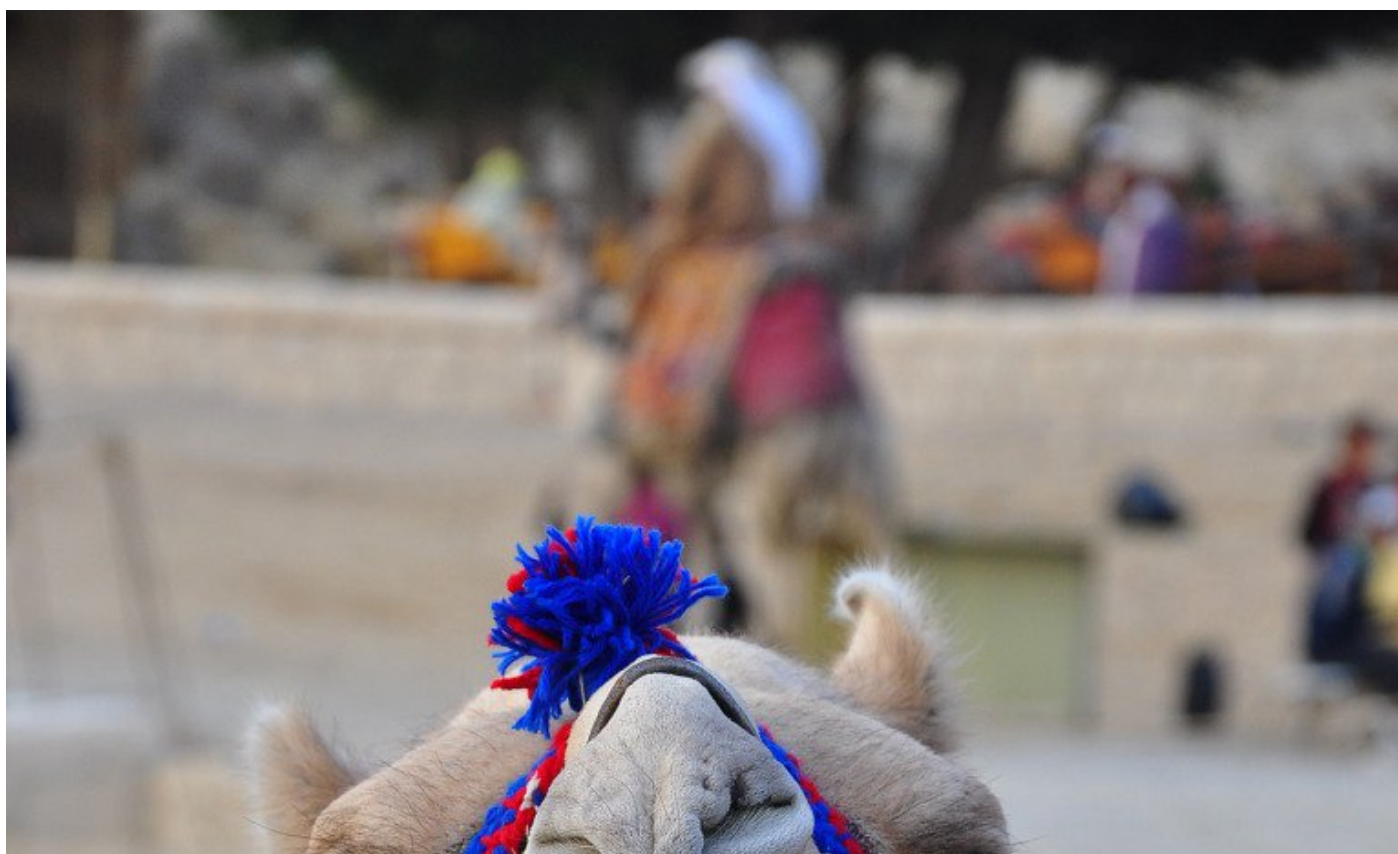


발굴된 �핑크스 중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의 �핑크스와 카프라 피라미드

파라오 카프라를 상징함과 동시에 기자의 왕족 묘지의 수호자였던 이 �핑크스는 거대한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 형상을 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석조 조각으로 오래동안 모래 속에 묻혀 있던 것을 20세기 초에 발굴했는데 오랜 풍화작용과 인간의 훼손에 의해 코와 턱 수염이 파괴된 모습을 하고 있다. �핑크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인들에 의해 붙여졌으며 아랍인들은 아엘 홀이라 불렀는데 이는 바로 <공포의 아버지>란 뜻이라 한다.



해가 지고 있다. 피라미드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고 하던데 그 모습까지 지켜볼 수 없음이 못내 아쉽다.







안녕~



19

[이집트 카이로] 나일강 디너 크루즈를 타고 공연도 즐기고 야경도 즐기고...

2012년 1월 3일 (월)

나일강 디너 크루즈

-야경과 공연을 즐기며 우아한 저녁 식사를-



선상 레스토랑 입구

카이로의 밤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 나일강 디너 크루즈를 타고 야경과 공연과 맛있는 음식 즐기기



선상 레스토랑 내부의 모습



배에 올라 예약된 자리에 앉자 얼마 안있어 배가 나일강을 미끄러지듯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맛있는 음식이 나오
고 공연이 시작~

첫번째 공연은 벨리 댄스다.

벨리는 영어로 배(복부)라는 뜻으로 아랍 음악에 맞추어 허리와 배를 움직이며 골반을 격렬하게 흔들고 돌리는 요염한 춤을 벨리 댄
스라 한다. 허리를 흔드는 동작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결혼식의 피로연에서 이 춤을 추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수피 댄스.

수피댄스는 이집트어로 치마라는 뜻의 <탄누라>댄스라고 불리는데 치마처럼 생긴 형형색색의 옷을 겹쳐 입고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한겹씩 옷을 벗으며 추는 이집트 전통 춤으로 남자들만 추는 춤이다.

터키에서 본 수피댄스는 종교적인 느낌이 강하고 신비스러운 춤이었지만 이집트에서 본 수피댄스는 비슷하면서도 전해지는 느낌은 상당히 다른 춤이었다



수피댄스가 끝나고 다시 댄서의 춤이 이어지고...



남녀 가수의 노래까지...



젊고 아리따운 여가수



여가수는 우리에게 생소한 이집트 노래를 들려주었는데 매우 매혹적인 느낌이었다. 물론 이런 종류의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아랍음악이나 인도 음악 등등 소위 월드 뮤직으로 분류되는 노래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나는 노래에 흠뻑 빠져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남가수는 주로 우리들 귀에 익은 노래를 해주었는데 이 또한 경쾌하고 신나서 좋았던 듯.



이집트 색깔이 짙은 벽화들

공연을 계속 보고 싶은 맘도 있지만 배를 탔으니 강바람도 쐬고 야경도 즐겨야겠단 생각에 갑판 위로 오른다.



2층의 레스토랑



나일강변의 카이로 야경

많이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좋았던 카이로 야경....카이로 타워가 있는 게지라 섬 옆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낮에 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카이로의 모습.



이럴 땐 동행이 있어 강바람 맞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워도 좋았으련만 .
문득 외롭단 생각이 든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동행이 없어 조금은 외롭기도 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아름다웠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있다.

20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케이트베이 요새

2012년 1월 4일 (화)

Ranee in Alexandria

-케이트베이 요새(Qaitbay Fort)-



카이로에서 출발한지 4시간여만에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행지인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다. 이집트의 도시라 여겨지지 않을만큼 지금까지 보아온 이집트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도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원전 331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계획도시로 완공 이후 멤피스를 제치고 이집트의 수도가 되어 헬레니즘 시대 지중해의 문화, 학술, 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했던 도시다.



무역항으로서는 인도, 아라비아, 아프리카와 무역이 이루어지는 지중해 최대의 수출항이었고 로마제국 당시에는 식민지로 다시 번영을 구가했으나 유대인, 기독교도, 아프리카인, 아랍인, 그리스인들이 섞여 살면서 잦은 충돌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기에 들어서면서 민족적 갈등이 더 크게 일어나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점령한 후부터 이러한 번영기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그 때가 바로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역사가 시작되는 때인데 두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를 제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 웅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의 패배로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멸망하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곳 알렉산드리아에서 정장을 한 채 독사에 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나일강의 범람과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았던 전쟁과 지진 등으로 인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유적들은 거의 사라지고 몇몇 유적지만이 남아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그리고 로마 점령기로 이어지는 고대의 찬란했던 영광을 짐작케 하는데 그 몇몇 유적지 중 우리가 찾은 곳은 케이트베이 요새로 15세기 말, 술탄 케이트베이(1468~1496)가 유명한 파로스 등대의 폐허 위에 등대를 지을 때 사용했던 석재를 다시 사용해 지은 성이다.



전형적인 방어용 요새인 케이트베이 요새



요새 쪽에서 바라본 바다



바닷가답게 고양이도 보이고...



지금까지 본 이집트 그 어느 곳보다 젊음과 자유가 느껴지는 도시 알렉산드리아.



케이트베이 요새

21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사진만 있어요.)

2012년 1월 4일 (화)

Ranee in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한 때 50만 부 이상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곳, 클레오파트라 왕국의 최대 자랑거리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Photo by EunSeo (Voyager)



도서관 마당에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상이 세워져 있다.



알렉산더 대왕像

세계 최대의 열람실을 가졌다는데 시간에 쫓겨 안타깝게도 안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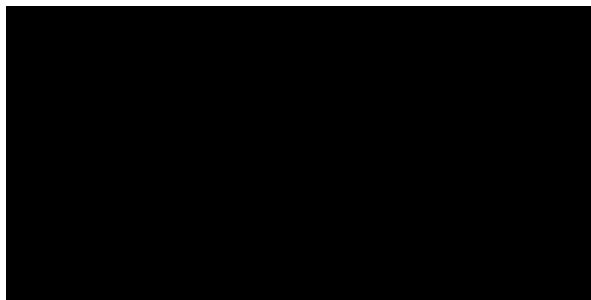
스페인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 세비야에 도착하다.

페인 **세비아**에 도착했다.

세비아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알려진 바로 그 곳.

호텔이 세비아 시내에 있지 않아 저녁 산책을 해보려던 나의 꿈은 또 다시 무산되고 만다.

^^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지명'이나 '인명' '건축물명'을 영어식으로 썼다가 그 나라식으로 썼다가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문제는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 소개하는 책자마다 영어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나라식 발음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도 있으나, 나는 영어식인지 그 나라식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호텔 전경



▲
호텔 이름 SOLUCAR
TEL: 955-703-408



▲
일행중 한명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던 호텔식 저녁



▲
호텔의 내부 -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 호텔의 건너편에서 본 현대 자동차 대리점



▲ 호텔에 주차되어 있던 기아 자동차 쏘렌토

23

세비아에서 맞는 2007년 새해 아침

지난 밤에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에 해가 뜨기 전부터 일어나 **일출**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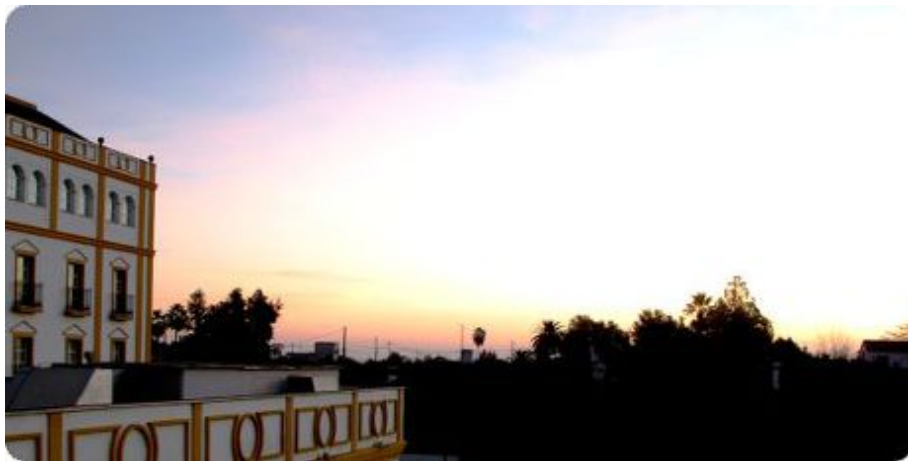
드디어 해가 얼굴을 뻐꼼히 내민다.

2007년 새해가 시작된 것이다. 스페인 시간으로 말이다.

하지만 우리 일행은 한국인답게 한국 시간으로 새해가 시작되었던 어제 이미

휴게소에서 와인을 나눠 마시며 새해를 맞이한 것에 대해 서로 축하의 인사를 나눈 바 있다.





어느새 완전히 날이 밝았다.

24

(세비아) 뜻밖의 행운 "마에스트란사 투우장"

마에스트란사 투우장은 여행 일정에 소개되어 있지 않기에 볼 기대를 못했던 곳.

그래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창 밖 풍경에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본 결과 이 사진 한 장을 남길 수 있었다.

이 건물이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간 것은 참으로 순간적었는데...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었나 보다.

새해 첫날부터 행운을 얻은 기분이다. 내가 버스의 **왼편**에 앉지 않고 **오른편**에 앉아 있었더라면 아무리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었다해도 이 사진을 남길 수 없었을테니 말이다.

사진에 연연해 하는 나를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해도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내가 남긴 나만의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행복을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잠깐 본 것이 아쉬워 엽서를 한 장 샀다.



이것도 기념 엽서 사진

겨울은 투우를 하는 기간이 아니라 나에겐 천만 다행이다.

비록 소고기를 안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생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

반대로 투우사가 다치는 건 더더욱 보고 싶지 않고...

25

(세비아)강변도시 세비아를 지키는 망루 '황금의탑'

세비아,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다.

내가 늘 꿈 속에서나 그리던 그 풍경이 지금 현실이 되어 내 눈 앞에 펼쳐져 있다.

꿈이 현실이 되었는데 이 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고작 반나절이라니...



황금의 탑

세비아를 수비하는 과달키비르 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정십이각형의 탑.

이슬람 교도에 의해 13c에 세워진 건축물로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망루였다.

옛날에는 탑의 상부가 황금색 도기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황금의 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저 밑으로 과달키비르 강이 흐르고 있다.





과달키비르 강의 유람선인 듯 하다.





26

(세비아)왕족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루이사공원"

황금의 탑을 본 후 **마리아 루이사 공원**으로 이동하는데 이상하게도 거리에 사람들이 잘 보이질 않는다. 이 곳이 시골이나 변두리 도시쯤이
라면 몰라도 여기는 **세비아**이지 않은가.
아무리 아침이라도 그렇지...??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밤늦게까지 혹은 아침까지 논 사람들이 지금쯤은 모두 집에서 자고 있는 중일거란다.
거리에 하나, 둘 보이는 사람들은 밤새 놀고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일거라네.
공원에 도착해 보니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하얀 비둘기들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이 곳 역시 인적이 드물기는 마찬가지다.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으니 어쨌거나 평화롭고 참으로 편안한 느낌이다.
이 곳에서 스페인 광장까지 걸어서 이동한단다.
걸어서 이동한다는 말에 나의 몸 안에서 엔돌핀이 마구 솟아나는 느낌이다.
아침 산책을 하는 기분으로 공원을 천천히 걸어 본다.











저 앞에 무리를 지어 걷고 있는 이들은 우리 일행들이다.
일행 이외에 조깅하는 세 명의 남자만이 보일 뿐, 사람들이 거의 없다.

27

(세비아) 김태희가 춤추던 바로 그곳, 스페인 광장

마리아 루이사 공원 안으로 계속 들어 가면 **세비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 명소인 **스페인 광장**을 만날 수 있다.

이 스페인 광장은 1929년 이베로 아메리카 박람회 때 만들어졌으며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반원형의 건물은 당시 미국 문화를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광장이 낯설지 않고 눈에 익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타워즈**를 본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곳이 그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의 촬영 장소였다고 하니,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타워즈** 보다 **김태희**를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다.(김태희가 플라멩고를 추던 CF 촬영 장소)











스카프를 팔고 있는 스페인 아줌마

이 곳에서 5유로를 주고 스카프 한 장을 샀다.

싼 맛에 샀는데 따뜻하고 보드랍고 사진을 찍어보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그래서 여행내내 무지하게 애용 했다.

몇장 더 살걸 그랬나 보다.





사서 당장 착용한 스카프.
착용 전후의 옷차림이 달라 보인다.
진짜 맘에 든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김태희뿐만 아니라 한가인도 이 곳에서 CF를 찍었군.

28

(세비아)스페인 광장의 모자이크 타일 벤치

스페인 광장의 반원형 건물에는 스페인 58개 도시의 **지도**와 **역사**가 그려져 있는 **모자이크 타일**로 된 **58개의 벤치**가 늘어서 있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스페인 각 도시의 역사를 알고 싶다는 욕심에 이 곳에 들르면 58개의 벤치 사진을 모두 찍어오리라 마음 먹은바 있었으나 시간도 허락지 않고 나의 생각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스페인의 유명한 도시 몇개의 사진만 찍어 오게 되었다.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이 그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를 하고 싶긴 한데 우리 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 주제에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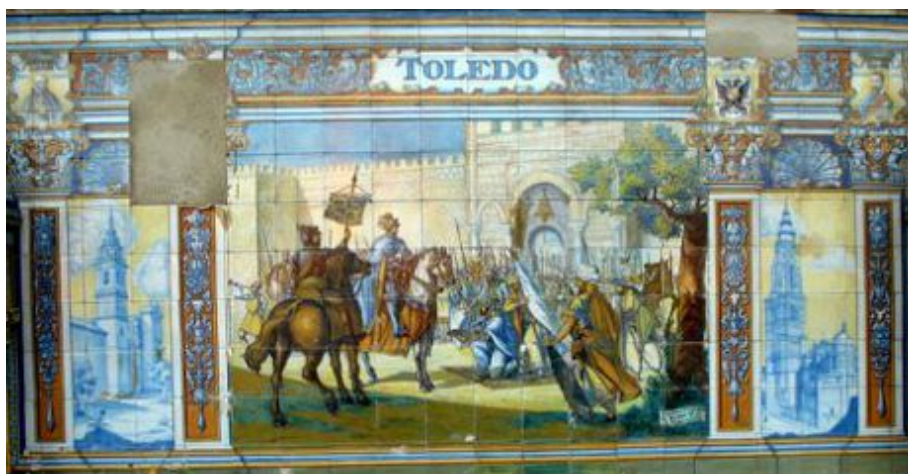




모자이크 타일로 된 벤치의 정면에는 도시의 대표적인 역사 그림이 바닥에는 지도가 그려져 있다.









역사가 그려져 있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투우가 그려져 있는 세비야 벤치

29

(세비아)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무대였다는...

18C 중기에 세워진 이 건물은 세워질 당시에는 **담배 공장**이었지만 현재는 **세비아 대학**의 법대 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담배공장 보초인 호세와 여직공인 카르멘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오페라 카르멘 (Carmen)

세계 3대 오페라로 유명한 오페라 카르멘의 원작은 P.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 입니다. 카르멘은 아름답고 정열적이고 변덕이 심한 집시여인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호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귀딜라 (Seguidilla) 는 카르멘이 다른 여공과 싸움을 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죄로 결박이 됐을 때 호세를 유혹하면서 부르는 노래이죠. 제 1막에서 열정적으로 호세를 유혹하는 카르멘을 처음에는 거절했던 호세도 그녀의 유혹에는 당하지 못하여 '릴라스 파스티야'라는 술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묶인 것을 풀러 줍니다. 대신 호세는 두 달동안 근무태만으로 영창살이를 하게 되지요.

*세귀딜라: 스페인 풍의 세박자 춤곡

1막- 세빌리아의 공장

연초공장 정문앞에 있는 위병소에 시골처녀 미카엘라가 약혼자인 하사관 돈 호세를 찾아와 어머니가 전하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이때 연초공장으로부터 일단의 여공들이 밀려나온다. 그중 카르멘은 그 많은 병사들중 오직 자기에게 무관심한 돈 호세에 매력을 느끼고, 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꽃을 준다. 카르멘은 후에 공장에서 말썽을 일으켜 불잡히게 되고 돈 호세의 감시를 받게 되지만 그의 도움으로 도망친다.

2막- 세빌리아 근처술집

세빌리아 근처의 술집에서 집사와 군인드링 춤을 추며 즐기고 있는데 투우사 에스카미요가 도착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한편 밀수꾼인 단카이로와 레멘다도가 카르멘을 위시한 집시여자들에게 밀수품 운반동업을 제안하나 카르멘은 자신 때문에 두달간 감옥생활을 한 호세를 기다린다. 마침내 돈 호세가 찾아오고 카르멘이 그를 위해 춤을 추지만 멀리서 귀대 나팔소리가 들려온다. 돌아가려 하는 돈 호세와 붙잡으려고 하는 카르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때마침 주니가가 돌아와 호세와 다툰다. 집시들은 그들을 말리고 호세는 집시들과 함께 밀수에 가담하기로 한다.

3막- 산 속

돈 호세는 탈영하여 향수에 시달리면서도, 밀수꾼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 밀무역의 길잡이 노릇을 하는 카르멘은 호세에 대한 사랑이 점차 식어가고 만다. 카드점으로 불길한 마음의 카르멘이 떠나고 카르멘을 찾아온 투우사 에스카미요와 마주친 호세는 결투를 벌인다. 때마침 돈 호세를 찾아와 숨어있던 미카엘라가 전하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돈 호세는 산을 내려간다.

4막- 세빌리아의 투우장 앞

호세는 그녀의 마음이 투우사 에스카미요에게 옮겨간것을 알고 질투심으로 몸부림친다. 예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카르멘을 설득하지만 끝내 응낙하지 않자 마침내 단도로 그녀를 찔러 죽인다.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글출처:<http://blog.naver.com/sleepinwitch/40024621692>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팝페라 가수 '**Filippa Giordano**'가 부른 '**하바네라**'입니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아그네스 발차,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제임스 레바인 지휘

30

(세비아)무리요(Murillo)공원과롯시니집

스페인 광장에서 출발한 버스는 얼마 안가 우리를 **무리요 공원** 앞에 내려 놓는다.

(무리요는 17세기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를 누렸던 바로크 양식의 종교화가임.)



무리요 공원과 산타크루즈 마을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고 공원 안에는 **콜럼버스의** 항해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다.

콜럼버스는 이 곳 세비야에서 항해를 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고

마젤란이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닻을 올린 곳도 세비야였다고 한다.



▲
무리요 공원



▲
롯데시의 집



▲
롯데시 집 앞에서 바라본 공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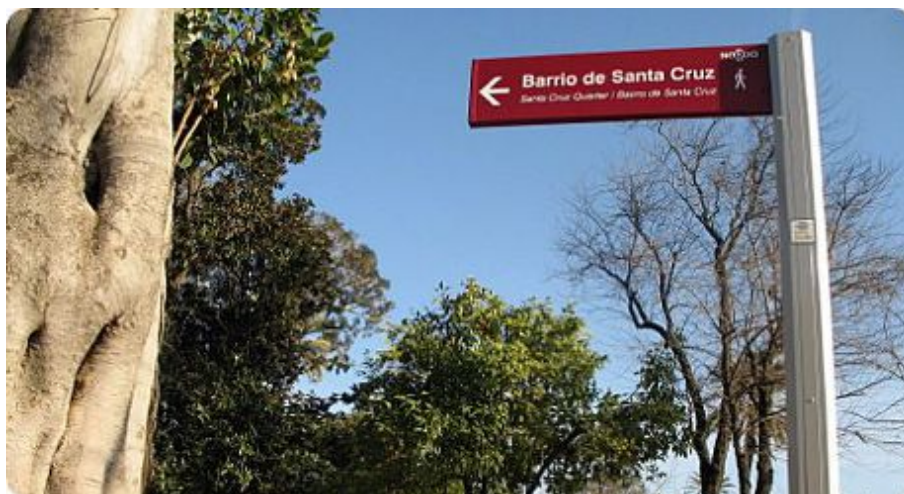
31

(세비아)미로처럼 골목이 이어져 있는 '산타 크루즈 거리'

산타 크루즈 거리는 **세비아** 시내에서 가장 **구시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리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거리라고 한다.

골목이 좁고 예쁜 집들이 많은데 마주 오는 사람과 몸을 맞대고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골목이 많아서 '키스의 길'이라고도 한다고.

나도 자유여행을 왔다면 지금쯤 어느 낯선이와 어깨를 마주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키가 작아서 어깨를 마주치는건 좀 무리일려나....



산타 크루즈 거리 방향 표지판



이 남자가 자꾸만 노래를 부르며 따라 온다.
왜 그럴까 싶었는데 관광객들과 기념 사진을 찍어 주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나도 사진을 함께 찍어준 댓가로 1유로를 지불했다.



로스 베네라블레스 광장의 기념품점



오렌지 나무가 마음에 들어 여기서도 사진을 남겼다.(로스 베네라블레스 광장)
 알고 보니 세비야를 찾는 관광객들은 1년내내 오렌지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로카곳에서 처럼 내 사진을 많이 남긴 것을 보니 이 곳도 내 마음에 쏙 들었었나 보다.



당시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유명한 바람둥이 '**돈 주앙**'이 살았던 집.
로스 베네라블레스 광장에 있는데 지금은 레스토랑이 되어 있다.



미로처럼 길을 찾기 어려운 좁은 골목들



도냐 엘비라 광장

앞의 사진은 위쪽이 십자가 모양인데 사진이 잘렸다.
 뒤의 사진 속의 동상은 '돈 주앙'의 동상. 1000명 이상의 여자와 잠자리를 했다고 한다.
 동상은 위인들의 것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내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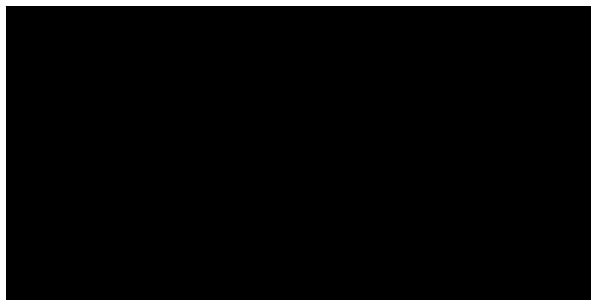


도냐 엘비라 광장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무대가 되었던 집



▲
도냐 엘비라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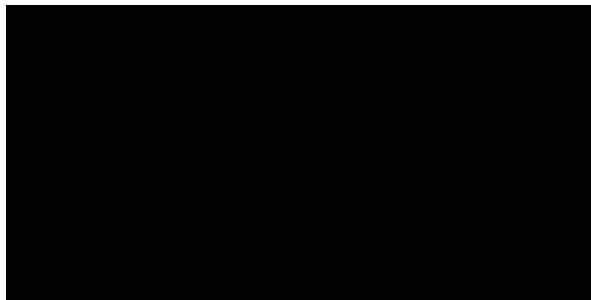
▲
깜찍한 **횡단보도 표지**가 눈에 띈다.
오빠랑 여동생이 발랄하게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산타 크루즈의 좁은 골목을 요리 조리 빠져나오고 보니 가로수인 오렌지 나무들 사이로 우뚝 솟아 있는 탑 하나가 먼저 눈에 띈다. 탑이 있는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니 탑 옆으로는 멋지고 큰 건축물이 더 있다. 바로 **세비아 대성당**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세비아 대성당'은 원래는 회교 사원이었던 것을 탑과 정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 후 125년에 걸쳐 지은 성당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큰 성당이며 유럽의 3대 성당 중의 하나라고 한다.





세비아 대성당





▲
성당 앞의 분수대





▲
성당 주변의 기념품점들



▲
세비아 대성당을 배경으로...



▲
세비아의 주요 관광 명소를 다니는 마차

33

(세비아)세비아 거리를 걷다.

2007.1.1

Ranee in Sevilla

-세비아 거리를 걷다-



밤이 되어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이 켜지면 참 예쁠 것 같다.





카메라를 의식하며 손을 흔들어 주는 센스.



▲
점심 먹을 음식점에 도착.





오늘의 점심도 중국식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김치가 나왔다는 것.
며칠만에 먹는 김치라 더 맛있게 느껴진다.

줄지어 심어진 들판의 **올리브 나무**, 투우에 쓰기 위해 길러지는 소들.

초원인가 싶으면 황무지 같고, 황무지 같다 싶으면 초원이 나타나고...올리브는 척박한 땅일수록 잘 자란다.

이번 여행에서 질리도록 본 것은 드넓은 들판과 올리브 나무였다.







35

스페인의 휴게소 풍경

포르투갈에서 들렀던 삭막한 모습의 휴게소 풍경과는 달리 구경거리도 있고 재미있다.



알록 달록 탐스런 빛깔의 과일과 야채들



▲

휴게소 건물. 이 건물도 세비야에서 자주 보았던 건물의 특징을 하고 있다.
 흰색 벽에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그리고 계단의 타일 장식.





머리 위에는 하몽이 주렁 주렁.
하몽은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여 2~3년동안 그늘에서 말린 음식이다.





▲
정겨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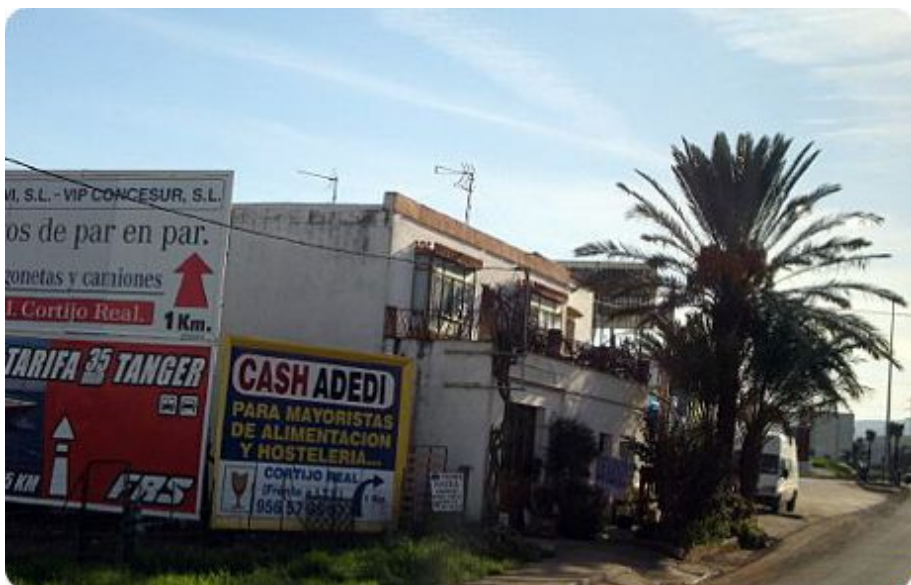
▲
꽃밭에서 탐스런 꽃을 볼 수 있어서 좋다.

36

타리파로 이동 중.

타리파로 이동 중에 보았던 이름 모를 도시의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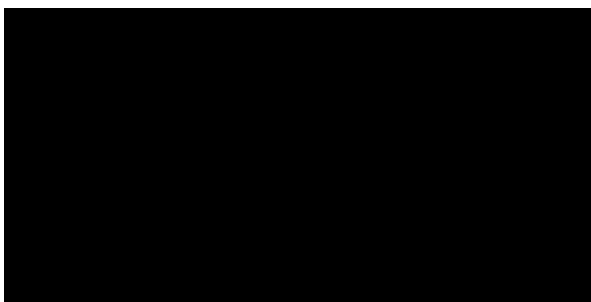
37

타리파로 이동 중에 보았던 이름 모를 도시의 풍경

어디까지가 바다고 어디서부터 하늘인지... 지브롤터 해협이 보인다.

지브롤터 해협은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과 아프리카 대륙 북서쪽 끝과의 사이에 있는, 지중해와 대서양을 잇는 해협이다.

타리파까지 얼마 안남은 것 같다.





광고판에 보이는 Tarifa라는 글씨. 얼마 안있어 도착하겠는걸....

38

타리파도착, 모로코 탕헤르를 향하여 출발

타리파에 도착했다. 타리파는 항구 도시로 우리는 **모로코**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이 곳에 왔다.

내가 번두리 쪽만 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작은 도시인지 (아마도 후자쪽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곳에서 받은 이 도시에 대한 인상은 변화하지 않고 시골스러우면서도 색이 참 예쁘다는 거였다.

항구도시답게 흰색이 주를 이루는 집들과 **노랑**, **초록**, **빨강**, **파랑** 등의 원색으로 포인트를 준 상점들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이 곳 또한 걸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일행이 타고 있던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버스가 주유소에 머무는 잠시 동안만 차에서 내릴 수 있었기에 바램대로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아쉬움이 남는 곳이다.









차에서 잠시 내려 둘러본 마을의 모습.
이 곳의 색이 참으로 마음에 든다.









차를 타고 가며 본 모습들.
가로수가 너무 멋지다.



페리를 타기 위해 수속을 밟으러 들어 가는 중



대기실 풍경



이 곳에서 수속을 밟고 통과하여...



배를 탔다.

스페인이 조금씩 멀어져 간다.

얼마 후면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도착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내가 유럽 땅에 이어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39

햇살이 아름다운 말라가의 아침

코스타 델 솔의 관문이며 휴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 **말라가**.

피카소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해변의 도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곳 말라가는 우리에게 단지 거쳐가는 도시였기에,
이 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싶다는 희망은 애초부터 가질 수 없는 도시였다.

그러나 변수는 있는 법.

어제 운전기사 조제가 장시간의 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할 수 없다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덕분에 우리에게 **지중해**를 거닐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룸메이트 쌤과 나는,

일행들과 모이기로 한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나와 우리가 묵은 호텔 주변의 마을부터 산책해 보기로 했다.



▲ 우리가 묵었던 호텔



▲ 주변의 작은 호스텔



▲
 나뭇잎들이 빠져 나온 저 담장 형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만발한 꽃들과 푸르름이 예뻐 남의 집 앞에서 포즈 한 번 취해 봤다.



▲
 누가 누가 예쁜가 내기라도 하듯 집집마다 담벼락에는 꽃들이 풍성하다.

겨울임에도 이렇게 맘껏 꽃을 볼 수 있다니..

아~ 행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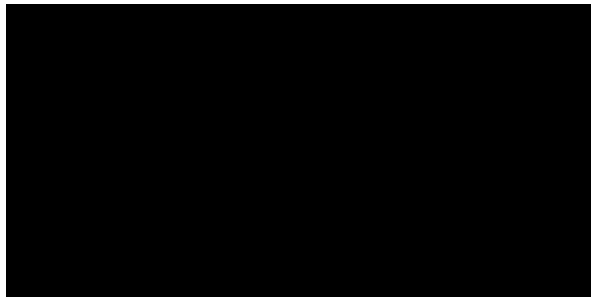
▲
마을의 모습



▲
일행들과 함께 지중해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
바닷가의 도시답게 집들이 온통 하얗다.



지중해가 바로 코 앞에...ㅎㅎㅎ





하늘도 바다도 해변의 발자욱도 그림처럼 아름답다.



▲
아름다운 이 곳에서 영화 한 편 안찍을 수 없지.
"나 잡아봐~라."



▲
의자가 젖어서 앉은 척만 하고 있는 중.
"다리에 쥐나요. 빨리 찍어요~ "



▲
침이 고인다.

40

코르도바로 이동중..

코르도바를 향해 열심히 달려보자.

"김기사~ 운전해!!"

.

.

.

가 아니고,

미스터 조제, 부~탁해요.







코르도바의 할렘가. 집시들이 살고 있다.
 집시들은 정착을 하지 못하는 탓에 집을 지어줘도 살다 말고 나가버리기 일쑤라고...



코르도바 시내



많이 걸으려면 힘부터 비축해야 한다.
점심부터 먹고 시작하자.



41

코르도바의 명동이랄까...그 거리를 걷다.

한 때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이슬람 왕국**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인구 30만명의 조용한 도시가 된 **코르도바**.

우리는 **코르도바**의 번영했던 시절의 흔적을 보기 위해 이 곳에 왔다.

우리가 걷기 시작한 이 곳은 **현재의 코르도바**. 우리는 이 길을 지나 **과거의 코르도바**를 향해 걸어 간다.



이 곳은 서울로 치자면 명동쯤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지도에는 거리의 이름이 C.Gondomar이라고 적혀있다.







▼
삶의 고단함이 보인다.





42

(코르도바) 텐디야스 광장

길을 걷다보니 광장이 하나 나온다.

텐디야스광장.

광장 가운데에는 분수와 동상이 있으며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팔방으로 길이 연결되고 있다.



텐디야스 광장임을 알 수 있게 한 표지판



▲
코르도바의 위대한 장군이라는 **곤잘로 페르난데스**의 동상



▲
광장에는 쉬는 사람,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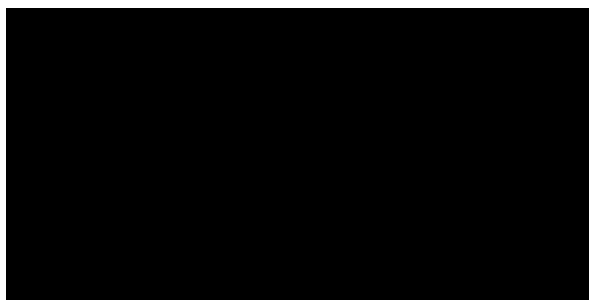
맥주 한 잔과 함께 한 낮의 즐거운 만남을 갖는 이들도 있다.



커플인 것 같은데 한 쪽은 신문 읽기에 한 쪽은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다.
연인이 아니라 부부일까??
아님 그냥 친구사이??



아직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건지 손님이 전혀 없는 음식점도 있네.



43

(코르도바) 텐디야스광장 주변의 길거리 둘러보기

텐디야스광장에서 30분 정도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광장 주변의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여행자로서의 자유를 좀 느껴보라는 뜻이겠지만 아주 가끔씩 주어지는 이 자유시간을 나는 차를 마시며 보내는데 쓰고 싶지는 않다. 한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면 몰라도... 30분을 가지고 몇개의 골목이나 둘러 볼 수 있을까 싶지만 일단은 광장을 중심으로 나 있는 길 중 하나를 택하여 일행 몇과 바쁘게 움직여 본다.

〈첫번째 길 둘러보기〉





〈두번째 길 둘러보기〉



1. 아이들의 눈길을 끌만한 예쁜 색과 모양의 젤리를 파는 상점.
2. 벌떡 일어나 플라멩고를 출 것 같은 인형들
3. 서점. 표지에 나체 사진이 실려있는 책. 이런 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눈에 너무 잘 띄다.ㅋㅋ
4. 어린 연인.



▲ BAR CORREO

도무지 이 BAR 앞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건지 모르겠다.
 유명한 BAR?, 아님 다른 BAR가 문을 안열어서..?, 그것도 아님 맥주 시음회라도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한결 같이 즐거워 보이는데 데리고 나온 강아지들은 주인의 무관심으로 외로워 보인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데리고 들어가야 할텐데...

〈세번째 길 둘러보기〉



시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전처럼 보이는 건축물의 기둥들이 남아 있는 것이 보인다.
여행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걸 보면 그리 유명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유적지인 것 같긴 하다.



코르도바시의 가로수는 오렌지나무이다.

44

(코르도바) 소설 카르멘 속에 등장하는 '코레데라 광장'

며칠전 우리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무대가 되었다던 세비야에서 오페라에 등장했던 담배공장(현재는 세비야 대학)을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원작인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에 등장하는 주요 무대는 세비야가 아닌 코르도바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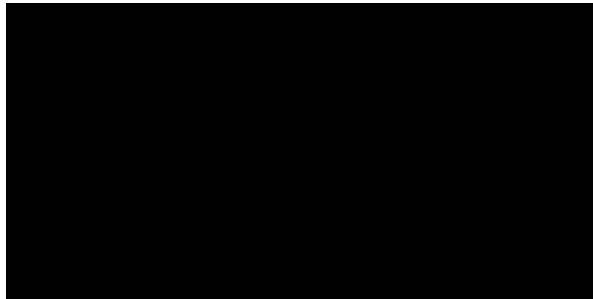
내가 지금 서있는 코레데라 광장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 곳은 소설 카르멘 속에서 집시 처녀 카르멘과 투우사 루카스가 만나는 투우장이 있던 장소라고. (어렸을 적 읽은 소설이라 장소는커녕 줄거리도 가물가물하다. 기억나는 것은 그저 비극적이었다는 것과 주인공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 뿐.)

그러나 지금 이곳 코레데라 광장에서는 투우장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코레데라 광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과 광장의 노천 카페뿐이었다.







45

(코르도바)유대인 마을을 지나며...

인터넷 검색창에 '유대인 마을'이라는 검색어를 쓰고 Enter를 치면 여러 가지 검색되는 정보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로마시대와 고딕 시대로 돌아가보면 유대인 거리는 항상 문화적이고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거리는 코르도바의 가장 중요한 이들이라고 여겨지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 아라비아 철학자 Averroes, 유대인 철학자 Maimonides의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아직까지도 또한 스페인에 남아 있는 몇몇 유대 교회중 하나가 있기도 하다. 이 교회는 1315년에 세워진 것이다. 근처에 투우 박물관이 있으며 여름에는 플라멩코 공연을 볼 수도 있다. Gothic-Mudejar 스타일의 산바돌로메 예배당, Casa del Indiano, 11세기 회교사원의 광탑등의 볼거리가 있고 Calle de Comedias에는 옛날 아라비아식 목욕탕이 있다."

하지만 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유대인 마을에 꼭 들려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런 지적인 부분을 충족 시키고 싶었던 때문이 아니다. 단순하게도 그냥 여행 책자 속에 실린 유대인 마을의 꽃의 골목이라는 사진이 너무 예뻐 그 아름다움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나의 카메라에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 마을로 들어설 때만 해도 나는 이제 나의 바램이 실현되는구나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내가 원하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고 그러다 결국은 메스키타에 도착해 버렸다. 아~ 정말 실망이 크다.



유일하게 본 꽃. 정확히 말하면 꽃 핀 나무.
하지만 내가 보고자 했던 풍경은 아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



▲
이 곳이 유대인 마을임을 알게 해주는 건축물

46

(코르도바) 모스크와 성당의 묘한 어울림 '메스키타'

코르도바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곳 '**메스키타**' (스페인어로 모스크를 뜻하는 메스키타는 고유명사로 쓰이면서 코르도바의 메스키타를 지칭하게 되었다.)

그만큼 '**메스키타**'는 코르도바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이 곳에 대한 설명을 쓰려고 하니 너무나 장황하여 쓸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냥 짧게 압축해서 말하자면,

'**메스키타**'는 **코르도바**가 서칼리프 왕국의 수도였던 시절 세워진 모스크로(세워진 시기는 785년경이라하고 교회의 절반을 모스크로 사용하다가 부지를 사들여 모스크를 세운 것이라고 함)

세 차례 확장공사를 거쳐 10세기 말에는 대규모의 모스크가 되었는데 (메카에 버금 가는 모스크),

1234년 코르도바가 다시 그리스도교의 차지가 되자 '**메스키타**'도 **그리스도교회**로 쓰이게 되었고 16세기에는 시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메스키타**' 한복판에 **대성당**을 세워 회교사원인지 성당인지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지금의 '**메스키타**'가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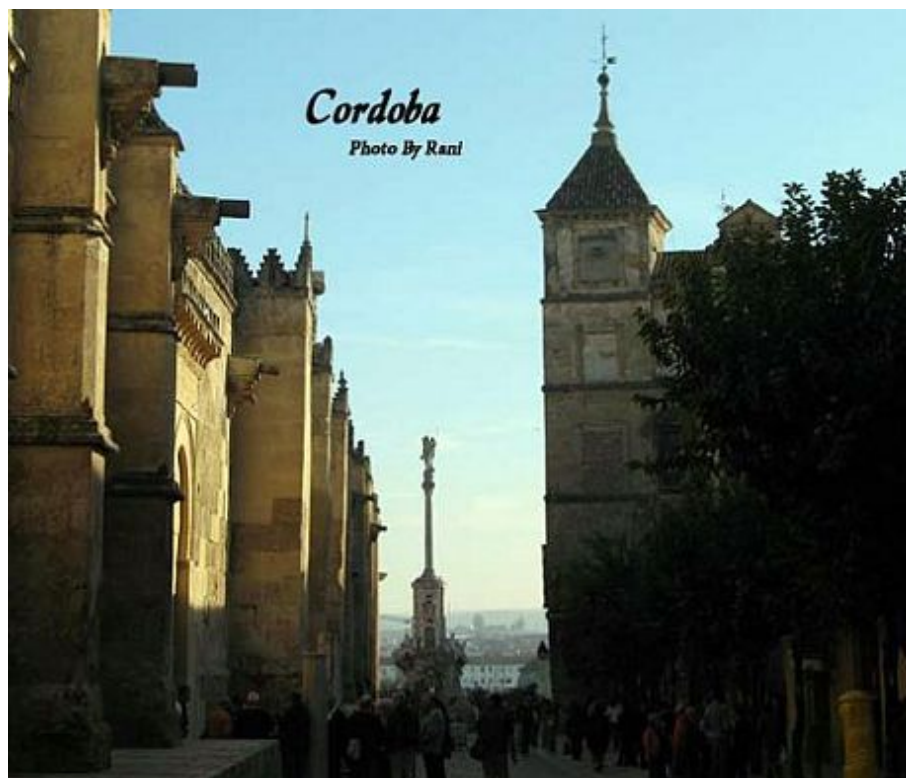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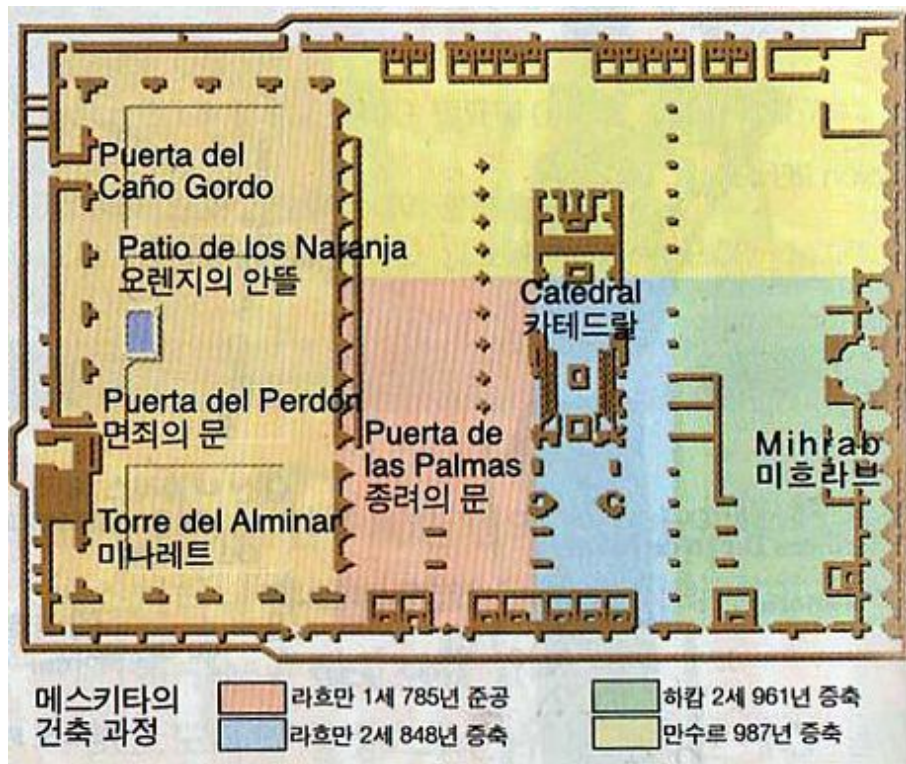
(대성당이 세워지면서 메스키타의 300여개의 석주가 파괴되었다고.)

완공 후에 이 곳을 찾은 **카를로스 5세**는 사정도 모르고 공사를 허가한 것을 후회하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디에나 있는 건물을 위해 여기에만 있는 건물을 부수고 말았구나"

카를로스 5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며 했을 말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 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슬람교 문화와 그리스도교 문화의 양식이 혼재한다는 점에서 이 사원은 '**어디에도 없는 건축물**'이 되었으며 그 특이함이 전 세계 사람을 이 곳으로 불러들이는 요인이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왼쪽이 메스키타.

가운데 보이는 것은 산 라파엘의 승리탑이며 탑의 뒤쪽으로는 로마교가 있다.



미나렛- 이슬람 사원에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되면서 예배시간을 알리던 미나렛은 종루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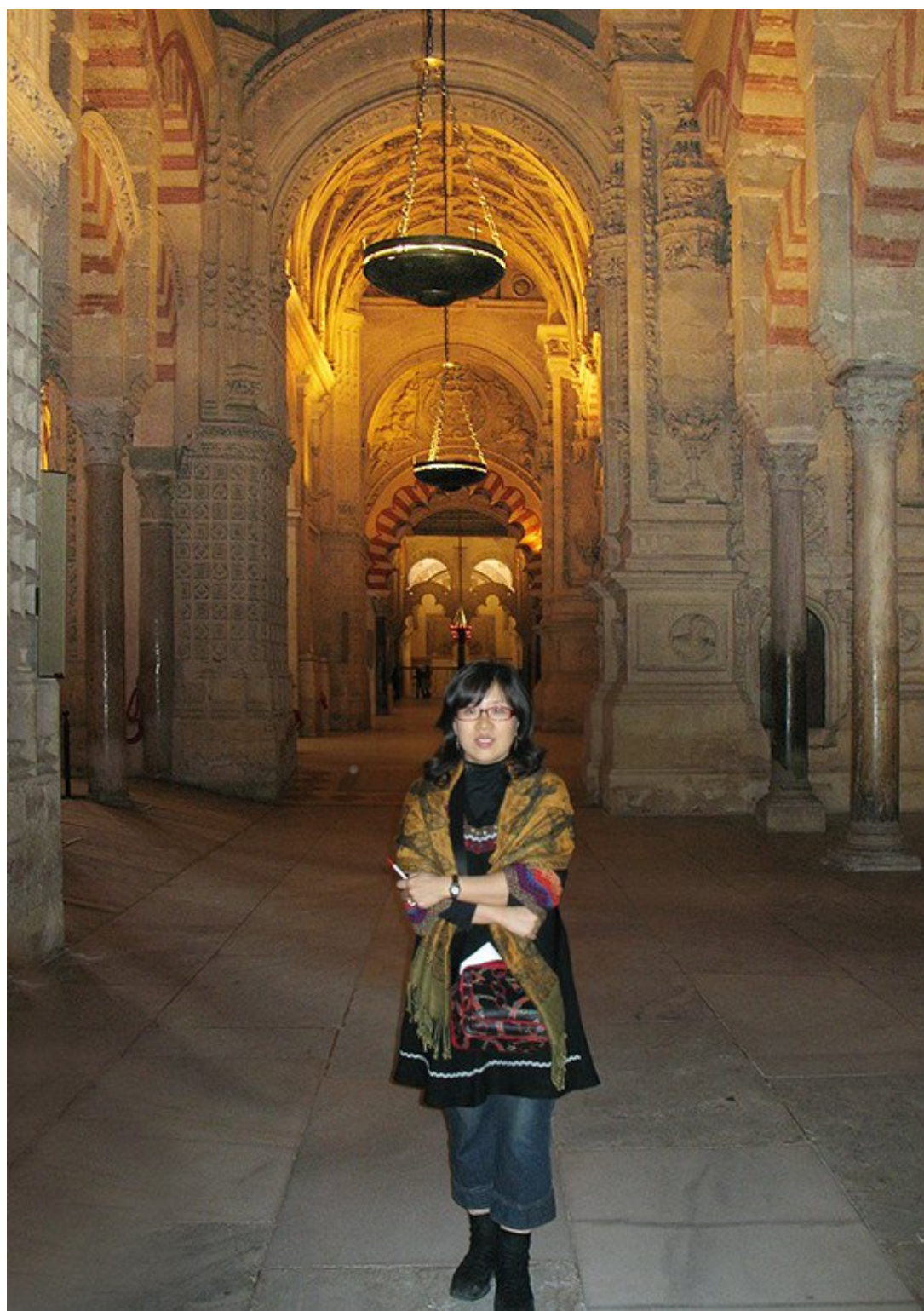
오렌지 정원(오렌지 안 뜰) 당시 이슬람교도들은 기도를 올리기 전에 오렌지 안 뜰에 있던 연못에서 몸을 정갈히 했지만 현재 그 연못은 없어지고 우물만 남아 있다. (우물 사진을 못찍어움.ㅜㅜ)



회랑에 전시해 놓은 아랍어가 쓰여있는 나무판들.
(메스키타를 축조하거나 증축할 때 사용되었던 나무들을 발굴해서 시대별로 전시해놓은 것 같음)



안과 밖의 모습
(실내가 전반적으로 어두운데 저 곳으로 은은하게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입구 부근은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중량을 분산시키고 천장을 더욱 높게 하기 위해 만든 2층 아치의 적백 문양은 채색한 것이 아니라 백색돌과 적색벽돌을 교대로 짜맞추어 만든 것이다.
'메스키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적백 문양의 아치 중 빨간색 화살표 부분은
이슬람교도 이전에 스페인을 지배했던 서고트족에게서 도입한 특유의 말말굽형 아치이고
흰색 화살표 부분은 중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중으로 세운 아치이다.



원래 메스키타의 터는 로마인의 야누스 신전이 있었고 서고트인이 교회를 세웠던 곳으로
무어인들은 정통 이슬람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춧돌과 기둥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여 메스키타를 지었다.
짧은 시간에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 주변에 있는 그리스 양식의 건물에서 기둥을 뽑아 건축을 하였기에
기둥들에서 이오니아, 도리아, 코린트의 그리스 주두 양식이 보인다.



미흐랍(Mihrab) : 메카의 방향을 가리키는 홈,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 다섯번 메카쪽을 향해 절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미흐랍**은 메카의 방향을 알려주는 구실을 한다.
원래 모스크는 메카의 방향에 있는 미흐랍을 향해 좌우가 대칭이어야 하는데
'메스키타'는 확장에 따른 충분한 부지를 확충하지 못해 좌우 대칭이어야 할 모스크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고.

대성당(Catedral) 안의 중앙 예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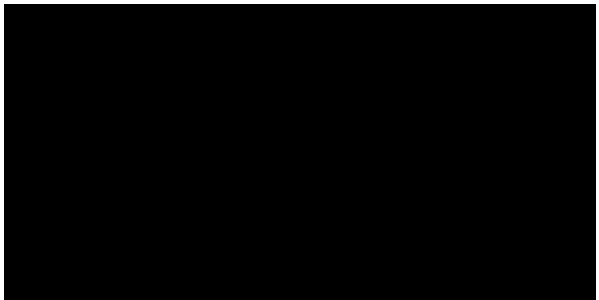
그리스도교도들도 당초에는 메스키타의 아름다움을 존중하여 석주가 총총한 예배실의 일부에만 조심스레 예배당을 설치했었으나 16세기에 결국은 시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메스키타의 한복판에 이슬람 건축과 경쟁이라도 하듯 대성당을 세웠다고 한다.



▲ 전시물(대강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생략)▲ 건물을 짓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표식들



이슬람 사원에서 그리스도교 교회로 쓰이게 되면서 예배실과 정원 사이는 종려나무 문만을 남기고 벽으로 가로막히게 되었다.



47

(코르도바)알카사르를 향해 골목을 걷다.

골목길은 어디나 비슷 비슷하다.

관광 명소 근처의 거리엔 어김없이 기념품샵이 있는게 공식이고.



건물 벽에 등이 달려 있는 모습이 운치있어 보인다.





역시 코르도바의 상징은 '메스키타'가 맞군.
장식점시 하나쯤은 기념으로 사와도 좋을 걸 그랬단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물론 물건을 살 자유가 없었지만...





상점, 카페, 호텔 등이 주를 이루는 골목길



건물을 짓다 유적지 같은 곳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언제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를 일...
건물을 짓던 사람은 속이 타겠지.

48

(코르도바)알카사르

알카사르에 도착하니 **알카사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줄이 꽤 길어 보인다.

당연히 뒤로 가서 기다려야 하나 보다 싶었는데 우리는 줄과 상관없이 그냥 통과.

미리 예매를 해둔건지, 단체 여행객은 다른 규정이 있는건지...(전자가 맞을 듯 싶은데...)

아무튼 우리는 다리 아프게 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다.

그것은 아마 알함브라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채우지 못해 불만이었는데 단체 여행객이라서 좋을 때도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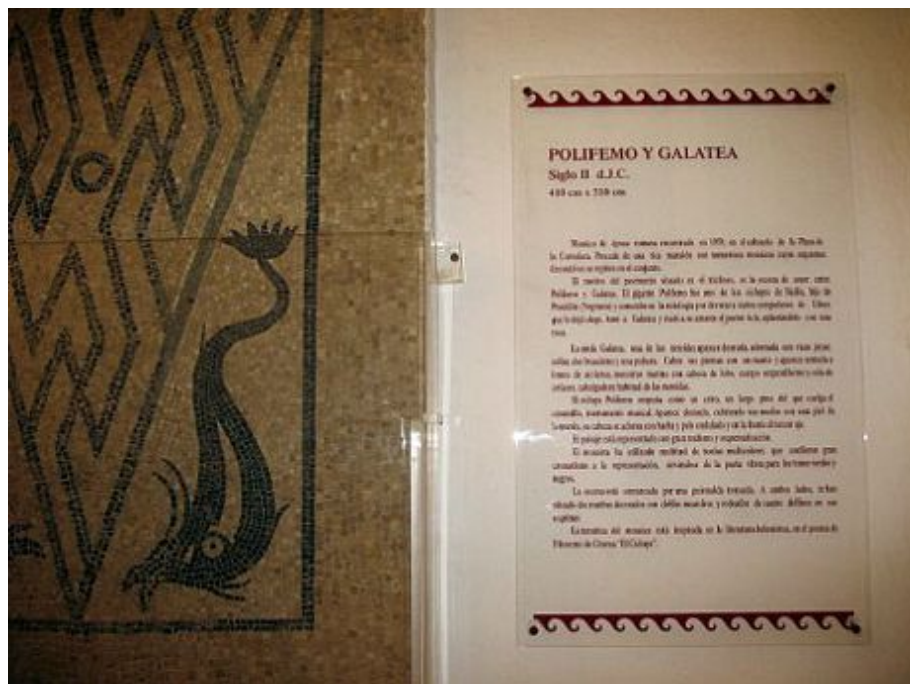




알카사르 - 13세기말 알폰소 10세가 세우고 14세기 알폰소 11세가 개조한 무데하르 양식의 성.
(무데하르 양식의 입구를 찍어 오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현재 내부는 박물관으로 조성되어 로마 시대의 석관과...



모자이크 등이 전시되어 있다.



모자이크가 전시되어 있는 방.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인지 창문마다 저렇게 되어 있다.





이 곳의 핵심이랄 수 있는 무어풍의 정원.
노송 나무와 철따라 피는 화초가 잘 조경되어 있으며 분수도 있다.



정원 끝에 있는 동상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항해에 나서기 전
카톨릭 양왕(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을 알현하는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곳의 물은 과달키비르강에서 왔다는 것인지 아님 과달키비르강으로 간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
로마시대의 유적



▲
알카사르의 관람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코르도바에서의 일정은 이것으로 끝~

알카사르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가는 중에도 나의 사진 찍기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 걸 뭐하러 찍어요." 라는 가이드의 한마디. 순간 경직되는 느낌.

'한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나한텐 풀 한포기까지 모든게 다 소중한걸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 굳이 이해를 바라지 말자.

대답을 들으려고 한 말도 아닌데...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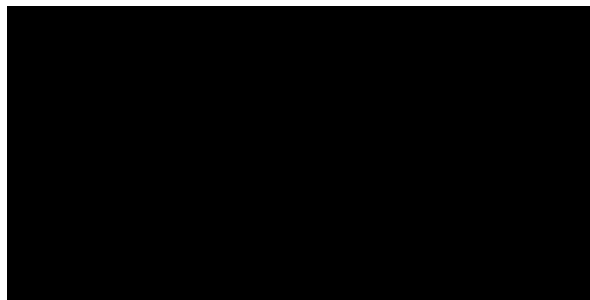
(그라나다)이렇게 큰 도시였다구??!

'**그라나다**' 하면 오로지 **알함브라**와 **알바이신**의 사진 밖에 본 적이 없는 나는

그라나다가 스페인에서 몇번째로 큰 도시라는 정보는 깡그린 잊은채 시골스럽고 조용한 도시일 거라고 맘대로 생각했었나 보다.

그라나다란 도시를 대면한 순간 어찌나 놀랍고 당황스럽던지...

그라나다는 활기참고 황홀했고 너무나 도시다웠다.



그라나다 시내가 이렇게 붐비는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나온 사람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스페인에서는 크리스마스와 1월6일이 가장 큰 명절과도 같은 날이라고 하는데 1월 6일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날과 비슷한 날이라고.



이 도시의 크리스마스 장식도 타도시에 뒤지지 않을 듯 싶다.



거리의 가로등. 흔히 보는 가로등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디자인이 매우 멋지단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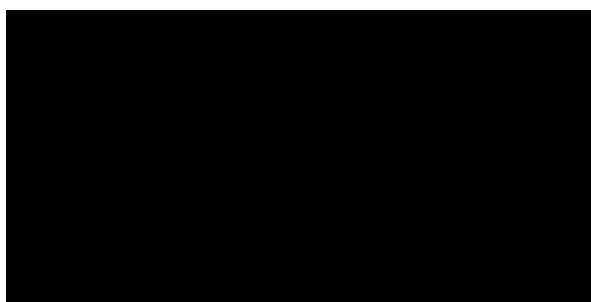
50

(그라나다)음악과 함께하는 멋진 식사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우아하게 식사하기.

실로 얼마나 오랜만의 일이던가.
CD를 팔기 위한 공연이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테지만
그래도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시간이었다.

굿~



51

(그라나다)플라멩코에 취하다.

플라멩코에 취한 밤..

요동치는 가슴을 어찌할 수 없던 밤.



알바이신지구에 있는 플라멩코 공연장



발장단을 맞추고 있는 플라멩코 무희들

한동안의 준비 시간이 흐르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무희들의 발장단에 가슴도 쿵쥔대기 시작한다.



춤을 시작하기전 **팔마(박수치기)**로 박자를 맞추며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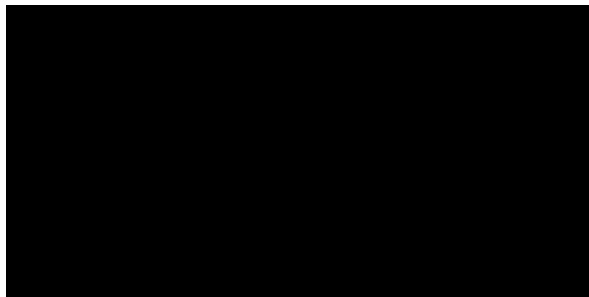
도무지 비슷하게 맞춰 볼래도 맞출 수 없는 박수치기였다.

(한 두번 들어서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것 같은 엇박자의 박수치기)



3인이 빚어내는 열정

플라멩코는 일반적으로 가수, 무용수, 기타리스트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그 자리의 분위기를 교감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춤이다.



사회에서 학대받은 집시들의 슬픔과 한탄이 담겨 있는 춤이라 그럴까
온 몸과 마음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멋지고 아름다웠던 남녀 무용수

나는 남자 무용수에게 마음을 빼앗겨 점점 정신이 혼미했해져 갔다.
"정신 차리라구!"



쿠아드로

남녀가 함께 추는 것을 **파레하**(Pareha)라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을 **쿠아드로**(Cuadro)라고 하는데 플라멩코의 마지막은 모든 무용수가 나와 무대에서 춤을 추는 **쿠아드로**로 끝을 맺는다.

공연이 끝났다.

너무나 몰입해 있던 탓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비록 상상이었지만 난 이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고

열정에 휩싸인 마음은 좀처럼 진정이 안돼

난 이 밤 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2

(그라나다)무사히살아서알함브라로...^^*.

어젯밤 내 평생 처음 **지진**이란 걸 경험했다. 공사장 같은 곳에서나 날 법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가 좌우로 회전거리는 느낌이였다. 무슨 일이지 하면서 순간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던 일이 떠올랐지만 그렇게도 겁이 많은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놀람**과 **신기함**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낮선 땅에 있으면 사람도 잠시 변질되나 보다. 분명 지진을 겪은 밤이었는데 걱정 많은 내가 다른 날 보다 잠을 덜 잔 것 같진 않다.

아침이다.

시내에 있는 호텔이라 그런지 소음방지 차원으로 발코니로 통하는 문에 커튼과 함께 셔터 같은 것이 아래로 쳐져 있어 빛은 한줄기도 들어오지 않지만 시계를 보니 분명 아침이다.

혹시 지진 때문에 이 도시에 무슨 변화가 있으려나 하고 발코니로 나가 거리를 살펴보니 지진 때문은 아니지만 분명 변화가 있긴 있다.

지난 밤의 번쩍거리던 네온사인이나 크리스마스장식의 불이 꺼진 것이야 당연하다 치더라도 이 곳이 정녕 어젯밤의 그 도시인가 싶을 정도로 도시의 아침이 그렇게 **적막**할 수가 없다.

이 도시는 밤의 얼굴은 어디다 감추고 이렇게 전혀 다른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 도시로 인해 세 번 놀라고, 지난 밤에 도착한 도시가 아닌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도시에서 알함브라로 향했다.



호텔에서 내다본 그라나다의 아침 표정



알함브라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알함브라 파라도르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속.았.다.





▲
저기도 알바이신??
글쎄...



▲
허름한 집들도 지나고...



파스텔톤의 예쁜 집들도 지나고...



특이한 집도 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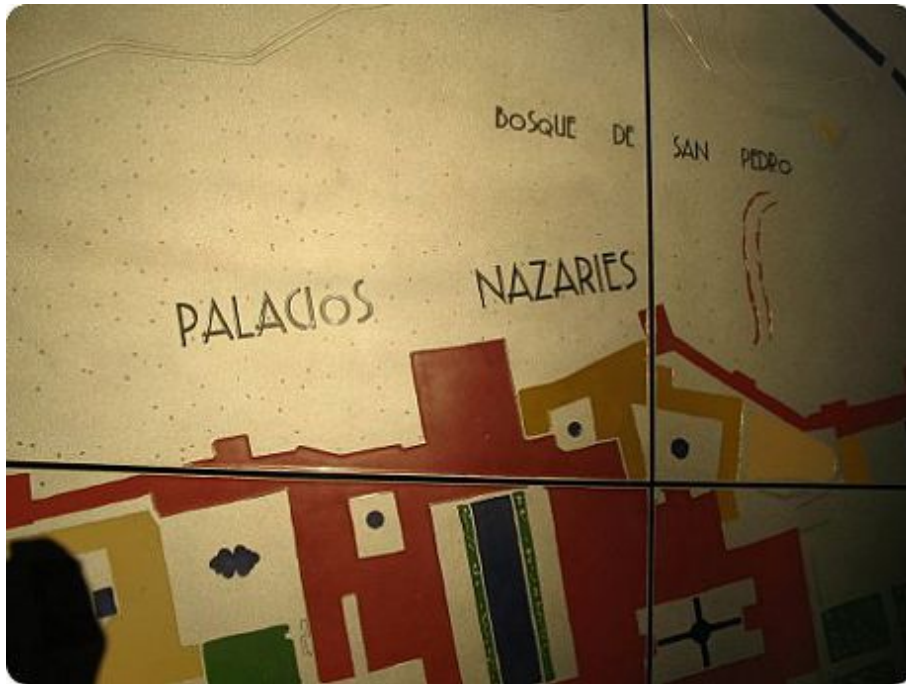
드디어 알함브라에 도착했다.

스페인의 대표적 유적지이며 타레가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란 기타 연주곡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알함브라(Alhambra), 나는 지금 그 유명한 알함브라(Alhambra)에 와 있다.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뒤 하루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고 시간대별로 적정 인원만 입장시키고 있음에도 해마다 수십만의 인파를 끌어 모으고 있다는 것은 '중세 이슬람 문화의 결정체', '이슬람 건축의 최고 걸작' 등으로 찬사를 받고 있음이 틀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표를 사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사리 왕궁에 입장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카를로스 5세 궁을 먼저 보고 나사리 왕궁을 관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설레는 맘을 진정시키며 궁으로 향한다.



▲
알함브라(Alhambra)는 크게 나사리 왕궁, 카를로스 5세 궁전, 알카사바, 헤네랄리페 네부분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알함브라 궁전이라 부르는 것은 나사리 왕궁을 일컫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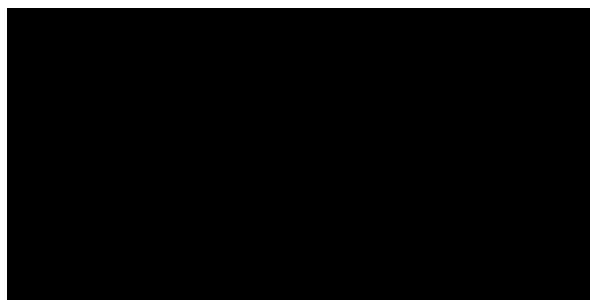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카를로스 5세 궁전은 국토 회복운동이 마무리 된 16세기, 이사벨 여왕의 손자이며 스페인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는 카를로스 5세가 지은 궁전이다. 르네상스 건축양식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겉모습만 봤을 때는 그리 특이해 보이지 않는 건물이었지만 궁의 내부로 들어가 보니 가운데 원형의 빈 공간을 둔 회랑이 중심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구조가 참으로 흥미로웠다. 그래서였는지 이 궁전만 보았을 때는 썩 괜찮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중에 **나사리 궁전**을 보고 **헤네랄리페 정원**까지 보고나니 이 궁전이 아름답단 생각보단 알함브라 전체의 조화를 깨뜨린 카를로스 5세에 대한 원망으로,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바뀐다.



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은 궁전으로 겉모습은 정사각형이며 견고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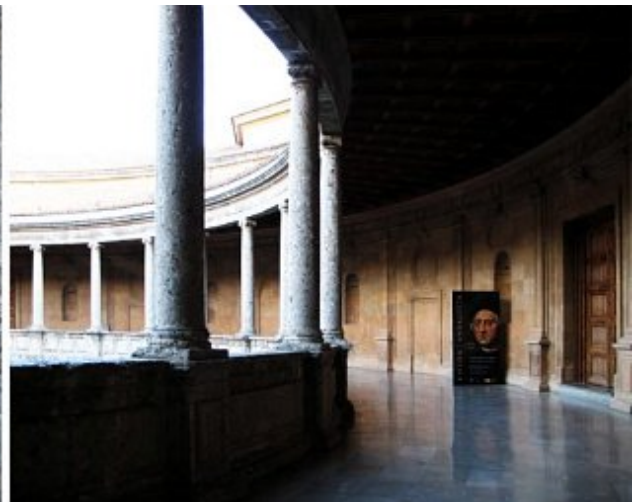
1층에는 스페인 이슬람 미술관이 2층에는 알함브라의 공예품 등을 전시하는 주립 미술관이 있다.
현재 공연장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기계적인 확성없이 악기의 미세한 소리까지도 청중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중정을 둘러싼 2층 구조의 회랑이 있으며..



1층을 에워싸는 기둥은 도리아식,



2층의 기둥은 이오니아식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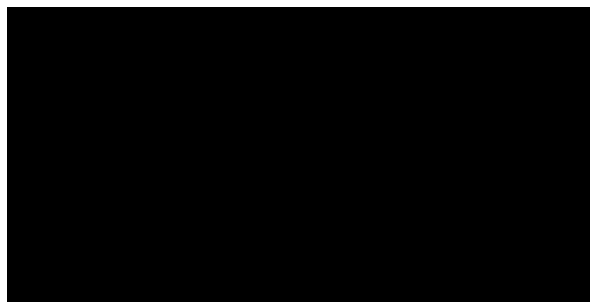
※ **도리스식**과 **이오니아식**은 형식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나 도리스식이 묵직하고 장중하며 단정한 데 비해, 이오니아식은 기둥이 높고 가늘며, 세부에 걸쳐 조각 장식이 많이 있어서 경쾌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체로 도리스식은 남성애, 이오니아식은 여성애 비유되었다.

나사리 왕궁에서 제일 먼저 관람하게 되는 곳은 **메수아르**(Mexuar)의 방이다.

메수아르(Mexuar)의 방은 왕이 집무를 보던 방으로

회의도 하고 청원 같은 곳도 듣고 그랬다고 한다.

메수아르의 방과 메수아르의 정원(?)과는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쓰인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영~ 자신이 없다.



궁의 입구쪽으로 걸어 가고 있는 중이다.

왼쪽으로는 알바이신 지구가 있고 앞쪽으로는 코마레스탑이 보인다.



▲
메수아르 방 입구



입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정교한 장식과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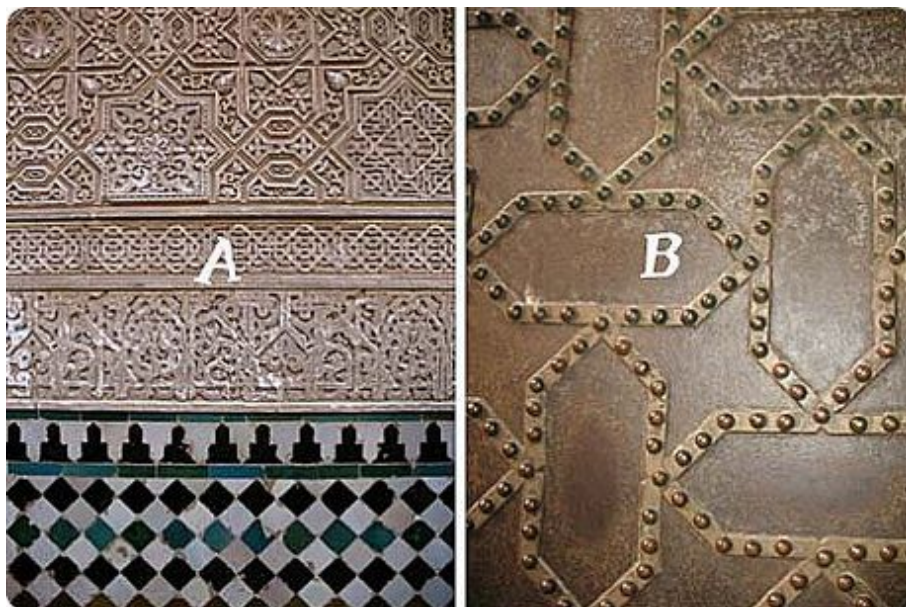


방의 북쪽 안에는 방을 석회 세공으로 마감한 예배실이 있는데 창 밖으로 하얗게 빛나는 알바이신 거리의 모습이 내다 보인다.



▲ 메수아르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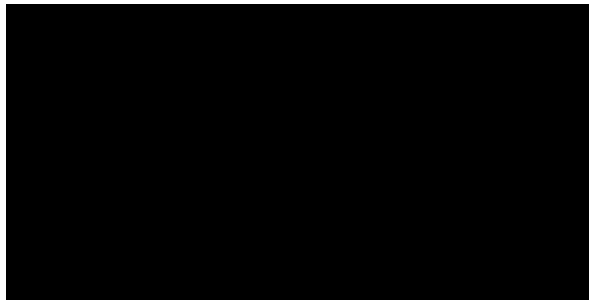
입구 쪽에 있는 메수아르의 방과 함께 왕이 집무를 보던 곳으로
아름다운 칠세공을 한 메수아르 중정은 지위가 높은 이가 왕을 알현하던 곳이다.
가운데 있는 분수의 물은 시에라 네바다에서 온 물이며 두 사진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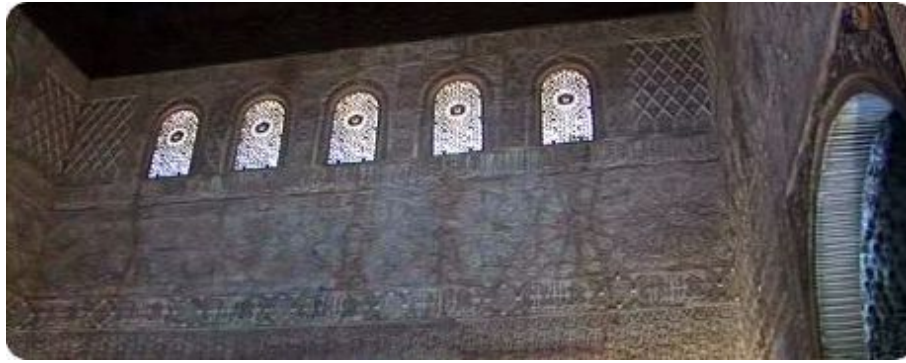


▲
A는 위의 사진의 벽, B는 위의 사진의 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메수아르의 방과 메수아르의 중정 다음으로 보게 되는 곳은 코마레스 탑에 있는 **대사의 방**이다. 대사의 방은 각국 사절의 알현과 접객,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던 곳으로 한변이 11m인 정사각형의 홀로된, 왕궁에서 가장 넓은 방이며 뛰어난 **아라베스크** 무늬가 눈길을 끄는 방이다.

이 방은 역사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방으로 나사리 왕조의 마지막 왕 보압딜이 카톨릭 양 왕(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에게 도시를 넘겨주는 조약을 맺은 후 보압딜 왕의 어머니가 "**선왕들이 지켜온 왕조가 끝내 너에게서 끝나는구나**"라고 탄식했다는 자리이기도 하고, 1492년 1월 2일 그라나다를 점령하고 2개월 후 이사벨 여왕을 비롯한 당시 스페인의 왕들이 이 장소에서 통합을 결의한 결과 **스페인 왕국이 탄생**되기도 했으며 또한 한달 후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에게 항해 지원금을 주기로 허락한 곳도 이 곳이라고 한다.





▲ 대사의 방

대사의 방 정면에는 아치형 장식이 세워져 있고, 사각의 방은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앞쪽 벽면으로 아름다운 아치형 창이 나 있었다. 창문 사이로는 서민들의 거주지역인 알바이신(Albaycin) 지구의 하얀 집들이 보이고 창 반대쪽 즉, 대사의 방 입구 쪽으로는 장방형의 연못이 있는 아라야네스 정원(Patio de los Arrayanes)이 보인다. (Patio란 사방이 모두 건물로 에워싸여 있는 정원을 의미함)



▲ 대사의 방 천장

이 방의 천장 장식은 8천17개의 세다 나무 조각으로 짜여진 여러 가지 기하학적 문양의 동형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 건축은 인물이나 동물 문양은 장식으로 사용하지 않고(우상숭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 대신 식물과 별, 기하학적 문양 그리고 문자만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사의 방 또한 궁전의 다른 방들처럼 아라베스크 문양과 아라비아 서체의 코란 글귀들로 빈틈없이 장식되어 있었고, 각 부분에는 알맞은 색채까지 곁들여 있어 신비감과 황홀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알함브라를 상징할만큼 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라야네스 정원**.

남북 35m, 동서 7m의 커다란 직사각형 연못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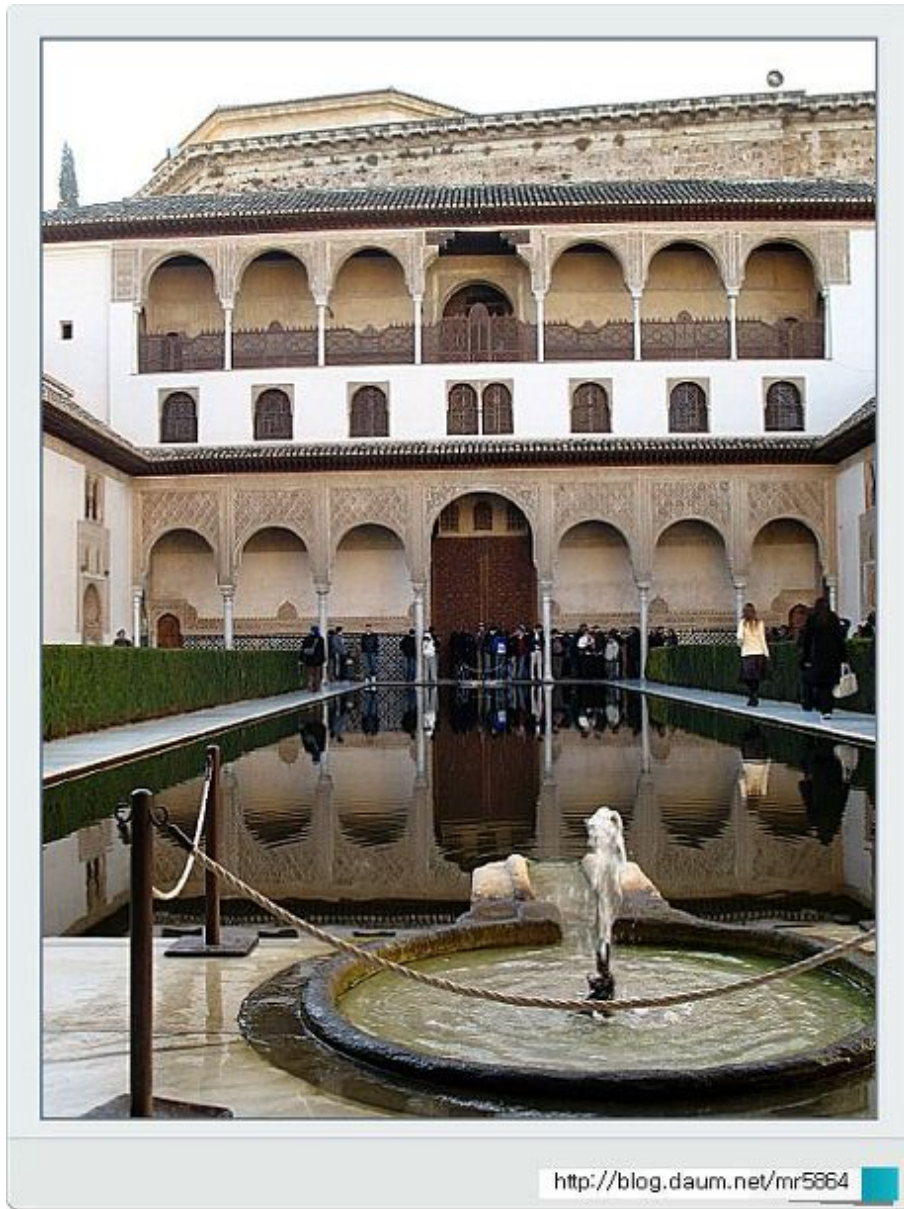
연못 양 옆에 **아라야네스**(천국의 꽃)가 심어져 있어 명명된 정원이라는데

아라야네스는 어느 계절에 피는 꽃인지... 우리는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없었지만

꽃이 없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했다.



아랍건축의 특징은 정확한 대칭구조.
건축물의 좌우는 물론 물 속에 비쳐진 건축물의 모양마저도 정확하게 대칭을 이룬다.



<http://blog.daum.net/mr5864>

▲
이 곳 정원의 물은 3,400M의 산맥의 물을 수면의 낙차를 이용해서 모은 것이며
아랍 건축의 특징인 기와모양의 지붕과 격자모양의 천장을 하고 있다.
(여름에는 아래방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위에 방에서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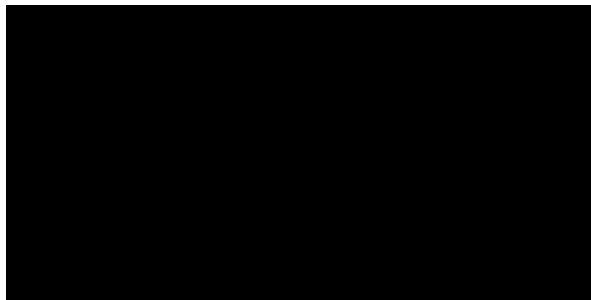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아라야네스의 정원 다음으로 간 곳은 왕궁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의 중정**. **사자의 중정**에 들어 선 순간,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뜰 중앙의 분수를 받치고 있는 열두 마리의 돌사자 때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 교리에 따라 동물의 문양조차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다더니 문양도 아닌 커다란 **돌사자**가 한 마리도 아닌 열두 마리라니...??? 알고보니 그 열두마리의 돌사자는 성이 완성될 당시 이스라엘 왕이 선물한 것이란다.

이곳의 2층은 내전 여인들의 처소로 이슬람 세계에선 **하렘**(Harem)이라 불렀던 곳이다. 남자라곤 오직 왕과 왕의 근친만의 출입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흑심 품고 이 곳에 들어선 남정네야 목이 달아날 것을 각오하고 들어섰겠지만은 흑시나 몇 모르고 기웃거린 남정네는 없었나 모르겠다.





아름다운 124개의 대리석 기둥.

기둥 윗부분의 원형 아치와 돌출 조각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아랍지역의 긴 잎을 늘어뜨린 야자수를 연상토록 만든 것이라 한다.



아벤세라헤스의 방(Salon de los Abencerrajes)

이 방을 아벤세라헤스의 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로 '비극의 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방에서 아랍의 귀족가문 아벤세라헤스가의 청년36명의 목을 자른데서 방의 이름이 유래했다고도 하고 왕이 기독교 여인과 사랑에 빠져 어린 왕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약화된 것을 어린 왕(보아브딜)의 숙부가 그 당시 장수들에게 책임을 물어 장수들의 처형을 감행했던 곳이라고도 한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끔찍한 피투성이의 현장이 생생하게 상상이 되어서 이 방 천장이나 벽면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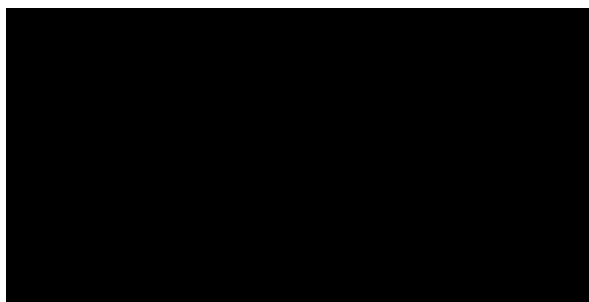
아벤세라헤스의 방 천장 장식



아벤세라헤스의 방에 있는 분수.
아직도 어딘가 핏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은 섬뜩함이 느껴진다.

두 자매의 방 (Sala de las dos Hermanas)

전설에 의하면 왕이 기독교인 두 자매를 사랑해서 이곳에 데리고 있었다는 방이나 그것은 그냥 전설이고 사실은 왕비가 거처하던 방이라고 한다. 두 자매의 방이라는 이름은 작은 분수 양쪽에 똑같은 대리석 판이 2장 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며 시와 나사리 왕조의 왕 모하메드 5세를 칭송하는 내용의 글귀들로 음각 되어 있다. 이 방도 아벤세라헤스의 방처럼 무수한 보석이 메달려 있는 것 같은 **모카라베**(거미집을 형상화 한 것)라고 부르는 천장의 종유석 장식이 아름답다.



아벤세라헤스의 방과 두 자매의 방

60

(그라나다)알함브라나사리 왕궁(다락사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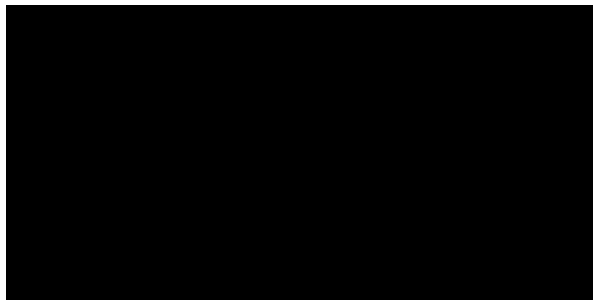


여빙의 방으로 이동하던 중 아래쪽을 내려다 보니 양증맞게 예쁜 정원 하나가 보인다.

지금은 겨울이라 꽃이 없지만 꽃이 피면 이 곳도 참 예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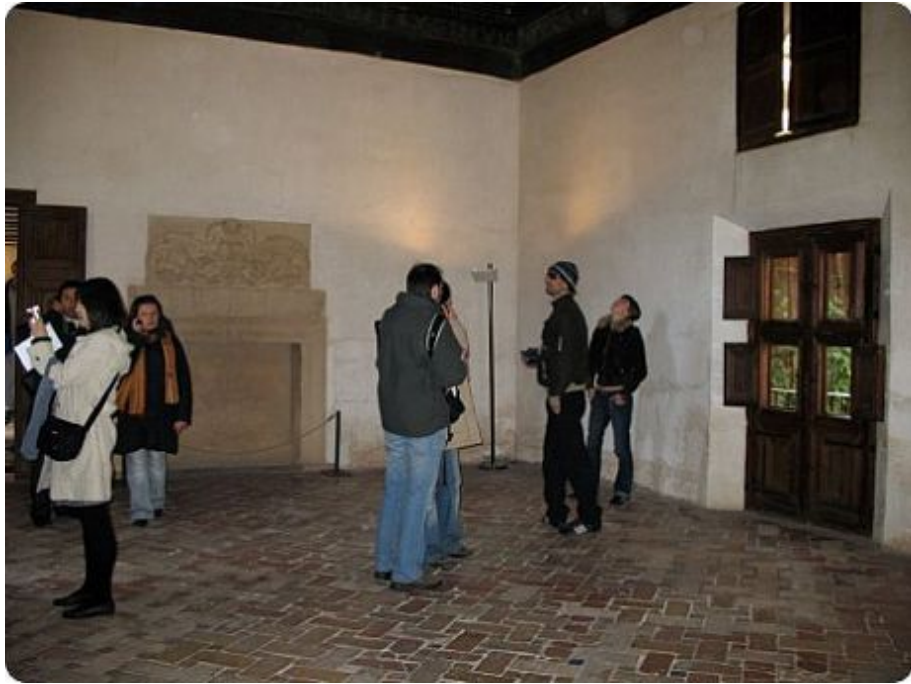


어빙의 방을 보고 내려와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급하게 사진 한장을 남겼는데...
 에구~인물이 영 말이 아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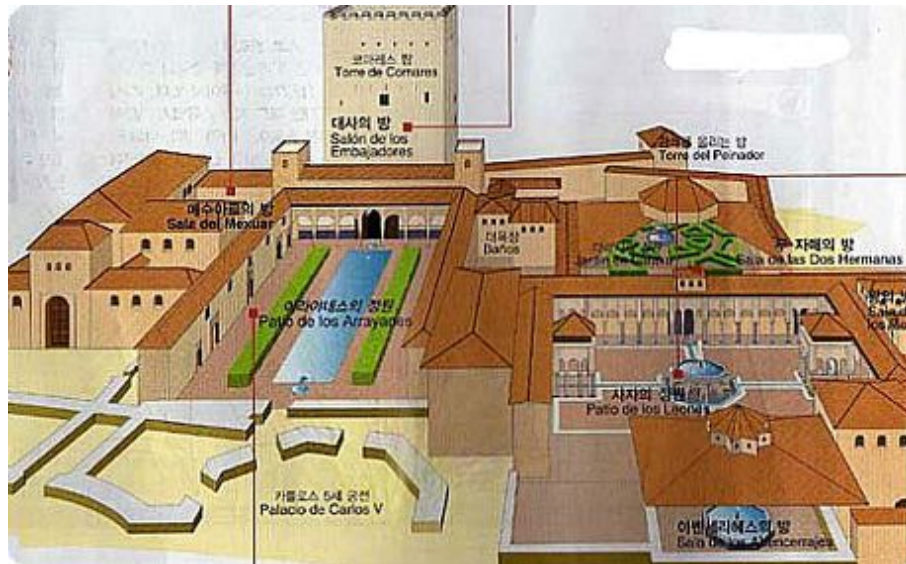
1829년 미국의 작가이자 스페인 주재 미국대사였던 워싱턴 어빙이 이 곳에서 <알함브라 이야기>를 써서 발표하기전까지만해도 알함브라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폐허나 다름 없었음은 물론 도둑의 소굴이나 마찬가지로었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알함브라 이야기>를 발표하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져 궁전을 보호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 여러 차례의 복원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 스페인 사람들은 물론, 그로 인해 이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게 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나사리 궁전에는 아름다운 장식의 매우 많은 방들이 2개의 커다란 파티오(중정: 中庭)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라야네스 정원



사자의 정원

★ 한 쪽은 유수프 1세(재위 1331~1359년)가 만든 **아라야네스 중정**으로 사각형의 연못을 따라 공식적인 알현 장소인 **‘대사의 방’**으로 연결되어 있다.

★ 또 한쪽은 모하메드 5세가 만든 ‘사자의 중정’으로 왕의 사적 공간이다.

‘사자의 정원’ 중앙에는 12마리의 돌사자가 받치고 있는 분수가 있고 이 분수를 회랑이 둘러싸고 있으며 ‘**두 자매의 방**’을 비롯해 **아벤세라헤스의 방**, **왕의 방** 등 매력이 넘치는 방들로 이루어져 있다.

63

(그라나다)알함브라나사리 왕궁을 나와...

나사리 왕궁의 관람을 마치고 알카사바로 향한다.

저렇게 소박한 겉모습 속에 어떻게 그런 화려함과 정교함을 감추고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속보단 겉모습에 더 신경 쓰는게 우리네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던가.

무어인들은 아마도 싸구려 겉옷에 명품 속옷을 입을거라고 누군가 농담 삼아 했다는 말이 단지 웃고 넘어갈 소리 만은 아닌 듯 싶다.









알카사바는 알함브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곳으로 군사적 방어 기능을 하던 성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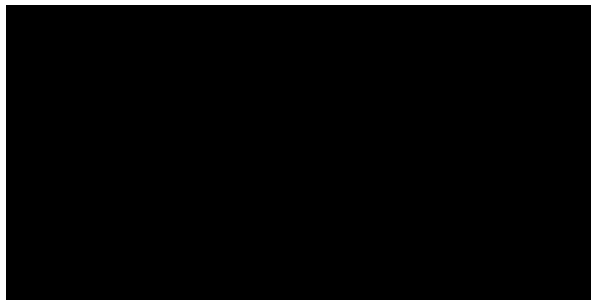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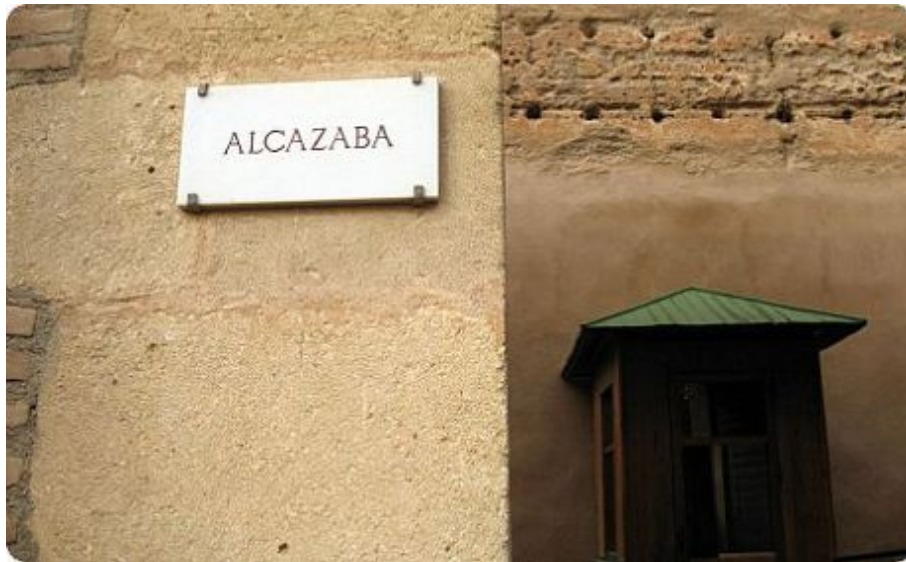
로마시대에 건설되었는데 나사리 왕조를 연 그라나다 왕국의 건국자 모하메드 1세가 현재의 규모로 정비하고 확장했다고 한다.



알히베스 광장에서 바라 본 알카사바.

입구가 보인다.

(저 입구는 견학자용으로 후세에 만들어진 것)



전성기 때는 24개의 탑과 군인들의 숙소, 창고, 터널에 목욕탕까지 갖추었던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흔적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
벨라탑이 보인다.



▲
저 벽 안엔 무엇이 있고 누가 있었을까.



스페인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었던 그라나다의 천연요새 알카사바.



벨라탑에서 내려다 보니 한 눈에 들어온다.



벨라탑에서 바라본 알바인신 지구.

알바인신은 8세기 이후 그라나다 시내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흰벽의 집들이 꼬불꼬불한 골목을 이루며 늘어서 있다.

멀리 보이는 작은 구멍들 소에는 아직까지 집사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저 골목을 걸어봐야 하는건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알바이신 지구의 한 부분을 줌으로 당겨 찍었다.
골대와 농구대가 보이는 저 곳은 학교일까?



알바이신 지구 반대편 쪽으로 보이는 그라나다 시내 전경

65

(그라나다)알함브라-헤네랄리페 가는 길

이제 마지막 코스 **헤네랄리페**로 간다.

양 옆으로 잘 가꾸어진 나무가 길게 늘어선 길도 지나고 유적지 같은 곳도 지난다.

헤네랄리페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0 | 이슬람 무어왕족의 여름별장이었던 **헤네랄리페**, 헤네랄리페에는 14세기에 건설된 **별궁과 정원**이 있다.

정원 입구에는 까치발을 들고 키재기를 하 듯 서있는 **사이프러스** 나무에 둘러싸인 길이 쪽~ 뻗어있고 초입에는 **장미**등을 심어놓은 **서양식 정원**이 있으나 장미의 계절이 아닌지라 그다지 예쁜지는 모르겠다. 조금 더 안쪽으로 가야만 이슬람식 정원인 헤네랄리페 정원의 정수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화려하게 꽃이 핀 아름다운 정원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일찌감치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단지 건축물과 주변 자연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봐야겠단 생각을 해본다. 정원을 보기엔 영 계절을 잘 못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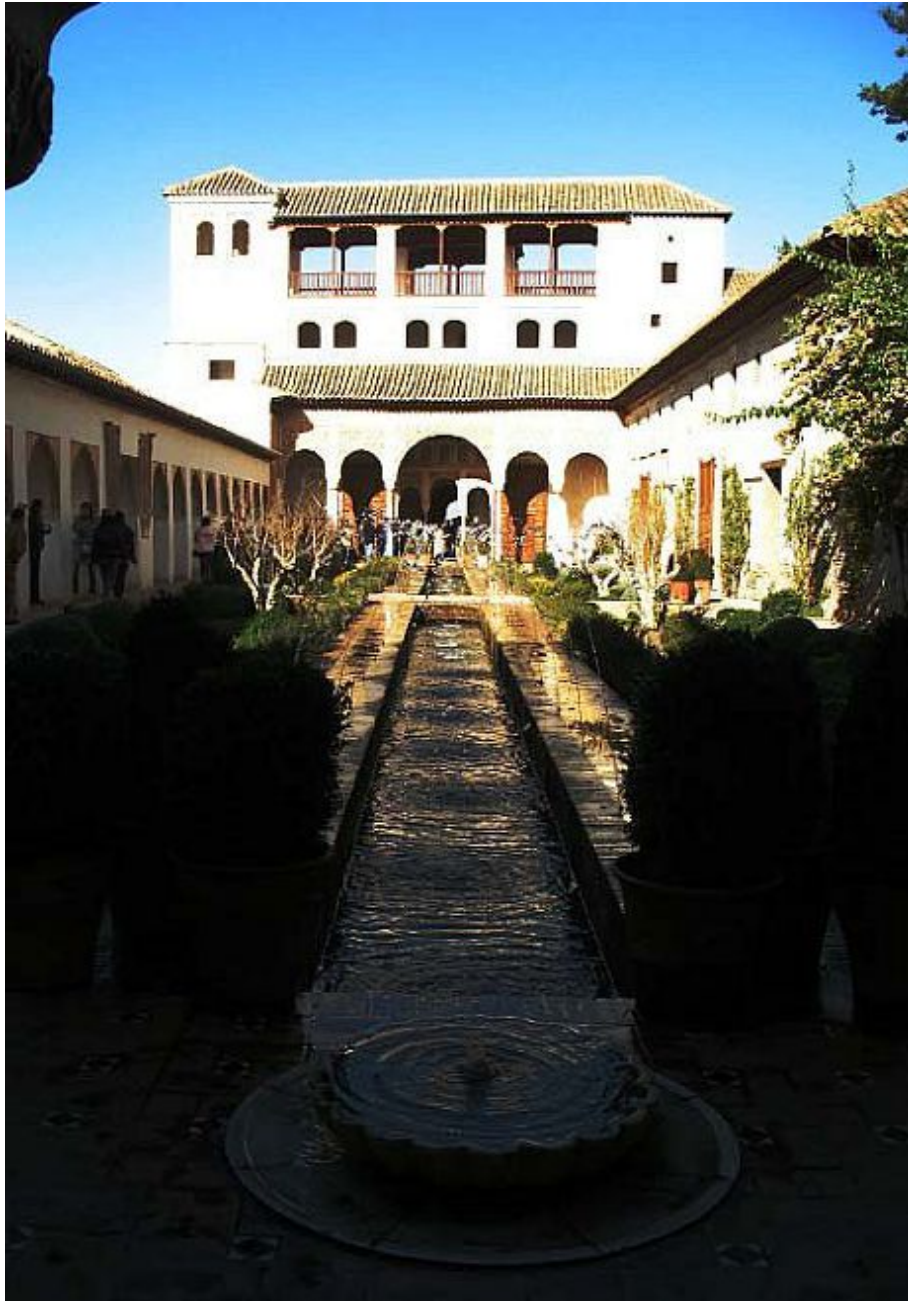
우리가 보통 헤네랄리페 정원하면 떠올리게 되는 모습은 바로 이 헤네랄리페 정원 안쪽의 아세키아 중정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개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손질이 가해져 건설 당시의 시설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이용한 정원의 아름다움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듯 하다.

아세키아는 수로란 뜻이다. 이름처럼 중정에는 전체 길이 50m정도의 수로를 설치하여 좌우에 많은 분수를 두고 있다. 이들이 물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는 꼭 이 곳이 아니더라도 알함브라의 곳곳에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마음을 비우려고 했지만 꽃이 흐드러지게 핀 예쁜 정원을 볼 수 없음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
왕의 여름 별궁인 헤네랄리페.
아랍어로 천국의 정원이란 뜻이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타레가는 이 곳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듣고
그 유명한 기타곡인 [알함브라의 추억](#)을 작곡했다고 한다.



헤네랄리페에서 본 왕궁



별궁 뒤에 있는 작은 정원

이 정원에는 사연을 간직한 나무가 있다.

바람난 왕비가 현장을 들켜 죽임을 당했고 이 나무도 그 현장을 보았다는 이유로 왕은 이 나무도 죽였다고 한다.
그 사연은 전설이 되어 이 나무를 만지는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이루게 된다고 해서 이 곳을 만지는 여행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이 곳에 있는 동안은 이 나무를 만지는 사람을 못 본 것 같다.





알함브라의 마지막 코스까지 관람을 모두 마치고 알함브라를 떠나는 길.
건다가 지치면 정원 한 쪽에 앉아 조금은 쌀쌀하지만 상쾌한 바람도 맞으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와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68

(스페인) 거대한 황소는 왜 저기서있을까?

그라나다에서의 알함브라 관람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마드리드**로 향하고 있다.

장시간의 이동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일행들이 잠을 청하거나 정담을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창 밖을 응시하고 있다.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노라면 어김없이 눈에 띄곤 하던 언덕 위의 대형 황소가 또 눈에 들어 온다.

스페인 고속도로 어디에서나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황소이다.

'저 황소는 왜 저기 서있는 걸까'

'투우용 소를 키우는 농장 표시인가.??'

'스페인의 상징물로 스페인 정부에서 세워놓은 것인가.??'

저 황소가 왜 저기 서 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장시간의 이동 중에 만나게 되는 저 황소들은 때론 태양 아래,
때론 노을 속에서 시시각각 다른 느낌을 주며 이동의 지루함을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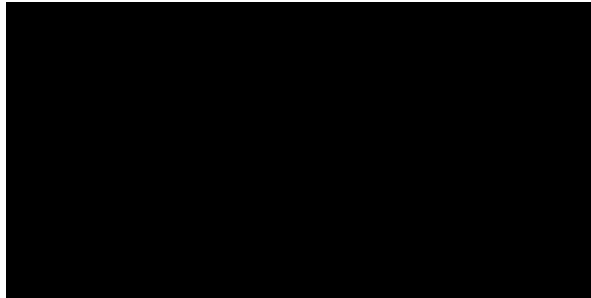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 저 황소가 왜 저기 서있었는지.

고속도로 주변에 서 있는 저 거대하고 납작한 황소들은 농장표시도 아니고 스페인의 상징물로 정부에서 세워놓은 것도 아닌 광고판이었다. 그것도 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세리주 회사의 선전용 광고판.

아마도 그 **세리주**가 스페인 남부의 전형적인 포도주라는 의미로 스페인의 상징인 황소를 사용한 모양인데, 그럼 왜 다른 광고판은 없냐고? 그것은 이 광고판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판들은 모두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이 광고판을 비롯해 수많은 회사 선전용 간판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난립하자 그 광고판들이 풍경을 망친다고 생각한 스페인 정부가 일제히 단속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 간판을 스페인의 명물로 여긴 관광객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 간판만은 유일하게 남게 된 거라고..

형평성엔 어긋나지만 어쨌든 이 간판은 살아남아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스페인의 명물이 되어 버렸다.





마드리드로 이동중 들린 휴게소. 'Nestle' 란 눈에 익은 글씨가 박힌 자판기가 눈에 들어왔는데...
초콜릿이나 초콜릿 과자를 파는 자판기도 아니고...어라~여자가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네!!!
호기심 발동한 룸메이트쌤, 궁금한 것은 실행에 옮겨 확인해 보신다.



자판기에서 나온 것은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하드다. 얼었다 녹았다가 거뭇했을 법한, 형태도 사라져 납작해져버린 하드. 우리는 재밌어라하며 돌아가며 한 입씩 베어 먹었다.



70

안달루시아의 그라나다에서 라만차의 마드리드로...

이슬람의 향기가 곳곳에 배어 있던

안달루시아 지방의 세비야, 코르도바, 그라나다의 일정을 끝내고

돈키호테의 무대 라만차 지방으로 이동 중이다.

마드리드와 톨레도는 어떤 색깔을 지닌 도시일까.





라만차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얀 풍차들.
하얀 풍차가 늘어선 벌판을 뛰어다녀보는 상상을 얼마나 했던가.
그러나...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71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토차역**이었다. 마드리드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지만 아토차역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연히 보고 싶던 이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과 비슷한 감정이랄까...

하지만 나의 감정에는 어느새 **반가움**이란 녀석 뒤로 **그리움**이란 녀석 하나가 슬쩍 끼여든 듯 하다.

지난 여름 파리 북역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과 감정이 오버랩 되면서, 나는 어느새 배낭 여행을 왔더라면 저 역 어딘가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을지도 모를 나의 모습이 상상하고 있다.

지금도 마드리드하면, 스페인 광장이나 왕궁이 떠오르기에 앞서 아토차가 먼저 떠오르는 건, 이번 여행에서 이루지 못한 배낭여행에의 꿈 때문이 아닐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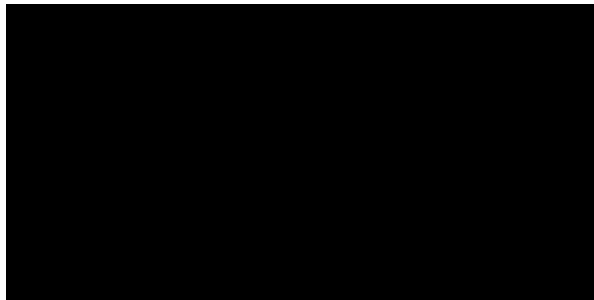


▲
아토차역



▲
스페인에서 처음 먹는 한식.
(모로코에서 한식 도시락에 이어...) 정말 푸짐하게 먹었다.





72

(마드리드)프라도 미술관에 가다

세계3대 미술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프라도 미술관**은 **프라도의 3대 거장**이라 일컬어지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를 비롯하여 **무리요**와 같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가들과 16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거장 **티치아노** 등 스페인의 왕실과 인연이 깊은 지역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감상을 하면서 천천히 관람을 한다면 하루는 족히 걸린다는 이 미술관을 우리는 겨우 1시간 남짓동안 보게 될 것이다.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볼테니 과연 몇 작품이나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입장을 위해 **고야의 문**으로 향했다.

프라도에는 **고야의 문** 이외에도 2개의 문이 더 있는데 각각의 문에는 **고야**, **벨라스케스**, **무리요**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한다. **고야의 문**으로 가니 들던대로 **고야의 동상**이 눈에 들어온다.

입장 시간을 기다려 보안검색을 마치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 갔다.

지난번 여행 때는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미술관(내셔널 갤러리, 루브르, 오르세)** 관람을 했더니 미술 교과서에 나왔던 그림밖에는 아는게 없어 어떤 그림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할지 몰라 낭패스러웠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엔 공부 좀 해가자 작정을 하고 **프라도 미술관**에 있다는 그림의 사진을 모으고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찾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다. 노력의 결과인지 중요하다는 그림들이 제법 눈에 쏙쏙 들어오고 가이드의 설명도 비교적 잘 이해할 수가 있었지만 이번엔 지난번 여행과는 반대로 시간이 없어 공부해간만큼의 작품도 보지 못했으니 이래저래 미술관 관람은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질 못한다.



▲
표지판에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있건만 한국어가 없어 서운하다.

우리 나라도 막강해져야 할텐데...





▲
 고양의 문 앞에서 입장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다.
 맞은편으로 고양의 동상이 보인다.





▲
고야의 동상



▲
프라도 미술관에서 유일하게 찍은 작품 사진 <엘 그레코의 성삼위 일체>이다.
2007년부터 미술관의 작품 사진을 전혀 찍을 수 없게 되었음을 모르고 찰각하는 순간 바로 제지당하곤
어찌나 창피했던지...



PDF로 발행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의 작품들
(그림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73

(마드리드)프라도 미술관에서 스페인 광장까지...

프라도 미술관의 너무나 × 5 짧은 관람을 마치고 **스페인 광장**으로 향한다. 스페인의 도시마다 있다는 스페인 광장.(실제로 그런지 확인한 바는 없음) 마드리드의 스페인 광장은 사진 속에서 많이 본 곳으로 그만큼 잘 알려진 곳이다. (스페인 광장이 잘 알려지게 된다는 소매치기들의 몫도 클 듯....) 소매치기들이 우글댄다는 스페인 광장이지만 사진 속에서 많이 본 곳이라 기대가 된다. 이름 모를 거리들을 지나고 마드리드의 중심가가 있는 **그란비아거리**를 지나 스페인 광장에 도착했다.



▲ 순환버스를 이용하여 관광하는 재미도 좋을텐데.. ▲ 버스 표를 사는 곳



푸에르타 델 솔과 레티로 공원 사이에 있는 **시벨레스 광장**의 시벨레스 동상과 분수



분수 뒤로 보이는 것은 독립광장의 **알칼라 문**이고 분수의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중앙 우체국**인 듯 하다.



스페인 광장 앞.

소매치기가 많다더니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경찰이 와있다.

74

(마드리드)스페인 광장이 이렇게 한적하다니...

우리의 가이드는 차에서 내리지 직전에도 가방을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아니 가방을 아예 차에 두고 내리라고 했던가..

어쨌든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여행내내 수도 없이 들어서인지 이제는 궁금할 정도다.

도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하지만 차에서 내리고 보니 우리 이외엔 인적이랄곤 찾아볼 수 없어서 조심할래야 조심할 일이 없어 보인다. 한 쪽이 공사중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너무 조용하니까 관광지 같은 느낌도 없다.

"으~괜히 졸았잖아."



광장 중앙에는 세르반테스 기념비기 있고 기념비 아래쪽으로는 로시난테에 올라탄 돈키호테와 노새를 탄 산초 판사의 동상이 있다.

세르반테스 사후 3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것이다.



기념비 뒤로 보이는 건물은 스페인 빌딩이고 왼쪽의 고층 건물은 마드리드 타워이다.



▲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상



▲
기념비 윗부분 (의미가 있는데 설명은 생략)





눈에 띄는 자동차.

우리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준다.

75

마드리드 왕궁에서 본 행사(땡 잡은 거야)

마드리드 관광의 핵심이라는 왕궁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잠시 걸으니 한 눈에도 왕궁임을 알수 있는 위엄이 느껴지는 건물과 그 앞으로 동상 하나가 눈에 들어 온다.

펠리페 4세의 기마상이라고 하는데 벨라스케스가 그린 초상화를 기초로 하여 만든 것이라나.

이 곳에서의 기념 사진은 빠뜨리면 안될 것 같아 설명도 듣는둥 마는둥 사진 한장부터 남기고 본다.

머리로는 사진에 연연해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것은 생각뿐, 욕심을 버릴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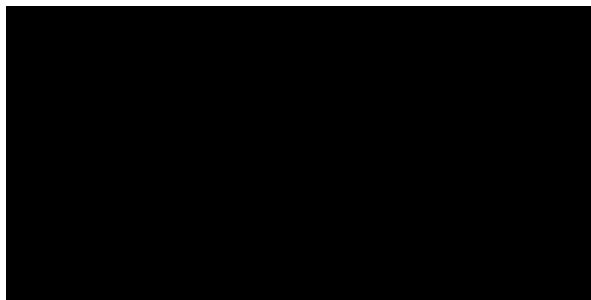
의도한 바도 없었는데 운 좋게 왕궁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를 보게 되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을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행사다.

1월 6일, 오늘이 **동방박사의 날**이라는 스페인의 가장 큰 기념일인 것은 알겠는데 (스페인에 와서 알게 되었음. 크리스마스 보다는 더 축제 분위기가 나고 어린이들은 선물을 듬뿍받을 수 있는 날이라네.) 그거하고 이 행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구마는 그럼 뭐지???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여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군인성인의 날이라나 뭐라나...

그곳의 소음 때문에 도무지 잘 들리지가 않는다.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그냥 보고 즐기자.

아쉽게도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기에 끝까지 보지 못하고 그 곳을 떠나야 했지만 그래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년에 한 번뿐인 행사를 보게 되어 보너스를 받은 듯 기분이 좋았다. 런던에서는 일년에 한번도 아닌 매일 행해지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 위해 한 시간 이상이나 미리 가서 기다리기도 했지 않았었는가. ㅎㅎ







끊임없이 이어지던 군인들의 행렬





▲
알루데나 대성당

711년 이슬람교도가 이베리아 반도로 침입하여 마드리드가 점령당했을 때,
파괴를 두려워하여 성벽(아랍어로 '알무데나')에 숨겨두었던 성모상이 370년 후에 기적적으로 발견되어,
그 자리에 성당을 짓게 된 것이 대성당의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이 곳은 스페인의 **왕세자**가 결혼식을 올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곳이기도 하다.





▲
왕궁을 떠나며 한 컷.

76

(마드리드) 왕궁 주변 |

2007.01.06

Ranee in Madrid

-왕궁주변-



▲
왕궁 앞이다.

공원 같이 보이는데 이름은 모르겠다.

이 것도 오리엔테 광장의 한부분인지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지...

길을 따라 넘름해 보이는 동상들이 늘어서 있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이들도 많다.



왕궁에서 조금 걸어 나왔다.
주변에 가죽 제품 파는 곳이 있어서 구경 좀 하고 나오니 희한한 것을 타고 다니는 이들이 보인다.
타보고 싶은 걸...쩍!



다시 왕궁 앞 오리엔테 광장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광장에서 참 편안히도 잠을 청하는 노숙자가 있다.
겨울이지만 다행히도 햇살이 따사로운 편이다.
지금 대낮인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건지.
요기는 했는지...



조금 더 걸어 나오니 한사람 또 있다.
여기는 그늘져서 추워보이는데....아무래도 서열이 있어서 아무나 햇살 드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2007.01.06

Ranee in Madrid

- 산 프란시스코 엘 그란데 성당 & 톨레도 문 -

이제 톨레도를 향해 출발이다.

차를 타고 갈 때도 딴 짓 않고 열심히 보다 보면 일정에 잡혀있지 않은 건축물들을 덤으로 더 보게 될 때가 있다.

세비야에서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아직은 안섰지만 톨레도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랬다 스쳐지나가면서 본 것이기에 본 것이라 말하기도 뭐하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더 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



3개의 탑이 서 있는 원형 지붕의 산 프란시스코 엘 그란데 성당
원형 천장은 건축가 사바티니의 작품. 유명 화가들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
산 프란시스코 엘 그란데 성당



▲
알무데나 대성당



▲
톨레도 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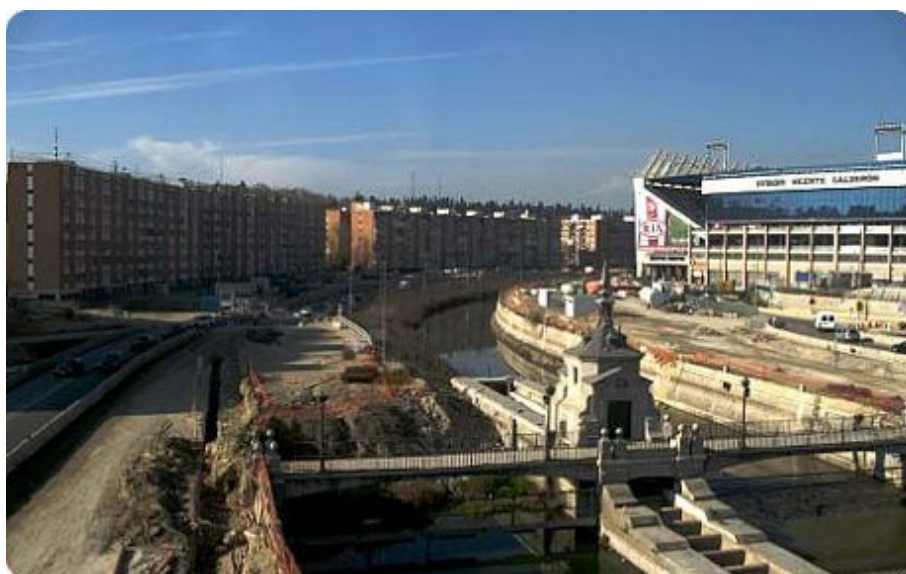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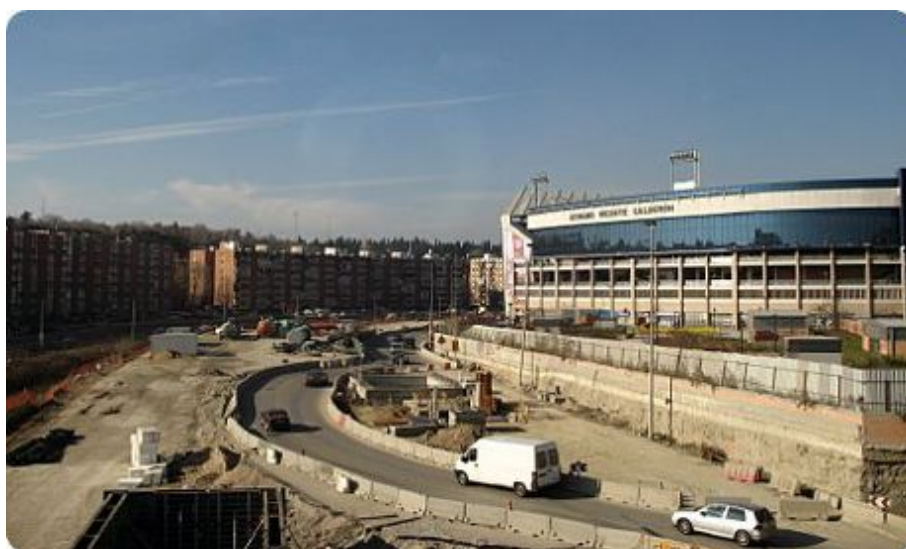
마드리드는 공사중

2012년의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시작한 공사들.

그러나 2012년 올림픽 개최지의 영광은 런던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어찌겠는가 다음을 또 기억해야지.

그리하여 마드리드는 지금도 온통 공사중이다.





79

톨레도가는길

마드리드를 벗어나 한시간여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마드리드 이전, 중세 스페인의 수도였던 **톨레도**이다.

톨레도는 **이슬람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옛도시**로 **엘 그레코**가 많은 명작을 남긴 땅으로도 알려진 곳.

우리는 이 곳 톨레도의 구시가에서 대성당과 엘 그레토가 남긴 걸작이라는 작품을 보게 될 것이다.



마드리드에서 톨레도로 가는 길 중간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그림 같은 마을들



▲
톨레도가 시작된다.





알칸다라 다리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백년쯤 된 음식점이라고 했던가... 얼마나 된 곳인지는 정확치 않아도 아무튼 대를 이어서 하는 음식점으로 오래된 음식점이라 한다.



샐러드와 빠에야, 그리고 와인도 한 잔 곁들인 점심을 먹었다.

80

(톨레도)타호강의 알칸타라 다리에서...

점심을 마치고 레스토랑에서 나온 우리는 레스토랑 바로 앞에 있는 **알칸타라 다리**에서 잠시동안의 자유시간을 즐겼다. 다리 오른쪽에서 다리 왼쪽에서 그리고 다리 위에서 방향을 달리하며 사진 찍기 놀이에 여념이 없다. 강물은 그다지 맑아 보이지 않지만 한 편에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보인다. 여유로운 풍경과 오랜만에 보는 새파란 하늘이 좋다.



알칸타라 다리



알칸타라 다리 위에서



알칸타라 다리에서 본 톨레도 풍경



알칸타라 다리를 배경 삼아







81

(톨레도)하늘에 반하다.(톨레도 구시가지를 내려다보며)

톨레도의 전경을 제일 잘 볼 수 있다는 곳에서 버스가 멈춰선다.

탄성을 지르지 않을수 없는 풍경, 그림이 따로 없다.

그 중에서도 제일 멋진 건 **하늘**, 하늘은 하나인데 보는 곳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이건 분명 **마법**이다.

몽마르트 언덕의 하늘과 프라하의 하늘, 그리고 벨베데레궁에서 본 하늘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평생토록 **톨레도의 하늘**도 잊지 못할 것이다.



▲
구시가 맞은편 쪽 풍경



톨레도의 동, 서, 남 삼면은 타호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의 대부분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요새를 이루고 있다.



왼쪽에는 대성당이 오른쪽에는 알카사르가 하늘과 맞닿을 듯 우뚝 솟아있는 게 보인다.



신이 만든 자연과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의 조화가 만들어낸 풍경



톨레도 구시가의 전경을 가슴에 담고 구시가 속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 다시 이동한다.



▲
산 마르틴 다리를 지나고 있다.



중세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산마르틴 다리



산 마르틴 다리와는 대조적인 모습의 다리를 건넜다.



▲
알폰소 6세 광장



차가 멈췄다. 톨레도의 구시가 앞이다.

82

(톨레도)구시가의 골목을 누비다.

톨레도의 구시가는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있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갈 수 있다.

아마도 이 곳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톨레도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리라.

덕분에 편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구시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란 생각이 든다.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계단도 있으니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

톨레도의 거리는 마치 미로처럼 서로 얽혀 있어 자칫하면 길을 잃기 쉽다고 한다.

우리에겐 가이드가 있어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지만 대신에 미로 속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이 미로 속을 탐험할 수 있었다면 톨레도는 나에게 더욱 더 잊혀지지 않는 곳이 될 수 있었을텐데...



▲ 톨레도 구시가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앞에 보인다.



▲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풍경. 앞에 보이는 높은 건물은 산타 레오카디아 교회이다.



▲ 산타 레오카디아 교회.





▲ 기념품 가게. 돈키호테의 도시인만큼 돈키호테 안형이나 칼과 방패 같은 장식품 등을 많이 판다.
그런데 골롬 인형은 왜 있는거지??



▲ 사방으로 연결된 골목들. 미로 같다는 말이 사실이다.



톨레도 하면 떠올리게 되는 화가는 스페인 회화의 3대 거장 중 한 명인 **엘 그레코**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곳 태생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그리스인**으로 35세 무렵에 스페인으로 오게 되었는데 당시 건축되고 있던 궁전에 장식할 그림을 펠리페2세로부터 주문을 받아 작품을 완성했으나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 펠리페 2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궁정화가로서의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톨레도로 옮겨오게 된 그는 톨레도를 사랑하게 되어 그 후 죽을 때까지 40년동안 이 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톨레도**에 오면 그의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손꼽히는 것은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란 작품이다. 우리는 지금 엘 그레코의 최고의 걸작을 보기 위하여 **산토토메** 성당 앞에 와있다.

그림을 보기 위해 성당으로 들어 서니 이미 한무리의 여행객들이 그림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중이다. 가이드가 동시에 설명을 할 수는 없기에 먼저 성당 내부를 관람하고 앞서 그림을 보고 있는 이들의 관람이 끝나길 기다렸다 그림 앞에 서게 되었다. 그림을 비추는 산토토메 성당의 조명이 어찌나 흐릿하던지 눈에서는 눈물까지 찔끔거려졌지만 성당을 나올 때까지 잠시도 눈을 떼고 싶지 않게 하던 그런 그림이었다.



▲ 산토 토메 성당 앞 (내부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인망이 추겨졌던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 순간, 성 스테파누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날아 내려와 백작의 유체를 묘에 안장했다는 전설에 근거하여 그려졌다. 매장에 참석한 물레도 시민들의 몸을 경계로 천상계와 지상계가 나뉘어져 있다. 비례에 왜곡이 있는 천상계는 펼쳐나 색채 모두 신비스럽다. 백작의 혼은 갓난아기 같은 형태로 천사들에 의해 운반되고 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을 받는 장면이다.

이 작품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죽음을 맞는가에 초점을 맞춰 제작한 작품이다. 그림에서 갑옷을 입은 채 하관되는 인물이 바로 오르가스 백작이다.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성인들을 흠모했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 이렇듯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와 명예-건강을 올바르게 신실한 일에 쓴 그였기에 그가 죽음을 맞았을 때 하늘은 그의 죽음을 아름답게 기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은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성 스테파누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 두 성자를 지상에 내려보내 그들이 망자의 주검을 직접 관에 안치하도록 한 것이다. 황금빛 예복을 입고 주검의 왼편과 오른편을 각각 맡아 관에 누이려는 이들이 바로 성 스테파누스와 성 아우구스티누스다. 예식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문상객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영상에 잠긴 모습으로 이 기적에 감사하고 있다. 그들 위로 구름의 아랫부분과 천사가 보이는데, 이 주제를 그린 다른 대작에서는 죽은 오르가스 백작이 천상에 올라 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죽음으로 존재가 종말을 맞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나아가게 된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가득 담겨 있는 작품인 것이다.

글 출처: <http://blog.naver.com/yejee/130011051988>



▲ 천상계의 모습 - 심판자 예수가 앉아 있는 중앙 발밑에는 마리아와 요한이 죽은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마리아의 등 뒤로는 천국의 열쇠를 든 베드로가 그 아래로는 하프를 든 다윗과 십계명이 적힌 석판을 든 모세, 방주를 앞에 둔 노아가 보인다. 요한 뒤쪽으로 보이는 이들은 성인들이다. 이들은 지금 오르가스 백작을 심판하기 위해 모여있다.



▲ 지상계 - 금색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성 스테파누스이고, 수염을 기른 노인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이며 갑옷을 입은채 하관되고 있는 사람이 오르가스 백작이다. 뒤로는 매장에 참석한 톨레도 시민들의 모습인데 애도하는 제 각각의 얼굴 표정이 눈길을 끈다.



▲ 꼬마 아이는 엘 그레코의 8살짜리 아들로 아이의 주머니 밖으로 빠져나온 손수건에는 아이가 태어난 해인 1587이란 숫자가 쓰여 있다고 한다. (어두워서 그 정도로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 죽음과 삶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아들을 그려넣은 듯...) 성 스테파누스의 옷자락엔 그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가 스테파누스 성인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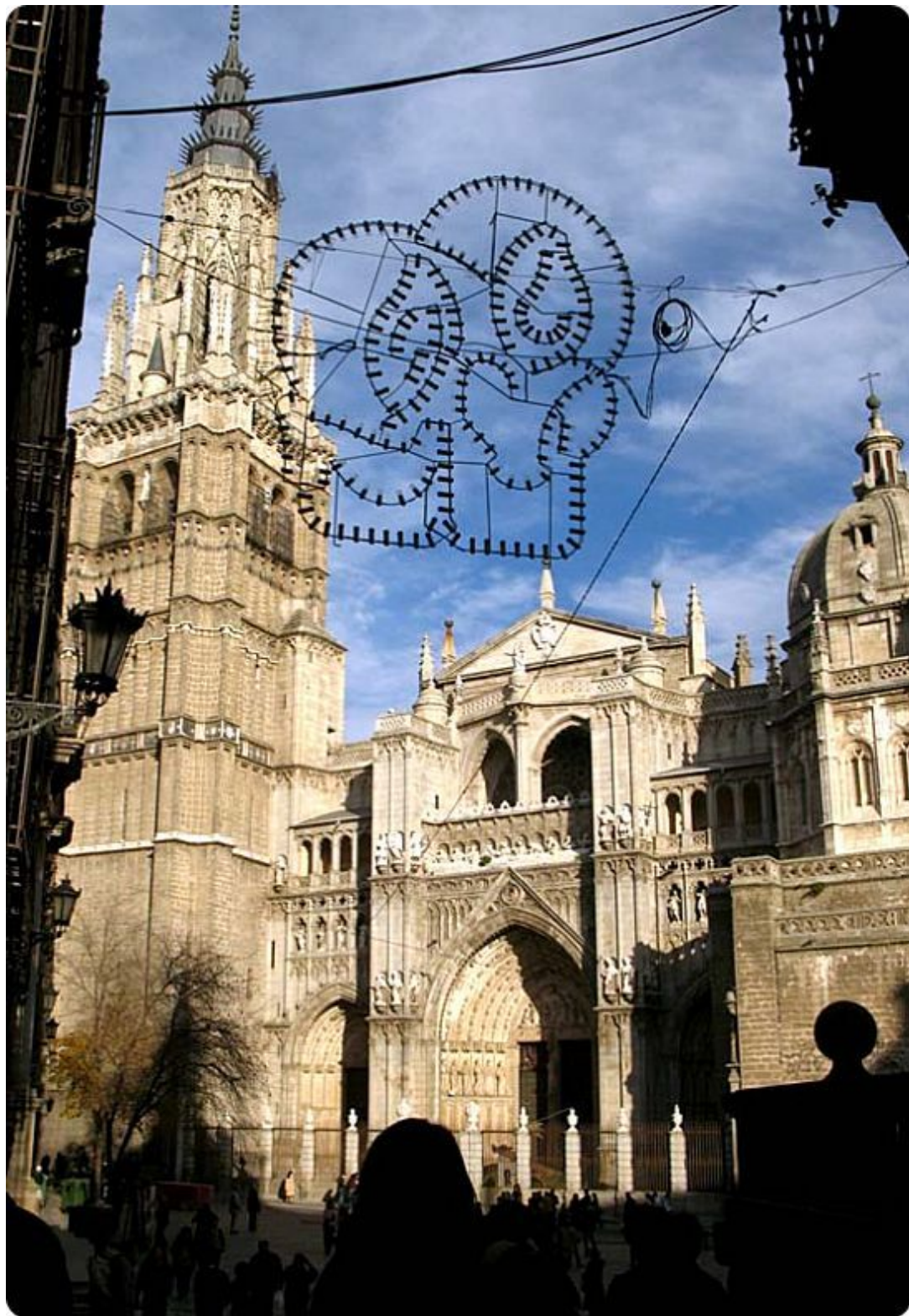




▲ 엘 그레코는 그림 속에 애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모인 애도자들 중 유독 다르게 시선처리가 된 인물이 하나가 있음을 알아챌 수 있다. 모두들 하늘을 바라보거나 시신을 바라보거나 어쨌든 이 백작의 매장에 관심을 보이는 시선들이나 한 명만은 그들과는 달리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엘 그레코이다.

산토 토메 성당에서 나와 골목을 몇개 더 지나니 작은 골목 사이로 우뚝 솟아 있는 건물이 눈에 확 들어 온다. 스페인 카톨릭의 총본산인 **톨레도 대성당** (Catedral de Toledo)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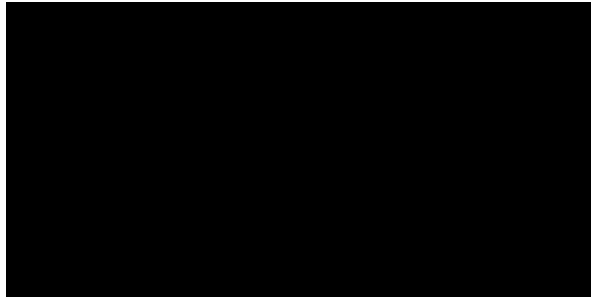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댔는데 광각 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라면 몰라도 나의 카메라로는 도저히 그 형체를 한번에 다 잡을 수가 없다. 그만큼 크다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세계 네번째 규모란다. 고딕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지어진 대성당은 외관은 간결하나 내부는 종유석 동굴처럼 섬세한 조각들로 장식돼 있으며 수많은 종교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기독교들은 이슬람 세력하에 있던 톨레도를 되찾은 후 수도로 삼았고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 이 대성당을 지었다.



면죄의 문 상단에는 최후의 만찬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
톨레도 대성당에는 예배당이 22개 있으며 굵은 기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1〉 성가대실 - 3면의 벽 상부에는 대리석 조각의 성인상을, 하부에는 호두나무 성인상을 비치해 놓았으며 정면 중앙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치해 놓았다. 커다란 파이프 오르간은 벽에서 돌출하게 만들어 놓았고 정면 입구에는 예수님을 앉힌 성모상을 안치해 놓았는데 이 성모상은 보통의 다른 성모상과는 달리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며 성가대석 나무의자에는 그라나다 정복 전쟁의 54개 장면이 조각되어 있다.



〈2〉 마요르 예배당 - 황금색 제단이 호화찬란하기 그지없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조각품에다 도금을 한 것이라는데 금빛이 너무나 찬란해 눈이 부실 정도다. 중앙에 있는 성모상과 아기예수상은 은으로 만든 것이고 제일 높은 곳에는 십자가를 진 예수상이 안치되어 있다.

제단뒷면은 18세기 나르시스토마에 의해서 조각된 것으로 수많은 천사상과 함께 아래는 성모상과 예수님의 상이, 중간에는 4명의 천사상이, 제일 위에는 최후의 만찬이, 그 위에는 십자가를 든 예수상이 안치되어있다.



대성당 중앙의 제단에는 유럽 각지에서 온 장인들이 조각한 수백개의 동상이 서있다.



〈3〉 성구실 - 엘 그레코의 성의의 박탈, 고야, 벨라스케스, 반 데이크 등 많은 작가들의 크고 작은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미술관 같은 느낌을 준다.







〈4〉 의상실- 중세 성직자들이 입었던 옷과 종교용품 등이 전시되어있는데 그중에서도 주교들의 황금 옷은 붉고 푸르고 노란 바탕에 갖가지 수를 놓은 것이 호화롭기 그지없다.



〈5〉 보물실 - 이 성당에서 가장 비싼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 무게 180kg, 높이 3m의 금은 보석 으로 제작된 성체현시대가 전시되어 있으며 금으로 만든 십자가에 산호로 예수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각종 보석을 장식한 황금왕관, 황금 거울, 금으로 인쇄한

성경책 등도 있다.





〈6〉 성직자실 - 무데하르 양식의 성직자실에 들어서면 금빛 무늬 찬란한 아름다운 천정 때문에 놀라게 된다. 벽의 아래쪽은 역대 주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위에는 나체상의 대형그림이 그려져 있다. . 정면의 위에는 천국의 예수상이, 중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래에는 지옥의 나체상과 악마가 그려져 있다.

무데하르 양식은 그리스도교 지배 아래 있던 이슬람교도들이 만들어낸 양식으로 벽돌이나 석고를 사용해 섬세한 장식을 한 공간이 무데하르 양식의 큰 특징이며 모사라베 양식은 무데하르 양식과는 반대로 이슬람교 지배 아래에서 아랍화된 그리스도교의 건축 양식이다.





1936년

스페인 내란 당시 프랑코파의 주둔지로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이 굳게 버티며 인민 전선군과 격전을 벌였던 곳이라는 알카사르 요새.
내부 관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만 몇장 올려 본다.



전망대에서 본 알카사르





여러번의 전쟁으로 파괴되었으나 재건하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현재도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군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7.01.06

Ranee in Toledo

-톨레도 특산품 구경-



톨레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본 **소꼬도베르 광장**.

톨레도 최대의 변화가로 톨레도의 중심이다.

해가 기울고 광장에서는 서서히 어둠이 찾아오고... 양상한 나뭇가지들이 치장을 시작했다.



비사그라문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도시 톨레도.

구시가로 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인 비사그라 문(Puerta de Bisagra)이다.

1550년 카를로스 1세가 톨레도에 입성할 때 세운 문인데 정면에는 합스부르크 가의 문장이 있다.

비사그라문 이외에 무데하르 양식의 태양의 문도 있는데 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다.



반짝이는 금은 공예품은 톨레도의 전통 공예 가운데 하나로 기본적인 기념품인데 **상감 세공**으로 만들었다.

사진으로 다시 보니 저렴한 걸로 하나쯤 사올걸 그랬나 싶기도 하다.



▲
야드로

정교한 수제 인형인데 발렌시아의 야드로 삼형제가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포셀린 아트라고 한다.
인형의 표정이 다양하다.

값이 원낙 비싸서 멀찌감치서 바라 보기만 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지 팻말에는 한글도 써있다.



▲
돈키호테를 연상케 하는 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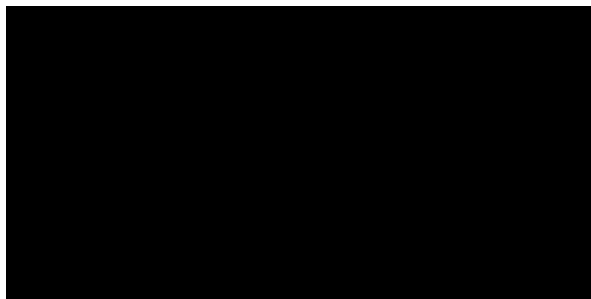
사봤자 공항에서 통과가 안된다고 한다.

나는 뭐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톨레도하면 뭐니 뭐니 해도 돈키호테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 돈키호테를 한국에 데리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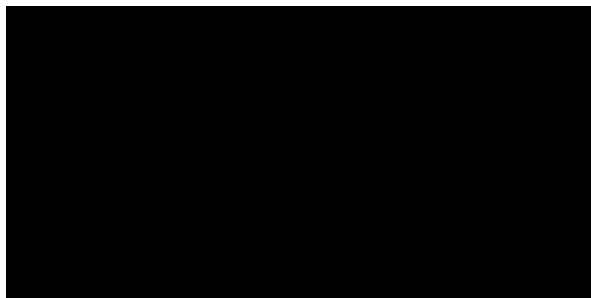
톨레도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마드리드를 되돌아 오는 길, 가슴 속 한켠이 채워진 느낌이다.

작지만 멋진도시 톨레도, 아디오스~

2007.01.06

Ranee in Madrid

리스본의 야경과 마드리드의 야경
서로 견줄만 하다.
멋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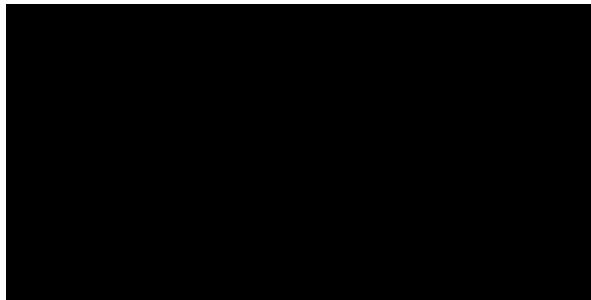
88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2007.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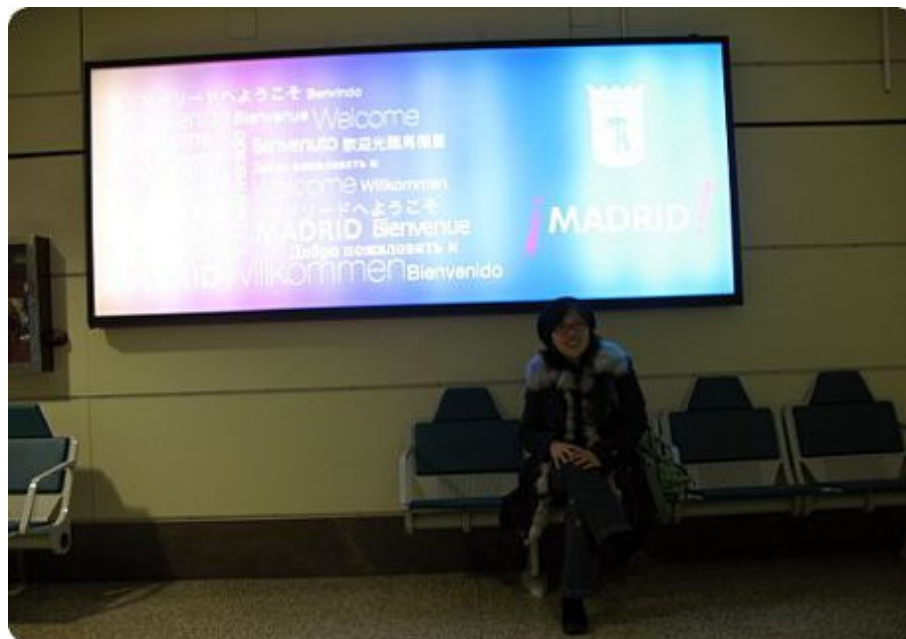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는 비행기로 이동한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가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에 도착하던 날 이곳 마드리드 바라하스 공항에서는 바스크 분리주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테러가 있었다고 했다. 그 곳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거다. 지난번 여행 때도 우리가 런던 공항에서 출발하고 한 시간 뒤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생각해 보니 목숨을 내놓고 여행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아 밖은 아직 어스름한 기운이 남아 있다.



워낙 일찍 서두른 탓에 비행기에 탑승할 시각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 있다.
 일행들은 어디론가 뿔뿔히 흩어지고 보이지 않는다. 커피라도 한 잔들 하시나 보다.
 나는 게이트 앞에서 탑승 시각까지 암전히 기다리기로 했다.



이제 마드리드를 떠나야 할 시각,



마드리드가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아마 마드리드에 다시 올 일은 없겠지.

마드리드여~ 영원히 안녕.





바르셀로나가 발아래로 내려다 보인다.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가우디 때문에 나는 또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한다.



바르셀로나 공항에 비행기가 무사히 내려 앉았다.



바르셀로나...이제 시작이다.
많을 것을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눈 크게 뜨고 볼테니 기다리렴.

공 항에서 얼마를 달려 왔을까, 글썄..이삼십분쯤??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리 오래 달리진 않은 것 같은데 **스페인 광장**이 보인다.

사실 사진은 찍고 있었지만 인터넷에서 이러한 사진을 본 적이 없기에 난 아직도 여기가 스페인 광장인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 사진을 통해 눈에 익은 2개의 기둥을 보기 전까진...



▲
스페인 광장. 뒤로 보이는 원형 건물은 **아레나스 투우장**이다.



저 2개의 기둥(?)을 보며 알았다.
여기가 사진 속에 자주 등장하는 그 곳이라는 걸.
물론 이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몬주익 언덕에서 찍은 사진만이 넘쳐나는데...



▲
 몬주의 언덕을 향하여 크리스티나 거리를 달리고 있다.
 스페인 광장이 점점 멀어져 간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90

(바르셀로나) 마법을 볼 수 없는 마법의 분수



스페인 광장에서 몬주익 언덕을 향해 가다 보면 도로 중앙에 있는 분수대를 발견할 수 있다. 여름 주말 밤이면 색색가지 레이저 광선을 받은 물줄기가 클래식 음악에 맞춰 다채로운 모양을 그리는 환상적인 쇼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모습이 마법의 세계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들만큼 멋진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마법도 볼 수 없었고 볼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사진으로라도 감상하자.

문주의 언덕의 **까탈루냐 미술관** 앞이다.

이 곳에 온 목적은 미술관 관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셀로나 전경을 보기 위해서다.

사진 속에서 늘 보아왔던 **바르셀로나 시가지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가슴 속까지 시원하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풍경이 오히려 낯설다는 느낌이다.

서울의 남산에서 시내를 바라보는 있다는 착각이 들정도.

유럽의 느낌은 뭐니뭐니 해도 한 무리의 빨간 지붕과 드문드문 섞여 있는 연초록 둥근 지붕들(성당들)이 조화롭게 섞여있는 모습, 혹은 알바 이신 지구와 같은 모습들이 제 맛 아닐까 싶다.(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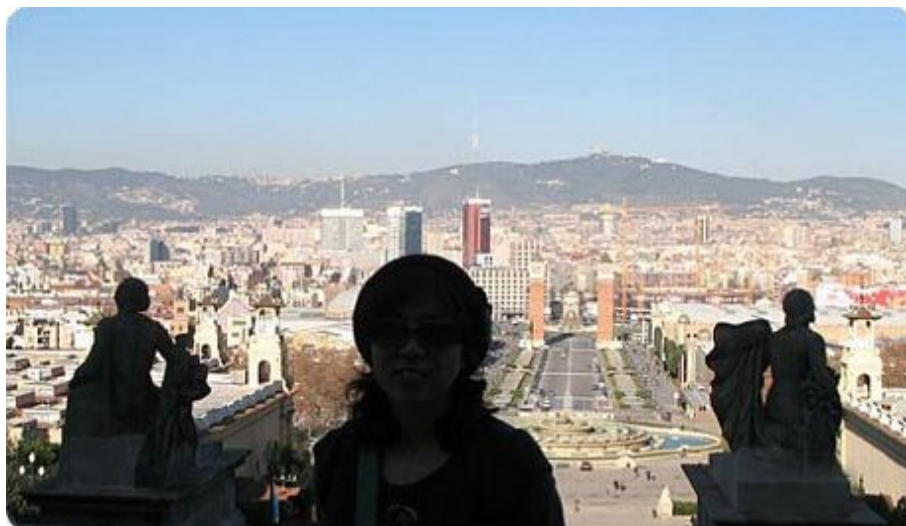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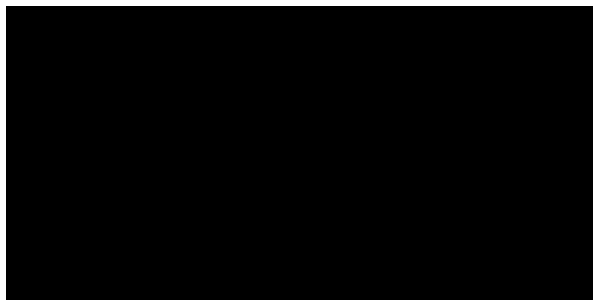
▲ 까탈루냐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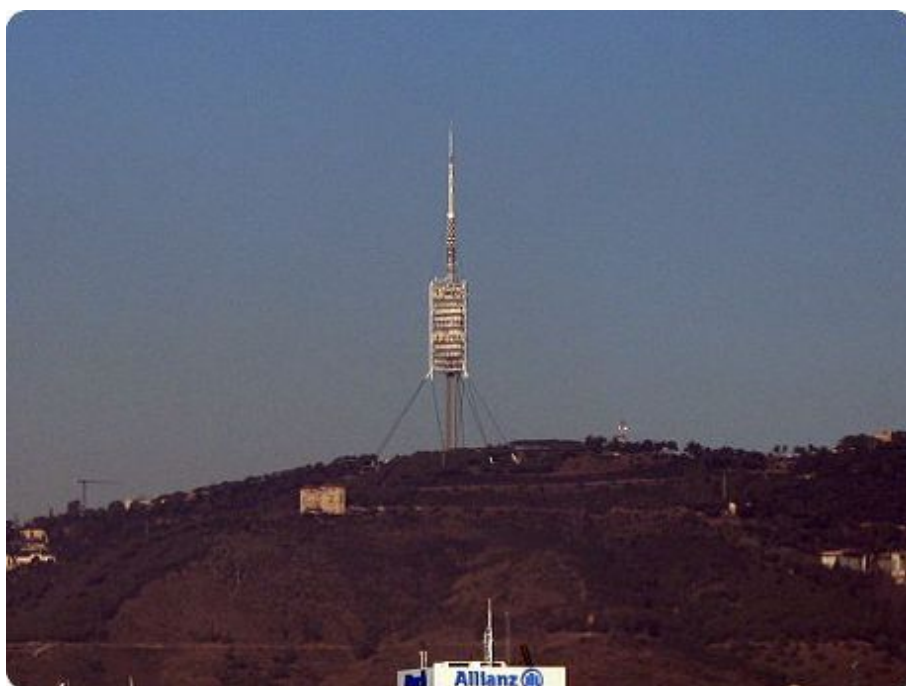
▲ 한 눈에 보이는 시가지



▲ 여기서는 분수대도 잘 보인다.



▲ 증명 사진도 한 장 남기고.



▲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거라고 하던데.....??



카탈루냐 미술관 뒤쪽 지역에는 1992년 개최된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 경기장**과 기념공원 등이 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에게 남다른 올림픽이다.

서울올림픽 다음으로 열렸던 올림픽이어서이기도 하지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올림픽이기 때문.

지금은 비록 텅 비어있는 경기장이지만 그 때 그 순간의 감격을 이 곳에서 떠올려 본다.



바르셀로나 올림픽경기장

몬주익(Montjuïc) 언덕에 있는 이 경기장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개막전과 폐막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기가 열린 곳으로 우리의 황영조 선수가 2시간 13분 23초로 골인하여 월계관을 머리에 쓴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하다.



증명 사진은 남겼으나 설명이 없다면 여기가 바르셀로나 경기장임을 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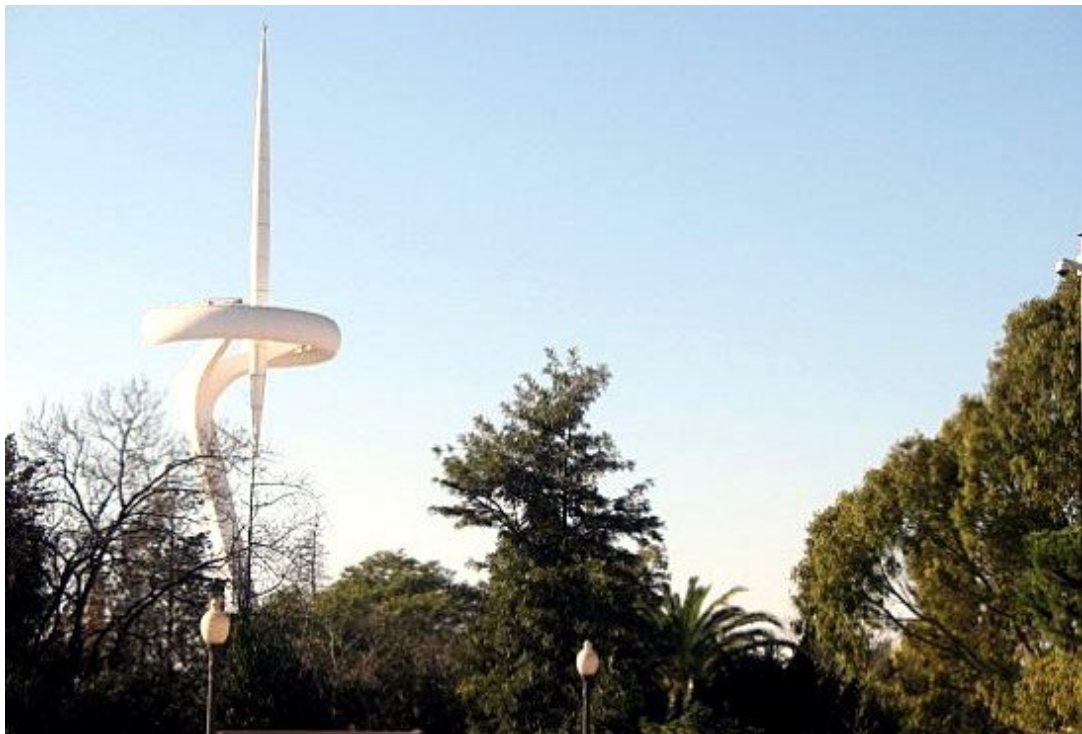
경기장 부근에는 황영조 기념공원이 있다. 힘차게 달리는 포즈의 저 남자가 과연 황영조 선수가 맞나 싶게
 황영조 선수랑 닮은 구석은 없어 보이지만... ㅎㅎ





경기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이 곳에 환영조 조형물을 설치한 것.





몬주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타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건축적 유산에서 그러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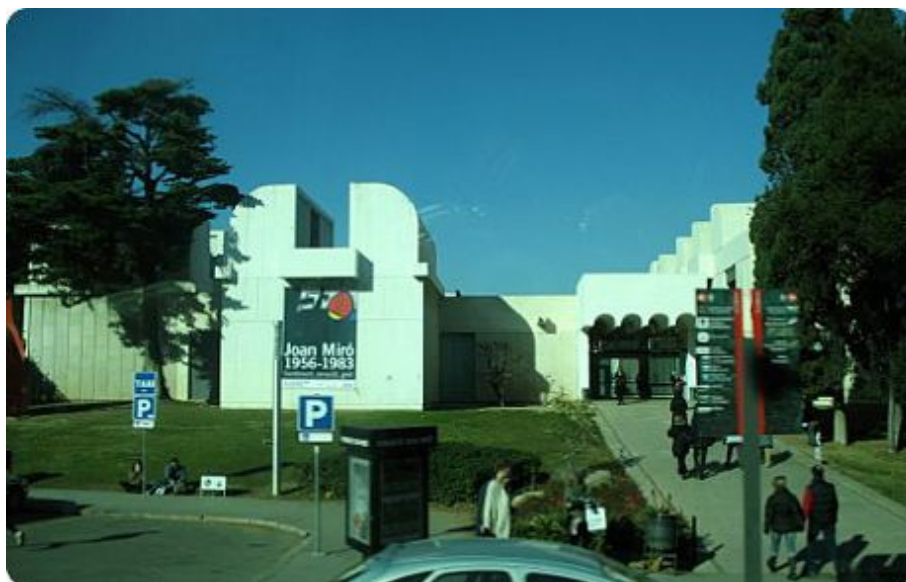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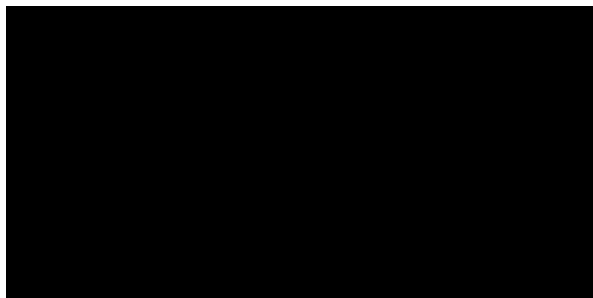
몬주의 텔레커뮤니케이션 타워는 올림픽 경기 방송을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실용적인 건축물로, 오늘날까지 카탈로니아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고 있다.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1951년생)는 고도로 창조적인 디자인과 공학 기술을 결합해 조형미가 강조된 건축물을 만들어냈다.

하늘 높이 치솟은 136m의 구조물은 인간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칼라트라바의 예술가로서의 노련함을 보여 주고 있다.

타워 꼭대기의 원호에는 전송 접시가 숨겨져 있으며 타워 자체는 대형 해식메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기능 적이고 앙름다운 이 거대한 구조물은 올림픽 경기에 걸맞는 건축물이었으며 바르셀로나에 세워진 또 하나의 놀라운 절충적 건축물이 되었다.

-죽기 전에 봐야할 세계 건축 1001에서 부분 발췌-



스타디움에서 조금 내려가면 미로 미술관이 나온다.

93

바르셀로나 해안을 따라...

몬주익 언덕에서 내려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중.

지중해..요트..야자수

하나같이 낭만적인 단어들 아니던가.



야자수와 종려나무가 구분이 안될 때가 있다.

왼쪽 것은 야자수 오른쪽 것은 종려나무 맞나??...

키가 크면 야자수 같고 덩어리를 이룬 누런꽃이 달렸으면 종려나무고...뭐 이 정도...ㅋㅋ





이것도 꽤 유명세 있는 조형물이라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1888년

바르셀로나 박람회 당시 카탈루냐와 미국 교역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졌다는 바르셀로나의 상징 콜럼버스탑.
기념탑 위에는 전망대가 있어 바르셀로나 시가지를 내려다 볼 수 있다지만 우리에게겐 그림의 떡일 뿐이다.



▲
포르탈 데 라 파우 광장의 콜럼버스 기념탑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념탑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사람들





바르셀로나 포르탈 데 라 파우 광장에 우뚝 솟아 있는 콜럼버스 기념탑.
이탈리아 태생의 탐험가였고 포르투갈이 주 활동 무대였으나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그는 이제 여왕과 함께 기념탑 위에 서 있다.



높이 60m의 정상에는 7.5m나 되는 콜럼버스상이 서서 오른손으로 바다를 가리키고 있다.



콜럼버스타프 주변의 건물. 해양 박물관인 것 같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빌린 사진 (사진 출처: <http://blog.naver.com/2lili/20002890103>)

95

바르셀로나 고딱지구에서...

어느새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

오늘의 점심은 올리브 소스의 샐러드, 마카로니 케첩 볶음, 생선구이, 후식....

물론 배부르고 맛있었다.



빵 먹는 법도 배웠다. 빵에 올리브 기름을 뿌리고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뿌려 뜯어 먹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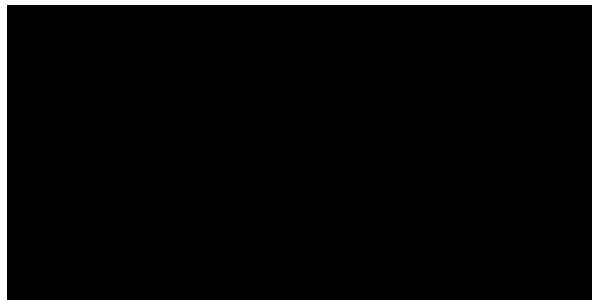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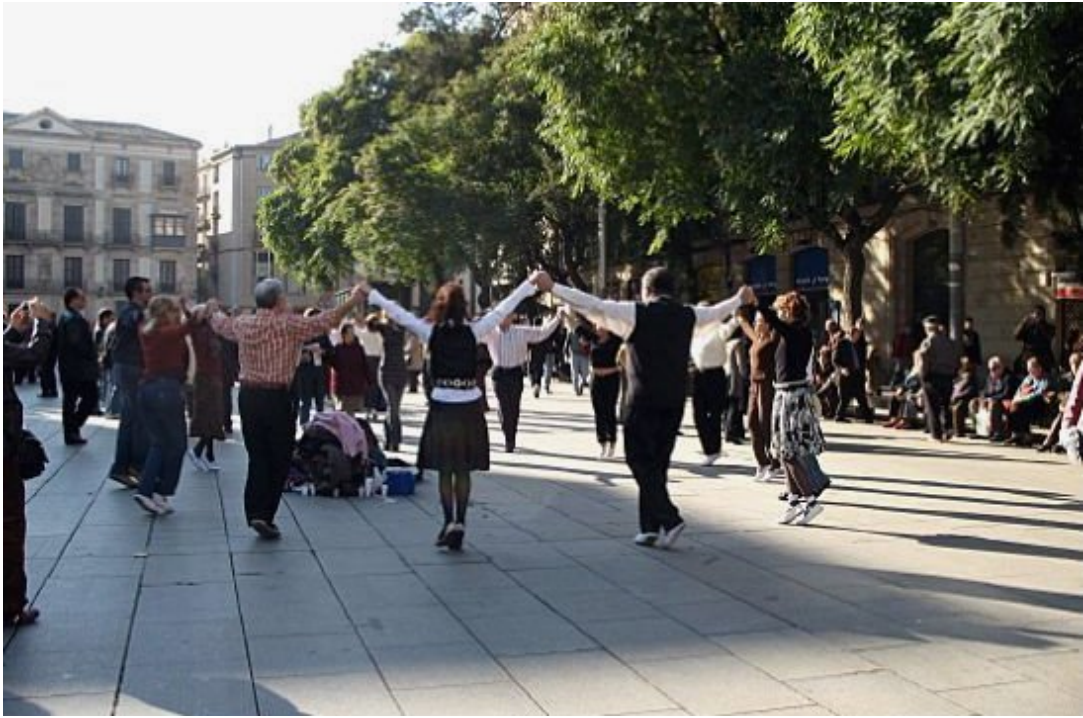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와 주변을 조금 걷다 보니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린다.

당연히 음악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볼 수 밖에.

"어라!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고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거기? "

카테드랄이 있는 광장에선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정오에 사람들이 모여 **사르다나**라는 춤을 춘다고 하더니 이 춤이 바로 그 춤인가 보다. 오늘은 마침 일요일. 운 좋게 **사르다나**를 구경할 수 있었던 거다. 마드리드 왕궁에서도 운이 좋더니..^^* 하지만 카테드랄은 공사중이라 볼 수 없었다.



사람들 뒤로 있는 것은 카테드랄인데 카테드랄은 이 고딕지구의 상징이라고 한다.
안타깝지만 공사중이니 PASS~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급한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난 걸 보면 앰블런스 같은데 사람들이 춤을 추던 광장 쪽으로 향한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태연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별 일 아닌가 보다.



광장의 왼쪽으로 카테드랄의 지붕이 보인다.





고딕지구의 건축물. 뒤로 카테드랄의 지붕이 보이는데 이 건축물은 뭘까. 로마시대 유적쯤???



모데르니سم 건축 양식이 돋보이는 **모누멘탈** 투우장은 바르셀로나에선 유일하게 투우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하지만 2008년부터 바르셀로나에선 투우가 없어진다고 하니 이 곳에서 투우를 볼 날도 얼마 안남은 듯하다.

스페인의 타지방과는 달리 이곳 카탈루냐 지방의 시민들은 투우경기를 반대한다. 따라서 카탈루냐 제 1의 도시 바셀로나는 2004년도에 "안티-투우-도시"를 선언했고 바셀로나시의 부시장은 모누멘탈 투우장을 판매장으로 개축하겠다고 의견을 내었었다.

바셀로나에는 3개의 투우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몇년 전에 철거되었고, 하나는 상가로 개축중이다.

카탈루냐지방의 시민들이 투우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스페인 고유**"라고 하는 풍습을 버리고 "**카탈루냐 고유**"의 전통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카탈루냐는 16세기 이전 스페인 왕국이 들어서기 전까진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던 독립된 왕국이었으나 스페인 왕국이 들어서면서부터 공식적인 카탈루냐어 교육은 금지되고 카탈루냐의 문화도 점점 퇴색되면서 독립성을 잃어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말부터 사라지는 카탈루냐의 언어와 카탈루냐 문화를 되살리고자 하는 카탈루냐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카탈루냐 사람들은 스페인어가 아닌 카탈루냐어를 쓰게 되었다. 카탈루냐인들은 자신들을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국민이 아닌 카탈루냐라는 나라의 한 국민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마드리드와는 양속관계로 우리 나라의 지역 감정쯤은 덜 것도 아니라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시합이 있었을 때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우리나라를 응원했다고 하니 그 관계가 어떤건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모데르니스모 건축: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걸쳐 유럽에서 일어난 예술부흥운동.

섬세한 곡선을 많이 쓰는 등의 새로운 경향으로 프랑스에서는 아르 누보, 스페인에서는 모데르니스모라 불린다. 신흥 부르주아를 기반으로 한 건축 분야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졌고 이슬람 미술과 고딕 미술을 절충한 무데하르 양식이 채택된 것이 특징이며 도메네크, 가우디, 푸치를 중심으로 장식성이 강한 독창적인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



좀 과장된 말이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공공연히 바르셀로나는 가우디가 먹여 살리는 도시라는 말을 하곤 한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일게다.

'천재적인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가우디, 그의 작품을 곳곳에 품고 있는 도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 가면 그 무엇보다도 천재 건축가였던 가우디의 작품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돌아보는 게 나의 소원이었지만 이번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바르셀로나를 다시 찾게 된다면 그건 순전히 가우디 때문이 될 것이며 나는 그런 날이 꼭 오길 희망하고 있다.



<http://blog.daum.net/mr5864>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수난의 파사드(해가 지는 서쪽) 앞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성 가족 성당) .

사그라다 파밀리아(El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ilia)란 요셉, 마리아, 예수로 이루어진 '성가족'을 뜻하며, 이 교회 자체가 돌에 새긴 성서라고도 할 수 있다.

성 가족 성당은 가난한 신자들의 민간단체인 '산 호세 협회'에 의해 1882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성당이다. 초대 건축가 바야르가 사임하면서

1891년부터 안토니오 가우디가 건축에 참가하였으며 가우디 사후인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완의 성당이다.

구조는 크게 3개의 **파사드**(건축물의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우디가 죽을 때까지 완성된 파사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축하는 '**탄생**'의 파사드뿐이다. 나머지 두 개의 파사드는 '**수난**'과 '**영광**'의 파사드인데 그 중 '수난'의 파사드는 1976년에 완성되었다. 3개의 파사드에는 각각 4개씩해서 총 **12개**의 탑이 세워지는데, 각각의 탑은 **12명의 사도**(제자)를 상징하며 모두 100m가 넘는다. 또 중앙 돔 외에 **성모마리아**를 상징하는 높이 140m의 첨탑이 세워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앙 돔의 높이는 170m 정도가 될 것이다. 재료는 석재인데, 가우디가 죽은 뒤 1952년까지는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1953년부터 건축을 재개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그 뒤에는 석재 대신 인조 석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탑의 모양은 옥수수처럼 생겼고, 내부의 둥근 천장은 나무처럼 생긴 기둥이 떠받치고 있으며 천장은 별을 닮은 기하학적 무늬로 가득 차 있다.

건축에 필요한 자금은 후원자들의 기부금만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완성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100년이 더 걸릴 거란 이도 있고 200년이 걸릴 거란 이도 있다.)

지하 예배당은 현재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성당 건축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우리가 현재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하 성당과 '**탄생**'의 파사드, '**수난**'의 파사드 그리고 8개의 종탑이다.



▲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탄생의 파사드 (해가 뜨는 동쪽)



성당 앞 기념품 가게에서 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모형 (완성됐을 경우의 모습)

1.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탄생의 파사드 (동쪽)
2.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수난의 파사드 (서쪽)
3.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영광의 파사드 (남쪽)
4.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북쪽 모습 (북쪽에는 파사드가 없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3개의 파사드 중 가우디 생전에 완성한 유일한 파사드인 **탄생의 파사드**.

예쁘고 화려한 유럽의 중세 성당들에만 익숙해 있던 나는,

제일 처음 사진 속에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솔직히 '멋있다'는 생각보단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탄생의 파사드 앞에 서서 사진 속의 모습이 아닌 그 실체와 마주했을 때의 느낌은....?

글쎄...그것 또한 단순히 '멋있다'라는 느낌과는 다른 것이었는데,

경외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등등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며 그저 감탄하기에 바빴던 것 같다.

'가우디란 사람, 정말 어떤 사람인가?'

안생길래야 안생길 수 없는 궁금증.

그래서 나는 요즘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동쪽 "탄생"의 파사드

" 동쪽에 세워질 파사드는 **예수의 탄생, 유년기, 청년기**를 기념하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사드의 세 입구에는 해당 시기의 모습이 표현되겠지요. 파사드의 중앙은 **이 세상에 신이 나타나신 것을 상징하는 조각**이 표현될 것입니다. **3인의 성 가족 주위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천사들이** 둘러 싸게 됩니다. 한편 입구 부분 근처에는 **동방 세 박사가 드린 예배와 목동들의 예배가 표현될** 것입니다.

양쪽 입구에는 성모마리아와 요셉, 예수의 유년기 장면이 표현되고 이 윗 부분의 회랑에는 성 가족의 생애와 광명의 상이 놓여질 것입니다. 세 개의 입구 윗 부분은 신앙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상징물이 장식됩니다.

- 성 요셉 신앙인협회 평의회 회원들에게 설명한 가우디의 구상 중-



'탄생' 정면의 '사랑의 문' 위 부분에는 비둘기가 조각되어 있으며 또한 뱀, 달팽이 등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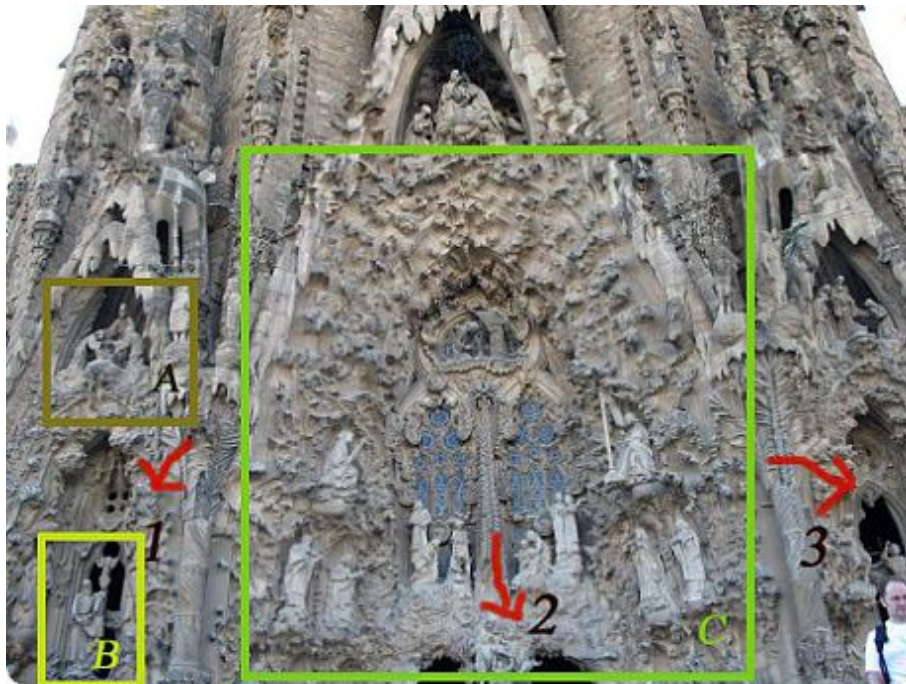
(아무리 카탈루냐의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성당에 뱀을 조각한다는 것은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납득이 잘 안된다.)

'탄생'의 탑의 끝은 사교의 상징인 십자가, 반지, 관, 지팡이가 디자인 되어 있고 종이 달려 있어 장엄한 음색이 울려 퍼지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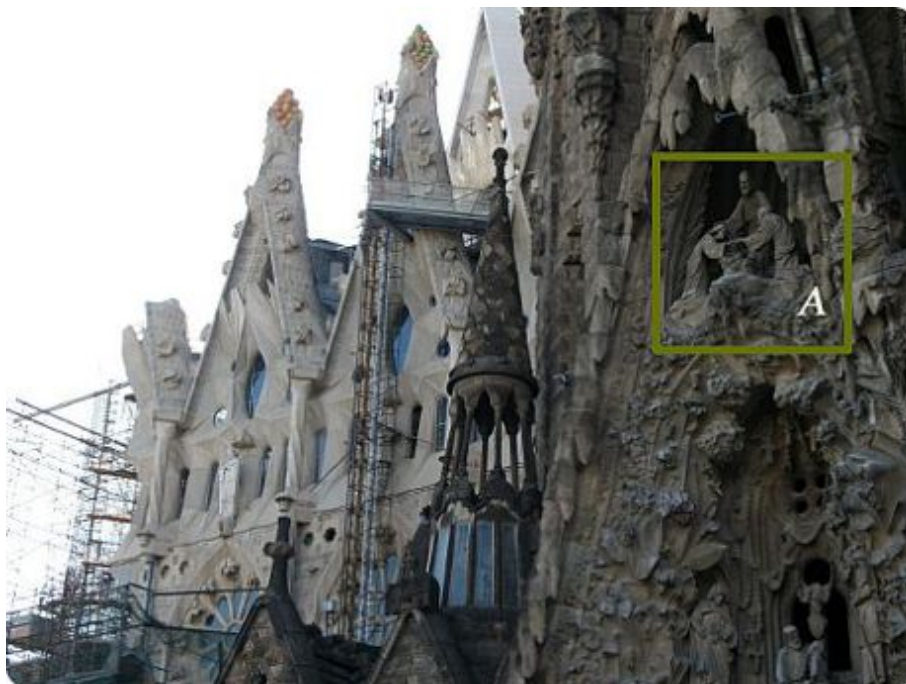


탄생의 파사드의 3개의 입구

- 건축물의 앞면인 탄생의 파사드에는 3개의 입구가 있고 각각의 입구에는 예수의 탄생, 유년기, 청년기를 나타내는 조각들이 있다.



1번(왼쪽)입구 - 성모마리아와 요셉, 예수의 유년기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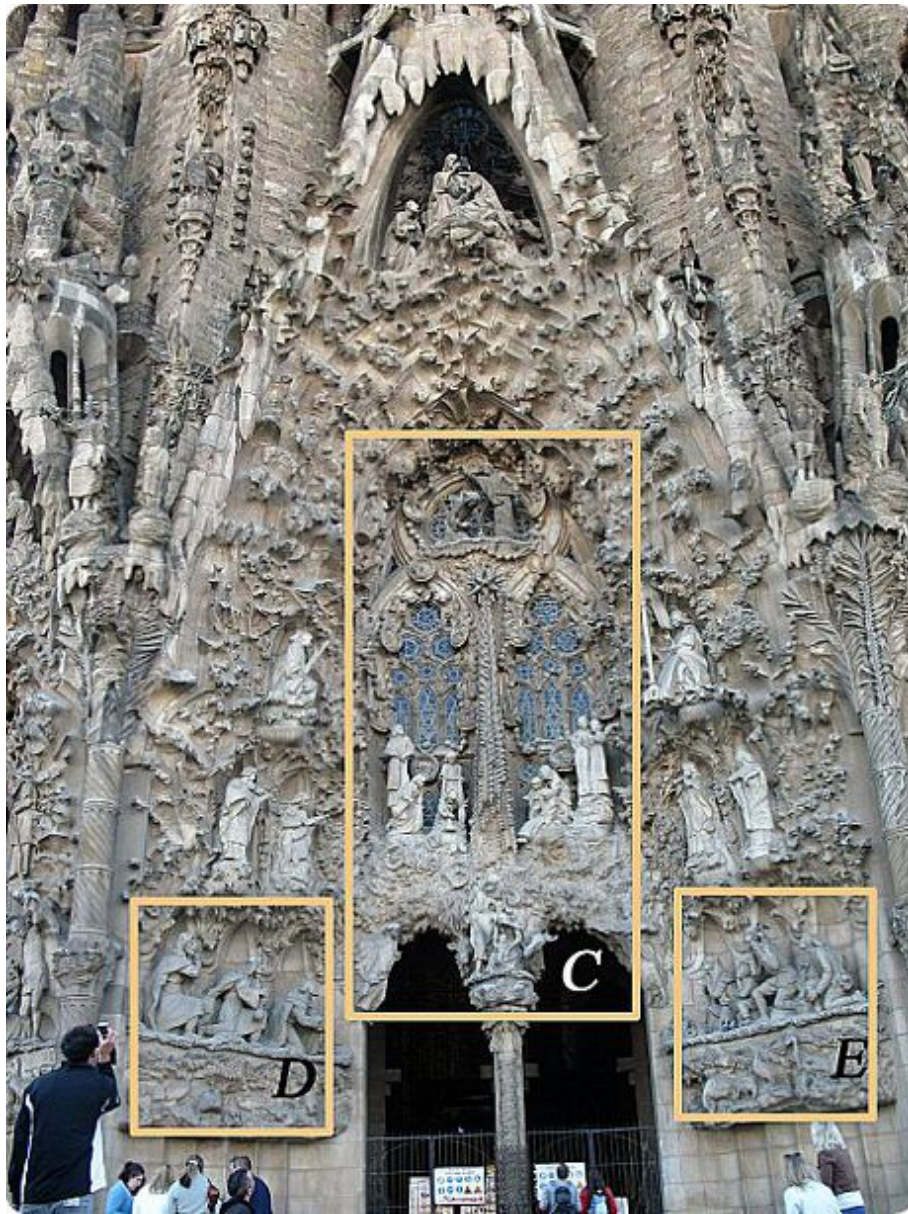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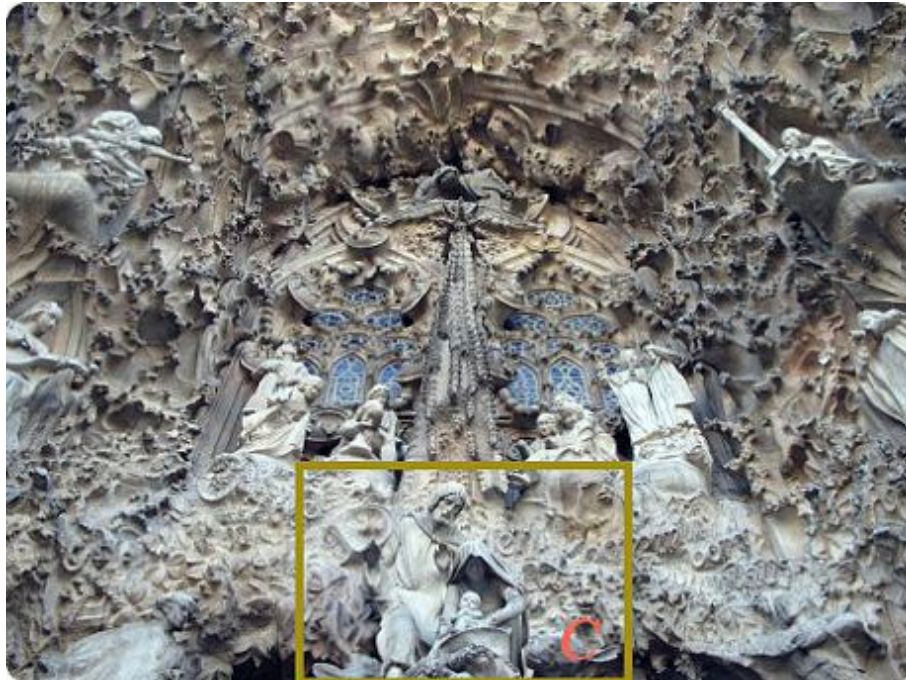
2번(가운데)입구의 윗부분



2번(가운데)입구 - 예수 탄생 부분



▲
탄생의 파사드에는 수태고지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동방 세 박사가 드린 예배



목동들의 예배



3번(오른쪽)입구 - 성모마리아와 요셉, 예수 유년기(청년기) 장면





아직도 한 창 공사중인 입구와 내부가 보인다.



99

(바르셀로나)사그라다파밀리아의"수난의문"

탄생의 파사드 반대쪽에 있는 **수난의 파사드**.

탄생의 파사드는 분명 가우디 생전에 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우디가 설계했음을 의심치 않을 것이나 수난의 파사드는 정말 가우디가 설계한대로 완성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분명 직선을 혐오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수난의 파사드는 온통 직선 투성이. 그래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의 탄생의 파사드와는 달리 매우 차가워 보이는 느낌이다. '수난'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날카롭고 차가운 직선 사용했던 것일까. 아무튼 매우 현대적이고 강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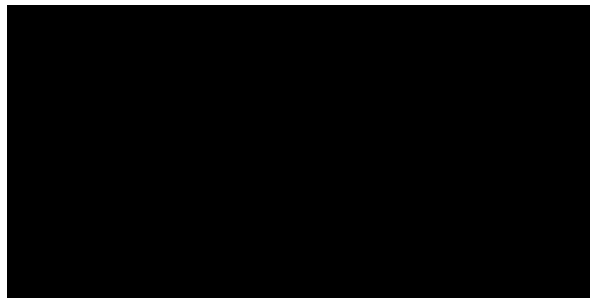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서쪽 "수난"의 파사드

서쪽에 세워질 파사드는 예수의 승리를 의미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부터 책형을 받는 모습의 상까지 '그리스도의 수난'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책형 군상은 중앙 입구의 가운데에** 세워집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상에 예수가 인생의 진리, 희생, 고통을 의미하는 '베리타스(진리)' 라는 글자가 새겨질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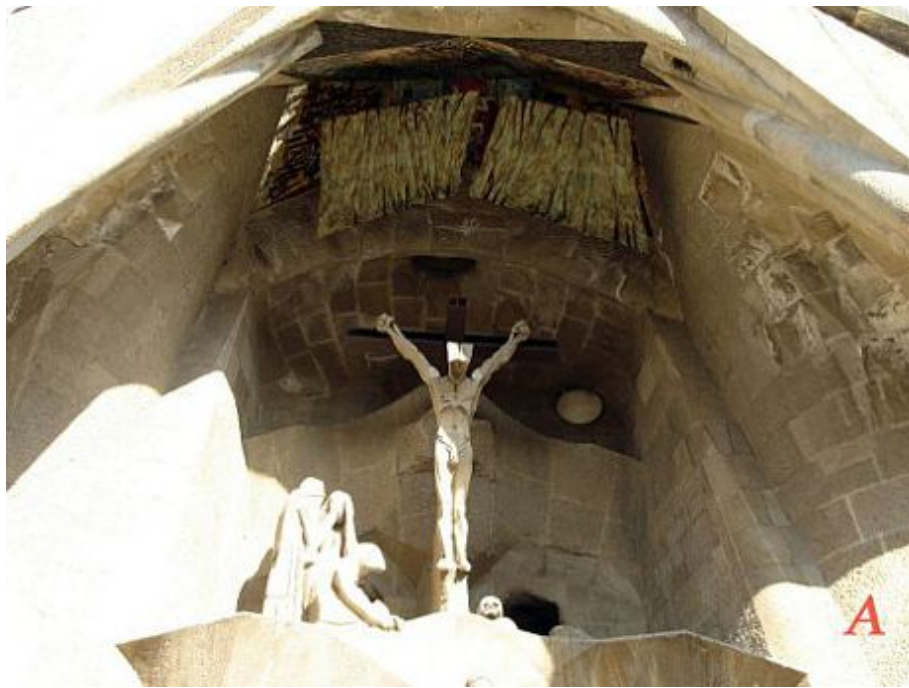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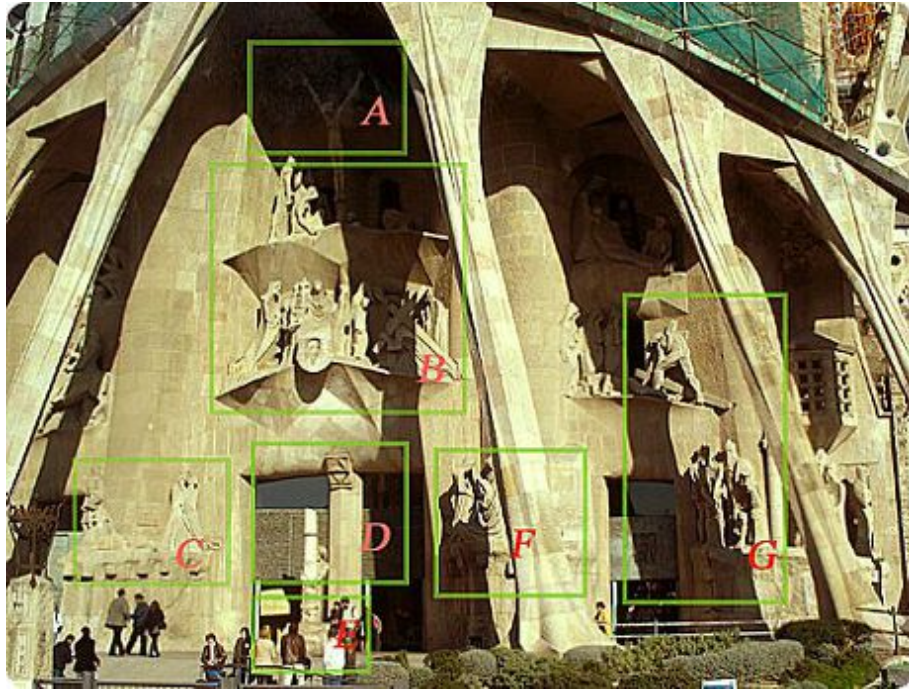
그리고 여러 장면에는 겸허와 사랑의 의미를 함축한 '비타(인생)' 라는 글자가 들어갈 것 이고 각각의 내용에 적합한 기명을 넣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사랑 그 자체이며 사랑이 없는 인생은 불가능 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은 인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파사드 위에는 '최후의 만찬'을, 그위에는 '갯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조각할 것 입니다. 또한 세계의 장식은 양각 기법으로 비극적인 장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정면의 포르치코는 지붕이 덮혀지고 그 위쪽으로는 회랑이 만들어지며 페디멘트 양쪽에 '유다의 라이오'와 '신비의 새끼 양'을 조각 할 것입니다. 회랑의 내부에는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원의 주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수한 영혼을 표현 할 것 입니다. 회랑 양쪽 옆으로는 지옥 입구에서 족장과 예언자들이 서있는 모습을 장식합니다. 회랑 안 쪽에는 부활해 주인이 없는 인상적인 빈무덤이 놓여질 것입니다. 회랑 날개부분의 꼭대기에는 예수의 성스러운 이름이 쓰여지고 신구약 성서의 비유를 뜻하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성스러운 십자가를 장식합니다.

- 성 요셉 신앙인협회 평의회 회원들에게 설명한 가우디의 구상 중-



수난의 파사드에 조각된 조각들은 1980년대 말 조셉 마리아 수비라크스라는 사람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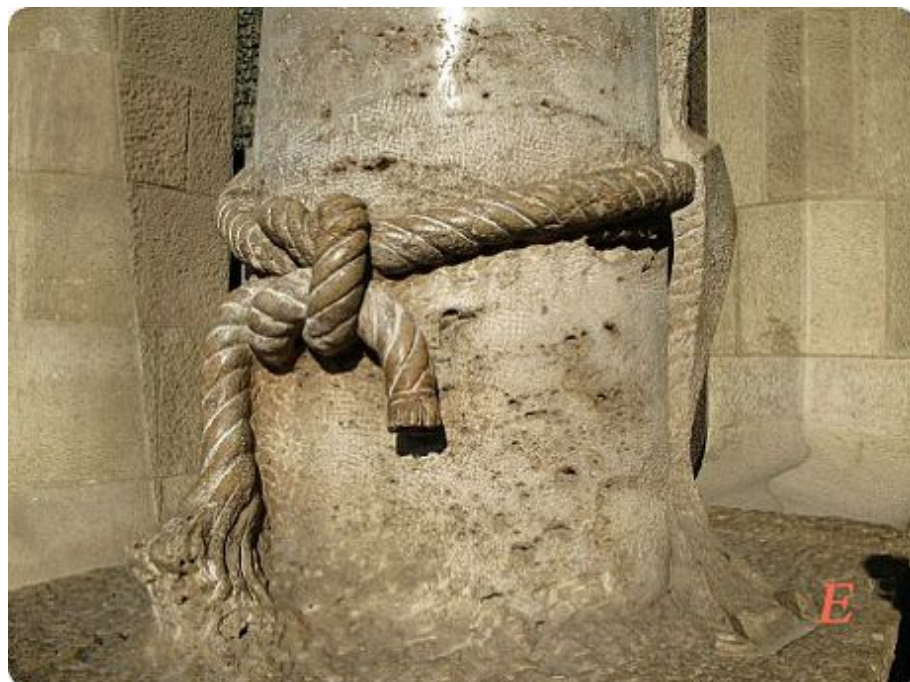


'수난의 문'의 파사드에는 성서의 한 장면 '최후의 만찬'이 조각되어 있다.



마방진 - 뒤에 보이는 숫자는 어떤 방법으로 숫자들을 더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힌 나이인 33이 나오는 배열이라고 한다.









탑에 쓰여진 Sanctus, Sanctus, Sanctus(성스럽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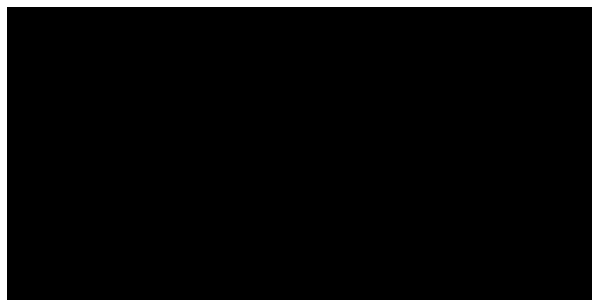
100

(바르셀로나)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의 내부

성당의 외부는 크레인이 있긴 해도 공사를 진행 중인 인부들이 눈에 띄지 않아 정말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한건가 싶은 의문이 들었는데 성당의 내부로 들어서니 성당 안은 정말로 온통 공사판이다.



내부의 둥근 천장은 나무처럼 생긴 기둥이 떠받치고 있으며 천장은 별을 닮은 기하학적 무늬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나뭇잎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숲의 이미지로 설계된 중랑.
원주는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약간 기울어 있다.



가우디가 일일이 추를 실에 달아 무게 중심을 찾아서 설계했다는 기둥과 천장 장식



커다란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 오는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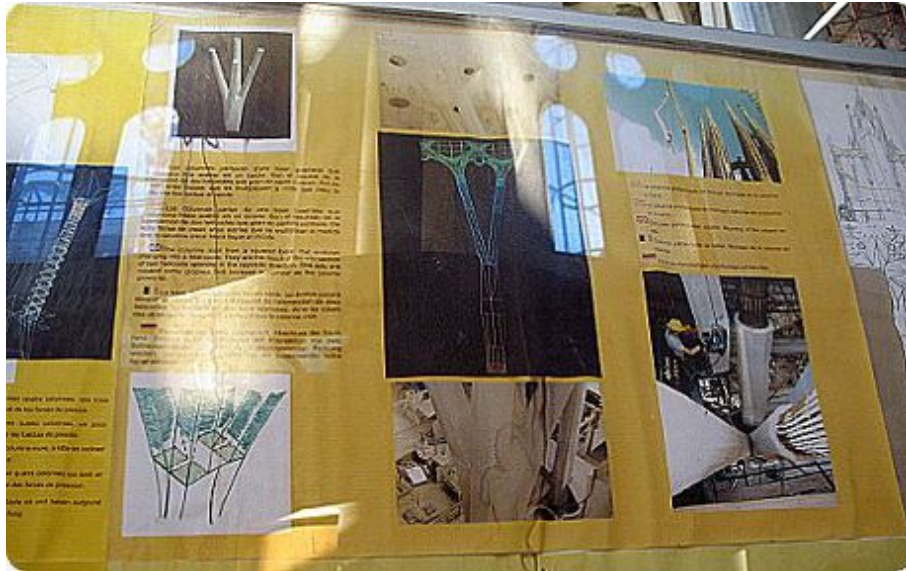


'탄생'의 나선형 계단. 위에서 아래로 보면 달팽이처럼 보인다고 한다.
나선과 소용돌이는 가우디 건축의 모티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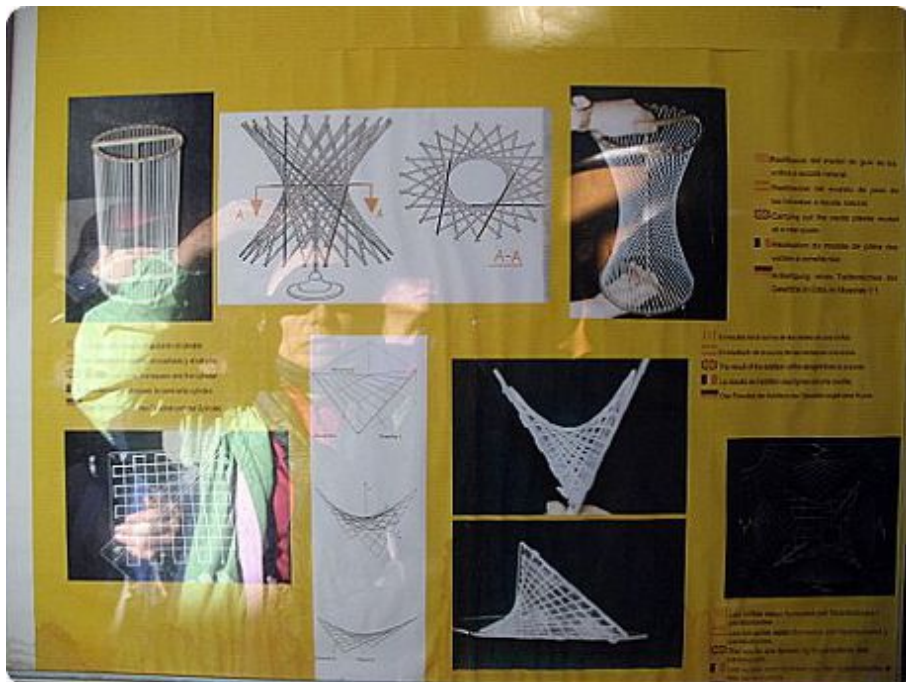


가우디는 자연에서 얻은 모티브를 인위적인 건축물에 적용해서 독창적인 그만의 건축물을 탄생시켰다.





성당의 곳곳에 쓰인 디자인은 자연에서 따왔음을 알 수 있다.



라니의 여행앨범3(이집트, 스페인)

블로그

Voyager

<http://blog.daum.net/mirolove>

저자

㉠anee(라니)

발행일

2013.01.13 19:29:07

 블로그